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창립('13.11.7) 기념 창간호

4·3의

진정한 희생자능!

1 집 (창간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제주4.3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첫 시도로서 ‘4·3의 진정한 희생자는!’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7일 창립식을 가진 이후 두 달여 만에 발간되는 제주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우리 유족회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간난의 산고 끝에 발간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 ‘4·3의 진정한 희생자!’에는 제주4.3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주4.3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나 제주4.3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하나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제주4.3을 보면서 4.3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시원한 낭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3의 진정한 희생자!’에서는 4.3정부보고서의 왜곡 부분을 하나씩 짚어 나갈 것이며, 4.3평화재단과 4.3평화공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4.3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채록한 증언을 기록하여 그 동안 감추어졌던 4.3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4·3정립 연구·유족회
공동대표 **이동해**



4.3유족 분들이나 4.3을 체험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좋고 어떠한 목격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언과 제보가 왜곡된 제주4.3을 바로잡는 씨알이 될 것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제주4.3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를 세우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밝아오는 갑오년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우뚝 서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4·3정립 연구 · 유족회 창립 선언문

제주4·3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역사이다.

제주4·3은 일부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며 4·3유족회의 소유물도 아니다.

제주4·3에는 우리가 상기하여야 할 진실과 교훈이 들어있다.

제주4·3은 왜곡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 정파의 이익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경화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 되었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추념 받아서는 안 될 위패들이 모셔져 있고, 제주4·3평화재단은 편향 인사들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4·3정부보고서는 4·3의 핵심이자 본질인 성격규정이 안 된 반쪽짜리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왜곡과 날조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역주행하는 제주4·3의 행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4·3의 피해자가 어찌 그들뿐이며 4·3의 주인이 어찌 그들뿐이던가. 4·3을 이용하는 자 그 누구이며 4·3을 왜곡하는 자 그 누구이던가. 우리는 왜곡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에게는 정당한 역사를 돌려주고, 진정한 피해자들에게는 진정한 추념일을 돌려주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기약하고자 한다.

- 진실한 4·3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유족들을 규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해 나아가겠다.
-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긍정의 역사로 규정하고 제주4·3의 민중항쟁 주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4·4·3의 진정한 희생자들!

- 대한민국 건국 희생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추념하며,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선량한 도민에 대한 신원과 추념 및 보상에 적극 노력한다.
- 왜곡된 4·3정부보고서를 수정할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 반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4·3주동자들의 희생자 결정에 반대한다.
- 4·3희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은 4·3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명한 후에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한 4·3사건의 개시일인 4월3일을 국가추념일 날짜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 제주4·3평화재단의 독선적, 편향적 인사 정책을 반대한다.
- 제주도 최대 비극인 4·3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4·3관련단체들의 정치세력화에 반대한다.
- 우리는 화해와 상생을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통렬한 반성 위에 출발하면서, 제주4·3에 대한 좌익의 과오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제주4·3을 바로잡을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세력으로서 이 단체를 창립하는 바이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제주도민 만세!

2013. 11. 7

목 차 Contents

- 책을 내면서 공동대표 이동해 / 2
- 제주4·3연구·유족회 창립 선언문 4

제1장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4·3 진상조사보고서는 폐기,

새로 작성해야 한다

1. 제주4·3사건 인명피해 재검토김영중 / 10
2. '오라리 사건'의 진실 김동일 / 24
3. 4·3 희생자 선정 기준 논란과 결정 장승홍 / 50
4. 폭도들의 잔인한 폭력과 테러 편집자 / 74
5. 폭도, 인민해방군의 규모 이광후 / 97
6. 폭도들은 일본군이 남긴 무기 사용 편집자 / 114

제2장 4·3 희생자 가운데 누가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인가!

1. 희생자에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책자에서 발췌) 편집자 / 126
2.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희생자로 등재(증언록)..... 편집자 / 131
3. 4·3과 무관한 월북자와 생존자까지 희생자로 둔갑 편집자 / 153

제3장 미래세대를 위한 올곧은 말

- 제주 4·3사건과 정치 이데올로기..... 현길언 / 160
- ‘제주 4·3’과 ‘제주 4·3사건’ 권희영 / 171
- 내가 겪은 제주 4·3 송봉규 / 186
- 경찰 재직 14년의 회고..... 정남두 / 194
- 四·三事件 변승규 / 214

제4장 지역별 마을 원로들의 증언록 / 221

- 편집후기..... 352

제 1 장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4·3진상조사보고서는 폐기, 새로 작성해야 한다

1. 제주 4·3사건 인명피해 재검토
2. '오라리 사건'의 진실
3. 4·3희생자 선정기준 논란
4. 폭도들의 잔인한 폭력과 테러
5. 폭도, 인민해방군의 규모
6. 폭도들은 일본군이 남긴 무기 사용

정부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정치권력과 이념의 편중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이 왜곡된 보고서를 정사(正史)로 고착(固着)화 하여 세계에 알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역사의 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4·3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召命)이다.

1. 제주 4·3사건 인명피해 재검토

- 김 영 중 전, 제주경찰서장

1. 서언

제주4·3사건은 제주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참극이다.

1948년 4월 3일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이후 국회에서 또는 제주도의회나 관련단체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한 일이 있었지만 정치적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분적이고 일회성에 그쳤었다.

그 후 민주화가 이뤄지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자연적으로 4·3인명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 경험세대 거의가 사망했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4·19, 5·16, 6·10 등 정치적 변혁기와 특히 6·25남침전쟁은 재판기록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를 사라지게 했다. 그 결과 4·3인명피해 내용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기존 추정치를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 검증 없이 반복 인용함으로써 확대과장 된 것이 정설화 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정리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 발행「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마저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이제 제5차 신고까지 마친 마당에 이르렀으니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명피해 규모를 확정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2. 4 · 3인명 피해에 대한 주장들

4·3인명피해는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부정확한 인구 통계 등을 인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재민 수를 사망자 수로 잘못 인용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정부보고서마저도 피해를 너무 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와 최대 간의 편차를 5천 명이나 두는 등 막연한 추정치를 제시한 상태이다.

가. 정부보고서

1) 기록별 인명피해 숫자¹⁾

숫 자		언급시기	언급주체	전 거	비고
희생자	이재민				
15,000		49.2.15	스위니 신부	미대사관 문서	
20,000		49.3	연합신문	연합신문 49.3.14	
	64,378	49.3	도민대표 6명	동아일보 49.3.12	
15,000		49.3	주한미육군사령부	주한미육군사령부보고 49.4.1	
17,000		49.4.2	LA한인들	LA한인들이 트루먼대통령에게 보낸 제안서 49.4.2	
15,000		49.4.10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49.4.10	
15,000		49.5	미군사고문단	미대사관문서 49.5.18	
	7만여	49.5.17	장기영	국무회의록 49.5.17	
40,000		49.6	김영진 특과원	경향신문 49.6.28	
30,000		49.6	제주도 당국	조선중앙일보 49.6.28	인구 282,942(46년) 250,400(49년)
29,702	97,703	49.9	서울신문	서울신문 49.9.1	
30,000	8만	49.9	서재권	신천지 49.9월호	
30,000		50.2.10	김충희 도지사	국무총리실서류 50.2.10	
27,719	78,534	50.4	김용하 도지사	미대사관문서 50.5.23	
60,000		52.9.27	라이언 신부	라이언의서한 52.9.27	
27,719		53.	제주도청	제주도세일람	
65,000		60.5.30	고담룡 국회의원	제주신보 60.5.31	
5만~6만		60.7	고창무	조선일보 60.7.17	
4만~5만		61.1.26	김성숙 국회의원	조선일보 61.1.2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9년부터 1961년까지 12년 동안 17개의 통계를 제시했다. 4·3이 평정된 직후의 기록임에도 이처럼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65,000명까지 무려 5만 명이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소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2) 정부보고서

정부보고서는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²⁾

이는 그동안 4·3특위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4·3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심의 결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과장됐음을 알 수 있다.

나. 제주도교육청 4·3교육자료³⁾

제주도교육청이 중·고생 교육용으로 발행한「만화로 보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에는 정부보고서보다 더 부풀려진 15,000~65,000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2항 가 1)에 명시된 자료를 인용한 듯하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정부보고서에서 추정한 25,000~30,000명을 무시하고, 무비판적으로 5만 명이나 편차가 나는 참고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 교육 자료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직접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되었다.

지적 비판능력이 모자라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보고서 내용 이상을 제시하는 것도 옳지 못한 처사이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더욱 아니 되는 것으로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남로당 자료

남로당 기관잡지「근로자」제1호(1950. 1. 15.)에 이승엽이 기고한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유격투쟁’ 제하의 제주4·3관련 기사에 ‘3만 이상의 애국적 인민들이

살육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했다.

필자가 아는 한 30,000명 피해설을 최초로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묘하게도 이승엽이 주장한 3만명설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좌파들은 물론 정부보고서에도 (25,000~)3만명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현실은 이 3만명 모두를 토벌대가 학살하였다고 주장, 홍보, 교육하고 있으니 큰 문제이다. 1,729명을 살해한 남로당인민유격대의 만행은 완전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 이외에 남로당의 자료 중 30,000명설은 1950년 7월 이기석의『인민』에 기고한 글 중에도 나와 있다.⁴⁾

라. 기타

1) 신상준 박사의 4·3사건으로 인한 전체 인명손실 추정⁵⁾

신상준 박사는 그의 저서「제주도4·3사건」에서,

당시 국내 언론 보도, 미군정보고서, 남로당 기록, 국회 질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인구통계와 인구자연증감율, 월북 또는 해외도피자, 행불자 등 모든 요인들을 전제한 후 4·3특위가 2000~2001년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집계한 통계치가.....14,028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 해당자 중 2/3가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사망자(및 행방불명자 포함)는 21,042명이 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여러 자료를 함께 고려할 때 제주도 4·3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및 행방불명자 포함)는 2만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2) 「신동아」 1988년 7월호 오성찬 소설가 기고문에는 80,000명

3) 1990년 8월 6일 한길사가 펴낸 조정래의「태백산맥」제5권 94쪽에는 '제주도에서 우리보다 앞서 죽어간 팔만의 혁명동지들과 혁명인민들의 고귀하고 거룩한 죽음을.....'이라 하고, 제8권 권두 '작가의 말'에는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이다'라고 명기하여 이 소설이 픽션이 아니라 사실기록임을 강조해, 4·3인명피해 8만명설을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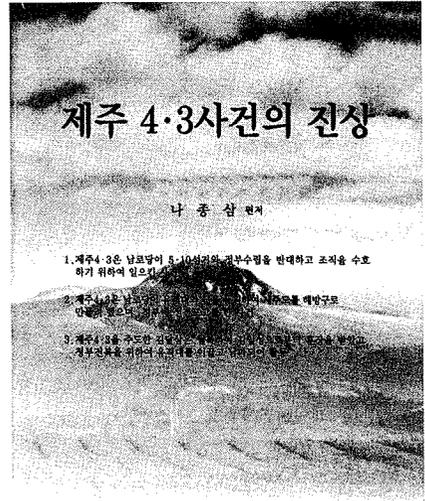
중·고·대학생들에게 각인시킨 셈이다.

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제주도4·3피해조사1차보고서」⁶⁾

이 보고서에는 모두 6개의 인명피해설과 출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8천~9천명설 ② 27,729명설 ③ 3만여명
~4만여명설 ④ 5만여명~6만여명설 ⑤ 7만~8
만여명설 ⑥ 김봉현의「제주도 혈의 역사」에
나온 7만여 명 설 등을 소개했다.

5) 4·3특위전문위원 출신인 나종삼은
15,000~16,000명⁷⁾

이 통계는 편차가 1천 명 정도로서 사실에
가장 근접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아성사

이외에 많은 기록들이 있으나 생략한다.

3. 4·3사건 인명피해 신고 접수

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 접수

1) 1993년 3월 20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994년 2월 7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4월 1일 4·3조사요원 17명을 위촉하여 각 읍·면·동·리별로 체계적인 조사와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5년 5월「제주도4·3피해조사 1차보고서」가 나왔다.

그 후 조사와 신고접수를 계속하여 1997년 1월「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수정증보판」이 발행되었고, 2000년 1월「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2차 수정증보판」이 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0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 피해조사현황

- 지역별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 외
1차 보고서 (1995. 5.)	10,581	2,898	1,001	3,915	2,767	
수정 증보판 (1997. 1.)	11,665	3,157	1,151	4,315	3,037	5
2차 수정 증보판 (2000. 1.)	12,243	3,384	1,197	4,523	3,133	6

- 가해자별

구 분	계	토벌대	무장대	기타	분류불능
1차 보고서	10,581	8,909	1,065	141	466
수정 증보판	11,665	9,674	1,314	164	513
2차 수정 증보판	12,243	10,277	1,353	209	404

2) 4·3특별법에 의한 신고 접수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의 신고 접수 업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피해 신고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0년 6월 8일부터 제1차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2013년 2월 28일까지 다섯 차례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접수하였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장장 19년 간 신고접수를 받은 셈이다.

4. 4·3희생자 신고 접수와 희생자 심의결정 상황⁸⁾

구 분	희 생 자						유족
	계	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소 계	15,100	10,729	3,920	207	244	32,403	
실무위 신고 및 접수	제1차 00.6.8~01.1.4	13,138	9,704	3,315	119		28,231
	제2차 01.3.2~01.5.30	888	632	240	16		1,009
	제3차 04.1.1~04.3.31	347	227	77	43		714
	제5차 07.6.1~07.11.30	727	166	288	29	244	2,449
실무위	중복 또는 철회	933	544	355	5	29	1,029
	심 사	14,167	10,185	3,565	202	215	31,374

심사 소위	중복 또는 철회	85	39	44	2		105
	심 사	14,082	10,146	3,521	200	215	31,269
중앙위	소 계	14,082	10,146	3,521	200	215	31,269
	인 정	14,032	10,144	3,518	156	214	31,258
	불 인 정	49	2	2	44	1	14
	철회	1		1			2

※ 제5차 신고(2012.12.1~2013.2.28)접수자 383명 제외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3특별법에 의한 신고는 2000년 2월 8일부터 도 내 전 행정기관과 도의회, 동·리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육지부와 일본에 까지 접수처를 개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11월 30일까지 7년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신고를 접수하였다.

여기에는 1994년 2월 7일부터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시작한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 자료가 기초자료로 제공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4차 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신고자는 15,100명(사망자 10,729, 행불자 3,920, 후유장애자 207, 수형자 244)이고, 이를 1단계 제주도4·3실무위원회와 2단계 4·3특위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3단계 인 4·3특위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4·3희생자는 총 14,032명(사망자 10,144, 행불자 3,518, 후유장애자 156, 수형자 214)이다.

앞으로 제5차 신고자 383명에 대한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필자가 2013년 6월 24일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4·3사업소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에는 이날 현재 후유장애자 156명 중 생존자 129명을 제외한 13,903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연할 것은, 위에 설명한 4·3희생자 신고 접수와 희생자 심의결정상황 표에 나타난, 수형인으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자는 214명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3월 14일 제12차 4·3특위에서 사형수 무기수 등 중형자 868명을 희생자로 결정했으니 이것만 합쳐도 1,082명이다.

따라서 사형 무기수가 희생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보다 가벼운 수형자는 당연히 희생자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니 수형인들은 거의가 희생자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확한 내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가. 정부보고서

정부보고서는 제2차 신고기간까지(2001. 5. 30)의 실적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9)

- 신고자 지역별 접수현황

계	제주도	도 외			
		소계	국내	일본	미국
14,028	13,391	637	576	57	4

- 가해자별

계	토벌대	무장대	기타	공란
14,028	10,955	1,764	43	1,266

※ 제5차 신고 접수 현황10)

신고 접수 기간	계	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공란
12.12.1~13.2.28	383	161	126	38	58	28,627

제5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 설정문제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4·3유족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 요구를 받아드려 3개월 동안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누락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제주4·3평화재단 등에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불원간 확인될 것이다.

여기서 추가 조사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신고누락자 중에는 토벌대에 의해 피해당하고서도 연고자가 없어 누락된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민유격대에 의해 살해된 유족이 위패봉안실을 보고나서, '자기 부모를 직접 살해한 폭도 옆에 나의 부모 위패를 모실 수 없다.'고 신고를 기피한 사람도 꽤 있으니 이것도 공정하게 조사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잘못 결정된 자도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아무튼 제5차 신고 접수자 383명 모두를 희생자로 심의 결정한다 해도 희생자 수는 14,415명, 여기에 신고 누락자를 더하고,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자연사한 사람, 월북하거나 일본 도피자, 심지어 생존자도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으니, 4·3과 관련 없는 사망자를 상쇄하면 15,000명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희생자로 결정된 자가 희생자인가를 검증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4·3특별법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2007.1.24.신설)

신기한 것은 4·3민중항쟁설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비밀주의자이다. 항쟁이라면 그 업적을 널리 홍보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도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감추며 입을 틀어막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4·3주동자들의 행적이 지고지순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요, 희생자 신고와 심사가 엉터리라는 얘기이며, 민중항쟁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3이 민중항쟁이라면 폭동반란 주동자는 공산통일혁명전사자(戰死者)이지 4·3희생자는 아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4·3특위가 최종 심사 결정한 통계와 정부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 25,000~30,000명을 비교해 보면 10,000~15,000명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희생자 수를 부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과가 이러할진데 앞으로 정부보고서나 제주4·3에 관한 각종 학술지, 교육 홍보 자료 및 언론 보도에는 4·3특위에서 심사결정된 4·3희생자 수를 근거로 하여 15,000여명으로 사용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보고서 1차보고서 수정의견 접수 때부터 필자가 일관되게 주장한 바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 결정한 사실을 완전 무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4·3왜곡이고 과장이다.

나. 가해유형별 인명피해¹¹⁾

계	토벌대	인민유격대(무장대)	기타
14,032	11,849	1,729	454

※ 정부보고서에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1,764명으로 나와 있는데 35명이 축소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주4·3의 주체는 남로당이고 남로당인민해방군(이와 다른 이름은 폭도, 공비, 산사람, 인민군, 빨치산, 유격대, 게리라, 자위대, 괴한, 무장대 등이 있다)에 의해 살해된 1,729명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도 많다. 그들이 세력권 하에서 저질러진 고문과 살해방법도 지극히 잔인하였다. 토벌대에 의한 피해보다 수적(數的)으로 적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다.

그런데 각종 보고서나 세미나와 교육자료, 선전홍보물 등에는 남로당의 실체와 만행은 단 한 줄 언급이 없는 게 현실이다. 오직 토벌대가 3만 명을 학살하였다는 것뿐이다. 어린이와 노인도 전부 토벌대가 학살한 것으로 매도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3인명피해 3만명설은 과장된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부 토벌대가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고 남로당 변호에 다름 아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5. 전사경찰관

4·3당시 전사경찰관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에 있어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진압작전에 정신을 빼앗긴 상황이었다. 그 후에도 이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많은 자료가 멸실되었다.

2003년 4·3특위에서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사경찰관 명단을 요청하자 경찰청은 122명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4·3특위에서 제주시 충혼묘지를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140명임이 밝혀졌다.¹²⁾

필자가 재향경우회제주도지부 회장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하여 확인한 전사경찰관은 153명으로 나타나 이를 공식 기록으로 삼고, 도지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필자의 줄져 「내가 보는 제주4·3사건」수정증보판(2011.11.15. 삼성인터컴)에도 그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제주도지방경찰청에서 경우회도지부, 보훈지청 등에 조회하고 최종 확인한 4·3당시 전사경찰관은 184명으로 나타났다.¹³⁾

전사경찰관 184명의 전사일자를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 정의된 4·3사건 종기(終期)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을 개방한 이후에도 4명의 경찰관이 전사(최창우 54.12.29, 고도일 55.5.14, 최형선 56.9.30, 홍하의 56.9.30)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4·3은 한라산 개방 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4·3의 종기(終期)를 1957년 4월 2일 경찰이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당시 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경 토굴에서 검거하고 칼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하여 명실공히 4·3이 종결된 날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만 9년 만에 피비린내 나는 4·3이 완전 종식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6월 3일 재향경우회제주도지부에서 제주시충훈묘지 경찰묘역을 확인한 바 총 166기 중 4·3과 관련한 전사자는 140기이고, 순직(열안지악 작전 출동 중 심장마비로 순직한 서용각) 1기이다. 나머지 25기는 4·3당시 전상으로 후에 사망한 자와 4·3과 무관한 대간첩작전 시 전사자, 순직자 및 해경, 청년단원, 애국단원, 교사(1기) 등이 안장되어 있다. (교사가 경찰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것도 제주시청의 무사려한 조치이다, 향후 국립현충원이 조성되면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4·3당시 전사경찰관은 184명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 경찰 전사자 중 105명만 제주보훈지청에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니 나머지는 후손이 없거나 단신 월남한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보인다.¹⁴⁾

부연할 것은 현재 제주시충훈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된 경사 신양식은 1953년 1월 2일 진압작전에 출동 전사하자 즉각 경위로 추서되어 당

초 그의 가족묘역에 안장할 때는 경위로 비석을 세웠다. 이런 사실은 유족과 당시 신앙식 경사와 같이 작전에 참전하였고 신앙식 경사의 사체를 직접 운반하였던 전직 경찰 고우탁과 고태춘의 증언이 있으나 제주보훈지청과 제주시청에서, 경위로 추서한 근거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경사(警査)를 경위(警衛)로 글자 1字만 고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니 영령과 유족에게 큰 죄를 지은 심정이나 시정됐으면 좋겠다.

6. 전사군인

정부보고서 374쪽에는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종삼의「제주4·3사건의 진상」(2013.3.20. 아성사) 384쪽에는 ‘대략 180~200명으로 추산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조사하여 밝힐 문제이지만 불가능한 상태이다.

해방 혼란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하고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으면 전사자 숫자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였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상가상 곧 터진 6·25남침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자료마저 멸실된 결과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제주4·3을 평가함에 있어, 건국초기 혼란상을 도외시하고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7. 우익단체원 사망자

4·3관련 제주보훈지청에 등록된 우익단체원(대부분 애국단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은 639명이다.¹⁵⁾

8. 결론

이상과 같이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인명피해를 재검토하였다.

따라서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4년 2월 7일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2013년 2월 28일 (제5차)까지 신고를 접수하였다. 장장 19년간 노력해서 신고 접수하고 이를 심의결정(희생자 심사를 앞둔 제5차 신고자 383명 전원을 희생자로 계상해도)한 것이 14,415명에 불과하니 여기에 누락자를 감안하고 잘못 결정된 자를 상쇄하면 피해자는 15,000여명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4·3특위가 희생자로 결정한 통계를 묵살하고, 정부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장된 통계를 계속 인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경찰관 전사자는 184명, 군인 전사자는 180명, 우익단체원 희생자는 639명을 공식적인 통계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참고로 왜 15,000여명에 달하는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는가? 필자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본다.

- ① 건국 초기 방위력 및 치안역량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로 조급했다. (1948년 9월 15일~1949년 6월 30일 고문단 제외 철수 완료)
- ② 건국 초기 사회 안정 기반 구축 및 남침 대비 필요
- ③ 도민 80%가 남로당 동조세력이라는 좌익의 선전과 우익측의 인식
- ④ 1946. 10. 과도입법의원 선거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민위원회 출신 2명이 당선되었으며 12월 개원식에 불참하였고, 1948년 5·10선거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무효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였음.
- ⑤ 체제유지 보루인 군경에 많은 남로당 프락치 침투 및 입산자 속출
 - 1947. 3. 3·1사건 직후 경찰관 66명 집단 사직 일부 입산
 - 1948. 5. 20. 제9연대 장병 41명 집단 탈영 입산(20명 검거)

- ⑥ 여·순반란사건 발생 등으로 국가적 위기 가중
- ⑦ 남로당인민유격대의 무모한 공격(선전포고 등)
- ⑧ 남로당, 민청, 자위대 명단 일부 노출
- ⑨ 군경의 인권보호 의식 결여 및 전사상피해 발생 시 지나친 보복
- ⑩ 게릴라전의 특성상 피아 식별 곤란
- ⑪ 도민 간 갈등의 부정적 표출(마을, 씨족, 개인, 종교간 갈등 포함)
- ⑫ 제주도 특유의 심한 사투리로 인한 언어 소통 장애
- ⑬ 주동자 월북 및 일본 도피

김달삼 강규찬 등 주동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수습에 앞장 섰으면 대량 인명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사건을 일으켜 놓고 월북 또는 해외 도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주 :

- 1)「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64쪽, 2003.12.15. 4·3특위
- 2)「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67쪽, 2003.12.15. 4·3특위
- 3)「만화로 보는 4·3의 아픔을 달고 평화를 이야기하다」52쪽, 2008.12. 제주도교육청
- 4)「제주도4·3사건」하권 952~953쪽, 신상준 2002.3. 한국복지행정연구소
- 5)「제주도4·3사건」하권 952~954쪽, 신상준 2002.3. 한국복지행정연구소
- 6)「제주도4·3피해조사1차보고서」11~13쪽, 1995.5.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
- 7)「제주4·3사건의 진상」 383쪽, 나중삼 2013.3.20. 아성사
- 8)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13년도 정기총회 자료' 57쪽, 2013.2.22.
- 9)「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70,371쪽, 2003.12.15. 4·3특위
- 10) 제주일보 2013.3.12. 4면
- 11)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13년도 정기총회 자료' 54쪽, 2013.2.22
- 12)「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375쪽, 2003.12.15. 4·3특위
- 13) '제주지구전투 전사경찰관 명단 통보'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무과 12232호 2012.8.30.
- 14)「제주4·3사건의 진상」385쪽, 나중삼, 2013.3.20. 아성사
- 15)「제주4·3사건의 진상」385쪽, 나중삼, 2013.3.20. 아성사

2. '오라리 사건'의 진실

- 김 동 일 본회 연구위원

1. 오라리 사건의 창조
2. 오라리 사건의 발단
3. 민오름의 폭도들
4. 오라리 사건의 구성
5. 제주도의 메이데이
6. 오라리 사건의 반미주의
7. 오라리 사건과 양조훈 전문위원
8. 오라리 사건과 김익렬 중령.
9. 4.28평화협상과 오라리 사건

1. 오라리 사건의 창조

제주4.3에서 '오라리 사건'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없었다. 오라리 사건은 4.3이 발발한지 한 달 여 후인 1948년 5월 1일 오라리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그 날의 오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중요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 4.3의 와중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졌던 쌍방의 보복전으로, 4.3의 치열한 기간에 벌어졌던 일상적인 사건일 뿐이었다. 그러나 오라리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이하 4.3정부보고서)에서 '4.28 평화협상'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며 특급 대우를 받게 된다.

애초에 없었던 오라리 사건을 특별하게 만들게 되었던 시초는 존 메릴의 논문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존 메릴의 4·3 논문 ‘제주도 반란 (The Chejudo Rebellion, 1975년 하버드대학)’이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은 1988년이였다. 존 메릴은 논문에서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in Korea : Chejudo)’라는 무성영화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러자 이 영화가 찍혔던 5월 1일의



△ 불타는 오아리마을. 미군정찰기가 공중에서 촬영한 이 모습은 기록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온다(1948. 5. 1)
 <기록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에서>

사건에 주목하는 일단의 인사들이 있었다. 5월 1일의 사건은 여러 면에서 쓸모가 많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인사들은 ‘오라리 사건’이라는 용어를 창조해 내었다. ‘오라리 사건’이라는 이름은 특수한 목적의식을 가진 집단에 의해 80년대 말에 창조된 신조어이다.

오라리 사건에 최초로 큰 의미를 부여했던 집단은 제민일보에서 ‘4.3은 말한다’를 집필하던 집필진이었다. ‘4.3은 말한다’ 2편에서 오라리 사건은 ‘오라리사건의 진상’이라는 단락 하나로 30페이지에 걸쳐 집요할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민일보의 집필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존의 4.3진상에 의심과 증오를 품고 있는 집단이었다. 그래서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는 제주4.3의 진상에 새 지평을 열기도 했지만 또한 제주4.3에서 왜곡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문제의 작품이기도 하다.

‘4.3은 말한다’에서 오라리 사건은 시종일관 이런 취급을 받는다. 미군이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보이며, 4.28평화협상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며, 무장대에게 책임을 떠넘긴 왜곡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제민일보의 이 주장은 4.3정부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의 주 필진이 그대로 제주4.3사건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제주4.3진상조

사팀과 4.3정부보고서의 작성기획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4.3정부보고서가 ‘4.3은 말한다’의 표절판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오라리 사건에는 80년대에 유행했던 ‘반미주의’가 스며있다. 오라리 사건은 낡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그 낡은 깃발은 그 신봉자들에 의해서 2003년의 4.3정부보고서에도 들어서 있다. 그러나 제민일보나 4.3정부보고서가 오라리 사건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오라리 사건은 만들어지고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바로 ‘4.28평화회담’이었다. 제주4.3의 ‘없는’ 역사를 ‘창조’해낸 사람들은 ‘4.28평화회담’이라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오라리 사건이라는 지렛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4.28평화회담과 오라리 사건은 제주4.3정부보고서의 왜곡과 날조의 양대 축이라고 할 만 하다. 오라리 사건이 없을 것이라면 4.28평화회담의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 그래서 두 사건을 형제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이다. 두 사건의 왜곡을 통해 제민일보와 4.3정부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하려는 것이다. 진압군과 무장대 간에 4.28평화협상을 맺고 화평을 선언했는데, 경찰과 미군 측에서 오라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화평을 깨었고, 그래서 4.3은 유혈로 치달았다. 이렇게 주장하여 4.3의 책임을 경찰과 우익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4.3정부보고서의 4.28평화회담은 심각하게 왜곡된 허상이었다. 그리고 오라리 사건도 선동과 왜곡으로 가득 찬 신기루였다. 오라리 사건은 4.28평화회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부인 등과 함께 4.3정부보고서에서 중요한 왜곡들 중의 하나이다.

2. 오라리 사건의 발단

오라리 사건의 주 무대는 오라리 연미마을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제주시 오라삼동에 속하며, 연미마을은 현재 오라초등학교가 있는 일대의 마을이다. 지금은 제주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당시는 제주읍의 남쪽에 자리

잡아 중산간에 해당되는 마을이었다. 오라리에는 5개의 자연마을이 있었고, 6백여 가호에 주민은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4.3당시 중산간 마을은 좌익 무장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하거나, 좌익 성향이 득세하는 '민주마을'이 대부분이었다. 오라리도 그런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익세가 강한 좌익마을이었다. 1947년 3.1사건 때 발생했던 사망자 6명 중 2명이 오라리 출신이었으며, 오라리 사람들 중에는 3.1사건으로 검거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5.10 제헌선거 때에는 마을사람 대부분이 선거에 불참하며 오름 등지로 피신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좌익성향이 강한 마을을 배경으로 오라리 사건은 발생했다. 오라리 사건에는 살인과 납치, 방화와 총성이 난무하며 여러 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 중에 '방화사건'은 오라리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하게 대접받는 사건이다. 제민일보는 오라리 사건에서 '방화사건' 하나만을 강조하며, '대낮 방화'로 인하여 평화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라리 사건의 출발이 방화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제민일보의 전형적인 선동이다. 오라리 사건에는 방화사건 하나만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방화사건이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다.

제민일보의 주장을 이어받은 4.3정부보고서는 제민일보보다 더욱 비양심적으로 진화한다. 4.3정부보고서에는 '오라리 사건'이 아니라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목에는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달아놓고서 내용에서는 오라리 사건 전체를 논하고 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 침소봉대의 수법이다. 5월 1일 오라리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방화사건'만을 꼬집어내어 우익 측의 소행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팩트이다. 그러나 오라리 사건을 우익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그리고 '오라리 방화사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용은 오라리 사건 전체로 확대하면서 우익 측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날조이다.

오라리의 방화는 5월 1일 낮 12시에 시작되었다. 방화의 주인공은 우익단체인 대동청년단의 단원들이었다. 대동청년단 30여명이 오라리 연미마을을 돌며

5가구 12채의 초가집에 불을 질렀다. 이들은 마을을 돌며 마구잡이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5가구를 골라 불을 질렀다. 이들의 방화에는 목표가 있었고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장례식을 치루고 온 터였다. 이날 아침 9시 연미마을 근처 '동산물'에서는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모여 한 여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죽은 여인은 '강공부(23)'로 대청단원의 부인이었다.

강공부와 임갑생(23)은 동서 간으로 남편들은 대청단원이었다. 연미마을에 살던 이들은 4.3폭동이 악화되면서 좌익세가 강한 오라리에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제주읍으로 급히 피신한 상태였다. 장례식이 있던 하루 전 4월 30일 아침에 두 여인은 살림살이를 챙겨가려고 마차꾼과 함께 오라리에 들렀다. 그러나 두 여인이 마을에 들어서면 모습은 민오름 정상에서 망을 보던 '빛개'가 지켜보고 있었다. 좌익단체인 민애청 단원들이 오름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짐을 싣고 있는 여인들을 둘러쌌다. 이들의 살기가 등등하자 분위기를 직감한 마차꾼은 도망쳐버리고, 두 여인은 눈을 가리고 포박 당한 채 민오름으로 끌려갔다.

두 여인은 민오름 정상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에 묶여졌다. 그리고 민오름 어딘가에는 그 전날 잡혀왔던 오라리 대청단장과 부단장도 감금되어 있었다. 민오름의 무장폭도들은 대청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왈가불가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눈이 가리고 손이 묶인 두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경찰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갔던 마차꾼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임갑생 여인은 뒤로 묶은 손목에 힘을 주고 밧줄을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다. 그러자 밧줄이 느슨하게 풀리고 손목이 빠져나올 정도가 되었다. 경찰이 오름 아래로 가까이 다가온 듯하자 임 여인은 밧줄에서 손목을 빼고 눈을 가린 형견을 벗겨내고 냅다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상처투성이로 구르다시피 내려온 임 여인은 경찰을 만났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다시 민오름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강 여인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폭도들이 도망가면서 임신 중이었던 강 여인의 머리에 총을 쏘았던 것이다.

경찰은 죽은 강 여인을 신고 읍내로 돌아왔다. 뒷날 5월 1일 아침에 강 여인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청년단원들이 그 보복에 나선 것이 오라리의 방화였다. 청년단원들이 불을 질렀던 5가구는 강 여인 살해에 관계됐거나, 대청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두 여인을 납치했던 좌익 단체들에 관계된 인사의 가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라리 사건의 발단은 민가에 불을 지르는 오라리 방화사건이 아니었다. 그 전에 이미 오라리 사건의 전조는 발생하고 있었다. 29일에는 대동청년단원 두 명이 민오름 폭도들에게 납치되었다. 결국 두 사람도 피살되었다. 30일에는 대동청년단원 부인 두 명이 폭도들에게 납치당하여 그 중 한 명은 피살되었다. 그 뒷날 방화사건은 폭도들의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오라리 민가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오라리 사건에서 방화는 우익 측이 저지른 것이었지만 좌익의 납치와 살인에 대응한 보복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오라리는 폭도들에 의한 양민들의 납치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제민일보는 오라리 사건에서 우익의 방화는 문제를 삼으면서 좌익의 납치 살인에는 관대했다. 그리고 4.3 정부보고서도 편파적인 제민일보를 그대로 이어받아 오라리의 폭도들과 납치 살인에는 관심 없고 방화사건에만 몰두하는 이상한 보고서가 되어버렸다.

3. 민오름의 폭도들

민오름은 연미마을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252m의 오름이다. 지금은 신제주 아파트 단지에 근접하여 주민들이 산보와 운동을 할 수 있게 공원화 되어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4.3 당시는 오라리의 좌익 무장단체원들이 아지트로 이용하고 있던 곳이었다.

민오름에서는 연미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360여 개 있고, 이 오름들 꼭대기에 봉화가 오르면서 4.3은 발발했다. ‘민주마을’에서

는 폭도들이 오름 꼭대기에 감시원을 세워 경찰이나 군인이 마을로 접근하는 것을 감시했다. 진압대가 마을로 다가올 때 오름 꼭대기에 세워두었던 나뭇가지를 누이는 방법으로 마을에 연락을 취해 진압대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감시원을 '빗개'라고 불렀다.

연미마을 뒤편에 있는 민오름은 빗개들이 단순히 마을을 감시만하는 오름이 아니었다. 민오름은 오라리의 좌익 무장대원들의 아지트였다. 폭도들은 민오름에서 망원경까지 들고 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했다. 경찰이나 군인이 마을로 진입하면 미리 피하기도 했지만 우익 측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즉시 출동하여 민오름으로 납치해 왔다.

29일 납치되었던 대동청년단장 박두인과 부단장 고석중도 오라리에 들어섰다가 민오름으로 납치되었다. 30일 납치되었던 대동청년단원 부인 강공부와 임갑생도 같은 방법으로 민오름에서 감시하던 폭도들에게 납치되었다. 제민일보에서는 두 여인을 납치했던 사람들을 '마을사람'들로 표현하고 숫자도 '수 백명'이라고 묘사했다. 이 납치범들을 '마을사람'으로 표현하는 것도 왜곡이다. 절도범이나 살인범도 시민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떤 행위로 인해 시민에서 특정되었을 때는 '시민'이 아니라 '납치범'이나 '폭도'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수백 명이라는 숫자도 과장으로 보여 진다. 아마 많아도 3~40명 선을 넘지 못할 수준으로 보여 진다.

강공부와 임갑생의 남편은 박신택과 박근택 형제였다. 형제는 힘이 장사였고 대동청년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형제의 누나인 박일권도 민오름의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박일권은 귀덕에서 살다가 남편이 다른 부인을 얻자 두 동생이 있던 오라리로 거처를 옮겼고, 두 동생이 다시 제주읍내로 피신하게 되자 박일권은 다시 귀덕으로 돌아갔다. 박일권은 그의 율케들과 마찬가지로 세간을 가지러 오라리로 갔다가 민오름에서 망원경으로 망을 보던 폭도들에게 잡혔다. 박일권은 아흔아홉골까지 끌려가 매를 맞아 타살되었다. 1950년이 되어서야 공비 귀순 홍보 기간에 귀순한 오라리 출신 폭도가 그녀의 무덤을 말해주어 그녀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아흔아홉골에 있는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속에는 그녀를 마구 때렸던 피 묻은 방

망이 3~4개도 같이 묻혀 있었다.¹⁾

이날 피해자 중에는 또 한 여인이 있었다. 김규찬 순경 어머니였다. 김규찬 모친은 마을 민가가 불에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있는 읍내로 피신하려고 그릇과 병아리 등을 담은 구덕을 지고 마을을 빠져 나가다가 폭도들과 조우했다.

폭도들은 퇴각하는 우익청년단원들을 쫓아 나섰다가 마을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폭도들이 여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여인은 폭도들을 우익청년단원으로 오인하여 '나 규찬이 순경 어머니여'라고 말하고 말았다. 경찰들이 마을로 진입할 때 김규찬 모친은 목이 잘린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김규찬 순경은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김규찬 순경의 여동생도 오라리에서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김규찬의 여동생도 강공부 여인과 같은 상황으로 죽음을 맞았다. 피신했던 읍내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오라리 집에 식량을 가지러 들렀다가 민오름의 폭도들에게 발각되었다. 그리고 민오름으로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4.3정부보고서는 오라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익이 저지른 방화사건만을 이야기할 뿐, 오라리에서 자행되었던 폭도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제민일보는 납치범들을 '마을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4.3정부보고서를 만들다보니 폭도들이 무고한 희생자가 되고, 폭도들을 민중항쟁의 투사로 만든 것이다.

4.3 진압이 본격적 퀘도에 오른 48년 가을에 민오름 아지트는 열안지오름으로 후퇴했다. 열안지오름은 연미마을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4. 오라리 사건의 구성

대동청년단 단원들이 장례식을 끝내고 5가구에 불을 지른 다음 마을을 떠날 때, 마을에 불길기 솟는 것을 보고 민오름에 있던 폭도들이 마을로 쳐들어왔다. 철수

1) 제주도의 4월 3일은? 4집 358쪽. 제주자유수호협의회

하던 중에 폭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청년단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시 오라리에는 경찰이 진입한다. 경찰이 오는 것을 본 폭도들은 마을을 빠져나가 버리고, 폭도들이 후퇴하면서 한 사람을 살해하고, 경찰이 진입하는 와중에 다시 한 사람이 피격된다. 경찰이 진입할 때 공중에서는 미군기가 이 장면을 촬영한다. 경찰이 마을을 점령한 얼마 후에는 다시 경비대가 진입한다. 경비대가 진입하자 경찰은 다시 철수해 버리고, 경비대는 이날 벌어졌던 사건들을 조사했다.

5월 1일 오라리에는 이런 연이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며 벌어졌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대단한 이유가 있을 리가 없었다. 흡사 빨치산 창궐지역에서 군인과 빨치산이 낮과 밤에 따라 점령지를 교대하는 것처럼, 5월 1일의 오라리에서는 납치하고 죽이고 보복하는 4.3고조기의 일상적인 모습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라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오라리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4월 11일. 오라1구 정실마을에서 경찰관 부친 송인규(58) 폭도들에 의해 피살. 가옥 방화.

4월 21일. 오라2구 연미마을의 이순오(35) 고태조(37) 딸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순오 경찰에 의해 사살.

4월 23일. 좌익 활동을 하던 김태중(28)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

4월 29일. 대청단장 박두인, 부단장 고석중, 폭도들에 의해 납치.

4월 30일. 대청단원 부인 강공부, 임갑생, 폭도들에게 납치.
임갑생 탈출, 강공부 피살.

5월 1일의 오라리 사건을 시간대 별로 구성해 보았다.

아침 9시	경찰과 청년단원들, 강공부 여인 장례식 거행.
11시 이후	장례식을 끝낸 청년단원들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진입.
12시 경	청년단원들, 5가구 12채에 방화를 시작. 연미마을 서동네 허두경(40)의 집 3채, 강병일(39)의 집 3채 중동네 박태형(39)의 집 2채, 강윤희(30)의 집 2채 동동네 박전형(28)의 집 2채, 순서로 방화.

오후 1시	청년단원들, 마을에서 철수. 폭도들, 민오름에서 불길을 보고 총과 죽창을 들고 마을로 진입.
1시 이후	김규찬 순경 어머니, 길에서 폭도들에게 피살. 순경 어머니는 마을 가옥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읍내로 피신하던 중 길에서 폭도들과 조우, 폭도들을 우익청년다오로 오인한 여인이 폭도들의 질문에 규찬이 순경 어머니라고 대답했다가 참혹하게 피살.
2시 경	청년단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 총을 쏘며 마을로 진입. (미군정 보고에서는 3시 30분) 동아일보 정준수 특파원, 경찰과 취재 동행. 폭도들 퇴각. 경찰이 마을로 진입하는 장면을 미군기에서 공중 촬영. 경비대, 오라리 방화사건 정보 입수.
2시 이후	불을 끄다 도망가던 고무생(41) 여인 경찰에 피격.
2시 30분	김규찬 순경, 어머니 살해범을 찾으려 마을 여인 심문.
3시 경	경찰, 공회당에서 마을사람들을 심문.
4시 30분	오라리 사건 정보를 입수한 국군경비대 9연대, 마을로 진입. 경찰 철수
5시 경	9연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건 경위 조사.

5월 1일의 연미마을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폭도들이 등장하고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는 풍경은 마을 밖의 4.3풍경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4.3 폭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4월 말의 제주 풍경은 지옥도에 가까웠다. 모든 관리들은 사임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폭도들의 협박 뼈라가 뿌려지고, 선거사무소가 습격 받아 선거 서류와 사무소는 소각되고, 교량과 도로가 번번이 파괴되고, 경찰 가족과 우익인사들이 납치 피살되는 유혈극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5월 1일의 오라리 풍경에 특별한 것은 하나 있었다. 시간대 별 구성에 등장하는 군상들 중에 '미군기'가 있는 것이다. 이 때 미군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in Korea : Cheju-do)'라는 무성기록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존 메릴은 4.3논문을 쓰면서 이 영상을 거론했고, 존 메릴의 논문이 국내에 번역되면서 미군의 영상도 알려지게 되었다.

미군이 촬영한 영상의 존재는 국내에 있는 일부 인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

했다. 이들은 제주4.3에서 미군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4.3에서 미국에게 뒤집어씌울 꼬투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군이 직접 촬영한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기록영상이 나타나 준 것이다. 이들의 코가 벌렁벌렁 거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영상을 멋대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그 이름도 거창한 ‘오라리 사건’이라는 용어를 창조했던 것이다.

5. 제주도의 메이데이

메이데이(May-day)는 노동절을 일컫는 말로 5월 1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메이데이라는 제목을 붙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메이데이에는 세계 각처에서 좌파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고,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메이데이’라는 제목에는 좌익폭동이라는 함의도 들어있는 듯하다.

‘제주도의 메이데이’는 4.3초기의 현존하는 유일한 기록 영상물로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다. 이 영상물은 16mm 흑백 무성 필름에 기록된 것으로 미군 SIGNAL CORPS(미군 통신부대-촬영팀)에서 촬영한 것으로, 총 13분 8초 분량의 영상이다. 1948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미군정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미군정 시설들, 오라리 일대, 그리고 4.3의 풍경들과 딘 군정장관의 제주 시찰 모습을 담고 있다.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 반란(The Chejudo Rebellion)’에서는 ‘제주도의 메이데이’의 영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영화는 불타고 있는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포연의 모습과 함께 비행기 한대가 섬 전체를 선회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군이 봉기군을 마치 공격하는 것인 양 들관을 지나 진격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딘 소장이 제주 군정부부와 항만시설을 시찰하는 장면이 잠깐 비쳐진다. 카메라는 불타고 있는 가옥의 모습을 두루 보여준 뒤, 당혹스런 표정의 여인이 경비

대 군인에게 어떻게 자기 마을이 봉기군들에 의해 공격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산반도에게 살해된 남녀시체들이 잠깐 비쳐진 뒤, 카메라는 나무로 관을 만들고 있는 장인들의 모습을 클로즈업 한다. 그들의 일은 점점 바빠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영화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광경이 비춰지고 있는데, 오라리 마을이 불타고 있는 모습과 경비대가 그곳으로 접근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도로의 경찰 방어선과 진지들을 클로즈업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제민일보는 '4.3은 말한다'에서 기록영화 '메이데이'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화 등 모든 행위를 '폭도의 소행'으로 조작 편집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제민일보의 이 주장은 너무 허무하다. '메이데이'는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데이'는 딘 장군이 제주에 시찰 왔던 당시의 제주도의 풍경들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제민일보는 '메이데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던 탓에 '메이데이'의 영상 출처를 5월 1일의 오라리에 국한시키는 과오를 범했다. 그러다보니 제민일보의 눈에는 '메이데이'가 조작 편집으로 보이고, 사전에 기획한 의문투성이의 미스터리로 보이는 것이다. '메이데이'는 5월 1일의 오라리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며칠 간에 걸쳐 제주도 지역을 돌며 촬영한 것으로, '메이데이'의 전체 영상 중 오라리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메이데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라리 주민들이 모르는 인물들일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간단히 판단해도 '메이데이'는 제주를 방문한 딘 장군을 위한 영상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라리 사건은 그 때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좌익 폭동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 미미한 오라리 사건 하나를 조작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띄울 정도로 미군이나 군정은 한가하지 않았다. 제민일보의 주장은 반미(反美)주의에 물든 병적 집착에 다름 아니다.

'메이데이'는 오라리 사태를 조작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딘 장군에게 제출될 제주상황 보고용 영상이거나 딘 장군이 상부에 보고할 용도로 제작한 제주시찰 보고용 자료영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메이데이'를 언급하는 4.3정부보서의 상황도 험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

민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물려받은 4.3정부보고서는 ‘메이데이’의 촬영이 계획적이었고 조작 편집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도 빈약하다. 오라리 사건이 공중 촬영되었고 계획적으로 보이기에 조작 편집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4.3초기인 4월 중순부터 제주 상공에는 미군기가 정찰을 하고 있었다. 4월 18일 딘 장관이 맨스필드 중령에게 내린 지침에는 항공기 운용 권한에 관한 것도 있었다.

‘4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 하에 있다’²⁾

이 비행기는 4월 22일부터 인민유격대에게 전단을 살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4월 28일에는 진압작전 참관용으로 사용된다. 49년 3월 8일의 미국 문서에는 한국군 채병덕 총참모장이 미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타난다. 여기에도 ‘우리 공군은 제주도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항공기 4대를 보유하고 있다’³⁾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49년 초에 진압군 측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는 4대로 불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딘 장관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는 항공기 2대를 운용하던 중이었고, 미군에서는 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딘 장군에게 필요한 자료 수집에 활용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4.3정부보고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라는 제민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서 엉터리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4.3정부보고서의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로 사용하기에는 근거도 빈약하고 증거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4.3정부보고서는 다음의 한 구절을 넣어야 했기에 ‘제주도의 메이데이’를 빼버릴 수 없었다.

2)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191쪽

3) 4·3미국자료집10 207쪽

4.3정부보고서는 오라리 사건 단락을 이렇게 맺고 있다. '이는 그 시점에 미군의 강경책이 결정돼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 문구는 '메이데이'에 집착했던 것이 4.3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미군에게 씌어보자는 의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메이데이'를 집중 조명했던 것은 메이데이가 있어야 오라리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오라리 사건이 있어야 4.28평화회담이라는 소설이 먹힐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메이데이'는 오라리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4.3과 미군이 연결된 유일한 사건이었고, 제주4.3을 '반미'에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6. 오라리 사건의 반미(反美)주의

오라리 사건에는 제주4.3에 등장하는 각종 군상들이 총 출연한다. 5월 1일 하루에만 오라리에는 우익청년단, 폭도 양민, 경찰 가족, 경찰, 기자, 군인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미군도 등장한다. 제민일보나 4.3정부보고서가 오라리 사건을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확대하고 선동했던 것은 바로 미군이 등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80년대부터 한국사회에는 민주화의 열풍을 타고 급진 운동권 학생들의 반미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부산 미문화원이 급진 좌경학생들에 의해 방화되었던 것도 반미주의 열풍이 낳은 결과였다. 지식인 대접을 받으려면 반미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했고, 반미는 좌경 학생권의 이데올로기였다. 90년대 초에 좌경적으로 기술되었던 제민일보의 4.3은 이런 반미주의에 젖은 결과였다.

제민일보를 이어받은 4.3정부보고서에서도 이런 반미주의는 이어진다. 4.3진상조사에 나섰던 4.3위원회는 제주4.3에서 미국의 책임소재를 찾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미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뒤졌고, 이 결과물은 4.3정부보고서에서 방대한 미국자료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4.3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꺼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라리 사건에 등장했던 미군 항공기는 제민일보와 4.3위원회에게 제주4.3에서 유일한 미군의 트집꺼리였다.

4.3위원회는 4.3진상조사에서 미국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4.3위원회가 구축한 소련의 자료는 전무하다. 미국과 소련은 제주4.3에서 이데올로기의 양대 축이었다. 1994년에는 소련의 스티코프 비망록이 터져나왔다. 여기에는 4.3의 주최 측이 되었던 남로당 집단이 10월 폭동의 대가로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드러났다. 당연히 4.3에도 소련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자료는 살살이 뒤지면서도 소련의 자료는 찾아 볼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4.3위원회가 4.3의 진상보다는 4.3의 선동에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자료에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을만한 자료가 나왔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효순.미순사건을 상기해보면 정답은 쉽게 나온다. 효순.미순사건은 2002년 미군의 기동훈련 중 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장소는 도로였고 여중생 두 명이 도로 갓길을 건다가 율화를 당한 교통사고였다. 이 사건은 반미주의자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다. 미군이 소녀들을 토끼몰이 하듯 추격하여 쓰러뜨렸다느니, 시체 위로 장갑차를 전진 후진을 5회 반복하였다느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거리전시회에 끔찍한 시체 사진을 걸어놓고 전국으로 순회전시하기도 했었다. 한마디로 반미주의의 광풍이 불었다. 4.3에서도 미군의 책임에 근거 있는 자료가 나왔다면 제주4.3도 반미의 광풍으로 뒤덮였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미군의 자료를 살살이 뒤졌지만 제주4.3에서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서 그나마 건진 것이 '메이데이'였다. '메이데이'에 분철을 하고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여 미군의 책임과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이 속칭 '오라리 사건'의 성격인 것이다.

오라리 사건의 반미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제주4.3평화기념관이 개관될 2008년 3월 28일을 얼마 남겨둔 시기에 열린 4.3소위원회에서였다. 기념관에 전시될 어느 전시물 때문에 논란이 분분하고 있었다. 전시물은 김대중 화백의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오라리 방화와 '메이데이'를 테마로 그린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그림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그림의 내용 때문이었다. 온통 붉은 빛이 넘실거리는 이 그림을 두고 소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백악관과 중앙청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오

라리 조작사건 배후에 미국정부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김대중 화백에게 수정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대중 화백은 "미정부의 대응과 오라리 사건, 제주도 메이데이로 이루어지는 작품의 한 축은 사실로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당연히 추론 가능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수정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림은 가려진채 개관식이 열렸다.

그림에 붙은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말해주 듯 이 그림은 오라리 사건의 배후를 이승만 정권과 미군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반미 선동의 의도를 가진 그림이었다. 이 사건은 반미주의를 설파하려던 자의 신파극이거나, 아니면 반미주의에 물든 제주4.3에 세뇌된 자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었다. 오라리 사건의 창조에는 반미주의가 바탕이 되었으며, 오라리 사건에 스며든 반미주의가 어떻게 진화하는 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라는 그림은 결국 반미 선동의 전선에서 탈락했지만, 당치도 않는 오라리 방화 사건을 들먹이는 4.3정부보고서는 아직도 반미 전선에서 곳곳하게 버티고 있다.

7. 오라리 사건과 양조훈 전문위원

오라리 사건을 말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양조훈 전 제주도환경부지사이다. 양조훈은 제민일보가 '4.3은 말한다'를 연재할 당시에 제민일보 편집부국장으로서 4.3취재반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4.3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팀의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양조훈은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를 저술한 '몸통'이었다. 그리고 제민일보의 '4.3'은 그대로 4.3정부보고서로 이어졌으니, 양조훈은 왜곡된 4.3정부보고서의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조훈은 4.3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도 안 되는 인물이지만, 오라리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오라리 사건은 양조훈의 머리에서 기획하고 그의 품에서 자라난 양조훈의 '새끼'이기 때문이다.

제민일보에 연재하는 '양조훈 4.3육필기록'(183)에서 양조훈은 "사실 필자가

4·3취재반장으로 활동할 때 오라리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적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오라리 사건의 실체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라리 사건에 대한 양조훈의 시각은 세월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4년에 초판된 제민일보의 ‘4.3’에서 ‘메이데이’는 의문 투성이의 수수께끼 같은 기록물이고, 오라리 사건은 미군정이 사실을 오도하여 “평화협상이 진행 되는 가운데 그 진로에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양조훈의 논문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토벌정책”에서 양조훈은 ‘메이데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메이데이는 마을 방화 등 잔혹행위는 모두 ‘폭도들의 소행’으로 인식하게 되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오라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계기로 어렵게 맺어졌던 평화협정이 깨지는 결과를 빚었고” 방화사건은 “평화협상의 진로를 정면에서 휘방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99년의 양조훈은 94년의 제민일보에서의 주장보다 진일보하여 더욱 확고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양조훈의 시각은 그대로 4·3정부보고서에 반영되었다. 2003년에 확정된 4·3정부보고서에는 ‘메이데이’에 대해 “당시의 상황들이 촬영됐다는 것은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시점에 미군의 강경책이 결정돼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라고 하고 있다.

2008년의 평화기념관 개관식 즈음에는 양조훈의 오라리 사건에 대한 시각은 다시 바뀐다. 김대중 화백의 그림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 논란을 일으킬 시기에 양조훈은 이렇게 피력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군정과 미국정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연결됐다는 식의 표현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⁴⁾

4) 제민일보 양조훈 4·3육필기록 (183) 평화기념관 개관 진통

오라리 사건의 배후에 미군이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직설적으로 연결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양조훈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99년도에 나온 양조훈의 논문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99년도의 논문에서 양조훈은 이렇게 주장했다.

미군장교가 자신들(9연대-필자 주)의 보고를 묵살하고 무조건 초토화작전을 감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략)

마침내 중요한 고비마다 그들(미군-필자 주)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깊숙이 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고구마 덩굴 같은 것이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속에는 미군이 도사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99년도의 주장에서 2008년에는 방향을 틀고 전향을 했다면 양조훈은 99년도의 논문을 수정했을까. 그 논문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의 주장이, 양조훈의 '의중'이 반영된 4.3정부보고서의 수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조훈의 논문이나 4.3정부보고서에는 미군의 계획적 개입을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조훈이 제시하는 근거는 단지 당시의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일 것이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강경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추정과 추측뿐이다. 이는 한 개인의 주장을 담은 논설이라면 용인될 수준이지만, 한 국가가 국가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작성하는 공식보고서로는 쓸모가 없는 소설일 뿐이다.

무릇 4.3정부보고서에는 왜곡된 부분이 오라리 사건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사례들과 주요 부분에서 왜곡과 날조가 횡행하고 있다. 양조훈은 4.3진상조사에서 입신양명하여 4.3평화재단 상임이사과 제주도 환경부지사를 역임했다. 양조훈이 입신양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반비례하여 제주4.3의 진실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반미주의가 넘실거리던 김대중 화백의 그림은 양조훈이가

잉태한 것이었다. 그 그림은 국민들에게 전시가 차단되었지만, 왜곡된 4.3정부 보고서는 무슨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야에서 블라인드를 칠 것인가.

8. 오라리 사건과 김익렬 연대장

오라리 사건에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다. 오라리 사건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단체가 떠나면 다른 집단이 진입하기를 반복하면서 교대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연대장 김익렬도 등장한다. 우익청년단이 떠나는 것과 폭도들의 진입은 서로 확전을 기피하며 교대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폭도와 경찰의 교대에는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 다음에 김익렬이 지휘하는 경비대가 마을로 진입하자 경찰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버렸다. 군경 합동작전으로 민오름에 있는 폭도들의 토벌 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고, 마을의 피해 상황을 합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비대를 이끌고 김익렬이 들어오자 경찰은 벌레 피하듯 부리나케 마을을 떠나버렸다. 김익렬 중령이 등장하자 경찰이 떠나버리는 이 장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당시 경찰과 경비대 간에 알력과 갈등이 벌어지는 국내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라리 사건에서 보이는 경찰과 경비대의 갈등 장면은 제주4.3의 중요한 사건을 가름하는 단서가 들어 있기도 하다.

오라리 사건을 보고하는 경찰과 경비대의 진상은 서로 달랐다. 경비대는 우익의 소행으로 미군정에 보고했고, 경찰은 폭도의 소행으로 보고했다. 아마 두 집단의 보고가 달랐던 것은 오라리 사건을 보는 두 집단의 시각 차이이거나, 사건을 보고하면서 두 집단이 자기에게 유리한 면을 강조하여 보고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오라리에 경찰이 진입할 당시 오라리는 불타고 있었고 마을에는 폭도들이 있었다. 당연히 경찰로서는 폭도들에 의해 마을이 불 질러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폭도들의 납치 살인에 대한 우익청년단의 보복으로 방화가 저질러졌기에 경찰은 원인을 제공한 폭도들의 소행으로 보고했을 수도 있다.

경비대는 오라리에서 사건의 총체적인 원인과 진상을 조사했다기보다는 우익 청년단의 방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쌍방이 죽이고 보복하는 사건에서 우익의 잘못만을 부각시켜 보고했다. 이런 보고는 김익렬이 상습적으로 했다고 보여 진다. 그랬기에 김익렬의 보고서는 미군정으로부터 묵살되었다. 김익렬의 보고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라리 사건을 조사하여 경찰과 경비대가 올린 두 개의 보고서에서 경비대의 보고서가 무시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라리 사건 4일 후인 5월 5일에는 딘 장군이 참석하는 최고수뇌회의가 열렸다. 최고수뇌회의에서 경무부장 조병옥과 9연대장 김익렬은 각자가 준비한 자료를 들이대며 치열하게 대립하며 난투극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김익렬의 보고는 묵살되고 조병옥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최고수뇌회의 뒷날인 5월 6일 김익렬은 직위 해제되었다. 무엇인가 치명적인 김익렬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3에서 김익렬의 행적은 수상하기만 하다. 제주인민해방군에게 실탄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의 부하들은 나중에 박진경 연대장을 살해하고, 병사들은 탈영하여 인민해방군에 합류해 버린다. 폭도 진압에 출동을 요청해도 김익렬은 중립을 빙자하여 출동을 거부했고, 김달삼과는 협상을 빙자하여 수상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국전쟁사’ 1권에는 김익렬의 이런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은 경비대의 진의를 타진해 보기로 하였다. 즉 반도들의 근거지를 차단하기 위해 산간에 접한 마을을 소각하였다. 주민들이 몰려와서 경찰이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경비대에 신고하였다. (중략) 경찰 이야기는 반도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방화 약탈하고 경찰이 교전하다가 희생자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이 경비대를 출동시키기 위한 계략에서 조작하였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서 군경 간에는 더욱 불미한 간격이 조성되었다.

‘한국 전쟁사’에는 폭도가 침입했다고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던 경비대가 경찰

이 마을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에는 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여기에서 경찰은 경비대에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행위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비대의 이적행위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반대로 경비대는 경찰의 오점만을 골라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오라리 사건에서 폭도들의 납치 살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방화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경비대의 모습은 이런 상황을 웅변하고 있었다.

오라리 사건에서도 김익렬의 출동은 폭도를 잡으려고 출동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윤락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가 출동한 것은 폭도들이 휴전협상을 깬기 때문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폭도 출현은 경비대 출동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보여 진다.

경비대가 오라리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30분경이었고, 경비대가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인지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 준비 시간을 감안하여 2시 30분경에 경비대를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비대는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2시간은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대정의 경비대에서 출발하여 오라리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이다. 당시 대정에서 제주읍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의 일주도로 뿐이었다. 폭도 출현 신고를 받고 제주읍의 경찰이 출동하여 오라리에 도착하는 데에는 1시간이 걸렸다. 대정에서 제주읍까지는 직선으로 대략 60여km, 제주읍의 경찰서에서 오라리까지는 대략 3km. 더욱이 경비대는 대정에서 출발하여 제주읍의 본부에 들러 다시 오라리로 왔다. 당시의 도로는 구불거렸고 전부 자갈길이었다. 48년 4월 2일, 김익렬이 대정을 향하여 제주읍을 출발한 것은 점심 때였다. 꿩 사냥을 하면서 가기는 했지만 절반 지점인 한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다. 당시 제주도의 도로는 포장도로가 전무했고 열악했다. 이것은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주도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17년이었고,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가 출현한 1961년부터였다. 그리고 48년 4월의 일주도로는 폭도들의 습격으로 도로가 절단되고 교량이 파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절단되는 도로와 비포장의 자갈길을 달려 대정에서 제주읍에 들러 다시 오라리로 두 시간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4차선의 쭉 뻗은 도로를 달려도 제주와 대정은 1시

간 30여분이 걸리는 거리이다.

그렇다면 김익렬은 언제 출동한 것일까. 김익렬은 폭도 출현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라, 우익청년단의 방화 정보를 접하게 된 오전 11시 전후가 김익렬의 출동 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한국 전쟁사’에 기록된 김익렬의 행적 대로 김익렬은 폭도 출현에 출동한 것이 아니라 우익의 출현에 출동한 것이었다. 거꾸로 행동하는 김익렬의 모습이 오라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익렬과 경비대는 오라리에서 경찰의 비행만을 조사했다. ‘한국전쟁사’에 나타난 김익렬의 모습과 오라리에서의 김익렬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었다. 오라리 사건은 경찰과 미군이 김익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경찰은 이날 김익렬의 이적행위에 대하여 ‘확인사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김익렬이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목적 달성을 했다는 듯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라리 방화자에 대한 경찰의 비호와 우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라리 사건은 김익렬을 잡기 위한 경찰의 함정수사였다고 볼 수 있다.

오라리 사건에서 확증을 굳힌 경찰은 4일 후에 벌어지는 최고수뇌회에서 김익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된다. 최고수뇌회의에서 조병옥은 김익렬을 가리키며 “저기 공산주의 청년이 한 사람 앉아있소”라며 일갈한다. 최고수뇌회의 참석자들도 김익렬에게 공산주의자라며 욕을 했다는 장면도 등장한다. 오라리 사건의 김익렬을 이해하면 김익렬 유고에 등장하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9. 4.28평화회담과 오라리 사건

제민일보의 ‘4.3’에서나, 양조훈의 논문에서나, 4.3정부보고서에도 오라리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방화 사건만을 집중조명하며 우익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대신에 방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폭도들의 납치 살인이나, 민오름 폭도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김익렬도 마찬가지였

고, 양조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여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양조훈과 김익렬은 오라리 사건에서 같은 배를 탄 한 패거리였기 때문이다.

5월 1일의 방화사건이 김익렬과 양조훈에게 성서처럼 떠받들어지는 것은 4.28 평화회담이라는 것 때문이다. 4.28평화회담이 만들어졌기에 오라리 사건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두 사건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신기루 같은 허상의 사건이었다.

오라리 사건은 4.3의 와중에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이었을 뿐,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 여기에 양조훈은 ‘메이데이’에 특별한 각색을 더하여 평범한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4.28평화회담은 김익렬의 거짓말로 탄생된 사건이다. 4.28평화회담은 김익렬이가 김달삼과 만나 평화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김익렬은 김달삼과의 만남과 협상 과정을 김익렬의 ‘유고’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유고’에서 김익렬은 김달삼과 72시간 이내에 전투 완전 중지를 하고 5일 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단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오라리 사건이 창조된 것은 4.28평화회담의 결렬을 오라리 사건의 방화 때문으로 돌리기 위한 용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범한 기록물이었던 ‘메이데이’는 제민일보에 의해 평화를 깨기 위한 특별한 영화로 취급받았고, ‘메이데이’는 ‘오라리 사건’으로 진화하고, 오라리 사건은 4.3정부보고서에서 다시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변모하였다.

김익렬은 그의 ‘유고’에서 김달삼과의 만남을 ‘평화협상’으로 거창하게 운색해 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제민일보는 다시 ‘4.28평화협상’으로 분칠해 놓았다. 김익렬과 김달삼의 만남은 협상이라기보다는 면담이었고, 두 사람이 만난 날짜가 4월 28일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협상이 성사된 것도 아니었다.

김익렬은 그의 회고록인 ‘유고’를 쓰기 전에 이미 ‘기고’에도 김달삼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고는 김달삼과 면담 얼마 후인 48년 8월에 국제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고와 유고에서 김익렬의 진술은 엇갈린다.

김달삼과 만난 날짜는 기고에서는 4월 30일, 유고에서는 4월 27일로 추정되는 진술을 한다. 면담 동행자도 기고에서는 4명, 유고에서는 3명 등으로, 기고와 유고에서 날짜, 장소, 인원, 면담 내용 등이 모두 다르다. 유고에서는 협상이 성공하여 제주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기고에서는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고와 유고 중에 어느 쪽이 정확한가를 따지자면 김달삼과 면담 2개월 후에 작성된 기고가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유고는 김달삼과 면담 후 30여 년 만에 쓰여진 것이다. 기고에서 결렬 되었다던 협상은 30여 년 후 유고에서는 협상이 성공했다고 정반대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익렬의 유고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허구와 상상으로 가득찬 것이다.

김익렬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 제주인민해방군이 기록한 자료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한다.

“9연대 연대장 김익렬(金益烈)이가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人民軍代表)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國警)의 산(山) 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달삼은 김익렬과의 만남을 이용하여 토벌을 억제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김익렬의 진술 중에 협상이 결렬 되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고, 협상이 성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4.28평화협상이라는 것은 순전히 소설이다. 4월 28일에 만났다는 증거나 증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5월 1일의 오라리 방화 때문에 평화가 결렬되었다는 주장도 허상 위에 세워진 신기루인 것이다.

만약 평화가 깨졌다면 그 원인이 어찌 오라리 방화사건 뿐이겠는가. 5월 1일에도 4.3폭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5월 1일 제주 각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PYUNG-NI(좌표미상)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새벽 2시에 피살.⁵⁾

도평리 오후 1시 투표구위원회 위원장, 폭도들에게 피살.⁶⁾

화북리 경찰관 폭도들에게 피살.⁷⁾

대정면 신평리 우익인사 폭도들에게 피살.⁸⁾

대정면 영락리 우익인사 폭도들에게 피살.⁹⁾

제주읍과 하귀리 간 전화선 절단.¹⁰⁾

제주시 여러 곳에서 경찰전화선과 우체국 전신선 절단.¹¹⁾

미국인 부녀자 8명 제주에서 철수.¹²⁾

평화가 찾아왔다는 김익렬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평화는 커녕 각지에서 폭도들의 살인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었고, 미군은 부녀자들을 도외로 피신시킬 정도로 상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만약 평화협상이 있었다면 폭도들의 살육도 평화협상을 깨뜨리는 원인이었겠지만, 김익렬과 양조훈과 4.3정부보고서는 폭도들의 만행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우익의 방화사건만 트집 잡아 평화를 깨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폭도들이 직접 작성한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도 평화 협상 이야기는 없고 살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익렬이가 주장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5월 1일의 제주도는 대체 어느 나라에 있던 땅이었는가. 김익렬의 유고는 거짓말이었고, 4.28평화협상은 거짓말이 만들어낸 허구였다.

슈 중령이 타이센 대령에게 보낸 '제주도에서의 활동보고'에는 4월 27일에 열

5) 제주4·3사건자료집7. 61쪽

6) 제주4·3사건자료집8권. 44쪽

7)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8)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9)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10) 제주4·3사건자료집7. 61쪽

11) 제주4·3사건자료집7. 61쪽

12) 제주4·3사건자료집7. 189쪽

린 미군 참모회의가 나온다. 브라운 대령, 슈 중령, 맨스필드 중령, 게이스트 소령, 드루스 대위 등은 제주 상황을 논의하고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사항을 고지하였다.

- a.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모든 종류의 시민 무질서는 종식되어야 한다.
- c. 게릴라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비대와 경찰사이에 확실한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 d. 미군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¹³⁾

4월 29일 작성된 미군 보고서에는 4월 27일 12시 30분부터 경비대가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마을을 수색했고, 4월 28일에는 경비대가 네 개의 마을 수색하며 슈 중령은 L-5기 안에서 작전을 참관했고, 4월 29일에는 모슬포에서 노루악까지 수색하고, 4월 30일까지 이어서 마을을 수색하는 계획이 잡혀있었다. 이 작전의 지휘자는 김익렬이었다. 미군의 문서에는 평화협상 같은 것은 없었다. 더욱이 4월 28일은 진압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진 날이었다. 그런데 김익렬은 한 쪽으로는 진압작전을 수행했고, 한 쪽으로는 평화협상을 타결하여 제주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으니, 도대체 김익렬은 몇 명이더란 말인가.

김익렬은 4.3을 한 달 밖에 겪지 못한 사람이었고, 김익렬의 유고는 개인의 뉘저리를 풀어놓은 회고록이었다. 김익렬의 글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인용될 정도의 신빙성은 부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익렬의 회고록과 배치되는 공식 문서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4.3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묵살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거나, 왜곡 날조된 문서들을 골라 4.3정부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4.3정부보고서는 왜곡과 날조가 판치는 소설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4.3정부보고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4.3정부보고서의 날조에 고의성이 있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13) 제주4·3사건자료집7. 237쪽

3. 4·3 희생자 선정 기준 논란과 결정

- 수형인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 장 승 홍 언론인

제주의 4·3은 제주도의 최대 비극이며 최대 참사이다.

이 제주도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제주도민에게 희생을 불러온 책임자들이 있다.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죄 지은 수형자들이다. 이 수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제주 4·3희생자 선정 하는 첫 단추로 선정 기준을 잘못 정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왜곡된 '4·3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잘못된 선정 기준에 의해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하고 말았다.

더욱이 잘못된 결정을 옳은 결정인양 2007년 1월 '4·3 특별법'이 개정돼 희생자의 정의에 '수형자를 희생자로 한다'고 대못까지 박고 있다.

제주 4·3희생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제주4·3중앙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산하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는 2002년 1월 31일 제6차 회의에서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4·3중앙위(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2002년 3월 14일 심사소위의 안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결정한 내용에서 ‘공산 무장병력 중간 간부’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 까지를 ‘희생자’로 포함시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제주4·3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 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 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들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족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02년 3월 15일 조선일보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 위원은 박재승(朴在承, 서울 시변호사협회장), 김삼웅(金三雄, 전 대한매일 주필), 서중석(徐仲錫,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한광덕(韓洸德, 전 국방대학원장), 이황우(李璜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문철(林文喆, 제주서문성당 주임 선부), 박창욱(朴昌彥, 전 제주4·3 사건민간인희생자 유족회장) 등이
다. 현재가 요구하는 대상자로 기준을 정할 것을 주장한 것은 한광덕·이황우 두 위원 뿐이었다.

이 두 위원은 2002년 11월 20일 1차로 희생자로 심사 요청한 1,801명 중 4·3 수형인을 제외할 것을 끝까지 주장했다. 중앙위(위원장 김석수 국무총리)는 최초로 1,715명을 희생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때는 수형인이 제외됐다.

그러나 2003년 3월 21일 2차로

2002년 3월 15일 조선일보

軍警살해·방화범도 명예회복포함 논란

정부, 제주 4·3사건관련 결정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른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 관련자 가운데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者)의 선정 기준을 ▲4·3사태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수괴급 등 두 가지만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제주

4·3사건 당시 군경 및 가족 살해자, 관공서 방화 관련자 등 헌법재판소가 명예회복이 되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사람들까지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제주 4·3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 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족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4·3위원회에 참석했던 한광덕(韓洸德·전 국방대학원장) 위원은 "4·3위원회에 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진상조사기획단이 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재야측 주장만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4·3사건을 제주도민의 정서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이를 과잉 진압한 군·경이 문제라는 시각에 따른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曹熙天기자 hccho@chosun.com

1,063명(*1차 1,715명, 계 2,778명)을 희생자로 결정한 이후 3월 27일과 4월 10일 심사소위에서 수형인 18명(2명은 부적합)을 포함(2003년 5월 2일, 6월 11일자 제민일보)시키면서 수형인에 대한 현재 선정 기준의 잣대가 흔들렸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2003년 10월 15일 중앙위에서 수형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희생자 결정여부가 보류됐다. (2003. 10. 21. 제주일보)

이어 4·3사건 유족회 이성찬 회장은 4·3특별법의 미비점으로 수형인들의 문제를 거론했다.

“군사재판을 받은 그 당시 수형인들의 재판 자체가 무효라면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명예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기록이 남아있다면 죄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수형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수형인들의 완전한 명예회복도 과제로 들었다.

-2003년 11월 1일자 한라일보 -

2003. 12. 12. 제민일보는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관계자는 ‘4·3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차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던 4·3수형인 등에 대한 심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는 모두 1만4028명으로 지금까지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인원은 5044명이다.”

2004. 6. 28. 제주일보는 “제주 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26명이 4·3희생자로 잠정 확정됐다.

아직 4·3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사과 및 4·3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17대 총선과 6·15 재보선에서 여야의 공약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수형인들의 희생자 최종 선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는 28일 오후 4·3사건처리지원단 회의실에서 제33차 회의를 열어 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 지정을 요청한 4·3사건 사망자 258명·행방불명인 149명과 유족 924명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4·3수형인은 126명(사망 26명, 행방불명 100명)으로 1947년 3·1발포사건 이후 3·10총파업 등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다가 6·25전쟁 중 형무소에서

처형 또는 행방불명된 제주출신이 상당수 포함됐다.

심사소위의 이번 결정은 ‘4·3 당시 군법회의 등이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4·3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수형인 딱지’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4·3수형인의 희생자 심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당시 군사 및 일반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은 수형인 3836명 가운데 여태 신고를 하지 않은 2127명에 대한 재신청 기회 부여와 함께 옥살이로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수형인들의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3월 17일 수형인들이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2005. 3. 18. 제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제주 4·3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4·3수형인 606명과 국가유공자 452명을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

4·3위원회는 이날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가 안건으로 상정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총 3541명(사망자 2496명, 행방 불명자 1012명, 후유장애자 33명)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회의에선 당시 적법한 절차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4·3희생자로 결정됨으로써 사건발생 반세기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후유장애를 앓는 수형인(16명)의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수형인을 재심절차 없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명예회복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죄 등으로 징역 5년 이상을 받은 수형인은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 4·3 관련 수형

그러나 위원회는 4·3보고서에 명시된대로 ‘4·3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이 아니므로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 취지와 관련, “4·3 특별법 및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기준에도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직접적 규정이 없다”면서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문제로 ‘희생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김승규 법무, 윤광웅 국방, 김근태 보건복지, 김선욱 법제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김태환 도시사 등 정부위원 8명과 강만길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임문철 신부, 김정기 서원대 교수 등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다.”

2005. 3. 19. 제주일보 사설은

“... 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4·3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재심절차 없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명예회복 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비, ‘법적 안전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게 됐다.

제주4·3 관련 군법회의는 제9연대와 제2연대 분으로 구분된다.

제9연대 군법회의는 1948(4281년). 12. 3.~ 29(27일간 언도) 871명에 대해, 제2연대 군법회의는 1949. 6. 28.~ 7. 7(10일간 언도) 1,660명에 대해 치러졌다. (모두 2,531명)

제9연대에서 사형이 39명, 무기형이 67명으로 106명, 제2연대 경우는 사형 345명, 무기형 238명으로 58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차에 걸쳐 689명(27.2%)이 중형을 받았다.

죄명은 내란음모 및 소요방조죄, 살인, 방화죄, 내란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1차(9연대) 사형자 중 6명, 무기형 20명 등 26명(24.5%)이, 2차(2연대) 사형 76명, 무기형 60명 등 136명(23.3%)이 희생자로 신고하

인명부와 희생자 명단

지 않았다. 미신고자는 모두 162명으로 미신고율은 23.5%이다.

중형자 중 희생자 결정은 527명, 비율은 76.5%가 된다.

특히 2011. 1. 26. 추가 결정된 희생자 469명 중 214명이 수형자이다.

이것은 4·3 때 폭도와 직접 관련자 상당수가 희생자로 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복유(玄福裕, 조천중학원장), 현호경(玄好景)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등이다. 현복유는 1949. 6. 29 사형 선고(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1143), 현호경은 1949. 6. 30. 사형(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1212) 등이다.

4·3위원회는 4·3군법회의의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수형인들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희생자 심의·결정기준’에도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어진 희생자 결정권으로 ‘수형인’을 희생자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

이번 결정이 15년 이하 수형인들만 희생자로 결정함으로써 20년 이상 수형인 2000여명이 아직 남아있다.”

2006년 3월 29일 4·3중앙위는 4·3 수형인 1250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 중앙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망자

1688명, 행불자 1177명과 유족 5517명을 4·3희생자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전체 신고자 1만4373명 가운데 1만2725명(88.5%)에 대한 희생자 심의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남은 신고자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희생자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3수형인의 희생자 결정여부를 놓고 민간위원과 군·경측 위원간 공방을 벌인 끝에 1250명 전원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2006. 3. 30. 제민일보 -

수형인에 대한 논란의 과정을 되짚어 본다.

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 4·3연구소(소장 강창일)는 ‘제주4·3희생자 선정기준 논란’에 따른 긴급 토론회를 2002년 1월 25일 열었다. 이곳에서 선정기준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 인권의 신장을 목적으로 만든 4·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신고된 희생자 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은 “지난해(2001년) 9월 헌법재판소의 4·3특별법의 위헌심판의 결정문을 통해 제시한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등을 희생자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들을 제외할 경우 토벌대의 입장에서 과잉진압을 해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들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성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의 인권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4·3특별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인권의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인권의 회복이라는 기본 명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민일보는 2002년 1월 12일자에서 ‘4·3논쟁 해법 찾아야’ 해설기사에서 “지난 96년 48주년 4·3 합동위령제에서 위령대상 인사를 놓고 도내 각 단체들 간의 합의사항 도출을 예로 들며 이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도민사회는 자칫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는 위령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합의를 통해 합동위령제를 성사시킨 바 있다”고도 밝혔다.

4·3중앙위원회 한광덕 위원(전 국방대학원장)은 2002년 3월 6일 조선일보에 ‘4·3 희생자 기준에 문제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했다. 기고문은 “4·3 심사소위에서 ▶제주 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군정에 주

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우두머리 등으로 명예회복 대상 제외자의 기준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통과된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도내 4·3 관련 단체들과 유족들은 현재 1만4000여명의 신고자 중 심사소위의 일부 위원들의 견해대로라면 일반재판 대상자와 수형인 등 3,5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희생자에서 제외돼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 1월 12일 제민일보 -

이에 대해 이성찬 4·3 유족회 회장은 “희생자 선정이 보상자 심의가 아닌 만큼 선정기준은 4·3으로 인한 희생자 인지 여부를 따지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4·3심사소위는 “4·3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건이며, 4·3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 경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우두머리 등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로 결론짓고 최종 결정을 중앙위로 넘겼다.

그러나 아직 4·3에 대해 역사적 평가나 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의적으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진상조사 활동과 역사적 평가작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002년 3월 14일자 제민일보-

※이는 희생자 선정기준이 4·3 성격 규정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념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이념에 따른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2002년 3월 15일자 한라일보 기사에서 유족회의 속내가 드러난다.

“한편, 이날 상경했던 제주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중앙위

의 회의 결과에 대해 희생자 대상으로 삼은 ▶제주 4·3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의 규정은 4·3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두연 제주4·3유족회 부회장은 “중앙위의 결정은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희생자 제외기준은 4·3을 남로당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4·3의 성격 규정을 미리 내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3월 16일자 제민일보 사설에서도 4·3 성격의 예단을 우려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기준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훼손과 주도적·적극적 참여정도를 심사기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등은 제주 4·3의 성격을 미리 예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4·3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상규명에 앞서 제주 4·3의 성격을 예단하고 희생자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날짜 한겨레신문 해설기사에서도 같은 시각이다.

“이날 서울의 회의 결과가 제주에 알려지면서 유족들과 4·3 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진상규명도 되기 전에 일부(극우세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4·3 성격을 예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제민일보는 2002년 4월 3일 사설에서 같은 시각을 또 언급했다.

“기준의 핵심은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항거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4·3의 성격을 예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특히 도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진상 규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처벌이나 배상과 보상에 집착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이데올로기 잣대로 희생자를 걸러내는 것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을 들어 희생자 제외 대상을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진상규명 작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2년 3월 18일 사설에서 “4·3’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이며, 우리 현대사의 정당성 문제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모처럼의 해원(解冤) 취지가 당시의 군경과 그 가족들에게 역(逆)의 아픔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방식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3유족회(회장 이성찬)는 “희생자 선정기준은 인권회복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4·3 중앙위가 불행한 역사의 ‘시대의 희생자’들에게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4·3희생자 선정기준에 의해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희생자 결정 심사 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유족회가 4·3의 당사자인 점을 감안하면 4·3 중앙위가 결정한 희생자 선정 기준에 대해 백지화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여나겠다고 밝힌 것.

4·3유족회는 “이번에 마련된 희생자 선정기준이 4·3의 성격을 예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3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3월 19일 제주일보 -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02년 4월 11일자 제민일보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4·3 희생자 기준은 좌파적”이라는 발언을 망발로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3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선정기준 결정을 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좌파적 처사”라고 발언,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제주4·3사건 명예회복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치 않은 채 희생자에 군·경 가족 살해자와 관공시설 방화자를 포함시킨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좌파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4·3특별법 제정 취지가 화해와 용서를 통한 역사 청산과 인권신장인 만큼 피해자 선정 기준을 폭넓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 도내 4·3 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박 논평이 빗발치는 등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4·3은 공산주의자들의 무력폭동” 발언을, 제민일보는 2002년 4월 19일자 기사로 ‘한나라당 또 망발’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력폭동이라는 등 ‘망발성’ 극우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상당수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력폭동이라는 4·3사건의 본질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결정된 4·3희생자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4·3사건을 정의로운 민중항쟁에 맞서 국가 공권력

이 일으킨 대규모 양민학살사건으로 거꾸로 규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이 "4·3희생자 선정기준은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좌파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극언을 한 뒤 꼭 일주일만이다.

도민들은 '노퐁'으로 한나라 대선 후보군을 앞서고 있는 개혁성향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맞서기 위해 '보수'를 끌어안아 보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꼼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퐁' 견제 위한 정치적 '꼼수'

■ 한나라당 잇따른 4·3 '망언' 배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잇따른 극우 편향적 '망언'으로 제주4·3특별법에 의해 반세기여만에 해원의 심마리를 찾고 있는 제주4·3에 재를 뿌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3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

킨 무력폭동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는 상당수의 억울한 희생자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원혼에 대한 '유감'보다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들먹이기에 급급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0일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4·3희생자 선정기준과 관련, 현 정부가 스스로

난 곳'이라고 '망언'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차원의 사과로 일단락된 적이 있다. 4·3 치유단체로 들어서고 있는 최근 약 2천명에 다시 시작된 4·3에 대한 한나라당의 '판지결기'는 지방 및 대통령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퐁'으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군을 앞서고 있는

보수층 지지노린 당차원 전략인 듯 보·혁구도속 4·3 정치적 악용 우려

한나라당 의원 43관련 '극우' 발언 일지

한나라당 의원 4·3관련 '극우' 발언 일지

7김용갑 의원(1998.12.16)

4·3사건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재규정하는 것은 범죄다

8김기현 의원(2000.9.29)

제주도는 반란사건이 일어난 땅이다

9박세환 의원(2002.4.10)

4·3희생자 선정기준은 헌정부의 좌파적 정체성에 대한 증거다

10김용갑 의원(2002.4.10)

4·3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 무력 폭동이다

개혁성향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계층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꼼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세환-김용갑 의원의 발언은 사건이 되기 보다 보수계층을 노린 한나라당의 '우향우'를 위한 예고편일 수도 있어 앞으로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4·3이 '악몽'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김철용 기자>

이들 발언에 따른 또 다른 일이 벌어져 제민일보는 2002년 4월 20일자에 '대변인 설화(舌禍)' 제목의 기사 칼럼이 실렸다.

"19일 4·3 유족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4·3 왜곡 발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를 방문했다. 도지부에 들어선 유족들이 처음 내뱉은 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한 항의보다 "대변인이 누구냐"하는 것이었다.

17일 도지부 대변인 이름으로 나간 성명에서 4·3 단체들이 편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도지부 정경호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98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의 CNN방송과의 회견 내용과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4·3발언을 예로 들며 "4·3 관련 단체의 '정당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인식'에 섭섭함을 표명치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었다.

유족들은 4·3 단체를 정당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대변인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과 논평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으려는 대변인과의 대결로 항의방문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과 대변인 사이에 고성이가 오갔으며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한 유족은 “도민의 아픔을 같이해야 할 도지부 대변인의 논평이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4·3단체들이 도지부를 방문하기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정대변인은 “곤혹스럽다. 그들과는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은 강패집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 우익단체들도 나섰다. 제민일보는 2002년 5월 28일자에 “4·3특별법 또 ‘뺨죽걸기’” 제목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자유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임광규)는 27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제주4·3특별법과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제주4·3위원회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명예회복 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명백한 공산폭도들까지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민주화보상위 및 4·3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동의대 사건 연루자 및 전교조 해직교사를 재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건국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6·25전몰유족회 등 49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이 모임 관계자는 밝혔다.”

2003년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고 기술, 수형자에 대한 명

예회복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11월 6일자 한라일보는

“보고서에는 1948, 1949년 치러진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유족 및 관련 학계 단체에서는 당시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돼 처형되거나 복역한 수형자들을 희생자의 범주에서 제외해선 안되며, 이들에 대한 재심을 비롯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는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2004. 11. 2. 제민일보는 4·3 특별법 개정 검토안에서 수형인 재심청구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도했다.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조항과 상설적인 희생자 신고·접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강창일(본지 11월1일자 1면)이 추진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검토안은 △ 4·3 추모일 지정 △ 4·3평화인권재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형인 문제 등은 아직 개정 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부실한 재판과정과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지적되고 있는 4·3당시 수형인의 경우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더라도 이는 상징적 조치일 뿐 법원 기록 등에서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31일 김천형무소 등을 찾았던 4·3도민연대순례단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1948-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 군사재판임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 부모, 내 자식이 죽어간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4·3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형인 중 4·3 희생자로 결정되면 법률적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4·3특별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실은 4·3특별법 개정(초)안에 대한 4·3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5일째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4·3 특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제주4·3 중앙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2005년 3월 17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수형인 606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제21차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에서 후유 수형인 16명을 희생자로 인정, 그해 10월 열린 제8차 전체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에 상정했으나 유보된 지 2년만의 결정이다. 그때도 ‘4·3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이 아니므로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형인을 재심절차 없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명예회복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허나 고건 총리는 “4·3당시 군법회의 절차가 엄격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수형자로 되어 있는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4·3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관련해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처리하자”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이날 이해찬 총리는 ‘4·3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말했다.

4·3 유족회원 일부 법조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 기록 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제주 4·3도민연대가 2005. 6. 29. 제주칼호텔에서 연 ‘4·3특별법 개정위한 도민토론회’에서 정문현 4·3유족회 부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4·3유족들에 대한 교육·의료 등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군사재판의 유죄 기록 폐기 등 명예회복에 따른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 6. 30. 한라일보-

2005. 7. 7. 제민일보에는

“... 4·3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 재심문제는 오히려 이들의 명예회복에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다’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형식적인 답변내용을 보면 제주도 당국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성윤 변호사는 ‘4·3특별법 개정방향은 재심보다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수형인 명부 폐기 등의 처분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수형인을 희생자에 포함하여 희생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4·3추념일’(*4·3 도민연대는 ‘4·3항쟁 기념일’을 주장)로 지정하고, 제주 4·3평화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평화인권재단은 사료관·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비롯해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 ▶4·3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희생자의 범위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와 수형자를 추가했다.

4·3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현지 조사와 집단 학살책임자 및 현장 총살책임자의 확인 등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4·3위원회에 실지조사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은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해 전과기록 및 수형자 명부 등을 삭제 또는 폐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별도의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 및 대부 등의 특례 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 10. 18. 제민일보, 2005. 10. 26. 제민·제주일보 -

우익계의 반발도 있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수구·우익계의 ‘발목잡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최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반대 의견서를 제출,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2의 제주 남로당(공산주의)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라고 주장,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와 도내 4·3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우익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주 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됐으며 최근에는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반대의견까지 제출했다.

대책위원회에는 국내 대표적 우익단체인 자유시민연대의 류기남 의장을 비롯해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 박익주 예비역 장군(4·3당시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아들), 이선교 목사 외에 제주 출신 오형인 건국유족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반대의견을 통해 “4·3사건을 무장봉기로 규정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의 개정안은 공산반도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본 것이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17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 인민유격대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과 제주도는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면서 “보고서는 이러한 진압의 정당성에 대한 진상은 규명하지 않은 채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4·3보고서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보고서는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폭동을 봉기라고 했다”며 “보고서는 특별법 제1조 ‘진상 규명’자체를 위반한 불법 보고서이자 제2의 제주 남로당(공산주의)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다”고 단정, 유족은 물론 4·3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4·3단체의 한 관계자는 “4·3의 올바른 진상규명에 따른 수구세력

들의 발목 잡기가 또 시작됐다”면서 “이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말했다.

-2005. 11. 7. 제민일보 -

4·3특별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자(*생존) 까지 확대했다.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07년 1월 24일 공포됐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87명 중 176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만에, 강 의원이 2005년 10월 19일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2개월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4·3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 진상규명과 평화인권재단 설립 등 후속작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3희생자 범위를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에서 수형자(*생존)까지 확대한 것을 비롯해 유족의 범위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 시켰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반영해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및 정부의 기금 출연 규정을 명문화하고 4·3에 대한 추가진상조사와 평화공원 관리를 담당케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주체도 법규정화 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재승 희생자

강창일 의원은 “오늘의 결과는 제주 4·3영령 등과 제주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이룩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도를 평화와 인권이 살아숨쉬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제주도 4·3사건 희생자유족회와 4·3연주소 등 7개 단체도 논평을 내고 “유족범위 확대와 희생자 유해발굴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추념일 제정 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 12. 23. 제주일보 -

제주4·3중앙위(위원장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는 2007년 3월 14일 제12차 전체 회의에서 사형수· 무기수 868명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는 희생자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 변호사)가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법회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른바 ‘빨갱이’, ‘폭도’로 몰린 이들을 정부가 모두 4·3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07. 3. 15.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지난달 14일 오랜시간 도민이 기다려온 정부의 불법 군법회의 불인정, 사형 무기수 희생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재승 위원장은 누구나 납득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무엇보다 논란이 돼 온 군법회의 명령서의 부당성을 증명해 낸 박위원장은 “군법회의 명령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 사형무기를 받은 수형자들을 어떻게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위원회는 상당기간 방대한 기록을 정밀조사하고 관계기관의 사실조회, 수형인으로 돼있는 수십명에 대한 조사와 군법회의를 진행한 지휘관의 진술, 취조경찰·호송경찰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 결과 군법회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점은 4·3진상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정리됐다”며 “재판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재판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판의 부존재나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독일이 지난 1998년 나치의 불법 판결의 파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포괄적 불법청산 방식을 도입해 과거사를 해결하

심사소위 위원장

고 있는데 4·3특별법 방식은 특별법에 의한 개별심사 방식으로 독일보다는 직접적이지 못하지만 희생자 심사라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어냈다”며 “우회적이긴 하지만 수형인의 희생자인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4·3위원회에 대해선 위원들의 바른 역사의식과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4·3특별법의 정신처럼 제주도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7. 4. 3. 제민일보 -

“제13회 사시를 통과한 그는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하던 중 중앙정보부의 재판 간섭을 거부했다가 1977년 초에 제주지법 판사로 ‘쫓겨난’ 경력이 있다. 유신정권이 종식되어 1979년 11월에 다시 서울로 갈 때까지 3년 가까이 제주 생활을 해서인지 제주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안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위원장도 ”

-2008. 4. 3. 제민일보 -

라중삼(羅鍾三,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2013년 3월 26일 ‘제주4·3, 화해와 상생의 길은 없는가?’ 주제 토론회(인터넷 방송 동아방송 제주방송국 주최)에서 “희생자 중에는 군법회의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다.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명예회복 시키려면 재심을 받아야 한다. 재심을 받지 않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킨 것은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4·3 특별법(명예회복 절차부분)은 위헌이라 생각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애초 희생자 심의 기준을 결정할 때 문제가 비롯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한 소위 진보학자·좌파들이 4·3심사 소위위에서 심의 기준으로 수형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4·3 심사 소위는 물론 중앙위 위원들 가운데 군·경측 위원을 빼고는 모두 좌파일색으로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4·3을 민중항쟁으로 몰고 가려하는 역사의 죄인들이다. 수형인들이 4·3 특별법에 희생자로 대못이 박아 졌다.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4·3 연구가 고문승(高文昇)

전 교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 형벌을 받은 수형자(受刑者)가 희생자가 된다는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수형자들을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조봉암이 대법원에서 간첩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재판해서 (재심해서) 무죄(無罪) 판결을 받았고 조봉암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도 지불했던것 처럼” 제주4.3사건 특별법에서 수형자(受刑者)들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4·3의 희생자’로 하여야 하는데 재심을 하지 않고 희생자로 한다는 제주4.3 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다.

고 교수는 99년 11월 변정일, 양정규, 현경대 의원 외 110인이 발의한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재심관련 조항이 있었다는 것. 이 법안의 제14조 (재심의 특례)에서 “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 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다음같이 발언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제208호 --제 22차)

“이미 1999년 11월 18일 한나라당 소속의 변정일 의원외 112인의 의원으로부터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2일 부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10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도 ‘제주 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던 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9일 제20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 모두 그 내용이 제주 4.3사건당시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주민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

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두건의 법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각각 수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제 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고 교수는 “국회행정자치위원장 대리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변정일 의원 외 110인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폐기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폐기하였다는 것은 수형자들을 재심할 수 있다는 ‘특별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결국 ‘제주 4.3특별법’에 수형자(受刑者)도 희생자가 된다는 조항을 삽입, ‘제주 4.3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고 교수는 “왜 판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인 추미애 의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제주 4.3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는지 알 수는 없다. 왜 판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인 변정일 의원과 검사의 경력이 있는 현경대 의원을 비롯한 112명의 한나라당의원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제주4.3특별법안을 추미애 의원이 폐기하는 데에 동의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어 “왜 대법관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회창 의원(한나라당 대표)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제주4.3특별법안을 추미애 의원이 폐기하는 데에 동의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힌다.

제주4.3 특별법에 수형자(受刑者)를 희생자로 한다는 규정은 “수형자(受刑者)는 누구에게 형벌을 받았는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 혹은 법원인데 형벌을 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 혹은 법원이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봉암 유가족은 국가의 배상금을 받고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의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이 ‘제주4.3 특별법’이 된 것이다. 수형자들을 다시 재판(재심)을 한다면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조봉암 유족처럼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재심을 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2001년 제주도의회 제주4.3 특별위원회가 발행한 제주도 4.3 피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의 사망자----- 12,243명

토벌대에 의한 사망자----- 10,277명

무장대에 의한 사망자 -----	1.353명
기타 -----	209명
분류불능-----	404명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이후 수년동안은 폭도, 공비(共匪 : 공산 비적) 제주인민해방군이라고 했다.

다시 재판을 할 경우 <무장대에 의한 사망자 ----- 1.353명>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관 수백명을 포함하여 5.10선거 (제헌의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들 1,353명을 살해한 무장대(폭도, 공비(共匪 : 공산 비적) 제주인민해방군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12,243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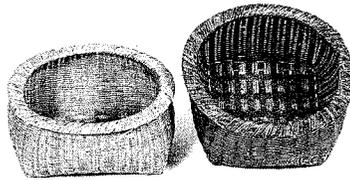
고 교수는 “내란죄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희생자로 하기 앞서서 이 사람들을 재심해서 즉 다시 재판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조봉암 유족들처럼 국가배상금도 받게 하고 제주4.3의 희생자로 하여야 하는데 재심의 기회를 ‘제주 4.3특별법’은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변정일 의원 등 한나라당 112명 의원들이 제안했던 재심할 수 있다는 ‘4.3특별법’ 초안을 국회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내란죄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수형자(受刑者)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한다는 ‘제주4.3특별법’은 수형자들을 재심을 하고 무죄판결을 받게 하고 희생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희생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수형인 상당수가 억울하게 끌려간 경우가 많다. 또한 수형자들 가운데는 부화뇌동하여 한라산에 입산, 인민해방군이 된 자도 많다. 그 희생자들은 행방불명자이다. 문제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과 6·25였다. 이 두 사건으로 대부분 희생하게 되는 비극을 낳았다.

그러나 4·3 중앙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무시했다. 수형인을 재심절차 없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명예회복을 시킨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치이다. 또한 4·3의 주동자, 4·3의 비극을 낳게 한 동조자들에 대한 심사를 소홀하여 마구잡이로 희생자를 결정한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후퇴시킨 반역사적인 결정이다.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케 한 관계인을 마치 영웅인 것처럼 받드는 것은 후일 역사가와 법률가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으로 본다.

4·3에 돌아가신 부모와 부모를 죽인 가해자, 폭도의 위패가 나란히 있는 4·3 평화공원에서는 부모님을 결코 기릴 수 없다.



4. 폭도들의 잔인한 폭력과 테러

- 편집자

1948년 4월 3일은 역사 이래 제주도민의 가장 큰 비극이고 참극(慘劇)이었다. 이 참극은 남로당원에 의해 저질러졌다. 초기 경찰가족과 우익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만행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에게 까지 확대됐었다.

남로당의 최악은 어떤 일인지 날로 감추어지고 군·경 토벌대의 과잉 진압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는 좌편향 인사들에 의해 ‘제주4·3의 역사’는 왜곡 날조됐다. 그것이 좌파정권 때 이뤄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다. 폭도들의 잔인한 폭력과 테러는 거의 숨기거나 외면하고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했다. 왜곡 날조된 이 보고서를 ‘정부보고서’란 이유로 제주4·3의 성경(聖經)으로 대못을 박고자하고 있다. ‘4·3 보고서’는 절대 불변의 보고서가 아닌 것이다.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잘못된 보고서인 것이다.

폭도들의 잔인한 만행에 대해 ▲언론의 보도 내용, ▲책자의 수록 내용, ▲유족 등의 증언 내용 등을 살펴본다.

먼저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1948년 5월 4일자 동광신문을 통해 양민의 유아(幼兒)와 노인까지 살상한 폭력사실이 드러난다.

“동지(同地)의 폭도들은 무자비하고 잔학무도한 야만적 행동으로 경관은 물론 그 중 양민의 유아 및 60~70 노인까지 살상을 감행했다”고 경무부 김대봉(金大奉) 공보실장의 기자회견문을 실었다.

이어 1948년 5월 8일자 동아일보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동족살상이 인민항쟁인가 : 아아! 그들 사이에는 생명을 빼앗고 빼앗을 그 이상의 원한이 있었는가? 과연 그 폭동을 그들이 말 한 바 소위 인민봉기라고 백번 천번 굽혀서 찬미를 하자. 인민봉기를 했으면 했지 총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를 다시 칼로 난자하고, 목을 매고, 심지어는 귀를 자르고 코를 깎아버릴 뿐 아니라, 임신부의 배를 찌르지 않으면 안 될 원한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어제도 제주도에는 기자가 아는 상식과 용어로는 그 처참한 광경을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그만큼 비참하고 무자비한 살해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1948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에는 경무부 김대봉(金大奉) 공보실장이 기고한 내용이 실렸다. 폭동의 잔인성에 대한 내용이다.

“△폭동의 잔인성 : 이 폭도들의 제1목표는 살인이다. 경찰관을 참살하는 외에 그 가족도 참살한다. 4월 18일 신촌에서는 경찰관의 육순의 녀은 노부모를 죽이되 목을 자른 뒤에 수족을 절단하였고, 그 외 가족 2명을 중상시켰으며, 4월 20일 선흥에서는 임신 중인 경관의 아내를 죽이고 배를 갈랐다. 4월 19일 애월에서는 경관의 6촌 형을 살해하고 현금 7만 8,000원을 강탈했으며 동지 대동청년단 지부장을 살해하였다. 4월 22일 모슬포에서 면서기 2명을 살해하고 또 경관의 부친을 총살한 뒤에 그 수족을 절단하였다. 그들은 부락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하고 주류, 금품을 제공케 하며 부녀를 매음시켜 금전을 조달한 실례도 있다.”

1948년 6월 9일자 경향일보와 함께 대동신문, 동아일보, 한성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천인공노할 폭도들의 만행이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8일 발표한 폭동의 진상은

폭동이 일어나자 1읍 12면의 경찰지서가 빠짐없이 습격을 받았고, 저지리 청

수리 등의 전 부락이 폭도의 방화로 타버렸을 뿐 아니라 그 살상 방법에 있어 잔인무비하여 4월 18일 신촌서는 육순이 넘는 경찰관의 늙은 부모를 목을 잘라 죽인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임신 6개월 된 형수를 참혹히 타살하였고,

4월 20일에는 임신중인 경찰관의 부인을 배를 갈라 죽였고, 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 한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 채로 매장하였고,

5월 19일 제주읍 도두리에서는 대동청년단 간부로서 피살된 김용조의 처 김성희(金性姬·24)와 3세 된 장남을 30여 명의 폭도가 같은 동리 고희숙(高熙淑) 집에 납치한 후 십수명이 윤간하였으며, 같은 동리 김승옥(金承玉)의 노모 김씨(60)와 누이 옥분(19), 김중삼(金仲三)의 처 이씨(50), 16세 된 부녀 김수년(金水年), 36세 된 김순애(金順愛)의 딸, 정방옥의 처와 장남, 20세 된 허영선의 딸 그의 5세, 3세의 어린이 등 11명을 역시 고희숙의 집에 납치 감금하고 무수 난타한 후 '눈오름'이라는 산림지대에 끌고 가서 늙은이, 젊은이를 불문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윤간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창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젖, 배, 음부, 볼기 등을 함부로 찢러 미처 절명되기 전에 땅에 생매장하였는데 그 중 김성희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폭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부락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함은 물론 심지어 부녀에게 매음을 강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천인이 공노할 그 비인도적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이어 1948년 7월 18일자 경향신문에는 '제주도 이모저모'라는 양기하(梁基河)의 기명 기사가 실렸다.

“4월 3일에 일어난 소란의 시초이고 그 후 경찰력 우익세력이 완전하지 못함을 기회로 저 조선 팔경의 제일로 손꼽는 한라산을 그들이 근거지로 하여 각처에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기백(幾百)의 동족을 상살(相殺)하게 되었다.

산부대 소위 인민군의 공격목표는 A) 경찰관 B) 대청 및 서청단원 C) 군정관

리 D) 선거위원 및 입후보자 또는 그들의 가족인데 그 죽이는 방법도 조선식은 아니고 개량식(改良式)이다.

실례로 남원지서 고(高)형사 외 1인을 죽인 것을 보면 가마니를 덮어서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철저한 화장(火葬)을 한 것이다.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피살당한 수는 일일이 매거(枚擧)하기 어렵다.”

1948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정기버스를 공격했다.

“지난 26일 하오 3시경 일반 승객을 만재(滿載)하고 남제주군 서귀포를 출발한 제주자동차회사 정기버스는 애월면 수산리와 신엄리 사이에서 폭도의 피습을 받아 19세의 소년 1명이 즉사하고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수의 필사적 노력으로 버스는 무사히 제주읍에 도착하였다.”

1948년 12월 9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폭도들의 방화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실상을 밝힌다.

“임관호(任瑄鎬) 제주도지사가 말한 제주사태 진상은 제주도에 있는 집을 죄다 없애라는 북로당 지령에 의해 폭도들이 방화한 가옥 소실동수는 무려 3,000동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참상을 이루고 있는 곳은 남원의 300호, 남원면 위미리 북락에 있는 400호의 민가가 지난 11월 하순경 폭도들의 방화로 한꺼번에 전소하여 버린 것이다. 그리고 폭도들의 만행은 지난 11월 중이 가장 악랄하여 서귀포 공립중학교, 동 면사무소를 비롯한 해안부락 1,100호에 대한 잔인한 방화는 전부 전달(11월)에 감행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폭도들의 방화로 인하여 집을 잃고 헐벗은 이재민의 수가 1만2,000명인데 그 중 8,000명은 긴급원호를 요하는 요구호자들이다.”

1952년 12월 6일자 제주신보에는 “공비의 생활상은 이렇다/ 내가 겪은 한라

산 속의 14개월/ 의심 암귀(暗鬼)의 비밀/내부분열로 약체화 현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놈들은 입으로는 해방을 부르짖으며 누구보다도 인민을 위한다고 허울 좋은 말을 뱉고 있으나 기실은 무자비한 독재를 하고있는 □□이다. 불평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표기 즉 토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히 의심 암귀(暗鬼)의 환경이 양성되며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를 같이하는 친한 사이라도 비밀이 많다.

금년 봄에 발생한 내부분열이 좋은 실례인 즉, 허영삼(許永三) K책(K책은 총사령관이라는 뜻)이 아직 살아있을 때 4·3사건 당시부터 폭도 노릇하고 있는 권팔(權八), 이□행(李□行)이 지급되는 탄약 등이 부족하여 청하지 못하고 남몰래 감추어 왔다.

이 사실은 허영삼이 경찰부대에 사살되고 김성규(金成奎)가 K책으로 된 후 발견되었다. 김성규는 자기와 막역지간인 권팔이를 용서없이 고문하였으며 고문을 견디지 못해 권팔이는 어느 날 밤 원대(原隊)에서 탈출했다. 그 후부터 김성규의 부하에 대한 단속과 폭행은 더욱 심하여져 과거의 충실한 동무는 하나둘씩 원대(原隊)에서 이탈, 끝끝내는 권팔에게 가담한 자가 11명이나 되어 지속되는 냉전으로 분과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양대(兩隊)가 치열한 내부□□이 내려진 끝에 과세(寡勢)의 권팔 일파가 전멸되었으나 김성규파에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폭도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폭도들이 정신적인 단결은 괴멸하기 시작하였다....”

허영삼이 폭도 사령관으로 된 것도 내부 반란

이 같은 내용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42쪽에도 내부 반란에 의해 허영삼이 폭도 사령관이 됐다고 서술했다.

“한라산의 무장대 60여명은 6·25 전쟁발발 소식을 듣고 7월 어느 날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지도부에 있던 3명은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젊은이들은 ‘4·3을 일으킨 영웅적 전통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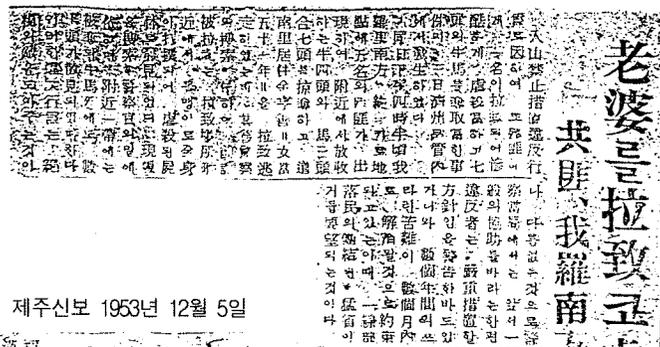
결국 그날 밤에 허영삼, 김성규 등이 주동이 되어 고승옥 등 세 사람을 포박했고, 이튿날에는 인민재판에 부쳐 살해하였다. 그런 연후에 김성규가 무장세력을 몰고 중문에 들어왔다는 게 경찰 출신자의 증언이다. 허영삼이 그날로 무장대 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1953년 12월 5일자 제주신보에는 폭도로 남아있던 5명이 양민을 납치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내용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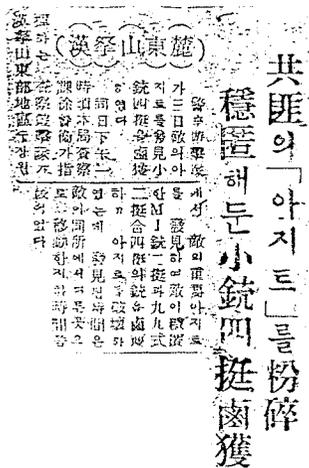
“입산금지조치 위반행위로 인하여 또 잔비에게 1명이 납치되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7두의 우마를 탈취한 사건이 3일 제주읍 관내에서 발생하였다.

동일 하오 4시반경 아라리 남방 약 1km 지점에 5명의 잔비가 출현하여 부근에서 방목하는 우 4두와 마 3두, 합 7두를 약탈하고 도남리 거주 김형선(金亨善·여·당 51세)을

제주신보 1953년 12월 5일



제주신보 1953년 12월 5일



납치 도주하였는데 그 후 경찰의 수색에 의하여 전기 피랍자는 납치장소 부근에서 돌맹이로 전신이 타박되어 학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다음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 등을 밝힌다.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89~90쪽, ‘4·3은 말한다 ②’ 28~29쪽에 실린 내용이다.

“1948년 4월 3일 애월면 구엄마을에 폭도 100여명이 마을에 들이닥쳐 대한 독립축성회 제주도 책임자 문영백(文永伯)의 집을 덮쳤다.

문영백은 작년 3월 3·1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신엄마을 청년들이 집단 공격을 해온 후 항상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았다. 그는 이날 잠을 자다 얼핏 여럿이 우르르 몰려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도망쳐 숨었다. 문 여는 소리에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나던 큰 딸 숙자(14세), 둘째 딸 정자(10세)는 잠옷을 입은 채로 마당으로 끌고 끌려 나왔다. 다른 두 방에는 사람이 자던 흔적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 집안을 구석구석까지 뒤져도 문영백은 없었다.

저것들을 죽이라는 소리에 큰딸 숙자는 동생을 더욱 바짝 안고 “살려 달라”고 소리 내어 울부짖었다. 죽임을 재촉하는 명령에 10여 명은 칼과 죽창과 낫으로 두 소녀를 죽여 버렸다. 두 소녀는 아버지 대신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고 피를 쏟으며 죽었다. 두 살짜리 막내아들은 콧등 위로 죽창이 스쳐지나 상처만 입고 죽지는 않았다. 처참하게 학살당한 두 딸을 보고 문영백은 대성통곡을 하며 경찰에 투신하여 폭도들을 공격하였다.

구엄마을 대동청년단장 문기찬(文琦燦·33세)을 폭도들이 끌고 가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죽창과 갈로 찌르고 내리쳐 문기찬의 온 몸을 난자하여 죽이고 문창순(文昌順·34세)도 같이 죽였다.

같은 마을 문영준은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며칠 후 죽었다. 고군칠(高君七)은 죽자 살자 도망쳐 살았으나 임신 중이던 부인은 폭도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

강성종(姜性鍾)도 도망쳐 살았으나 폭도들이 그의 집에 불을 질러 기와집이 전소되고 말았다. 강성종의 집이 불이나자 불을 끄려고 한 송영호(50세)를 폭도들이 철창으로 찢러 부상을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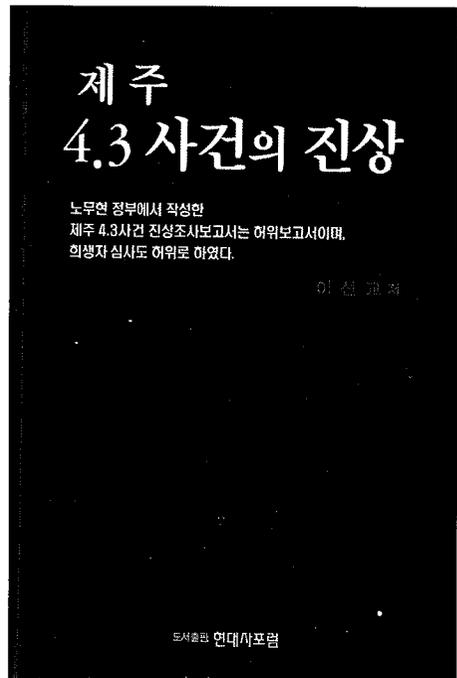
구엄마을은 이날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것은 무장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이었다.”

-‘4·3은 말한다 ②’ 26쪽과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93쪽에 실린 내용이다.

“4월 3일 남원지서 숙직실에 있던 고일수(성읍) 순경은 무장대에 붙잡혀 칼에 맞고 숨졌다. 사환 방정환은 목침을 뺨에 맞아 고막파열의 부상을 당했으며, 협조원 오지우·김하권은 급히 몸을 숨겨 무사했다. 이날 남원지서의 피습으로 경찰관 고일수 순경과 민간인 방성화가 숨지고, 민간인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무장대는 양심을 품었던 고일수 순경의 사체를 지서 밖으로 끌어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장시켰다. 무장대는 지서 무기고에서 미제 카빈총과 일제 99식 총, 그리고 탄환 등을 탈취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제주도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12개 경찰서 피습’과 관련 169~174쪽에 걸쳐 기술하면서 문영백의 어린 두 딸 등 구엄리 학살 내용과 고일수 순경의 화장 내용을 전혀 언급치 않고 있다.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96~98쪽, ‘4·3은 말한다 ②’ 67, 77쪽, ‘제주



경찰사' 305쪽에서 폭도들의 만행과 테러의 내용은

“4월 4일 새벽 폭도들은 연평리 대청단원 오승조(36세)를 찾아 갔다. 새벽 대청 사무실에 갑자기 폭도들이 들이닥쳐 험상궂은 인상으로 청년회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자 오승조는 청년들을 보고 ”뭇 내놓겠다“하자 폭도들은 죽창으로 오승조를 찌어 죽였다.

4월 6일 새벽 폭도 40여명이 제주읍 이호리에 살고 있는 대청 총무부장 이도연(37)과 양남호(32)를 기습하여 대청 간판과 사무실을 부수며 “대청 활동과 5·10선거에서 손을 떼라”하며 죽였다.

4월 11일 새벽 폭도들은 제주읍 오라리에 살고 있는 송인규(58)의 집을 기습하였다. 송인규의 아들은 신입지서에 근무하는 송원하로, 송원하는 4월 3일 폭도들이 신입지서를 습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지서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 폭도들에 의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있었다.

송인규는 이른 새벽에 밖에서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 “폭도들이구나” 생각하면서도 태연히 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폭도들은 문을 열어주는 송인규에게 “자식 한번 잘 두셨습니다”하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렸다.

마을 사람이 이 소식을 병원에 있는 송 순경에게 알렸으나 송 순경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한 자기 몸을 보며 한탄하며 가슴을 쳤다.

그는 들것을 가져오게 하여 들것에 실려 아버지 죽음의 현장을 갔다. 그는 아버지 시체를 보고는 통곡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주검을 보았으나 장례는 치르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몇 해 전에 별세했다.

4월 7일 폭도들은 한림면 저지마을을 공격하여 대청단원 김구원, 김태준, 고창윤 등 3명을 죽였다. 그리고 저지지서를 포위 공격하자 경찰들이 도망쳐버려 폭도들은 지서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4월 17일 폭도들은 조천면 선흘리 마을을 포위하였다.

이들은 향사에 도착하여 철통같이 포위하고 벼락 치듯 문을 차고 들어가 죽창 등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대청단원들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부동선·부용하·고평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향사에서 회의하고 있던 단원들이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향사에 왔을 때는 폭도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친 후였다.

4월 18일 폭도들은 조천면 신촌에 사는 김문봉(64)의 집을 기습하였다. 김문봉의 아들은 제주감찰청에 근무하는 김성홍 경찰이었다.

김문봉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다가 죽창을 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애월면 곽지리에 사는 박영도(40·애월면 사무소 직원)도 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 폭도들은 죽은 박영도를 질질 끌고 가서 5촌 당숙인 제주경찰서 사찰주임 박운봉 경위 집 앞에다 놓고 갔다. 애월리에서는 청년운동을 하었다고 임신 중인 그의 형수를 참혹하게 죽였다. 또한 그들은 임신 6개월인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하였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박운봉은 조카의 잔인한 죽음을 보고 비통해하며 “이놈의 빨갱이들 씨를 말려야 한다”며 분노하였다.”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123~124쪽, ‘4·3은 말한다②’ 150~152쪽의 내용은 속칭 ‘오라리 사건’ 관련 기록이다.

“4월 29일 평화협상 후 하루 지나 연미마을 대청단장 박두인과 대청부단장 고석종이 폭도들에 의해 끌려갔다.

4월 30일 대청단원 부인인 강공부(23), 임갑생(23) 등이 폭도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들은 두 여자를 마을 밖 1km 떨어진 민오름까지 끌고갔다. 이들은 여자들을 소나무에 묶었다. 두 여자들이 이러한 수난을 당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동네 사정을 경찰에 밀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

임갑생은 묶여 있던 손을 밤이 새도록 나무에 비벼대어 풀어 도망치는데 성공하

였다. 경찰이 긴급 출동하여 붙잡힌 사람들이 묶여 있던 곳까지 갔을 때는 임신부인 강공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박두인과 고석중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없었다.”

이어 이선교의 ‘제주4·3의 진상’ 138~140쪽, ‘4·3은 말한다②’ 226~231쪽에는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만행이 드러난다. 5·10선거는 폭도들이 잔혹한 폭력과 테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2개 선거구가 선거 무효화됐다.

“5월 1일 새벽 1시 폭도들은 제주읍 도평리 선거관리위원장 이원백(57)의 집을 습격하여 포위하였다. 이원백은 산사람들이 선거를 반대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제주읍에 며칠 동안 피신하였으나 집도 궁금하고 주변이 조용하여 이날은 집에 와서 잠을 자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집에 왔다. 그러나 마을 정보원이 이원백이 집에 왔다고 폭도들에게 알려주어 폭도들이 출동하였다.

잠결에 대문 흔드는 소리와 사람 발소리가 들리자 이원백은 깜짝 놀랐다.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 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원백이 옷을 입고 나가자 산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듯 한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이원백은 산사람들의 죽창과 낫과 도끼에 몸이 만신창이 되어 죽었다.

같은 날인 5월 1일 새벽 제주읍 도평리 우익청년 박현중(25) 집을 폭도들이 기습하여 산사람들이 온 줄 알고 맨발과 속옷차림으로 뒷문으로 도망치던 박현중을 붙잡았다. 박현중은 우-하고 떼거리로 달려드는 폭도들에 의해 죽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저항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5월 5일 새벽 2시 제주읍 화북마을 임형권(61· 선거관리위원장)의 집을 폭도들이 기습하였다. … 폭도 인솔자는 말을 끝내고 대원들을 한 번 휘둘러본 후 “죽이자!” 하자 폭도들이 죽창과 낫 도끼 등으로 임형권을 사정없이 찌어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렸다. 이날 같은 마을 장순정, 안여창도 산사람들에 의해 죽었다.

48년 5월 8일 오전 9시 선거관리위원장 김경중의 집에 폭도 10여명이 들이닥쳐 김경중을 찾았으나 없자 그의 어머니 박사일(72)과 딸 희진(12) 등을 죽창으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렀다. 어머니는 다음 날 죽었다. 김경중의 처 김죽현

(42)은 이웃집에 있다가 자지 집이 불에 타자 집으로 가다 폭도를 만나 2살짜리 김희석과 함께 죽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폭도들은 이어 대청단장 강익수의 집을 찾아갔다가 강익수가 없자 동생 강천수와 강인수를 납치해갔다. 그리고 폭도들은 대청단원 가족인 이찬용의 어머니 이윤희, 부계열, 부창숙 등을 학살하였다. 또 양치기 하던 안재철, 하계현도 학살하였다.

오동리 고다시마을에 폭도들이 습격하여 대청단원 강상배를 납치하였고, 그의 어머니와 처를 학살하였다. 오라리 인다라마을 선관위원장 김영창의 처 현정춘도 학살하였다.

폭도들이 제주읍 내도리 이장 신현집(42)의 집을 새벽에 습격하였다. 신현집은 새벽에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은 폭도밖에 없다고 여기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을 소리 나지 않게 열고 뒷마당의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토닥거리며 “이봐요, 당신 잠옷 바람으로 어디를 가려고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요?” 하였다. … 이장 신현집은 죽창으로 찔려 온몸이 벌집같이 되어 죽었다.

5월 10일 아침 7시 폭도들은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가 있는 가시초등학교를 습격했다. 99식 소총 3정을 든 대원들을 선두로 죽창부대 50여 명이 그 뒤를 따라 투표소를 포위하고 선거인명부를 압수하고 투표함은 박살을 냈다. 순식간에 고함소리,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도망가던 가시초등학교장 문상형(文尙衡)을 죽였고, 부인은 죽창으로 찔렸으나 죽지는 않았다.

폭도들은 투표소 안에 있던 10여명을 한곳으로 모아 “당신들은 우리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처단할 것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관위 부위원장 강평림 이장집으로 갔다. 앞담 배를 썰고 있던 이장이 슬그머니 일어서며 갑자기 후닥닥 뛰어 대문 쪽으로 도망쳤으나 곧 폭도들에 붙잡혀 죽창에 찔려 죽었다.

이날 성산면 수산리 향사마을에서도 주민 5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며 투표가 실시되고 있었다. 오전 9시쯤 30여명의 철모를 쓰고 투표소로 오고 있었다. 주민들은 경비대가 경비하러 온 줄 알고 긴장을 풀었다. 그런데 그들은 투표소에 가까이 오자 공포를 쏘아댔다. 순간 선관위원들과 주민들은 혼비백산,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폭도 인솔자가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자 총을 쏘아 고신권, 고헌선, 강정보의 어머니가 총을 맞고 피를 토하다 곧 죽고 말았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웠다. 폭도들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폭도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산으로 도망쳤다.

5월 10일 오후 중문면 상에2리에 폭도들이 습격하였다. 폭도들은 대청단장 김봉일(金奉日)부와 국민회 상예회장 오대호(吳大好) 등 3명이 선거를 지지, 입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납치해 마을에서 1km 가량 떨어진 속칭 '거린도근' 동쪽 소나무에 묶어놓고 대창으로 찢러 학살했다.”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145쪽, '4·3은 말한다③' 46~47쪽의 내용은 5·10 선거에 참여한, 곧 폭도들의 선거 서지에 반대한 인사들을 처단한다.

“5월 11일 폭도들은 도두마을에서 선거를 적극 지원한 자를 처단키 위하여 도두마을을 습격하여 선거관리위원장 김해만(53), 대청단장 정방옥(31), 단원 김용조를 붙잡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칼로 난도질하여 죽여 버렸다.

5월 14일 죽창부대는 다시 와서 선거관리위원 김상옥(44)과 그의 아들 김택훈(29)을 대청단원이라고 산으로 끌고 가 죽였다.

5월 18일 폭도들은 다시 도두마을에 나타났다. 이들은 김해만의 처 장인동(52), 그의 딸 김순풍(19)과 아들 김광홍(9), 정방옥의 처 김순녀(24), 대청단원 김성언의 어머니 고정달(56) 등을 산으로 끌고 가 죽였다. 이날 끌려갔던 김용조의 처 문성희(26)는 죽창에 찢렸으나 죽은 척하고 있다가 폭도들이 자리를 피하는 틈을 타 죽창에 찍혀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도망쳐 경비대의 도움으로 제주읍 녹십자병원에 입원했으나 세 살 된 아이를 두고 끝내 죽고 말았다. 이 비극의 전말은 문성희에 의해 알게 되었고, 이들의 시신은 1년 후에 찾게 되었다.”

‘4·3은 말한다③’ 89쪽의 내용은 젓먹이가 죽은 내용이다.

“1948년 4월 10일 대동청년단 애월면 장전리 단장 강상부(姜尙富, 34)와 총무 고종언(高鍾彦, 25)이 한밤중에 급습한 무장대의 공격을 받고 피살됐다. 강 단장은 집에서 잠자다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자 순간적으로 방안을 뛰쳐나와 밖으로 달아났지만, 곧바로 뒤쫓아 온 습격자들의 손에 잡혀 목숨을 잃었다.

고종언 총무는 자기 집 방안에서 복면을 한 무장대에게 철창으로 난자당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때 방안에는 생후 8개월된 젓먹이도 있었는데 아기는 피투성이된 아버지의 몸 위를 왔다갔다 하다가 핏속에 묻혀 죽었다.”

유족의 증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고 총무의 동생 고이언(高以彦, 26년생, 애월읍 장전리)은 2012년 9월 4일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48년 4월 10일 밤 대동청년단 총무를 맡고 있던 형 고종언(25)은 대동청년단 단장 강상부(34)와 함께 살해됐다. 형 고종언은 생후 5일된 아들(조카)과 같이 죽었다. 이날 폭도들은 고이언의 형수에게 “남편만 죽이겠다”며 형수를 밀치고 죽창으로 마구 찔러 죽였고 그 흘린 피로 아들이 피범벅이 되어 질식사했다. 그 형수는 오누이를 남기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알렸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제주도의 4월3일은? 5집 351~355쪽)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 201쪽, ‘4·3은 말한다 ④’ 33~34쪽에는 장례식장에 국군 복장으로 위장해 나타난 폭도들의 테러행위이다.

“10월 1일 폭도들은 제주읍 도남리 토벌에 앞장선 대동청년단장 등을 잡으러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하고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후 국군부대가 가까운 오등리 장지로 향하였다.

오후 3시경 철모에 M1 소총을 맨 국군 3명과 양복을 입은 4명이 장례식에 나

타났다.

이들은 정병택(22) 단장과 그의 아버지 정익조(50)와 전 구장 김상혁(60, 아들 2명이 경찰)을 조사할 일이 있는 것처럼 부대로 가자고 하며 끌고 가 장지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살해버렸다. 물론 이들은 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죽어야 할 이유로 토벌대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10월 27일 무장대는 구좌면 하도리 부두형(23)을 속칭 ‘소낭굴’부근으로 끌고가 칼로 난자해 살해했다. 당시 하도국교 교사였던 부두형은 부친도 무장대에서 희생된 우익 가족이었다. 무장대 활동을 나무라던 그의 부친 부평규(57)가 5월 27일 무장대에게 피습당해 치료를 받다가 숨진 터에 이번에는 그의 아들마저 희생된 것이다.

10월 28일에는 애월면 신엄3구(현 용흥리)에서 우익활동을 하던 양영호(37)와 강병호(24)가 무장대에게 끌려가 희생됐다. 11월 7일에는 강병호의 부친 강위조(45)마저 실종됐다.

‘4·3은 말한다 ④ 114~115쪽,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212~213쪽에는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도들이 일가족을 살해했다.

“10월 28일 조천면 신흥리에서는 경찰가족 및 친족이 큰 희생을 치렀다. 무장대는 이날 신흥리 출신 경찰 김태배(金泰培)·김봉원의 가족을 집중 공격했다. 김봉원의 가족은 피신했지만 김태배의 가족과 친족들이 참혹하게 희생됐다. 이날 희생된 사람은 김태배의 형 김태승(金泰丞, 31), 형수 김순옥(金順玉, 32), 5촌 숙모 한행중(韓行仲, 44), 작은 어머니 고씨 등 4명이다. 김순옥은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행중의 아들 김태혁 전 교육감은 자신의 아버지도 죽창으로 30여 군대를 찔러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증언했다.”

김태혁 전 교육감은 95년 한라일보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5촌이내의 친족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창으로 옆구리를 맞고도 살아난 두 살난 여아였다.…”

11월 11일 새벽녘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친족들 9명이 살해되고 1명이 부상 당하는 보복극이 벌어졌다. 전부가 5촌이내의 친척들이었으며, 심지어 출가한 여인 2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자유수호협회의 ‘제주도의 4월3일은? 3집’ 232~233쪽)

‘4·3은 말한다 ④’ 299~300쪽, 이선교의 ‘제주4·3사건의 진상’ 229쪽, 제주자유수호협회의 ‘제주도의 4월 3일은? 4집 297쪽에는 애월면 신엄리 우익인사 김여만 가족의 수난사이다.

“난 당시 우익진영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 나를 생포하면 20만원, 사살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뼈라가 뿌려진 적도 있습니다. 애월면 신엄리가 피습을 받은 때는 11월 11일 새벽이었다. 약 30여 명의 폭도들이 동서 두 갈래로 나뉘어 일부는 우리집(동동네)을 습격했고 일부는 서동네로 가서 일제시대 연맹이사장이었던 이순일의 집을 덮쳤다. 폭도들은 내가 집에 없자 아내 고선잠(35)과 딸(3), 그리고 ‘애기업게’ 정추자(여, 11) 등 3명을 일본도와 철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집에 불을 붙였다. 또 이웃한 정시택의 집도 방화했다. 한편 서동네를 공격한 폭도들은 이순일이 도망치자 그의 아내를 찢러 눈에 부상을 입히고 역시 집에 불을 질렀다.”

조천면 조천리에서 부모와 동생, 자매등 일가족 8명을 한순간에 잃은 기록이 ‘제주4·3사건의 진상’ 232쪽, ‘4·3은 말한다 ④’ 326~327쪽에 있다.

“11월 11일 새벽 5시 폭도들은 조천리를 기습했다. 폭도들은 이장원(40, 정육점 운영)에게 식량을 보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해도 한 번도 보내주지 않는다고 이장원의 집을 포위했다. 폭도들은 이장원과 그의 처 남금례(38), 동생 이수남(23), 아들 만국(9), 만선(7)을 총과 칼과 철창으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 무서워 겁을 먹고 방에 있던 만복(4)과 3살과 2살인 딸은 불에 타 죽었다. 큰 딸인 이월색은 일본도와 창으로 7

곳을 찢리고 총탄을 맞고도 경찰들의 도움으로 살아나 현재까지 살아있다.”

구좌면 세화리에서도 폭도들이 가족 8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다.

1948년 12월 3일 밤 9시께 폭도들은 구좌면 세화리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폭도들의 만행을 철저하게 외면한 가운데 이 사건만은 ‘무장대의 살상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폭도들은 40여가구의 집을 방화했고, 세화초등교와 향사도 불태웠으며 주민 50여명을 살해했다. 이날 가족 8명을 잃은 지형중(당시 77)이 2002년 9월 13일에 증언한 내용이다. (‘4·3 진상보고서’ 438~439쪽, ‘4·3은 말한다 ⑤’ 48~49쪽)

“세화리가 왜 습격이 강했냐 하면, 세화리 민보단이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로당 도당부가 우리 세화를 습격했어요. 48년 음력으로 11월 3일인데, 그때 우리집에는 남동생 지형찬이라고 그 동생이 결혼날 짜를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옷을 만드느라고 출가한 누님이 매형 이랑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일을 거들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녁이 되어 다 돌아가고 저희 어머니와 제 집 사람 누님이 마루에서 옷가지를 만지고 있는데, 한 9시쯤이 됐을 때 마을에 폭도들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지서에 신고를 하러 뛰어 갔고 그 사이에 폭도들이 집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온 식구를 죽창으로 찢러 죽였는데, 여덟 식구가 죽었습니다. 60세 되신 어머니 박형금, 스물두살인 제 집사람 이이심, 누님 지형심과 매형 강윤해, 누님은 그때 스물여섯이었고 매형은 스물여덟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지경우, 열여섯살이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또 누님의 아들 아홉살 난 강연지하고 다섯 살 난 강원길, 또 누님의 딸 일곱살 난 강연옥, 이렇게 여덟 식구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버님은 방에 계시다가 제 집사람이 습격 들었으니 피하시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집 뒤 나무 밑으로 숨게 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랑 누님이랑 제 집사람 식구 모두가 뒤따라 피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붙어놓으니까 아마 세간을 끄집어내려다가 폭도들한테 당한 것 같다 그러시더군요. 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들은 민보단원이었습니다. 저도 민보단 동원부 단원이었습니다만 그날 비당번이어서 집에 있었고 두 동생들은 초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했죠.

날이 밝아서 시신들을 수습해 보니까 죽창으로 아주 난도질을 했더라구요. 의복과 이불같은 것도 가져가다가 마당에 떨어뜨려놓고 양식도 가져가다가 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불타 내려앉아 버렸고...

그러니까 남로당 놈들이 사람 죽이는 놈 따로 식량 털어가는 놈 따로 있고 의복 가져가는 놈 따로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농사나 짓고 살던 저희집 식구들을 그렇게 죽이고 집은 불태워 버렸으니 살아남은 아버지와 저희 삼형제는 당장 먹을 것이 있나 입을 옷이 있나, 참 기막힌 세월을 지냈지요. 입은 옷 한 벌로 1년을 살았습니다. 끼니도 타다 남은 조가 있었는데 연자방아에 찼어서 밥을 해 먹는데 불탄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할 정도였죠.”

전 제주도 농정과장 등 농업관계 공무원으로 40여 년간 재직하였던 변승규는 ‘제주도약사’ 225~226쪽에서 폭도의 만행을 소개하고 있다.

“공비들의 잔혹한 만행의 진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 일부만을 소개해보면 신엄지서 습격시 문익도(文翊道) 경위의 머리를 톱으로 잘라버리고 문기찬(文基燦) 청년단장 눈에는 곡괭이가 꽂혀 있었으며, 신촌 습격시 환갑이 넘은 경찰관 부모의 목과 수족을 톱으로 잘라버렸고, 도두리를 습격한 폭도 30명은 청년단체 간부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그의 부인과 어린이 11명을 눈오름으로 끌고가 윤간을 자행한 후 죽창으로 난자하여 산채로 생매장하였다. 공비들은 부락을 습격 식량 의류 가축 등을 닦치는 대로 약탈한 후 약탈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역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락민을 총칼로 위협하여 산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허다하여 재산공비 중에는 공비 아닌 양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사한 경찰관복으로 위장한 폭도들이 종달리에 들어가 오늘밤 폭도가

습격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시할 사항이 있으니 남자 전원 모이라고 지시하여 모이니 무차별 살해해 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주도로상에서도 군경과 무기를 신고 작전지구로 가던 트럭이 습격을 받아 군경이 전사하고 무기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대로변에서 200m 이내의 송림을 모조리 벌채해 버렸으며 종달사건을 계기로 부락자위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전 부락에 높이 10척(尺)내외의 축성을 하고 성문 입구에 초소막을 지어 24시간 보초를 세워 감시케 하고 수시 순찰을 돌도록 하였었다. 단 제주시내 5개동만은 보초막을 세워 보초는 세웠지만 축성을 쌓지 않았다. 그렇지만 식량과 가축 및 의류의 약탈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므로 공비의 식량보급지인 중산간부락을 해안지대로 소개하라는 소개령이 공포되어 중산간부락은 거의 해안부락으로 소개되고 소개된 부락은 공비가 잠복할 우려가 있어 가옥을 전부 소각해 버렸다. 당시 상황은 필설잡기의 긴박한 상태에서 이웃 마을에 부모형제가 있어도 서로 찾아볼 수 없고 안전지대인 제주시내로 갈 수도 없었다. 통행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통행이 허용되어도 길에서 공비에게 죽거나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 십중팔구이므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갈옷을 입고 농장에 갔다 오는 양민을 제주실정을 모르는 토벌대가 공비인줄 오인하여 총살한 사례도 많았던 것이다. 도민은 누구나 나의 목숨이 내일까지 붙어있을 것인가 하며 전전긍긍한 상태였었다...

공비들은 여순반란군이 곧 제주에 들어오면 민중봉기가 일어나 자기들의 세상이 된다고 선전하면서 부락습격의 만행을 계속하였다...

4·3사건의 피해상황은 일반인 피해 사망 27,719명, 공비 사살 7,893명 등 35,821명이며 가옥소실이 39,285동인데 ...”

다음은 현장에서 마을원로들의 증언을 통해 폭도의 잔인한 테러를 살핀다.
1948년 4월 3일 애월면 구엄리에서 있었던 폭도들의 만행은 무자비하다.
2012. 7. 4. 고원화(22년생,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의 증언은 생생하다.

“폭도들이 문기찬·문기관 형제 집을 습격하자 동생 기관은 도망쳐 무사했으나 문기찬은 붙들렸다. 송진희 장인 문00도 잡혔다. 3일여 가족과 친지들의 행방을 쫓다가 동귀 쪽 작은 냇가에서 두 사람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다. 항문에서 머리까지 쇠꼬챙이로 찔려 있는 것이었다.

후일 하귀 지서장을 지낸 문영백 집은 숙청 1호 대상이었다. 문영백이 피신하고 없자 그의 딸 (15~17세)을 죽창으로 항문을 찔러 즉사시키고 그의 부인도 죽창에 찔려 며칠 있다 죽었다....

연이어 다음날 폭도들은 부인이 해산을 앞둔 김만호 집을 습격해 해산하려는 그 부인의 국부를 죽창으로 찔러 살해했다. 고성에서 양자 아들을 살피러 왔던 조00도 살해됐다. 신업에서 철수하던 폭도를 만나 대항해 싸우던 송성규(24)도 폭도들에 의해 살해됐다.” (제주자유수호협회의 ‘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13쪽)

‘몽둥이로 타살한 시신의 무덤 속에 피 묻힌 방망이도 함께 있었다’는 임익천(34년생,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은 2012. 3. 14.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임익천 어머니 박일권은 그의 올케들과 마찬가지로 세간살이를 가지러 오라리로 갔다가 폭도들에게 잡혔다. 민오름에서 망원경으로 망을 보던 폭도들에게 들킨 것이었다. 박일권은 99골짜기까지 끌려가 매를 맞아 타살되고 말았다.

임익천이 17살 때인 50년에 경찰이 공비도 귀순하면 살려준다고 하자 많은 귀순자가 있었다. 이때 오라리 출신 귀순자가 “박근택 누님은 99골에 매장됐다”고 하여 무덤을 찾게 되었다. 임익천이 그곳에 갔을 때 무덤 속에는 그의 어머니를 마구 때렸던 피 묻힌 나무 방망이 3~4개도 함께 묻혀있었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4집’ 359쪽)

‘옷을 모두 벗기고 목을 일본도로 쳐 죽였다’는 2012. 10. 23. 문상선(30년생,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의 증언도 있다.

“일과리에 폭도들의 대거 습격은 두 번이다. 첫 번째는 1정문인 동문과 3정문인 종고남 양쪽에서 습격, 김성화의 집에서 곡식을 털고 소를 몰아가고 보초를 서다 졸고 있던 김옥규를 끌고 갔다. 폭도들은 김옥규를 새미(동일 2리)동산까지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일본도로 목을 쳐 죽였다. 창천출신 김옥규는 모친과 외롭게 살고 있다 변을 당했다.”(‘제주도의 4월 3일은? 4집’ 270쪽)

‘폭도들이 형을 마을에서 돼지 추렴을 한다고 유인하여 살해하고, 형을 찾으러 다니던 부친마저 처참하게 살해한 과정에 대한 2012. 7. 24. 강병옥(31년생,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의 증언은 처절하다.

“신임지서에 가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지서에서는 문기호에게 다시 한 번 약도를 그려 오도록 했다. 문기호에게 또 한 번 약도를 그리도록 하자 처음 약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임지서가 나서 경찰과 의용 경찰, 마을 어른과 청년 등이 수색에 나섰다. 그려진 약도에 따라 찾던 중 풀이 무성한 곳이 나왔다. 그 풀을 뽑자 풀과 함께 손톱이 묻어 나왔다. 땅을 파들어 가자 신고 갔던 신발이 나왔다. 이윽고 강위조 시신이 드러났다. 총베(말꼬리로 만든 끈)로 강위조의 목을 일곱 번이나 감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

강병옥의 어머니는 이어 그의 형을 찾으러 나섰다. 보름쯤 후 고성 향과두리 토성 주변에서 뼈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 문힌 흔적을 찾아 파내니 머리 부분이 나왔다. 이를 확인하니 앞니가 포개진(겹쳐진), 형님 생전의 이빨 모습이었다. 목을 잘라 땅에 묻고 나머지는 버려져 개들이 살과 뼈를 물어뜯는 바람에 뼈가 널려 있었던 것이다.”(‘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45쪽)

이어 강병옥의 다음과 같은 증언도 충격적이다. 과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일까 의심이 든다.

“또한 경찰관을 했던 양영호(30)가 경찰관을 했다는 죄목으로 폭도들에게 납

치됐다. 49년 봄쯤 강병옥은 이웃인 관계로 마을 주민 20여 명과 함께 양영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었다. 양영호는 3mm 쯤 되는 쇠줄을 항문에서 목줄까지 박아 넣어있는 처참한 형상이었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45~346쪽)

폭도들은 일가족 5명을 집단학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워 소각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2012. 6. 20. 이영선(30년생,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의 증언이다.

“강구리는 1938년 양용운(梁龍雲)이 한림 3리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와 살면서 설촌됐다. 그러나 폭도들은 양용운이 5·10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하자 가족 5명(남 4명, 여 1명)을 상대리 속칭 ‘도찌물’에 끌고 가 집단 학살했다. 특히 폭도들은 죽은 시체를 불태워 소각하는 악행을 저질렀다.”(‘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86쪽)

아버지와 큰 형, 둘째형도 4·3때 희생된 오진현(27년생, 제주시 영평상동, 2013. 8. 28 증언)이 아버지를 폭도에게 잃고 시신을 찾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시신을 마치 돼지 같은 짐승을 다루듯 잔인하게 옮겼고 폭도들의 행동은 짐승만도 못하다.

“48년 11월 15일 오진현은 제주경찰 9기 시험에 합격, 경찰학교가 있던 구 제주여중(제동초교 앞)에서 90여명과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11월 20일쯤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붙이기 전에 3도2동 무근성의 조카 오태권의 집에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마차용 말과 밭갈 소 등 마소가 6마리가 있었다. 11월 16일 부친 오훈주(61)는 소나 한 마리 끌고 올라하여 마을로 갔다가 김00(20) 등 마을 폭도에 잡혔다. 폭도들은 오훈주의 옆구리를 죽창으로 찌르고, 찌른 채 죽창의 양쪽 끝을 잡아 현재 화북공동묘지 아래 ‘송대장 묻은 밭’ 부근까지 끌고 간 것이다.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신을 찾아 나섰다. 시신은 이듬해 봄 3월에야 어머니가 부친의 허리띠(헝띠)를 보고 시신을 알아내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폭도들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는 후일 양민학살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강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폭도들의 전략과 전술이다. 이들의 공통 화두는 '공포'이다. 이 공포심을 이용, 첫째 폭도 개개인의 충성심의 척도로 삼았고, 용맹스런 전사(戰士)를 기르는 방법이었으며 내부 단결을 도모했다. 둘째 그들의 마을, 민주마을 주민들에게 배반하면 용서치 않는다는 경고였고, 힘을 과시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 확대하려는 계략이었다. 셋째 군경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시키어 전투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군경의 분노, 보복을 불러일으켜 양민들이 군경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고차원의 심리 전일수도 있다고 분석된다.

글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폭도들의 만행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좌편향이며 4·3의 역사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써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야 한다.

5. 폭도, 즉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 이 광 후 본회 사무처장

‘낮에는 경찰이 무섭고 밤에는 폭도가 무서웠다’ 4·3 기간 중 제주도민들이 되어 온 말이다. 폭도는 무서웠다. 폭도들이 얼마나 되었기에 공포에 떨었을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진상조사보고서)와 ‘4·3은 말한다’가 주장하는 폭도의 규모는 어떤가. 먼저 4·3진상보고서 내용(174~ 178쪽)을 본다.

“4월3일 무장봉기가 시작되자마자 군·경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무장대가 어떻게 조직·훈련되고 있으며, 병력과 무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 무장봉기가 얼마나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어졌는가, 또는 관변자료의 주장처럼 과연 무장봉기가 남로당 중앙, 북한, 소련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주도 무장대가 외부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공급받았는가 하는 의문과도 관련되는 주제였다.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에는 무장대의 병력과 무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은 제주도에 병력 총 60,668명을 배치하고 본토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패전과 더불어 일본군은 요새화 된 한라산의 진지와 막대한 무기 탄약을 산중에 매몰한 무기를 모집하여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들이 담당하여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으로 자못 그 기세는 당당하였다. 이들의 무장병력은 500명에 달하였고 이에 부화뇌동한 수도 1,000명에 이르러 총수 1,5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제주도폭동의 군사적 배경’이라는 소제목 아래 언급된 이 글은, 첫째 무장대는

일본군이 한라산에 매몰한 막대한 무기·탄약을 파내어 무장했고, 둘째 그 숫자는 ‘무장폭도 500명, 비무장폭도 1,000명’에 이르렀으며, 셋째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이 담당해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을 지도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강력한 무장력’으로 요약되는 이런 내용은 이후 출판된 다른 관변자료들도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강경작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써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500명 가량이 일제 총기로 무장했고, 팔로군 출신이 유격훈련을 시켰다는 식의 내용은 무장봉기 초기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무장대에 대한 과장은 좌파 측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남로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력인민’은 제주4·3사건에 관한 첫 보도 때 무장대 병력과 무기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구성 : 민주운동, 특히 UN배격 2·7 항쟁으로 반동경찰의 추공을 받고 피신하고 있는 민주진영 지도자 0천명으로 구성되어 학병(學兵) 중병(中兵) 출신의 민애청원을 중심으로 한 청장년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이채를 끄는 것은 이번 투쟁이 시작되던 4월 3일 맹휴로 들어간 제주농업학교, 제주중학교 생도들이 과감하게 참가하여 철석같은 진용을 구성하고 있다.

▶무장 : 일제가 전시 20만 대병의 군비로서 은폐 저장하여 두었던 무기 탄약과 미군상륙 후 바다에 집어넣었던 무기 등을 꺼내어 확보한 것 등이라는 데 죽창, 철모자, 일본도는 물론이요 권총, 장총, 기관총도 있고 대포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탄환, 수류탄 등도 거의 무진장이라고 한다.”

좌파적 시각에서 쓰여진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무장대 숫자를 ‘3,000명’으로 기술해 놓았다. 일제가 매몰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관변자료와 마찬가지로, 무장대 숫자를 수천 명으로 보거나 심지어 기관총과 대포가 있고 탄환과 수류탄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대목은 그 과장의 정도가 관변자료 보다 오히려 더 심함을 보여준다. 관변자료의 과장이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로당의 과장은 5·10선거 저지에 실패한 서울 등 전국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기존 자료와 미군 기밀문서 등을 분석해 비교적 객관적 표현에 힘썼던 존 메릴은 그의 논문에서 “주력 500명 가운데 반수는 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칼·낫·죽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곡괭이·삽 등으로 무장했다”고 썼다.

그렇다면 실제 무장대의 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무장봉기 발발 초기 무장대 인원을 살펴보면, 300여 명인 것으로 보인다. 무장대로부터 노획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4·3’직전의 병력이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총 320명으로 조직됐고, 4월 3일 당일 지서 습격에는 350명이 동원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편의에 따라 이 숫자를 늘리거나 줄였다. 무장대 숫자는 4월 15일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이때에는 300~400명으로 소개됐다. 그런데 경무부 공안국장으로서 사건발생 직후 제주에 파견돼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을 맡은 김정호는 4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장대 숫자를 2,000명으로 늘려놓았다. 그러나 같은 날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무장대 숫자에 대해 “500~600명”이라고 말했다. 김대봉은 며칠 후 “순전히 폭도로 인정할만한 수는 200~300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숫자를 줄였다. 다시 며칠이 지난 후 김대봉은 “폭도의 실수는 수괴 15~16명, 그 외 약 500~6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제주 주둔 경비대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무장대 숫자가 300명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장대 숫자에 혼선을 빚은 까닭은 전적으로 경찰의 편의 때문이었다. 중앙에서 제주에 특파됐다가 귀임한 형사대 일행은 5월 중순경 “경찰은 현재까지 30여 회 교전하여 약 500명을 검거하고 무기 다수를 압수하였다”고 전과를 알렸는데, 그들이 밝힌 무장대 숫자는 ‘2,000명’이었다. 이미 500명 가량을 검거하고서 무장대 숫자를 이전처럼 500~600명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제주경찰 당국은 사태 종결 후 “공비 수는 한 때 16,9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 7,893명이 토벌대에 의하여 사살되었고 2,004명이 귀순, 7,000여 명이

생포되었다”라는 통계를 밝히기도 했다. 1948년 8월 한 잡지는 이같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무장대 숫자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경비대가 제주에서 사용한다는 명칭, 즉 인민해방군(반란군)의 수는 시종여일하게 500명이라고 하여 왔는데 이 수는 당국이 수차에 걸친 소탕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의 주동부대는 500명 정도라고 하니 이 500명이라는 것은 과연 수수께끼인가? 소탕성과나 500명이라는 두 가지 중에 허위가 하나 있어야 다른 하나가 진실로써 성립될 것이다.”

‘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은 말한다’의 주장을 거의 옮겨 놓은 수준이다. ‘4·3은 말한다②’ 103~105쪽을 본다.

“‘4·3’ 무장대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 까.

1954년 육군본부에서 편찬한 ‘공비토벌사’에는 이에 대해 ‘무장폭도 500명, 지방폭도 1,000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1965년 대검찰청 발행 ‘좌익사건 실록 제1권’에는 ‘500~600명’으로 나와 있다. ‘4·3’발발 직후인 1948년 4월 제주 현 지시찰을 했던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300~400명’, 당시 주둔 경비대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300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963년 간행된 좌익계 자료인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3,000명이 가담하고 있다고 부풀려져 있다. 여기에는 자위대·여맹원·아동단원뿐만 아니라 백발이 무성한 노인들까지도 가세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 자료를 종합한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 반란’에는 “반란군의 주력은 500명 정도였고, 그들이 하산하자 3,000명의 주민들의 이에 가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자료에 인용된 당시 무장대의 동원규모를 보면 대체로 주력부대 500명 미만, 동조 가담자 1,000~3,00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한다면 군경토벌대의 주된 토벌대상은 500명 안팎의 ‘무장폭도’일 수 밖에 없다.”

“4·3 과정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선지, 현지 경찰 당국은 사태종결 후 “공비수는 한때 16,700여명에 달했으며, 그 중 7,893명 사살, 7,000여 명 생포, 2,000여 명 귀순이란” 통계를 밝힌 바 있다. 4·3 초기 500명으로 파악되던 무장대 숫자가 16,700명으로 늘어난 저간의 사정은 무엇인가.

경찰의 발표대로 사살된 ‘폭도 7,893명’은 과연 죽음을 당할 만한 죄질을 범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2만 명 이상의 희생자 죽음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4·3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장대의 숫자에 대해서는 ‘4·3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1948년 8월 신천지에 발표된 홍한표(洪漢杓)의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에는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이런 글이 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경비대가 제주에서 사용한다는 명칭, 즉 인민해방군(반란군)의 수는 시종어일하게 500명이라고 해왔는데, 이 수는 당국이 수차에 걸친 소탕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의 주력부대는 500명 정도라고 하니, 이 500명이라는 것은 과연 수수께끼인가? 소탕성과나 500명이라는 2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다른 하나가 진실로 성립될 것이다.’

토벌 당국은 계속 입산자의 귀순 및 포로상황을 발표해 왔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자는 ‘경비대와 경찰에 체포된 자는 약 6,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입산자의 숫자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4·3은 말한다’와 ‘4·3진상조사보고서’는 경찰의 편의 때문에 숫자가 오락가락한다고 밝혔다. 발발 초기의 숫자만 무장대원 500명 안팎으로 밝히고 연인원(延人員)은 사태 후 경찰의 발표로 면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연인원을 정부보고서라는 ‘4·3진상조사보고서’는 밝히지 못했다. 병력이 손실되면 보충한다는 상식마저 무시하고 있다.

토벌대가 발표한 500명의 수는 거짓이 아니다. 500명에서 사살, 체포로 몇 명이 빼어지는 산술이 아니다. 인민해방군 지휘부는 병력이 손실되면 협박, 회유, 심지어 납치 등으로 그 수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뜻이다.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중삼도 '제주 4·3사건의 진상' 336쪽에서 인민해방군의 숫자가 줄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무장대들은 하원마을 습격을 시발로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고, 18~20세의 젊은이를 납치했다. 젊은이를 납치하는 것은 병력보강을 위해서다. 4·3사건 초기에는 병력손실이 발생하면 각 부락의 자위대에서 보충을 받았지만 후기에는 자위대마저 전멸된 상황이어서 비상수단을 쓴 것이다. 젊은이를 납치해서는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성분을 파악한 후 10%정도를 의도적으로 반동의 자식으로 몰아 나머지 피랍자가 죽창과 칼로 찔러 죽이도록 했다. 이렇게 양성된 폭도들이 더욱 열렬히 싸웠다. 이리하여 경찰 진압작전으로 전사자와 포로 및 귀순자가 발생하면 무장대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젊은이들 납치로 무장대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한라산은 알고 있다' 18~29쪽, '제주도의 4월3일은? 331~340쪽)에 따르면 4·3 직전에서 7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조직을 정비했다.

4·3 직전의 조직체계는 도당투위(島黨鬪委) 위원장 밑에 조직, 선전, 군사, 보급부를 두고, 각면(各面)에도 투위를 두고 위원장 밑에 조직, 선전, 군사, 보급부를 뒀고, 각 세포(細胞)에도 투위 위원장 밑에 조직부와 선전행동대를 뒀다. 도당투위에는 도군위(島軍委)가 있어 위원장은 군책이 겸임하고 총사령관, 부사령관, 참모를 두고 총사령관이 도특별경비대를 거느리도록 했다. 각면투위에

는 각면군위를 두어 위원장은 군책이 겸임하고 총사령과 참모를 두며 총사령이 유격대(遊擊隊)와 자위대(自衛隊)를 지휘토록 했다. 유격대와 자위대에는 각 10인 1소대, 2소대 1중대, 2중대 1대대 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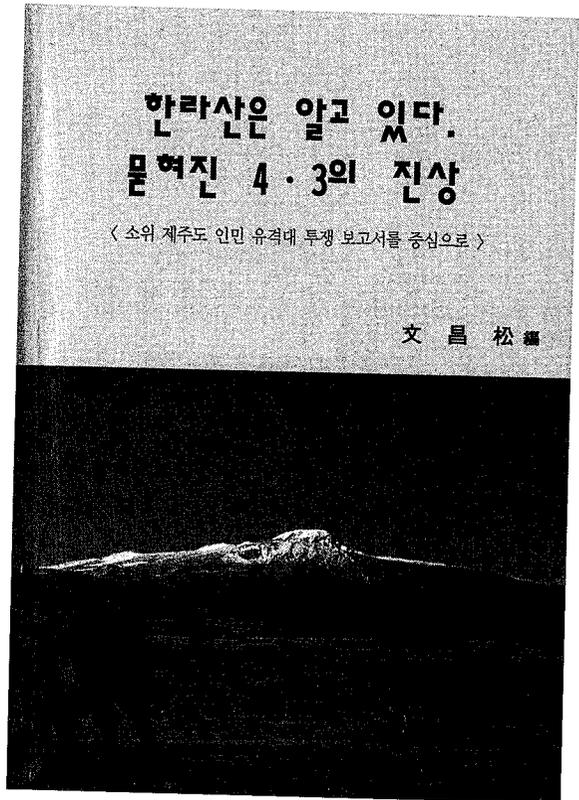
병력면에서 유격대가 조직된 면은 13개면 중 구좌, 성산, 서귀, 안덕, 추자 등 5개면을 제외한 제주읍, 조천, 애월, 대정, 중문, 남원, 표선의 8개면에 유격대를 조직했고 도 군위 직속으로 특경대를 편성했다. 인원수는 유격대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320명이다.

4·3 때는 성내에 20명의 학생 특무원을 연락병으로 침입시키고 14개 지서에 400명을 배치, 420명을 동원한 셈이다.

제1차 조직 준비는 4·3 직후로, 유격대(툽부대)와 자위대(후속부대)가 공동 작전을 폈고 산에서 공동생활을 하기에는 일상생활상의 혼란과 보급문제로 250명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산시켰다. 그러나 병력 확충의 필요성으로 400명정도로 확충시켰다.

제2차 준비는 5·10 전후로, 엄격한 규율과 치밀한 기밀 확보, 신속한 행동을 위한 작전상 필요로 각면 투위 군사부 직속의 각 유격대를 도사령부 직속으로 편성했다. 1분대 3인, 3분대 1소대(10명), 2소대 1중대(23명), 2중대 1대대(49명), 2대대 1연대(110명)로, 총병력은 3개 연대로서 370명(이중 특무부 20명, 특경은 해체) 이다.

제3차 준비는 5월말일, 국경이 대량(4,000명) 투입, 토벌전이 시작되자 충돌



회피 등의 이유로 370명을 240명으로 감축했다.

제4차 정비는 6월 18일께로 1지대가 3소대로 편성, 1지대 인원수는 60명, 4개 지대 합계 240명에 도사령부 26명으로 모두 266명이다.

제5차 정비는 7월 15일 완료된 것으로 강력한 당의 정치적 지도 통제, 엄격한 규율 확립, 치밀한 기밀 보장, 행동의 신속화, 신속성과 기동성 보유 등을 내세웠다. 조직은 도군사령부 사령관 밑에 작전교육부(작전참모), 정보·통신부, 보급부, 병기부, 위생부를 두고 제30지대(제주읍 지역), 제31지대(애월, 중문, 서귀면), 제43지대(한림, 대정, 안덕면), 제50지대(조천, 구좌, 성산, 남원면) 등 4개 지대에 특무대와 유격대를 두었다. 인원수는 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 등 501명이다.

특징은 특무대는 지대 정보과 소속으로 정보 수집, 개인 테러, 군 활동에 호응 보급의 원조 등을 임무로 각면에 특무대장 1명과 연락원 수명을 두며 그 외에 3인 1분대, 1소대(10명)로 하고 1개 부락에 1~2인 정도로 조직하되 특무대원은 세포로부터 제외했다. 각 제대 중 특무대는 각면 각부락에 주둔하되 지대 지도부 통신대 각 유격대 소대는 지대 지도부 중심으로 밀집 생활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사령부 및 지대를 사령관(지대장)과 정치부원과 작전참모의 3인으로 써 최고지도부를 구성했다.

이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서 작전 기록(4·3~7월 9일)을 보면 “4월 14일: 의도지서 제2차 습격. 송칠(宋七) 동무 유도작전 지도하다가 희생당하였음”을 비롯 인민해방군은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19명이 잡혔었으나 나중 대부분 석방됐다.

반면 우리 경찰, 우익계인사의 사망자는 경찰 56명, 경찰가족 7명, 반동(우익계 인사) 223명, 그 가족 12명 등 모두 298명이 희생됐다. (‘한라산은 알고 있다’ 73쪽에는 대정면 내 경관 사망자 18명과 화북, 대정, 남원 등 각 지서 급사 3명이 통계에서 누락됐다고 밝혀 이를 포함하면 319명에 이른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364~365쪽)

신문보도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세력을 살펴본다.

1948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 자유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김봉호(金鳳昊) 신 청장의 완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도내 각 부락에는 점차 명랑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 기자단 일행이 수집한 정보로 한라산 깊이 숨어 있는 소요측 동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약 1,000에 가까운 주력부대가 존재하고 있다하며 그들은 김달삼(金達三, 28)이라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1948년 7월 21일자 조선중앙일보는

“...국방경비대 연대장 최(崔) 중령(*11연대장 최경록)은 폭도수효를 확실히 모르나 정예부대가 약 200명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일반도민은 적어도 3,000명은 넘을 수효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일보는 7월 29일자에 최경록(崔慶祿) 사령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2) 지금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토벌을 4회 한일이 있었는데 산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3) 한라산에는 약 4개 연대(1개 연대 약 120명)로 약 600명이 잔존하고 있다...

5) 국방경비대가 산에 올라가면 산사람들은 발포하지 않고 경찰관이 산에 올라가면 발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화기는 한라산 속 수많은 인조동굴에 첩기하고 있는 산사람들이 동굴과 동굴 사이에 전화실치가 되어있어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신문을 실증해주는 것이었다...”

조선중앙일보는 8월 8일자에

“일시 소강상태로 잠잠했던 제주도 소요사건은 또다시 재연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일 3시반 경에 무장한 78명의 산사람들이 안덕면 ‘서도리’에 잠복한

도의 무장폭도는 약 260명이며 그 외에 추종하는 민중은 총 한 자루에 20명씩 (*5,200명) 죽창을 들고 따르고 있다. 그간 소탕전에 의하여 폭도는 산골짜기로 도피 중에 있다....”

자유신문 4월 19일자는 체포된 폭도한테 다음과 같은 산생활 상태를 들었다며

“현재 총지휘자는 이덕구(李德九, 37, 도당 부위원장)이며 무장폭도는 약 150명, 비무장폭도는 800명 정도이다.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기관총, M1, 카빈, 권총, 수류탄 등이고 탄환은 여기서 제조한다. 무전기 라디오 등도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 못 쓰고 있다...”

국도신문은 4월 22일자 이병훈 기자의 르뽀 기사로

“비무장 폭도는 거의 귀순하여 불과 500여 명이 남았고 부장폭도도 겨우 150명이 남아 완전 소멸도 시간문제로 되게 되었다고 한다.

당초의 도민은 군도 좋고 폭도도 좋다는 두 가지 생각을 가졌었으나 이는 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감이 박약한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작년 중에 있어서의 폭도의 세력 확충은 200명으로부터 약 6,000명까지에 이르러 그들의 열성과 노력은 상당한 바 있었으나...”

조선중앙일보는 1949년 9월 1일자에

“그들의 만행과 이들을 응징한 국군과 경찰 그리고 애국청년단체들에 의하여 당시의 사태가 그 어찌했년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숫자는 1945년 8·15부터 지난 7월 말일까지의 통계 개략이다. 폭도들은 연인원 7만 4,000여 명이 출몰하여 경찰관서 182처를, 관공서는 78처, 민가 553호를 700여 차에 걸쳐 습격을 하였고 1000여 차례 이상이나 ‘빼라’와 봉화를 올렸다.

그동안 경관 64명, 국군 68명, 관공서 직원 61명, 서북청년회원 54명, 양민

1251명, 그밖에 관공서 전소가 46건, 민간 전소가 5,653건, 반소가 575건, 기타 파괴가 400여 건, 전신전화선 파괴가 15만여m를, 무기 약간을 빼앗기어 한 때 폭도들은 일제가 버린 한라산의 군량장비를 교묘히 이용하고 도민을 선동하여 종횡무진 2군 11면 그 어느 한 곳 빼놓지 않고 횡행하며 호동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 강력한 그들의 독특한 유격전술과 프락치 배치, 일부 소수군대의 반란을 이용하여 전 제주도를 손아귀에 넣고야 말려고 한 때도 있었다고 한다.”

1952년 8월 1일자 제주신보는 경찰국 박(朴) 사찰과장이 재산(在山) 잔비(殘匪)의 조속한 하산을 종용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며 양민 납치로 병력을 충원한 내용을 밝힌다.

“한라산의 공비는 4·3사건 당시 입산한 소위 원공비(原共匪)는 사령관 K책 중문면 색달리 출신 김성규(金成奎, 일명 일민) 이하 21명(그 중 여자 4명) 뿐이고 여타 42명은 원공비들이 총을 가지고 도내 각지에서 납치하여간 신량한 청년 남녀입니다.…”

제주신보는 12월 6일자에 폭도의 세가 급격히 약화된 것은 내부 분열 때문임을 밝힌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도 350~351쪽에 이 내용을 실고 있다.

“…금년 봄에 발생한 내부 분열이 좋은 실례인 즉, 허영삼(許永三) K책(K책은 총사령관이라는 뜻)이 아직 살아있을 때 4·3사건 당시부터 폭도 노릇하고 있는 권팔(權八), 이0행(李0行) 지급되는 탄약 등이 부족하여 청하지 못하고 남몰래 감추어 왔다. 이 사실은 허영삼이가 경찰부대에 사살되고 김성규(金成奎)가 K책으로 된 후 발견되었다. 김성규는 사기와 박역시간인 권필이를 용서 없이 고문하였으며 고문을 견디지 못해 권팔이는 어느 날 밤 원대(原隊)에서 탈출하였다. 그 후부터 김성규의 부하에 대한 단속과 폭행은 더욱 심하여져 과거의 충실한 동무는 하나 들쭉 원대에서 이탈, 끝끝내는 권팔에게 가담한 자가 11명이나 되어 지속되는 냉전으로 분과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양대(兩隊)가 치

열한 내부00이 내려진 끝에 과세(寡勢)의 일파가 전멸되었으나 김성규파에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폭도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선 폭도들의 내부분열도 폭도들의 세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342쪽에는

“한라산의 무장대 60여 명은 전쟁발발(6·25) 소식을 듣고 7월 어느 날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지도부에 있던 3명은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젊은이들은 ‘4·3을 일으킨 영웅적 전통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밤에 허영삼, 김성규 등이 주동이 되어 고승옥 등 세 사람을 포박했고, 이튿날에는 인민재판에 부쳐 살해하였다. 그런 연후에 김성규가 무장세력을 몰고 중문에 들어왔다는 게 경찰출신자의 증언이다. 허영삼이 그날로 무장대 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서 3,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로 보도됐다.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됐던 미 6사단 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은 1948년 7월 1일자로 미군정청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약 5,000명의 제주도민을 심문한 결과 얻어진 정보로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민해방군의 규모를 4,000명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력에 조직된 공산주의자 세포조직 이외에 제주도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군대(the Peoples democratic Army)가 구성되었다.

이 군대는 2개 연대와 보충 전투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요원들이 임명되었고 신병 모집은 활발하다.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군대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10% 정도는 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일본도와 재래식 창으로 무장하였다. 남로당의 여성 조직도 구성되었으며 전체 회원 명단도 밝혀졌다.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제주도에 남로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산주의와 그 목적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를 하고 있는 500~700 정도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 조직책들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 6,000~7,000여(*6만~7만) 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4·3사건 자료집 9’ 미국 자료편③, 39~40쪽)

제주 4·3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 제주출신인 신상준(申相俊) 전 대구대총장은 ‘제주도4·3사건 V’ 97쪽에서

“인민유격대의 수가 1948년 7월 15일 제5차 정비 때 501명이던 것이 1948년 9월 17~24일에 184명으로 급감한 것 같지는 않다. 1948년 7월 15일 이후(특히 10월 11일 이후)의 재편 제9연대의 공격으로 인민유격대의 병력의 손실을 보고, 특히 1948년 10월 28일 및 29일의 애월면 고성전투에서 많은 인원이 사살되어, 그 수가 급감하였다. 그 후 제2연대의 토벌작전이 대체로 끝난 1949년 5월경에는 인민유격대의 주력은 완전히 꺾멸되었다. 인민유격대의 전성기(1948년 4월~9월)의 500명(핵심무장세력) 정도와 그 후 새로이 인민유격대에 가담한 인원은 소수의 포로, 귀순자 및 외지(육지, 일본 등지)로의 도피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사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핵심적 무장세력인 인민유격대 이외에 부락자위대를 비롯한 후방진원세력이 전성기에 3,000~5,00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많은 인원이 포로로 잡히고, 또는 귀순, 외지도피(육지 또는 일본 등지), 혹은 사살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사살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규명할 길이 없다. …”

김영중(전 제주경찰서장)은 ‘내가보는 제주4·3사건’ 수장증보관(2011. 11.) 38~39쪽에서 핵심세력을 3,000여명으로 본다. 김영중은 정부보고서, 주동자 김봉현의 저서, 존 메릴 논문 ‘제주도반란’, 장창국의 ‘육사졸업생’, 기타 한국군, 미군정 문서, 신문기사,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련문서 등에서의 숫자를 먼저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필자는 주동자 김봉현이 스스로 밝힌 숫자 3,000명에 신빙성을 둔다. 3·1사건 당시 남로당원 수가 1천~3천명이던 것이 불과 1년만인 4·3직전에 이르러 5천~6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니 그 절반을 주동자 또는 적극 동조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특히 주한미국군사에도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으며, 1946년 2월 23일 민민전 및 1947년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도내 읍·면 민주청년동맹 결성 시 참가한 2,250여명(도 대의원과 방청객 제외)이 넘는 대의원들의 이념노선이나 투쟁목표가 4·3까지 변함 없었으니 김봉현이 실토한 3,000명은 실상에 가장 근사치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산하 동조단체원도 상당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4·3사건의 주체는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제주도당과 그 지휘계(指揮系)선상에 있으면서 4·3을 지령하고 지원한 전남도당과 중앙당이며, 무장반격전에 직접 참가하거나 적극 동조한 핵심세력은 3,000여 명이다.”

1954년부터 5명(*56년 4월 3일 부사령관 정권수 사살)으로 줄어들었던 잔비(殘匪) 중 한 명으로, 1957년 3월 21일 식량을 구하려고 제주읍 월평동에 내려왔다가 생포된 한순애(韓順愛, 23)는 57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951년 봄(5월)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 산에 붙잡혀 들어가 공비가 되었다고 한다. “제가 붙잡히던 날은 봄날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할매들을 따라 우리 동네에서 약 40리 가량 떨어진 제주읍에 장을 보러 가다가 산고개 길에서 공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함께 장부러가던 할매들은 본체만체하고 공비들은 나 하나 붙들어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양은 민가에서 약탈해온 의복들을 공비들에게 꿰매어 주고 뚫어진 곳을 기워주는 일, 밥을 지어먹고 식기를 간수하는 일, 그러한 것들이 한양의 책임이었다. …

“뭐, 이것저것 바빠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헤어날 구멍이라고는

없고 잠이 들면 고꾸라 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순애의 진술로 폭도 사령관 김성규(金成圭, 39)와 전투책임자 현창희(玄昌熙, 22)를 추적, 3월 27일 교전 중 사살하고 1957년 4월2일에는 마지막 폭도 오원권(吳元權, 39)을 생포하여 4·3의 참극을 마감했다.

경찰간부였던 정남두(鄭南斗, 26년생) 전 대한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장은 그의 자서전 ‘사암록(沙岩錄)’ 44~45쪽에서 폭도들이 청소년 납치로 후계병력 양성에 혈안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무장대원들은 청소년들을 납치하는데 혈안이 되었고 그 이유는 후계병력을 확보하는데 있고 그러므로 일단 납치한 청소년들을 하산 탈주하지 않도록 선동과 이념 교육은 물론 특단의 분위기 조성방법을 강구했다.

그 예로서 마을을 습격하려면 사전에 전투조, 탈취조, 청소년 납치조를 편성하고 마을 습격을 감행하면서 납치조는 재빨리 가호를 수색하고 17세 전후의 소년들만을 붙잡아 포박하고 입산한다. 입산하면 심문을 통하여 성분을 파악하고 한두 사람을 선별해서 반동분자로 성토하고 그 납치 소년들로 하여금 철장을 주어 공동으로 살해케 했다. 이렇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산 탈주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탈주 하산하더라도 살인한 죄의식을 심어주어 탈주할 의사를 포기케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욱 충성을 맹세하고 앞 다투어 열성분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인민해방군들은 죄 없고 앞길이 창창한 청소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충성을 맹세토록 하여 병력을 보충했다. 청소년들은 살인자 죄의식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폭도로 만들어 목숨을 잃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해방군의 핵심세력은 최소 3,000명이고 가담세력은 이들을 포함 모두 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결론부분인 536쪽에서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무장세력이 500명선을 유지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무장세력이 정예부대인 유격대만을 지칭하는지, 보조부대인 자위대, 특공대도 포함하는지가 모호하고 분명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 가운데 무장세력으로 가담한 사람이 얼마인가이다. 이들 때문에 양민 상당수가 폭도로 몰려 살해됐기 때문이다. 이들 무장세력을 제외해야 4·3 기간 중 진정 억울한 양민을 가려낼 수 있다.

6. 폭도들은 일본군이 남긴 무기를 사용했다

- 편집자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와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비롯된 폭동(반란)에 다량의 일본군 무기가 사용됐다. 그러나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일본군 무기 사용에 대해 용도 폐기된 잘못된 인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의 신문보도와 증언 등을 통해 일본군 무기 사용 실태를 본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또한 일본군 무기 사용을 왜곡하고 있다.

4·3 이틀 뒤인 5일부터 경찰증원부대와 함께 제주에 내려와 진압을 총 지휘했던 경무부 김정호(金正浩)공안국장이 28일 오후 서울로 돌아가 기자회견한 내용이 각급 신문에 보도됐다. 4월 30일자 한성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경찰로서는 양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총공격을 주저하고 있는 바 일본 군대가 한라산 중턱에 과놓았던 동굴을 근거로 하고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서 공실청야(空室淸野) 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식량, 탄약 등 약 3개월분 가지고 있다 하고 일본군 그대로의 장비를 하고 있고 기관총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48년 5월 25일 '노력인민'에 실린 기사에서도 '일본군 무기가 무진장'이라는 기사가 있다. '구국선선의 선봉대로 단신단정 분쇄에 사투/ 빈동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상)'이라는 큰 제목에, '구국 인민유격대의 위용'의 소제목에는 '무장'에 대해

“일제가 전시 20만 대병의 군비로서 은폐 저장하여 두었던 무기 탄약과 미군 상륙 후 바다에 집어넣었던 무기 등을 확보한 것 등이라는데 죽창, 철모자, 일

로 미군에서는 무장해제가 신경 쓰이는 문제였다. 무장해제팀은 그때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던 무기와 폭발물을 바다에 버리고 비행기들을 폭파했다.”

이같은 이유로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4·3 평화재단’이 2013년 7월에 펴낸 계간 ‘4·3과 평화’에서 “제주도의 일본군 무기는 미국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후 모두 수거돼 파기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와 조사에서 밝혀졌고, 보고서에도 이런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4·3 보고서’는 ‘무장대의 조직과 무력’ 항목에서 175쪽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쓰여진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무장대 숫자를 ‘3,000명’으로 기술했다. 일제가 매몰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관변자료와 마찬가지로, 무장대 숫자를 수천명으로 보거나 심지어 기관총과 대포가 있고 탄환과 수류탄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대목은 그 과장의 정도가 관변자료보다 오히려 더 심함을 보여준다. 관변자료의 과장이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로당의 과장은 5·10선거 저지에 실패한 서울 등 전국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80~181쪽에서

“이상 살피면 바와 같이 무장봉기 당시 무장대의 인원은 300여 명 뿐이었고, 무기 역시 이후 다소 보강되긴 했으나 4월 3일 첫 봉기를 일으킬 때는 일제 99식 총 30여정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무장대 노획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무장봉기 때 동원된 인원수는 350명이었고, 병기로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다이너마이트)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고 서술했다.

187쪽에서 ‘투쟁보고서’를 인용, 7월 15일 제5차 조직정비 때의 인원수와 병기를 밝힌다.

“1. 인원수:501명(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

- 2.병기:①소총 147정(M1 6정, 카빈 19정, 99식 117정, 44식 4정, 30년식 2정
 ②소총 탄환 7,740발(M1 1,396발, 카빈 1,912발, 99식 3,711발, 44식·30년식 721발)
 ③경기관총(일본제) 1정
 ④척탄통(擲彈筒) 2문(탄환 8발)
 ⑤수류탄 43발
 ⑥다이너마이트 69발
 ⑦신호탄 2개
 ⑧군도(軍刀) 16정
 ⑨권총 8정96연발 1정, 8연발 6정, 10연발 1정). 탄환 합계 119발
 ⑩기타 라이깅 103발, 지뢰 라이깅 8발, 야포탄환 4발 ”

여기에서 척탄통 2문, 야포탄환 4발, 경기관총 1정 등으로 볼 때 ‘기관총과 대포가 있었다’는 내용은 거짓이 아닌 것이다.

일본군은 무기 관리가 소홀했다. 미국군 무장해제팀에 완전무결하게 무기가 건네져 바다에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증언자의 녹취록을 본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3집’ 324쪽에 실린 고중식(27년생,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의 증언은 “어도 마을 청년들이 결혼식 날 일본군이 버리고 간 99식 총으로 축포를 쏘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남매 중 장남인 그는 부모의 성화로 47년 가을에 중매 결혼했다. 당시 농촌에서는 17~18세이면 장가를 갈 때이어서 21살은 늦은 편이었다. 처가는 이웃마을인 어도(봉성). 당시 결혼풍습은 결혼식 후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도록 됐다. 마당에서 한창 축하연이 열리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렸다. 일본식 99식 장총으로 결혼 축포를 쏜 것이었다. 동네 청년들은 축하노래로 적기가 등을 합창했다. 이 마을은 좌익 마을로, 4·3이 있기 1년 전 마을 청년들이 일

본군이 버리고 간 총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그의 고향 납읍은 한독 당 제주당수를 지낸 김덕준 등 유지와 일제 때 경관과 공무원 등이 많아 자연 우익마을이었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42쪽에 어도리 출신 강우석(31년생)도 일본군 총으로 꿩 사냥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일제시대 어도 오름에는 일본군 대대 또는 연대 병력이 주둔했다. 지휘관은 일본군 소좌로 강순호의 바깥 채에 살며 말을 타고 다녔다. 강우석은 고구마를 들고 오름에 가 일본군의 담배(고양이)와 맞바꿔 온 적도 있다. 4년제 어도 간이학교는 일본군의 군수창고였다. 운동장에 공출해온 보리를 잔뜩 쌓아 놓았었다. 일본군들은 항복해 철수할 때 무기들을 허술하게 파묻고 갔다. 청년들은 총을 입수해 꿩 사냥 등에 나섰다. 또한 폭도들의 무기가 되었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3집’ 279쪽에는 박근호(30년생,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의 증언도 일본군 총으로 꿩 사냥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패전 후 총기 관리가 허술했다. 화장실에 총을 버렸고 총탄알을 구덩이에 파묻었다. 일부 주민은 그 총과 총알로 심지어는 꿩을 잡는데 사용했을 정도이다. 폭도들의 총기 확보가 그래서 손쉬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379쪽에는 이치형(32년생,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이 비양도 일대에 버려진 대포 포탄을 건져내는 것이 해녀들의 부업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의 인척(10촌)이기도 한 이00(38)은 4·3 희생자와 무관하다. 이00은 해방되면서 일본군이 비양도 일대에 버린 대포 포탄을 분해하다 포탄이 터져 죽었다. 포탄을 분해, 화약을 얻으면 그 화약은 성냥 대용 등으로 쓰고 포탄의 탄

피는 낫쇠로 팔리기에 돈벌이로 포탄을 분해하다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다. 해녀들이 부업 돈벌이로 포탄을 바다에서 건져냈다.”

더욱 놀라운 증언은 일본군이 제주에서 버린 무기와 총알 등을 해녀들이 수집하고 이를 중국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4월 3일은? 5집 422~423쪽에 김한로(36년생,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의 증언이다.

“한수리 앞 바다 속칭 ‘톤대섬’에는 일본군이 버린 총알이 많았다. 김한로의 큰매형 박행수는 46년께 박행수의 작은 아버지 박성관 소유 화물선으로 이 총알들을 싣고 북한으로 떠났다. 중국과 북한에 일본 군수물자를 밀수출하여 큰돈을 벌 때였다. 그러나 북한은 선원만 풀어주어 선원들은 38선에 통행금지가 되기 전 돌아왔으나 박행수는 배를 살리라는 작은 아버지의 엄명으로 북한에 남았다. 북한이 배를 폭파했고 박행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죽고 말았다.

좌익과 폭도들은 해녀가 많은 한수리 어머니들에게 그 총알들을 건져내라며 지독한 성화가 있었던 것이 어머니들이 가담을 말리고 군대로 내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49년 6월 하순쯤 김달삼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봉개리 출신 박태전이 토벌대에 체포됐고 그가 잠시 전향하여 무기류 숨긴 곳을 토벌대에게 자백한 비화가 ‘제주도의 4월 3일은? 3집’ 207~208쪽에 실렸다. 발견, 압수된 무기류는 제주남초등교 2개 교실이 가득 찰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폭도들은 충분한 무기류를 확보하고 공격 목표 지점에 따라 인접 무기류 은이처에서 무기를 공급했던 것이다. 비화 내용을 본다.

“그런데 2연대 선무공작대 담당 김동근(金東根)소위가 밤중에 와선 “연대장이 찾는다”고 하여 함께 짚차에 올랐다. “박태선을 아느냐”고 김 소위가 묻자

“친구이고 일본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위는 “친구”라는 답에 놀라며 “산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함병선(咸炳善) 연대장은 “폭도들이 다량의 무기들을 은닉했는데,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것은 박태선 뿐”이라며 그를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박태전은 이덕구가 사살된 후 폭도들의 모든 뒤처리를 혼자서 하고는 잡아가라는 듯 토벌대 앞에 나타나 체포된 때였다.

이기형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박태선이가 일본에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갔고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쇠고기 불고기, 계란부침, 옥도미 생선구이 등 정성스런 도시락을 만들어 줬다.

이튿날 점심시간, 박태전은 한 손가락을 뜨고는 눈물을 흘리며 “삼촌님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형은 어렵게 운을 뚫었다. “무기류 묻은 곳을 알리면 너의 생명은 보장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박은 눈을 치켜뜨며 도시락을 그에게 내던지며 “너도 친구냐, 개새끼 가라”고 처절한 고함을 질러댔다.

이기형은 “너의 신념이 늘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까짓 총은 미국에서는 몇 시간, 몇분 이면 만든다. 네가 살아온 22년을 생각하라. 22년이면 총 수백만정을 만들고도 남는다. 네가 묻어둔 총 몇 년이나 가겠느냐. 살아있어야 신념대로 사는 것 아니냐” 등으로 간절한 설득이 이어졌다.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3일 후 김동근 소위로부터 박이 “곰곰 생각해보니, 생명을 보증해 주겠다면 배반치 않겠다”며 무기류 숨긴 곳을 가리키겠다고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쪽 3곳, 북제주군 쪽 2곳 등에서 찾아낸 무기류는 남국민학교에 쌓았는데 무려 2개 교실분이었다.

제주4·3연구소가 1989년에 펴낸 ‘이제사 말함수다/2’ 131쪽에도 ‘일본군 총이 폭도들의 무기가 됐다’는 증언이다.

“제주도 4·3사건의 원인은 일본놈 망해본(*망한 것) 때문이라. 산 폭도들 내려왕 보니까 총은 전부 불탄 총이라. 99식 일본놈 불탄 총. 저걸 지금같이

철공장에 쇳물 녹이듯 녹여 제품을 만들어 불었시믄(*버렸다면) 될 건디. 아 제주도 비행장에 99식 총을 산더미같이 갖다놔 그냥 불만 지들라(질러)부니까. 그거 낭(*나무)만 타불고 쇠는 남아있으니까게 그것들 허영이네 산에 폭도질하는 것이 시작이라. 나중에는 군인들도 산에 입산해분 거라. 9연대도 올라가불고, 그때 5연대가 산에 올라강, 기습하고 뭐허고 지휘하는 놈들은 전부 군인출신들이라나서. 9연대는 제주도 병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올라간 거주. 그 올라가게 된 것은 지휘관의 사상이 틀려분(*틀린) 거 때문이다. 아니 일개 중대, 소대 정도가 올라가분 거주게. 경 행 폭도들이 소총을 갖게 됐어.

당시 산에 폭도들이 사용한 총은 불탄 채로 개머리판만 부청(*붙여) 사용한 거라. 이것은 정프르 비행장에서 불탄 채 내버려둔 것을 가져당 쓴 거라”

같은 책 137쪽에도 폭도들이 일본군 무기를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제시대 말기 ‘고은니 모루(사라봉 북쪽 일주도로변에 있는 지명이름)’에 일본군 육군본부 창고가 이셨수다(*있었다). 일본군이 몰려(저)가니까, 철수해서 마지막 제주도에서 일전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 30만 일본군대가 제주도에 주둔했다는 말이 이셨주게. 경 행 산마다 굴덜 파고 했는데 4·3사건에서 역시 산 사람덜 무장이라는 게, 일본사람들 버리고 간 무길 이용한 거주게. 그 당시 제주도에 있던 일본군에는 징병, 징용으로 간 한국사람도 끼어 있었거든. 어디 물어둔 것도 알아뒀다가 사태가 나니까, 그걸 파내서 전부 손질해가지고 무장해서 지서를 습격하고 그렇게 한거주(한 것이지)”

제주4·3연구소는 이같은 증언과 조사를 책으로 펴냈다. 그럼에도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제주4·3평화재난이 2013. 7. 펴낸 계간 ‘4·3과 평화’ 40~41쪽에 ‘최근 경기도 현대사의 4·3 왜곡 서술을 보며’ 제목의 글에서 4·3의 진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는 “‘케케묵은’ 자료를 인용해 4·3을 왜곡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몇 가지이다”라며 든 사례를 본다.

“과거 일본군은 제주도의 진지와 참호 속에 많은 무기를 남겼다. 해방 후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이 무기와 화약으로 무장하고 훈련하였다”

“무장대가 일본군이 남겨둔 무기를 사용했다는, 과거 국방부의 군사(軍史)류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은 용도폐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것이다. 제주도의 일본군 무기는 미국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후 모두 수거돼 파기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와 조사에서 밝혀졌고, 보고서에도 이런 연유로 삭제됐다.”

일본군 무기는 미국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후 수거돼 파기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김 소장의 서술에 있는 일본군 무기 ‘모두’가 수거되지 못했던 것이다.

“보고서에도 이런 이유로 삭제됐다”는 서술은 ‘4·3보고서’가 얼마나 왜곡된 보고서인지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보고서’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쓰여진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무장대 숫자를 ‘3,000명’으로 기술해 놓았다. 일제가 매몰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내

Vol. 12 2013. 7.

4·3과 평화 April 3 and Peace

뉴스포커스 4·3특별법 개정
사범과 사람 원불교제주교구장
특집 2013 청소년문예공모 대상작품
4·3과 현장 잃어버린 마을
4·3과 예술 최상돈과 4·3노래
4·3의 증언 고태삼
사진으로 보는 4·3
4·3 시 대술에서



용은 관변자료와 마찬가지로, 무장대 숫자를 수천명으로 보거나 심지어 기관총과 대포가 있고 탄환과 수류탄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대목은 그 과장의 정도가 관변자료보다 오히려 더 심함을 보여준다. 관변자료의 과장이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로당의 과장은 5·10선거 저지에 실패한 서울 등 전국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관변자료의 과장이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표현의 말뜻은 폭도들의 무기가 변변치 못했는데도 군경은 강경작전을 펴 무고한 양민을 희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강경작전을 펴게 만든 폭도들의 만행과 작전 배경을 ‘보고서’에는 삭제 해놓고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자 하고 있다. “남로당의 과장은 5·10선거 저지에 실패한 서울 등 전국에서”의 표현도 폭도들에 의해 제주도에서는 5·10선거 저지를 달성했다는 자화자찬을 강조기 위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그래서 좌편향이고 왜곡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 2 장

4·3 희생자 가운데 누가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인가!

1.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희생자로 등재(책자에서 발췌)
2.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희생자로 등재(증언록)
3. 4·3과 무관한 생존자까지도 희생자로 둔갑

헌법재판소(주심 송인준)는 2001년 9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제주4·3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 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등을 실향한 자 ④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희생자에서 제외 되어야 할 자를 분명히 밝혔다.

1.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희생자로 등재

- '4·3은 말한다' 등 책자에서 발췌

1)안덕면 사계리 박경선(29) 사망 :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 73쪽

“48년 2월 9일 안덕지서 최 주임은 오 순경과 같이 사계리 순찰을 나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으나 마을은 조용하였다. 그러자 최 주임이 오순경에게 ‘술이나 한 잔 하고 돌아가자’고 이끌어 들은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 게 되자 들은 의기투합하여 말이 많아지고 신세타령까지 나오게 되었다. 최 주임은 육지 출신이라 고향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더구나 내일은 설날이 아닌가!...

사계리 송죽마을 청년들은 5·10선거 반대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끝냈는데 경찰관 2명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고망술집에서 어제 저녁부터 진을 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연락을 받은 청년 이양호, 임창범 등은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여 고망술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최 주임과 오 순경을 붙잡아 오 순경이 가지고 있던 칼빈 총을 빼앗고 들을 묶어 향사로 끌고 갔다....

유지들은 마을에 남아 있던 청년들에게 “자네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마을이 쑥밭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 자수해 주기 바란다”고 설득하여 임창범(28), 이양호(25) 등 주모자 7명이 자수하였다. 그리고 동조했던 청년들은 하나 둘 씩 마을을 떠났다. 임창범과 이양호는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 때 총살을 당하였고, 빅경선은 송악산에서 처형되었다.

※ 위의 사건은 사계리 청년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사계리 청년이 경찰의 총을 빼앗고 감금하고 폭행한데서 발생하였다.”

2) 제주읍 봉개리 강두추(28) 행방불명 : '제주4·3사건의 진상' 375쪽

3) 대정면 하모리 이원옥(55) 사망 : //

“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폭도 18명의 명단

강두추 : 순번) 3, 소장 순번) 180, 명단 해당면) 344면,

내용) '제주읍 봉개' 7인당과 폭도

증거) 4·3과 역사(통권 제128호) 1997. 7. 25. 29면

이원옥 : 순번) 14, 소장순번) 1272, 명단 해당면) 470면,

내용)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증거) '4·3은 말한다' 1권 67면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임원**

△위원장=오대진 △부위원장=최남식 △총무부장=김정노 △치안부장=김한정 △산업부장=김용해

△집행위원=김시택·김필원(이상 조천면), 김임길(金任吉)·이원옥(李元玉, 이상 대정면), 조몽구(표선면, 현 호경(성산면), 문도배(구좌면) 등 10여 명...”

4) 제주읍 도두리 김형춘(23) 사망 : '제주4·3사건의 진상' 375쪽

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폭도 18명의 명단

순번	소장 순번	명단 해당면	지역	성명 (희생자결정)	내용	증거
1	1	329면	제주읍 건입리	강기우(27.남) 사망	사형	군법회의 선고
2	110	337면	제주읍 도두리	김형춘(23.남) 사망	남로당 활동자 김삼옥 과1948.12.31 도두리 을습격한 폭도	제주읍 도두리구 주민22명 증언
3	180	344면	제주읍 봉개리	강두추(28.남) 행방불명	"제주읍봉개"7인당과 폭도	4.3과역사(통권 제128호) 1997.7.25.29면
4	528	372면	제주읍 화북리	김주택(20.남) 행방불명	동부지역 폭도특공대 총획, 동생 김주영과 김용인을 살해한 폭도	피해자 김용인의 아들 김하영의 청와대 청원서 내용
5	608	380면	조천면 북촌리	김연식(23.남) 행방불명	경찰을 죽인 폭도핵심간부, 관음사전부지휘관 자살	4.3은 말한다 3권 93, 94, 95면
6	699	392면	조천면 와흘리	김의복(28.남) 사망	1950년 폭도사령관, 경찰과 총격전 중 총살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342면, 이제사 말했수다 119면
7	711	394면	조천면 조천리	김시범(58.남) 사망	남로당 제주도당 조천면위원장	4.3은 말한다 1권 69, 375, 483면
8	714	394면	조천면 조천리	김필원(50.남) 사망	남로당 제주도당 집행위원	4.3은 말한다 1권67면
9	813	413면	성산면 성산리	현홍걸(38.남) 행방불명	제주남로당 핵심간부 사형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94면
10	828	415면	성산면 오소리	강정호(22.남) 행방불명	9연대무장발명병, 대정 지서경찰을 죽인 폭도	4.3은 말한다 3권 114, 118면
11	1230	464면	대정면 보성리	송원병(35.남) 행방불명	9연대무장발명병, 대정 지서경찰을 죽인 폭도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342면
12	1255	468면	대정면 인성리	고문수(41.남) 행방불명	무장폭도 지휘관	4.3은 말한다 3권 172면
13	1257	468면	대정면 인성리	류신술(36.남) 행방불명	40.5.10 우통지서습격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	1997. 11. 4 제민일보
14	1272	470면	대정면 하모리	이원옥(55.남) 사망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4.3은 말한다 1권 67면
15	1523	501면	애월면 하귀리	김만옥(20.남) 사망	폭도 제1대장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343면
16	1533	502면	애월면 하귀리	김전중(20.남) 행방불명	사형	군법회의 선고
17		504면	전남지역	신선우(20.남) 사망	원고 박익주의 부친 11연대장 박진경 암살 사건 가담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3권 205면
18	1432	491면	애월면 상귀리	강자규(28.남) 행방불명	원고 박익주의 부친 11연대장 박진경 암살 사건 가담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226,228면, 4.3은 말한다 3권 205면

“※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폭도 18명의 명단

순번 2. 제주읍 도두리 김형춘(23) : 남로당 활동자 김상옥과 1948년 12.
31. 도두마을 습격한 폭도, 제주읍 도두1구 주민 22명 증언 ...”

“거기 산에 가보니까 우리 누님도 있었고 사촌누님도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누님 친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붙잡혀 와 있더라.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우리마을 남로당 활동을 적극했던, 주동했던 놈들이, 그러니까 장영호, 장세범, 장남수, 또 한놈은 김형춘, 김형춘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놈들도 있는데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이 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명한 좌익들이어서 이름만 대도 대부분 압니다.”

-김성수(67,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 1리) 2002년 9월 12일 시민연대에 증언 -

5)한림면 명월리 정갑생(34) 사망 :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1991 창간호’
실천문학사(1991. 4. 25) 226쪽

“한림면 명월리에서는 일군 패잔병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정갑생, 오희규를 중심으로 자위대를 결성했다. 당시 명월대 자위대 부위원장 오희규(73세, 명월리)는 당시의 자위대 활동을 이렇게 전한다.

‘해방 후에 마을 치안유지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평정하기 위하여 자위대라고 있었어, 위원장은 나중에 한라산에 들어가서 산군이 된 정갑생이가 했어. 해방이 되니까 북해도, 남양군도로 징용, 징병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제 말기 강제 징용, 징병, 공출에 앞장섰던 이장 양창희, 연맹이사장 오경후를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라. 그러자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행은 야만적인 행사이므로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평화를 유지하였지.’”

6)조천면 신촌리 강석관(20) 사망 : 2004. 3. 24. 제주일보

“북한의 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가 최근호에 의사와 과학자로 성공한 제주 출신 인사들의 수기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0...통일신보 3월 6일자에 소개된 강석중씨는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평안북도 위생방역소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신보에 따르면 강씨는 1936년 신촌리에 태어나 초등학교 재학 중에 광복을 맞았다. 강씨는 1948년 발생한 제주4·3 사건 때 무장대로 활동하다 토벌대에 붙잡혀 처형당한 형 석관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2004년 3월 24일 제주일보



강씨는 1957년 1월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후 1959년 자신을 따라 일본으로 온 부인 이미숙씨와 1960년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에 정착한 강씨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의 길을 걸으며 평안북도 위생방역소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신보는 강씨의 네 자녀들도 대학을 마치고 기관의 책임일꾼으로, 학사로,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7)제주읍 도두리 장두백(21) 행방불명 : ‘4·3은 말한다 ②’ 40쪽, ‘4·3진상조사보고서’ 173쪽

“함덕지서에서는 이날 무장대에 의한 직접적인 습격은 없었고 다만 장모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집에서 나간 뒤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이에 대해서는 무장대에 의해 납치됐다는 설과 경찰관 스스로 ‘입산’했다는 2가지 설이 있다. 많은 증언자들은 후자 쪽에 비중을 두어 이야기 하였다. 그날 행방을 감춘 경찰관 가운데 장 순경의 경우 나중에 산쪽에 가담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장 순경이 동료 경찰관을 설득시켜 같이 산으로 올라갔거나, 혹은 동료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함덕지서에는 이날 무장대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지만 경찰관 2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무장대와 연계된 경찰관 1명이 다른 경찰관 1명을 납치해 무장대 합류했다는 설이 있는데, 무장대 측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함덕지서-

아부대 약 40명이 99식 총 2정으로 포위 습격. 먼저 서내(署內) 1명 프락치에게 연락하여 탈출케 한 후 그 소개로 개집을 습격하여 개 1명을 포로했든바 그 처가 지서로 달려가면석 고함을 지름으로 인하여 사전 발각되어 퇴각.

귀도(歸途)에 대청원(大靑員) 3명을 포로로 하고(아지트에 귀환한 후 개전시킨 후 석방) 뒤이어 서청(西靑) 숙사를 습격, 서청 5명을 포로한 후 포로 경관 1명과 서청 5명 중 4명을 총살하고 서청에 취사해 주던 1명은 송당리민이었음으로 개전시킨 후 인민군(人民軍) 취사번(炊事番)으로 채용”

-‘한라산은 알고 있다’ 62~63쪽, ‘제주도의 4월3일은? 1집’ 358~359쪽

“4·3 기간 동안 측후소에 다니는 3살 위 큰 형 강경택이 무사했고 9촌숙인 강응시(28)만이 정월 명절 부근 폭도 습격 이튿날, 도두국교 박원일 교장 등 10여 명이 토벌대에 의해 총살될 때 희생됐다. 다만 작은 처남 장두백(21)이 함덕지서 경찰관으로 있다가 선흘리 지경에서 죽었다. 이 장두백이 4·3 당일 폭도들이 함덕지서 습격 때 입산한 장 순경이다.”

-2013. 4. 10. 강경하(27년생, 제주시 도두리) 증언

2. 남로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희생자로 등재

- 증언록

1)안덕면 덕수리 김00(27) 행방불명 : 2012. 11. 13. 김창기(30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증언

2)안덕면 덕수리 김00(24) 사망 : " "

“덕수리에서 폭도로 입산한 사람은 없다. 다만 남로당 활동의 두목은 일본에서 중학을 나와 똑똑했던 김00(27), 김00(24) 형제와 한학으로 뛰어났던 송00(30대) 등 3명이다. 이웃집에 살던 송00(19)는 6·25후 군대를 가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4·3과 무관한 인물이다.”

3)안덕면 감산리 강00(25) 사망 : 2012. 11. 13. 김창석(21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증언

4)안덕면 감산리 한00(19) 사망 : " "

5)안덕면 감산리 양00(28) 사망 : " "

“김창석은 안덕지서에 7차례나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보를 캐러 몽둥이세례를 퍼부었다. 경찰로부터 조사가 잦자 산 쪽에서도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우려해 접근하지 않았다. 49년 가을에는 보슬포의 2연내 본부로 끌려갔다. 귀순자수용소에는 대정, 한림, 안덕 일대 주민 100여명으로 감산리는 폭도인 강00(25), 한00(19), 한00 모친 등이 수용돼 있었다. 군인들은 즐기치게 3주간이나 ‘남로당 가입여부’, ‘남로당에게 무엇을 협조했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얼굴 턱이 무너지고 다리를 못 쓸 정도의 고문을 받았으나 젊었었기에 회

복됐다. 김창석은 결국 결백이 증명돼 석방됐다. 이때 때 맞을 각오로 석방증을 달라고 요구, 받아냈다. 이것이 후일 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가 돼 예비검속을 무사히 넘기게 됐다.

김창석의 결백 주장에는 7살 밑 그의 동생 김창길도 한 몫을 했다. 48년 12월 폭도들이 감산리를 습격했을 때 동생은 마을에서 유지였던 양별감의 아들인 양00(29)과 함께 납치돼 산으로 끌려갔다. 그들 폭도 이지트에는 9연대 이등상사로 있다 탈영하여 입산한 양승옥이 우두머리였다. 함께 끌려간 바로 양봉옥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무사했다. 어느 날 폭도들은 동생 김창길에게 동광에서 메밀쌀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김창길은 산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집으로 탈출할 지를 고민하다 탈출을 결심했다. 안덕지서에 바로 가 신고했고 토벌대는 이튿날 새벽 김창길의 안내로 폭도의 이지트를 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남아 있던 형 양00은 동생을 따라 ‘슬픈 폭도’가 되었고 애월에서 죽었다. 김창석의 표현 ‘슬픈 폭도’란 말은 기발하고 기막힌 단어이다.”

- 6)한림면 청수리 문00(28) 행방불명 : 2012. 12. 4. 문창립(33년생,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증언
- 7)한림면 낙천리 김00(28) 행방불명 : " "
- 8)한림면 청수리 박00(26) 행방불명 : " "
- 9)한림면 청수리 이00(17) 사망 : " "
- 10)한림면 청수리 이00(30) 행방불명 : " "
- 11)한림면 청수리 이00(28) 사망 : " "

“문씨 일가를 괴롭힌 그의 6촌 형님 아들 문00(28)가 당시 마을을 휘저었다. 일제시대 해군으로 시원, 해군복을 입고 문00가 나타나면 흰칠한 기와 잘 생긴 얼굴로 ‘어디 놈이냐’이냐고 칭찬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4·3을 전후하여 일본도긴 칼을 차고 망원경을 든 폭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친척들을 불안케 하였다.

그러나 문00는 형제가 3형제이나 함께 산에 오르지 않도록 했고 일가친척에

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두 살 밑 문00의 동생 문00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으나 부지런해 마을 일꾼이었다. 심지어 동생은 제주읍내로 나가 군부대에 밥을 짓는 노무자로 일하도록 하여 살아남았다. 문00는 폭도의 두목급이었다. 저지리 맹이동(명리동)의 현봉희(24)와 낙천리의 김00(28) 등 3명을 두목으로 친다. 다만 현봉희는 마을에 있던 일가친척들을 모두 폭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낙천리 두목 김00의 동생 김00는 문창립과 조수초등교 동창이다. …

문00와 함께 산에 오른 폭도는 박00(26)과 이00(17)도 있다. 박00은 부지런하고 시킨 말을 잘 듣는 형(型)이었다. 박은 토벌대에 잡혀 고산지서에서 총살됐다. 이00은 조부가 동네에서 상두꾼(소사) 일을 했다. 귀순하여 한때 토벌대의 길잡이를 하여 전과를 올리도록 했으나 예비검속으로 총살됐다. 또한 청수리 골수 좌익 활동은 청수리에서 제일 똑똑했다는 이00(30)와 학문이 좋다는 이00(28)가 있었고 이들은 폭도들의 협력자였다.”

12)한림면 저지리 고00(28) 행방불명 : 2012. 12. 4. 문원숙(27년생,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증언

- | | | |
|---------------------------|---|---|
| 13)한림면 저지리 고00(20) 행방불명 : | “ | ” |
| 14)한림면 저지리 고00(28) 행방불명 : | “ | ” |
| 15)한림면 저지리 고00(17) 행방불명 : | “ | ” |
| 16)한림면 저지리 박0(29) 사망 : | “ | ” |
| 17)한림면 저지리 박00(23) 행방불명 : | “ | ” |
| 18)한림면 저지리 현00(25) 행방불명 : | “ | ” |
| 19)한림면 서지리 현00(26) 행방불명 : | “ | ” |
| 20)한림면 저지리 현00(25) 행방불명 : | “ | ” |
| 21)한림면 저지리 현00(31) 행방불명 : | “ | ” |
| 22)한림면 저지리 현00(25) 행방불명 : | “ | ” |
| 23)한림면 저지리 현00(34) 사망 : | “ | ” |

- | | | |
|---------------------------|---|---|
| 24)한림면 저지리 현00(21) 사망 : | “ | ” |
| 25)한림면 저지리 현00(27) 사망 : | “ | ” |
| 26)한림면 저지리 현00(36) 행방불명 : | “ | ” |
| 27)한림면 저지리 현00(30) 행방불명 : | “ | ” |
| 28)한림면 저지리 현00(27) 사망 : | “ | ” |

“47년 12월 30일 오후 8시쯤 문원숙은 야학(夜學) 선생으로 향사에서 부녀 반 학생 20여 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같은 곳의 노인반에는 남자 10여 명이 한글은 물론 한문과 수학도 배우고 있었다. 왓샤 부대 50여명이 향사 앞에서 왓샤 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벌였다. 문원숙은 겁이 나 몸을 황급히 숨었다. 이들 왓샤 부대는 저지리 2구 명리동 출신 현봉희(玄奉熙, 28)가 이끌고 온 청년들이다. 명리동에는 당대 무술(武術)인으로 유명한 고순평이 가르치는 유도관이 있어 고순평의 유도 제자들이 많았다. 고순평은 당시 유도 5단, 당수가 4단으로 한때 ‘일본 경도(京都)에서는 고순평, 동경(東京)에서는 하도 임씨, 주먹은 현해남’으로 이름을 날렸다. 선생인 고순평은 사상적으로 좌익이 아니나 제자들은 거의가 좌익으로 몰들어 졌다. 특히 제자 중 서귀포실수학교를 나온 현봉희는 일제 때 제주읍 삼양에 있는 청년훈련소장을 지낸 좌익의 두목이었다. 특히 현봉희는 현씨 가문 일가를 통째로 입산시킨 장본인이다.

현봉희의 영향으로 고00의 동생 고00(28), 고00(20)도 산사람이 됐다. 폭도인 고00(28)은 문원숙이 경찰관이 돼 토벌대인 100사령부 G2에 근무할 때 사살된 것을 확인했다. 고00(17), 박0(29), 박00(23), 변00(32)은 현봉희의 영향을 받아 폭도가 됐다. 현00(25)은 현봉희의 동생이고 현00(28)도 현봉희와 더불어 주동이 됐던 현00의 막내 동생이다. 현00(25), 현00(31), 현00(25), 현00(34), 현00(21), 현00(27), 현00(36), 현00(30), 현00(27) 등은 현봉희로 말미암아 모두 폭도가 됐다가 희생됐다.”

29)한림면 낙천리 조00(25) 행방불명 : 2012. 12. 18. 김명옥(32년생,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증언

- 30)한림면 낙천리 조00(15) 사망 : " "
 31)한림면 낙천리 박00(28) 행방불명 : " "
 32)한림면 저지리 이00(29) 사망 : " "

“낙천리의 비극은 한경면 중산간 마을에서 가장 큰 폭도 두목인 저지리 출신 현봉희 다음 두목으로 꼽히는 김00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두목은 산양리(수룡동) 이달철을 꼽는다.

김00은 붓 대신 화투장을 쥔 그 끝으로 화초 그림을 기막히게 그려내는 재주꾼이었다. 조수초등학교를 다닐 때 동료를 주름잡아 또래를 혼내기도 하여 학생 때 그에게 맞았던 저지, 청수 일대 청년들이 그와 싸우러 찾아오기도 했다. 흔히 푹푹한 인물을 ‘면장 감’이라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를 면장 감보다 한수 위로 평가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영향일까, 미군정 때 소 예방주사를 하러 나온 키가 큰 미국인에게도 지지 않는 위세를 부리던 조00(25)가 일류 좌익인물이 됐다. 일본에서 고급학교를 나왔고 인물이 좋았으며 힘도 장사였다. 그의 동생 조00(15)마저 형의 영향으로 산에 올라가 폭도가 됐다.

낙천리의 세 번째 인물은 일제 때부터 마을 이서기를 맡았고 청년들의 리더였던 박00(28)이다. 그의 형 박00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신출귀몰 형으로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약간 절지만 극단을 꾸려 주민을 상대로 연극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그의 행방은 누구도 모른다. 48년 음력 동짓달 초(12월) 마을이 소개될 때 김00과 조00은 가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으나 박00 가족은 고산으로 소개했다. 김00 가족의 경우 토벌대에 은신처가 발각됐을 때 모친은 귀순을 거부, 산에 남겠다고 하여 굴에서 총살되고 부친은 귀순, 후일 영락리에서 재취하여 살아남았다.”

“김명옥은 폭도 두목 이00과 형제간으로 폭도가 된 저지리 이00(29)와 한때 시돈간이었다. 김명옥의 큰형 아들과 이00의 둘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 33)제주읍 도두리 장00(22) 사망 : 2002. 9. 12. 김성수(67, 제주시
 애월읍 하가 1리) 시민연대에 증언

- 34) 제주읍 도두리 장00(16) 행방불명 : " "
- 35) 제주읍 도두리 장00(18) 사망 : " "

“현재 도두리에 김동씨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저보다 두 살쯤 위인데, 그분이 나더러 한번 오라고 해서 너한테 말해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누님 관계를 말해주는데, 자기네도 해안 가서 짐을 가져오다가 형제가 붙들려서 거기 산에 가보니까 우리 누님도 있었고 사촌누님도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누님 친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붙잡혀 와 있더라.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우리 마을 남로당 활동을 적극했던, 주동했던 놈들이, 그러니까 장00(22), 장00(16), 장00(18), 또 한놈은 김형춘, 김형춘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놈들도 있는데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이 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명한 좌익들이어서 이름만 대도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저희 누님만 더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누운오름 서쪽 솔밭에 일본군이 파놓은 호가 있습니다. 그 호에서 누님 시신을 역시 1년 후 썩에 찾았습니다만, 장00 일당이 죽었는데, 온갖 별짓을 다 해서 죽인 겁니다.”

- 36) 한림면 고산리 이00(41) 행방불명 : 2013. 1. 28. 김태수(34년생, 제주시 연동) 증언
- 37) 한림면 고산리 고00(24) 사망 : " "
- 38) 한림면 고산리 좌00(23) 사망 : " "
- 39) 한림면 고산리 고00(35) 사망 : " "
- 40) 한림면 고산리 고00(23) 사망 : " "

“이날 마을에서 잘 사는 집으로 알려진 곳은 대부분 폭도들에게 약탈당했다. 그러나 이중 몇 집은 털리지 않았다. 일제 때부터 소위 ‘힘이 센 쪽’에만 가담한

다는 이(李)씨 일가집이 포함된다. 후일 해군 대위 출신으로 간첩혐의로 복역하다 DJ 시절 무혐의로 1억7천여만원의 보상을 받고 살다 1달 후 숨진 이00의 일가이다. 이 일가 이00(41)은 산으로 올라간 폭도였다. 형 이00은 큰 기와집 3채를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동생 이00은 남의 집 소 외양간에 매둔 소를 훔쳐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로 평판이 나빴다. 이00의 자녀들은 작은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

김태수는 9살에 고산초교를 입학, 49년 7월에 졸업하여 4회 졸업생이다. 그가 4학년 때 담임선생은 고00(26년생). 교장은 일제 때 교감이던 송문옥으로 민애청위원장을 맡은 좌익계의 거물이다. 교장의 영향일까 47년 3월 담임 고00 선생과 좌00(27년생) 선생의 인솔로 김태수와 학생들은 고산 마을을 돌며 3일 동안 두어 시간씩이나 '왓샤' 시위를 벌였다. 3·1절 관덕정 시위로 파업사태가 났을 때 고산지서 앞에서 제주농업학교 상급생이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덕정에서 있었던 일 등을 밝히는 연설회가 있었다. 고산지서에 경찰관이 있었으나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송문옥 교장은 4·3을 전후하여 김태수의 1년 후배인 아들 등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쳤고 북송선을 타 북한으로 갔다. 고00과 좌00 선생은 6·25직후 예비검속 때 고산교 교감 김00(23년생, 귀덕리 출신), 교사 김00(32년생, 영락리 출신)과 함께 모슬포경찰서에 수감돼 50년 8월 20일 모슬포 석알오름에서 처형됐다.

고산에서 좌익계의 중심인물은 고00(35). 그는 뼈라와 벽보를 써 마을 청년과 초등학생들을 시켜 뿌리고 붙이도록 했다. 마라톤 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고00(23)도 와샤 시위 등을 주도했다. 한림면 서기를 지내고 한학이 뛰어났던 고00도 좌익활동을 했다. 남로당 당원 명부에는 고00이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들자 호적 이름인 고00이라며 고00이 아니라고 집어댔다. 흥년 때 식량배급을 책임진 일이 있어 마을에서 신망도 있었기에 주민들도 옹호했다. 고00의 두 아들 중 한명은 서울에서 세무서 과장을 하고 큰 딸은 미국에서 사는 등 다복하다. ”

※이00 :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1383(12-67)

41)한경면 고산리 좌00(19) 사망 : 2013. 2. 5. 고희경(29년생,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증언

“당시 고산초등교 교장은 송문옥으로 민청위원장을 맡았던 좌익계의 거물이
다. 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남로당 입당원서를 받아냈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후
일 처형됐다. 송문옥은 4·3전후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자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
로 도망쳤고 북송선을 타 북한으로 갔다. 송 교장의 영향으로 고산2리 출신 좌
00(19) 교사는 좌익활동을 하다 총살됐다.”

42)한경면 판포리 이00(37) 사망 : 2013. 2. 5. 고경하(30년생,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증언

43)한경면 금등리 송00(35) 사망 : " "

44)한경면 금등리 김00(33) 사망 : " "

“4·3 때 금등리에는 폭도들이 습격이 없었다. 두모지서와의 거리가 1km 내
외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폭도 책임자가 있었다.
23~24세였던 김창용이다. 김창용은 경찰의 지명수배가 있자 일본으로 도피했
다. 길 하나 사이로 경계인 옆마을 판포리에는 이00(37)이 폭도 책임자였다. 금
등리에서 김창용과 좌익활동을 하고 폭도와의 연락은 마을 청년회장을 하거나
지낸 송00(35)과 김00(33)이 있다. 이들은 이00과 함께 예비검속 때 검거돼 모
슬포에서 처형됐다. 김창용은 신창초교 1회 졸업생으로 똑똑했었다.”

45)한림면 고산리 고00(31) 사망 : 2013. 2. 26. 김승지(30년생,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 증언

“고산 일대 서부지역은 40년 고산 사립초교를 설립하고 교장이었던 송문옥
이 민애청위원장으로 처음 주동이 됐다. 그는 대정신도의 큰캐왓 출신으로 제주

도청 고위직(*김승지는 총무국장을 지냈다고 주장)에 있던 김모(이름을 기억치 못함)와 김과 셋째 동서지간(*둘째 매부는 강00 교장)인 고산출신 고00(31, 일명 고00)을 포섭하면서 좌익 활동의 뿌리를 심었다. 이 두 동서 때문에 서부지역의 비극은 비롯 됐다. 고산리는 고00과 이어 포섭된 신00(경찰의 총상으로 다리가 잘리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다)에 의해 좌익은 활개를 폈다.

정작 주모자인 송문옥은 4·3 직후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 조총련이 돼 아들, 딸들을 북송시켜 사람을 팔아 돈벌이했고 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지냈다. 신도의 김은 읍내 관덕정에 붙잡혀 와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

- 46)한림면 용수리 고00(41) 사망 : 2013. 2. 26. 고진원(30년생,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증언
- 47)한림면 용수리 김00(35) 행방불명 : " "
- 48)한림면 용수리 고00(27) 사망 : " "
- 49)한림면 용수리 김00(30) 사망 : " "
- 50)한림면 용수리 양00(25) 사망 : " "
- 51)한림면 용수리 좌00(22) 사망 : " "

“한원리까지 폭도들이 습격했으나 해안마을인 용수리에는 습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좌익은 있었다. 고00(41), 김00(35)은 지도자 바로 밑의 역할을 했고 용수서당을 나와 똑똑했던 고00(27), 같이 군대를 갔던 김00의 형 김00(30), 양00(25)이 좌익 활동을 하다 희생됐다. 2년 선배 좌00(22)는 좌익 활동으로 멸족이 됐다.”

※김00 . 1949. 7. 1 무기형, 세수시검수형인명부 번호 1309(11-93)

- 52)제주읍 도평리 양00(24) 사망 : 2013. 3. 12. 박성두(朴性斗, 31년생 제주도 도평동) 증언
- 53)제주읍 도평리 김00(22) 행방불명 : " "

- 54) 제주읍 도평리 윤00(27) 사망 : " "
- 55) 제주읍 도평리 최00(24) 사망 : " "
- 56) 제주읍 도평리 윤00(20) 사망 : " "
- 57) 제주읍 도평리 윤00(25) 행방불명 : " "

“박성두는 이날 비극이 창호동에 있는 말 방앗간에서 식량을 짚어진 양00(24)가 외도에서 올라온 토벌대에게 붙잡히면서 일어났다고 밝힌다. 토벌대는 군경과 청년단 등으로 구성됐다. 양00가 식량을 “산에 올려 간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토벌대는 이로써 도평리를 빨갱이 마을로 규정하고 마을 주민들을 도평초교에 모이도록 한 것이다. 토벌대는 창호동에서 본동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길에 10여 가구의 집에 불도 질렀다. 양00는 학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나중 토벌대에 잡혀 죽었다. 토벌대는 이날로 소개령을 내렸고 학교와 마을을 불태웠다.”

“도평리에서 좌익 활동의 지도자는 명진서당을 나온 김00(22), 공부를 많이 한 윤00(27), 최00(24) 등으로, 높은 사람이고 윤00의 영향으로 중학 출신 독자인 윤00(20), 윤00(25) 등이 폭도와 관련이 있다.”

※윤00 :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906(7-35)

- 58) 제주읍 외도리 이00(40) 사망 : 2013. 3. 12. 이두생(李斗生, 26년생, 제주시 외도동) 증언
- 59) 제주읍 외도리 신00(32) 행방불명 : " "
- 60) 제주읍 외도리 이00(21) 행방불명 : " "

“이두생은 양군옥의 직계로 구학문에 뛰어난 이00(40), 신00(32), 이00(21) 등이 외도에서 확실하게 좌익 활동을 한자로 기억한다.”

※이00 :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1349(12-33)

▶박상길 위원 : 서북청년단 책임자는?

▶증인(고순화) : 김재능(金在能)씨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도(外都) 도평(都坪)이라는 부락이 몰살된 일이 있고 중노루에서 1948년 가을에 거의 500명을 참살했는데 거주민들의 얘기는 그때 외도지서 주변에는 사람이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는 냄새 때문에 ...

▶박상길 위원 : 그 당시 지서 주임이 누구니까?

▶증인(고순화) :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항문에 병을 찔러서 악형(惡刑)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노형(老衡)에서 돌아온 일가족 몰살사건이 있는데 이완영이라는 자가 폭도로 활약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부모 동생 생후 2개월의 갓난애를 비롯해서 12명을 경찰의 명령에 의해서 특공대가 죽창으로 죽였고 자운당에서 애월면 주민 약 400명을 학살시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

‘제주4·3사건 자료집 4’ 165쪽 -

61)제주읍 도두리 문00(23) 사망 : 2013. 4. 10. 강경하(27년생, 제주시
도두동) 증언

“강경하는 학교를 나와 해방 전까지 목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다. 좌익 운동의 거물로 알(아래) 동네의 문00(23)만을 기억한다.”

62)제주읍 도두리 이00(22) 행방불명 : 2013. 4. 16. 문병구(31년생,
제주시 도두2동 신성부락) 증언

63)제주읍 도두리 임00(20) 행방불명 : " "

64)제주읍 도두리 김00(26) 행방불명 : " "

“5·10선거 때 마을 주민 3분의 2는 좌익들의 위협으로 산쪽으로 올라갔다. 문병구 가족 등 3분의 1은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다. 남아있던 청년들이 산에 올라간 집의 돼지를 잡아먹는 바람에 며칠 후 돌아온 돼지 주인이 청년들과 한 바탕 싸움을 벌이는 소동도 있었다.

도두2동에서 좌익 활동하고 입산한 폭도는 이00(22)과 임00(20), 선배인 김00(26)을 들었다. 도두1동의 경우 좌익이 드센 동부락과 우익 성향의 서부락으로 나뉘어져 마을 싸움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65)제주읍 외도리 김00(20) 사망 : 2013. 4. 16. 김병식(26년생, 제주시 내도동) 증언

66)제주읍 외도리 김00(20) 사망 : " "

“김병식은 그곳에서 영흥서당 후배인 김00(20)이 기마용 긴 장화(일본군 장교용)를 신고 권총을 차 나타냈고 김00(20), 이00((21)도 칼빈 총을 거꾸로 메고 폭도들과 함께 행동했다. 이00 부친 이00(40)은 월대 이장을 지낸 마을 원로이나 좌익활동을 했다. 이00 처와 자식 등이 모두 희생돼 대가 끊겼다. 신00(32)도 폭도였다. 내도에서는 문창훈, 김두평이 좌익을 주동했고 폭도로 활동했으나 탈출, 월북했다.”

67)제주읍 이호리 김00(26) 사망 : 2013. 4. 23. 고승만(30년생, 제주시 도두1동) 증언

68)제주읍 이호리 김00(24) 행방불명 : " "

“오도룡은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농업학교 교사로 3·1시위를 주동했고 남로당 조직책이었던 고칠종의 고향. 고와 농업학교를 함께 다닌 김00(26, 전 농업학교 교사, 재산관리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김민하(41)가 좌익세력의 주축이었다. 고승만과 제주중을 같이 다닌 김00(20)은 김민하의 아들로 폭노의 시휘관급, 그들 일가족은 대(代)가 끊길 정도로 희생이 많았다. 고승만의 제주중 선배 김00(24)도 폭도가 됐다. ”

※김00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005(8-34)

69)제주읍 이호리 김00(22) 행방불명 : 2013. 4. 30. 이보연(29년생,
제주시 이호1동) 증언

“48년 4월 6일 이호리에 폭도들이 습격하여 일제 때 철학박사로 대청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우익계 거물 이도연(36) 등 2명을 살해했다. 이도연은 이보연과 사촌지간이다. 이즈음 우익계 도평 이원평, 내도 심현집 등도 살해됐다.

이호 1동에는 일제 때 구장을 역임한 김00(46)과 그 아들 김00(22, 월북), 일본으로 도피한 박봉준, 박영수 등이 좌익계 거물들이었다.

5·10 때 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여 ‘광고모루’ 위쪽 ‘해안벙뒤(널다란 별판)’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보연도 부모, 형, 동생 등 가족 전부가 산으로 올라갔다. 노약자 몇 명을 빼고는 모두 올라갔다. 당시 이호1동의 가구는 80여 가구였다.”

※김00 :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364(12-48)

70)제주읍 이호리 고00(26) 행방불명 : 2013. 4. 30. 김원서(29년생,
제주시 이호2동) 증언

71)제주읍 이호리 김00(26) 행방불명 : " "

72)제주읍 이호리 김00(25) 행방불명 : " "

“오도룡에 성이 쌓아진 후 좌익계의 거물인 김민하의 딸이 2~3살 난 아들을 한밤중 성안에 놓고 갔다. 그녀의 남편 김00 가족의 대를 잇도록 한 것으로 이 아이는 살아나 지금 스님이다. 자기와 함께 있으면 죽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모정(母情)이다.

오도룡은 고칠중, 김민하와 그의 아들 김상훈의 영향으로 폭도가 많다. 고칠중의 먼 친척 고00(26), 김상훈의 인척 김00(26), 김00(25) 등이 폭도가 됐다.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부추김과 어쩔 수 없는 휩쓸림으로 폭도였다가 희생됐다.”

※고00 :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251(11-35)

73)애월면 금덕리 강00(20) 행방불명 : 2013. 5. 7. 고성중(30년생,
제주시 용담2동) 증언

74)애월면 금덕리 고00(20) 행방불명 : " "

“고성중의 고향 거문대기 동갑내기는 20여 명이나 4·3 때 모두 죽었다. 하귀 중학을 다녔던 강00(20)과 고00(20)은 똑똑하여 폭도로 휩쓸렸다. 거문대기는 유수암보다 위쪽으로, 산 쪽에 가까운 지리적인 탓으로 폭도들의 세력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희생이 큰 이유이다.”

75)제주읍 해안리 김00(33) 사망 : 2013. 5. 7. 강석진(31년생,
제주시 해안동) 증언

76)제주읍 해안리 고00(24)행방불명 : " "

77)제주읍 노형리 김00(22, 여) 사망 : " "

“해안동은 강위경, 강기화, 홍두표 등의 영향으로 앞장서기 좋아했던 김 00(33)과 똑똑했던 고00(24)가 좌익 활동에 이어 폭도가 됐다. 월산으로 시집 간 김00(22, 여)이 남편 때문일까 좌익활동을 하고 폭도가 됐다. 이 누이동생 때문일지 해안동의 인재로 화북초등교장을 지내 도평초등교장이었던 오빠 김 00(31)가 총살됐다. 누이 때문에 오빠가 애꿎게 죽었다고 본다. 김00의 동생 김00(26)은 청력 장애인 강상주와 함께 9연대 토벌대의 길 안내역으로 관음사로 가던 도중, 귀 먹은 강상주는 도중에서 돌아왔으나 노형 위에서 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총살됐다. 48년 10월쯤 송창률은 집 마당에서 콩을 수확하다 토벌대가 왔다고 하자, 세수하고 옷을 살아입어 노망가나 총살됐다. 집에 그대로 있지만 했어도 살았을 것을 도망가다 죽었다. 고00(18), 김00(19)은 제주농업학교 학생으로, 4·3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78)제주읍 노형리 강00(20) 행방불명 : 2013. 5. 21. 문달진(文達珍, 29년생,
제주시 월산동) 증언

- 79)제주읍 노형리 소00(21) 사망 : " "
80)제주읍 노형리 이00(21) 행방불명 : " "
81)제주읍 노형리 백00(22) 행방불명 : " "
82)제주읍 노형리 백00(17) 사망 : " "
83)제주읍 노형리 이00(26) 사망 : " "
84)제주읍 노형리 소00(18) 사망 : " "
85)제주읍 노형리 문00(22) 사망 : " "
86)제주읍 노형리 문00(19) 사망 : " "

“3·1 행사 독려를 했고 월산에서 좌익활동을 주도하고 폭도가 된 대표적인 3인방은 강00(20)와 소00(21), 이00(21)이다. 강00는 농업학교 출신이고 소00은 도두초교 출신, 이00은 노형초교를 나왔다. 이들은 5·10 선거 때도 “우리말을 잘 들으라.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선거를 반대하고 산으로 몰아냈다. 월산에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달진은 산에서 잠은 자지 않고 한나절 있다 내려왔다.

이 3인방의 영향으로 도두초교를 나와 똑똑했던 백00(22)과 백00(17) 형제는 4·3 직후 입산하여 폭도가 됐다. 이들 형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 백00(48)과 모친은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이00의 둘째 형 이00(26), 소00의 동생 소00(18)도 폭도가 됐다. 강00 부인도 산에서 체포되어 총살됐다. 또한 문달진의 5촌 조카 문00(22), 문00(19) 형제도 이들 께임에 빠져 폭도로 있다 체포돼 정쁘르 비행장에서 총살됐다.”

※강00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970(7-99)

※백00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912(7-41)

87)조천면 와산리 한00(32) 행방불명 : 2013. 5. 28. 강원배(37년생,
제주시 노형동) 증언

“강원배는 마지막 잔비(殘匪) 5명 중 1명으로 57년 3월 식량을 구하려 내려
왔다가 체포돼 잔비를 모두 소탕할 수 있도록 귀순하여 목숨을 구한 여자 폭도
한순애(韓順愛)와 인척인 폭도 한00(32)의 아들 한00과 잦은 논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감귤 관계 방북 때 부친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설레던 한00은 부친을
못 만나 갖고 갔던 선물을 기차 선로위에 놓고 왔다는 말까지 하고도 부친의 행
적은 부인한다는 것이다.”

※한00 :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004(8-33)

88)제주읍 오라리 고00(20) 사망 : 2013. 5. 28. 김상진(34년생,
제주시 오라동 정실부락) 증언

89)제주읍 오라리 김00(24) 사망 : “ ”

“며칠 후 도두초교에 모이도록 하여 김상진 부자도 갔다. 운동장에 한 팔 간
격으로 앉도록 하여 앞 사람 어깨에 팔을 걸치고 고개를 들어 눈을 감도록 했
다.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며 누군가를 지목했다. 이때 아들 양00가 폭도인 정
실의 양00(46)이 끌려가 총살됐다. 그들은 무사했다.

마을에서 폭도였던 고00(26)은 둘째 형 김00(24)이 굶주리다 못해 총을 메
게 됐고 토벌대와 교전 끝에 확인해보니 없어 ‘전투 중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는 것. 셋째 형 김상택은 재주꾼인데 불행했다. 김상택은 집 주위를 돌며 피신하
다 군인에게 체포돼 농업학교로 끌려갔다. 큰 죄를 지지 않아 그때 끌려간 대부
분이 석방됐다. 그런데 그는 농담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불러 군인들이 사회에 나
가면 위험하고 부대에서 필요하니 부대에서 함께 있다 부대 이동 때 석방해주겠
다고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부대 철수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군법회의에서
8년형을 받아 대전형무소로 갔고 6·25로 총살됐다.”

90)제주읍 오라리 송00(49) 사망 : 2013. 6. 11. 양진현(29년생, 제주시
오라2동 사평마을) 증언

- 91)제주읍 오라리 강00(19) 행방불명 : " "
92)제주읍 오라리 박00(26) 사망 : " "
93)제주읍 오라리 강00(18) 행방불명 : " "
94)제주읍 오라리 고00(25) 사망 : " "
95)제주읍 오라리 고00(26) 사망 : " "
96)제주읍 오라리 허00(18) 사망 : " "

“오라마들은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로 항일운동을 하던 지사들이 많았다. 허 두경은 일본도 큰 칼을 차고 이따금 마을에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 좌익인사 송 삼백은 “정부에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온건파였다. 그는 일본에 있다 귀국하여 좌익활동을 하다 연미 책임자로 강병일에게 인계하고 수배령이 내려지기 전 일본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송00(49)은 좌익활동을 하다 죽었다. 그의 외조카 김00(金 00, 28)은 풀수 주동자이다. 양진현의 앞집에 사는 김00은 그에게 민애청 소년 선전부장을 맡기는 바람에 양진현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다. 김00은 4월 23일 자기 집에서 경찰에 잡혀 연행 도중 마을 인근 ‘동산물’ 밭에 이르렀을 때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다 경찰에 사살됐다. 양진현은 도망치라고 한 후 도망치자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양진현은 어느 날 밤중에 송중평, 송00(20), 강00(19) 등과 함께 제주경찰 서로 끌려갔다. 전기취조만 받지 않고 온갖 고문을 받은 끝에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송중평은 이후 경찰이 됐으나 강00(19)는 입산, 김달삼 비서가 됐다. 김달삼을 따라 해주로 간다고 제주를 떠나 행방을 모르더니 서울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북한에 갔을 것으로 본다.”

“정실 남쪽 현재 오라골프장 입구 쪽 ‘학담’ 부근 소나무 밭에서 강신평, 박00(26) 등 3명의 앞 20m 지점에서 군인들이 나타났다. 3명은 군인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양진현과 강신평은 20여m를 뛰다 지쳐 무덤의 돌담 뒤로 몸을 숨겼다. 박00은 날썰게 산쪽으로 달렸으나 남쪽 편에 있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사살됐다. 군인들은 이날 어승생 일대에서 토벌을 마치고 두 갈래로 나뉘 죽성에 있는 주둔지로 가는 길이었다. 북쪽 편의 군인들에게 쫓기어 달린다는 것이 남쪽 편 쪽 군인 앞으로 달려 나갔던 것. 박00은 일제 때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마을에서 좌익의 리더로 활동했다. 박00은 “날아오는 총알을 뒷손으로 잡을 수 있다”며 날썰을 늘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그가 너무 잘 뛰어 죽음으로 뛰어들었다. 도망가다 너무 뛰지 못해 붙잡혀 죽는 경우도 많지만 잘 뛰어도 죽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오라에서 제주북초등학교를 나온 강00(18)과 똑똑하고 힘이 셸던 고00(25)은 무장 폭도였다. 일제 때 중등학교를 나와 사신서당 선생이었던 고00(26)은 좌익 청년들의 지도자급이고 허00(18)도 핵심 폭도였다.”

97) 제주읍 오라동 김00(39) 행방불명 : 2013. 6. 18. 이경생(30년생, 제주시 오라2동 사평마을) 증언

“1948년 5월 1일 세칭 ‘오라리 사건’때 사평부락에서는 3곳이 불탔다. 친정 이웃집인 강00, 김00(00), 김00(39) 집 등. 강상수는 산으로 올라가다 물장울에서 토벌대에 의해 죽었고 김00은 4·3 이후 병들어 죽었고 4형제 중 셋째인 김00(39)은 좌익활동을 하여 그날 그의 집이 불탔고 폭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98) 제주읍 오라리 김00(20) 사망 : 2013. 6. 25. 송창규(30년생, 제주시 오라1동) 증언

99) 제주읍 오라리 김00(20) 사망 : " "

100) 제주읍 오라리 송00(18) 행방불명 : " "

- 101) 제주읍 오라리 송00(21) 행방불명 : " "
- 102) 제주읍 오라리 송00(20) 행방불명 : " "
- 103) 제주읍 오라리 이00(19) 행방불명 : " "

“남로당과 폭도들의 마을 책임자는 허두경과 6촌인 허00(18)이다. 그의 제복교 동창에 폭도가 많다. 두 살 위 동창(2부) 김00(20)와 김00(20), 4·3이후 행방을 모르는 송00(18), 폭도였다가 자수하여 군사재판을 받아 행방불명 송00(21) 등이다. 송00의 큰 형이 송창염(26)이다. 송창염은 경찰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경찰 특별수사대원이었다. 폭도를 잡아내는 수사대원이 프락치였다. 프락치사건이 발각되자 99식 장총을 갖고 입산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생포돼 총살됐다. 형과 동생 닳일까 화북초교 교사였던 송00의 형 송00(22)도 총살됐다. 제복교 후배인 송00(20)는 오라에서 살다 연미로 이사 가더니 으뜸 좌익 청년 마을의 영향으로 폭도가 됐다. 그 아들 때문에 부친 송00(51)도 총살됐다. 제복교 1년 선배인 이00(19)도 폭도가 됐다.”

- 104) 중문면 강정리 정00(19) 사망 : 2013. 6. 25. 고시수(33년생, 제주시 삼도1동) 증언

“부친이 납치됐던 그날,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김기옥은 폭도들에게 납치됐다 가 살해됐다. 또 폭도들은 고시수의 사촌 누님과 결혼한 이봉철을 집 기둥에 묶어 죽창으로 마구 찔렀다. 죽은 것으로 보고 폭도들은 철수했다. 씨름 선수로 몸이 건장했던 이봉철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상이용사가 됐다. 강정에서 폭도의 습격으로 첫 인명피해가 있었던 날이었다. 그 이후 48년 11월에 좌익활동을 했던 강정주민 10여 명이 대추남밭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도순교 동창 정00(19)는 폭도였다.”

- 105) 제주읍 오라리 박00(33) 행방불명 : 2013. 7. 3. 문용준(35년생, 제주시 오라2동) 증언

- 106) 제주읍 오라리 신00(25) 사망 : " "
- 107) 제주읍 오라리 신00(33) 행방불명 : " "

“월구동의 좌익 활동은 제주도적 사상범인 박기만이 주도하다 4·3이 나자 일본으로 도피했고 일본에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 대신 똑똑했던 그의 사촌인 박00(33)이 이어받았다. 박00은 누이동생 남편인 신00(25)를 끌어들었다. 신00은 거인으로 힘도 장사였다. 신00 형 신00(33)도 합류하여 좌익 활동을 하다 폭도가 됐다. 박00은 산에서 토벌대에게 사살됐다. 박00이 폭도가 되는 바람에 그의 부친과 동생 박00이 49년 2월쯤 노인당 앞 속칭 ‘석회구렁’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될 찰나 박00은 달아났고 부친만 총살됐다. 부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왔던 부친의 형도 동생 때문에 그곳에서 총살됐다. 박00은 후일 귀순하여 재판을 받고 석방되어 고향에 왔다가, 밀항하여 일본으로 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온 뒤 잘 살다 죽었다.”

※신00 :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352(12-36)

- 108) 제주읍 연동리 김00(27) 사망 : 2013. 7. 10. 오경호(29년생, 제주시 연동) 증언
- 109) 제주읍 연동리 박00(32) 행방불명 : " "
- 110) 제주읍 연동리 박00(28) 사망 : " "
- 111) 제주읍 연동리 백00(33) 행방불명 : " "
- 112) 제주읍 연동리 서00(32) 사망 : " "
- 113) 제주읍 연동리 양00(26) 행방불명 : " "

“연농에서 좌익 활동은 마을에서 학식이 뛰어나다는 백상송, 양00(40)가 주도했고 이들 영향으로 북초교 등을 나와 똑똑했던 김00(27), 박00(32), 박00(28), 백00(33), 서00(32), 양00(26) 등이 폭도로 합류했다.”

※박00 :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962(7-91)

114)제주읍 오등리 강00(29) 행방불명 : 2013. 7. 25. 오완규(30년생,
제주시 오라1동 대월동) 증언

115)제주읍 오등리 김00(24) 사망 : " "

116)제주읍 오등리 이00(22) 행방불명 : " "

“죽성(오등)의 강00(29)은 청년의 리더. 온갖 일 모두에 똑똑한 체 할 정도였
고 죽성의 청년들을 일으켜 ‘와샤’ 시위에 참여케 했다.

또 죽성의 김00(24)도 대표적인 주동자였다. 이때 오씨의 부인 박선일은 “죽
성의 김씨들은 김00 너 하나로 방상(*친척) 모두를 죽이게 만들었다. 때문에 김
씨들은 폭도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말하며 거들었다. 이만생(28)과 함께 이
00(22)도 폭도로 꼽는다.”

※이00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380(12-64)

117)제주읍 봉개리 김00(28) 행방불명 : 2013. 7. 25. 김승추(22년생,
제주시 오라3동 월구마을) 증언

118)제주읍 봉개리 김00(26) 사망 : " "

119)제주읍 봉개리 김00(29) 행방불명 : " "

120)제주읍 봉개리 임00(24) 행방불명 : " "

121)제주읍 봉개리 김00(22) 행방불명 : " "

122)제주읍 봉개리 김00(21) 행방불명 : " "

123)제주읍 봉개리 고00(28) 행방불명 : " "

124)제주읍 봉개리 고00(25) 행방불명 : " "

125)제주읍 봉개리 고00(28) 행방불명 : " "

126)제주읍 봉개리 고00(25) 사망 : " "

127)제주읍 봉개리 고00(22) 행방불명 : " "

“봉개는 남로당의 거물 김영관과 그의 누이, 오누이가 좌익 활동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봉개리는 큰동네는 김해 김씨, 천안가름은 고씨, 서동네는 성 강씨, 동동네는 수산 강씨, 중간동네 장성밭은 임씨 등의 집성촌이었다.

봉개 청년 모두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폭도 역할을 안 한 사람은 없다. 봉개 인민위원장은 김00(28), 00 동생 김00(26)도 폭도 간부를 맡았고 8촌 형제 김00(29)도 폭도로 활약했다. 임00의 아들 임00(24)은 청년대장을 맡았다. 김00(22), 김00(21) 형제도 폭도였다. 폭도 역할을 한 청년은 많으나 총을 들었던 폭도를 중심으로 이름을 든다.

도련 출신인데 작은 아버지 밑으로 양자를 온 소학교를 나와 똑똑했던 고00(28) 등 고씨도 많다. 고00(25), 고00(28), 고00(25), 고00(22) 등이 폭도였다.”

※고00 :1949. 7. 1. 무기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1373(12-57)

※고00 :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 명부 번호 969(7-98)

3. 4·3과 무관한 생존자까지 희생자로 둔갑

- 책자 발췌 및 증언록

26)안덕면 덕수리 송00(19) 사망 : 2012. 11. 13. 김창기(30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증언

“덕수리에서 폭도로 입산한 사람은 없다. 다만 남로당 활동의 두목은 일본에서 중학을 나와 똑똑했던 김00(27), 김00(24) 형제와 한학으로 뛰어났던 송00(30대) 등 3명이다. 이웃집에 살던 송00(19)는 6·25후 군대를 가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4·3과 무관한 인물이다.”

27)안덕면 감산리 임00(27) 행방불명 : 2012. 11. 13. 김창석(21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증언

28)안덕면 감산리 강00(23) 행방불명 :	“	”
29)안덕면 감산리 강00(20) 행방불명 :	“	”
30)안덕면 감산리 양00(35) 행방불명 :	“	”
31)안덕면 감산리 양00(23) 행방불명 :	“	”
32)안덕면 감산리 고00(16) 행방불명 :	“	”

“김창석은 김00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가 거부하게 된 것은 해방 후 얼마 없어 이북으로 간 독서회의 지도자였던 임00(27)가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나쁜 것이다. 우리나라는 덴마크 같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일깨워 준 탓이다. 임00는 안덕면사무소 임시 서기도 했다. 김창석은 “1살 망아지의 갈기가 어느 쪽(좌우)

으로 늡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남로당의 이상이란 말들은 모두가 거짓말 같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남로당에 가입 안 한 이유를 강조했다.

감산리에서는 4·3이전 임00(27)를 비롯 월북한 청년이 많다. 강00(23), 강00(20), 고00, 강00의 아들 형제, 양00(일명 00, 35), 양00(일명 00, 23) 형제 등 8명에 이른다. 일시에 간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4·3 희생자 명단에 오른 임00, 강00, 강00와, 양00, 양00 형제는 4·3과 무관한 인물이다. 고00(16)의 경우도 4·3전에 일본에 가 고향에 온 적이 없다. 고00도 4·3과 관계가 없다.

양00은 한학에 조예가 깊어 서당의 사장도 하다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가 됐다. 이후 제주에 온 적은 없고 동생 양00는 제주에 살다 형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갔다가 함께 월북했다.”

33)한림면 저지리 고00(21) 행방불명; 2012. 12. 4. 문원숙(27년생,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증언

34)한림면 저지리 김00(25) 사망 : " "

“저지리에서 폭도 활동을 한 고영만은 성판악에서 교전 중 사살됐고 현승지도 마지막 폭도대장 김성규 등과 끝까지 활동했다.

그와 동갑인 고00(21)은 4·3이전 병으로 죽었다. 김00(25) 또한 4·3 전에 병으로 죽었다. 4·3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35)한경면 고산리 고00(18) 사망; 2013. 2. 5. 고희경(29년생,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증언

36)한경면 고산리 신00(25) 사망 : " "

“고00(18)는 고00의 호적상 이름이다. 갑장으로 초등학교 동창이고 오현중에 다녔고 해병 4기로 6·25때 함께 참전했다. 학교 다닐 때는 00로 불렸다. 이

웃집에 살았고 농사를 짓다 15년 전쯤 병으로 사망했다.

신00(25)는 48년 2월 마을 청년들이 고산지서를 습격, 시위할 때 총을 맞아 총상으로 왼쪽 다리를 잘랐다. 때문에 4·3의 고비를 넘겼고 농사를 짓다 20여년 전 병사했다.”

37)제주읍 도평리 김00(20) 행방불명; 2013. 3. 12. 박성두(31년생,
제주시 외도동) 증언

38)제주읍 도평리 최00(22) 사망 : " "

“김00(20)은 김00 훈장의 아들로 일본으로 밀항하여 도피했다. 최00(22)은 길에서 다니다 경찰에 잡혀 갔다가 온 후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광령 지경 속칭 ‘들렁기소’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사실상 4·3 희생자와는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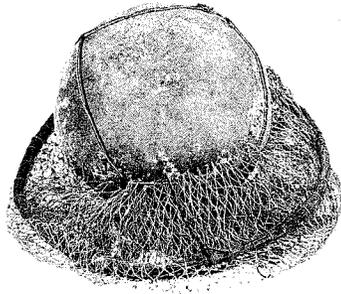
39)제주읍 노형리 현00(20) 행방불명; 2013. 5. 28. 강원배(37년생,
제주시 노형동) 증언

“48년 11월 29일 광령 일대에서 토벌하러 갔던 군인들이 노형국교 쪽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불을 질렀다. 당초 노형은 소개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불을 질러 소개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노형을 지나는 길은 토벌대의 차량이 지나지 못하도록 땅을 파고 돌을 굴러 차량통행을 막아 폭도의 소굴임을 내보였기에 군인들은 소개토록 불을 지른 것이다. 이때 굴목이(느티나무)로 집이 지어져 마루는 얼굴이 거울처럼 내비칠 정도의 6칸 집이 불탔다. 불탄 집에서는 사흘간이나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극은 강원배의 할아버지가 불을 끄려다 군인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다. 강원배는 4·3 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희생자에 폭도들이 있는 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형 월랑은 양00과 현00가 좌파의 핵심 인물이다. 양00은 수배령을 피해 육지로 나갔고 한 짓이 두려워 고향에도 오지 못하고 이호에서 살다 죽었다. 현00

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감형이 된 듯, 6·25 때 인민군과 함께 하다 해주경찰서장까지 했다는 것이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입에서 전해졌다. 현00를 포함 노형 출신 12명이 북한에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00;1949. 6. 28. 사형, 제주지검 수형인명부 번호 901(7-30)



증언자 명단

- 김창기(안덕면 덕수리)
- 김창석(안덕면 감산리)
- 문창립(한경면 청수리)
- 문원숙(한경면 저지리)
- 김명옥(한경면 낙천리)
- 김성수(애월읍 하가리)
- 김태수(한경면 고산리, 연동)
- 고희경(한경면 고산리)
- 고경하(한경면 금동리)
- 김승지(한경면 고신리)
- 고진원(한경면 용수리)
- 박성두(도평동)
- 이두생(외도동)
- 강경하(도두동)
- 문병구(도두동)
- 김병식(내도동)
- 고승만(도두동)
- 이보연(이호동)
- 김원서(이호동)
- 고성종(용담2동)
- 강석진(해안동)
- 문달진(월산동)
- 강원배(노형동)
- 김상진(오라동)
- 양진현(오라동)
- 이경생(오라동)
- 송창규(오라동)
- 고시수(중문 강정동)
- 문용준(오라동)
- 오경호(연동)
- 오완규(오라동)
- 김승추(오라동)

제 3 장

미래세대를 위한 올곧은 말

1. 현길언, 창립기념식 강연록
2. 권희영, 창립기념식 강연록
3. 송봉규 '고희문집'에서
4. 정남두 '사암록'에서
5. 변승규 '제주도약사'에서

제주4·3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4·3을 체험한 이와 연구전문가의 바른 말을 정리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 올곧은 말들을 남겨야 한다. 이것이 바른 역사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는 일이다.

제주4·3사건과 정치 이데올로기

- 현길언 (소설가, 『본질과현상』 발행인)

1. 진실만이 상생과 화해의 길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유족회를 만들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이 또 다시 65년 전 다시 4.3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주도는 중앙 정치 이데

올로기에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4.3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위원회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선정된 1만 4천여 명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해와 상생과 인권을 내세운 4.3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그 책임은 이승만 정권, 미군정, 그리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반란 세력을 진압했던 진압군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억울한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한반도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둘째는, 위원회에서 저항의 논리로 내세운, 5.10선거가 민족통일정부를 가로막는 단선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저항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밝

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 변동기에 민족주의 이념을 전략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셋째, 4.3은 발발이나 소위 그 해법이 모두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제주도민의 자주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진실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결론은 “진실만이 4.3의 비극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 제주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그 추종세력으로 만든 범인은 누구인가?

순박한 제주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여 많은 사람들을 추종세력으로 만든 남로당에게 그 과오를 물어야 합니다.

진실은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념이나 가치는 바꿀 수 있지만 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4.3사건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남로당계의 전략에 의해 순박한 제주도민들을 거짓 교육을 시키면서 회유하고 협박하여 동조자로 만들어 일으킨 사건”입니다. 4.3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발발 동기와 그 진압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의 문제와 불법의 문제와 발발 동기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야기된 반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4.3 발발 동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3의 해법은 진실을 복원하는데서만 가능합니다. 이념으로 포장해서 평화와 상생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그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가능합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제게 “4.3을 폄훼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4.3을 폄훼한 자는

“순박한 제주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나 그 추종 세력으로 만든 그들과 지금에 그 사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이념적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5년 전에는 공산주의이데올로기가 제주 섬을 죽음의 섬으로 만들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가치와 정치질서와 세력, 역사의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려는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시켜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를 오도하는 것이고, 희생자를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혁명전사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희생자의 명예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3 사건에 참여한 자들과 희생당한 분들의 실체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3을 일으킨 좌익 세력들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남로당의 핵심요원들. 이들은 38 이남도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북한과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류입니다.

(나) 이념적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자

이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공산주의에 대한 매력을 갖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해방이 되자 정치 변동기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3무장반란을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에 포섭되어 사상 교육을 받은 남로당계 추종세력들 각 지역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남로당에서 선별하여 세뇌 교육을 시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중앙 정치 상황에 어두워서 제주에 좌익 혁명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남로당의 세뇌 교육과 전략적인 전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가 불리해도 섬 밖으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그들의 표현)하다가 희생당합니다.

(라)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불만자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

매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를 생각합니다.

(마) 어쩌다가 산사람이 되어 피해를 당한 대다수 도민들.

이들은 친척 때문에, 중산간 부락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 인연이 되어서, 입산하게 되었고, 혹은 폭도로 몰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소위 4.3희생자들의 성향을 이렇게 편리하게 나눠볼 때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변동기 제주 사회가 혼란된 상황을 이용하여 당의 조직화에 성공하여, 좌익 세력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을 결집하여 그들의 전술 전략에 이용합니다.

위원회에서 신고된 희생자가 14,02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남로당원으로 활동한 자, 이 사업에 불만을 갖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 이복에 살아있거나 월북한 사람,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들을 포함하더라도 2만여 명은 채 안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단선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군정과 부정부패 세력에 저항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군사부 산하 무장 유격대의 수를 약 300-5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하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가)과 (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류, 그리고

(다)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남로당의 전략적 전술에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반란에 따라오도록 한 세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한반도에 공산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이념주의자들입니다. (다)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공산주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렇다면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도민들은 누구 때문에 희생된 것입니까? 그들의 희생의 원인을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에, 진압 작전을 지휘한 진압군에게만 돌리기 전에 원인 제공자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보고서는 반란의 주체인 남로당은 '과오'정도로 평가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4.3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저항적인 사건”인가를 논의해야 할 차례입니다.

3. 5.10 선거 거부가 도민의 진정한 뜻이었고 정당한 저항적 행동이었는가?

제주사람들 중에는 5.10 선거를 거부하여 북제주 갑.을 선거가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을 민족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도민의 의지처럼 은근히 자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4.3을 최초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했던 민중항쟁이라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 학자들의 허황된 논리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제주사람들의 진실을 정치 이데올로기에 팔아버린다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로당은 5.10 선거가 분단을 고착시킨다는 명분으로 협박과 회유로 주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다시피 했습니다.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

거관리 업무를 맡은 인사와 그 가족에 대해 잔인하게 테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5.10선거 방해 공작으로 북제주 갑.을 두 선거구가 선거 무효가 되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남로당에서는 조직적으로 혹은 마을 행사를 구실로 주민을 한 곳에



모아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거부하는 일이 애국하는 일이라고 선전하고 강압했습니다. 선거 무효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있었습니다. 4.3진상 규명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반 국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3개월 후에 제주에서 일어납니다. 남로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 선출을 위한 38선 이남에서 지하선거를 시행됩니다.

38이북은 이미 소련군의 배후 조종에 의해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모든 체제가 완비되어 이미 대의원 선출이 되었는데,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조선에서만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 300명을 지하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거에 제주에서는 주민 85% 이상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남한 농촌 인구의 4분의 1이 이 서명(투표)에 참가하였고, 이 중에 5%만이 남쪽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정부 수립을 위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투표에 참가하였다.----공산주의 측에서 남긴----참가 의의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보통보다 높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제주도에서는 85% 주민이 서명 투표하였다”고 한국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정치학자는 논평했습니다.¹⁾

이 선거에 제주도민은 85%가 참여했고, 전국적으로는 진정한 의도를 갖고 참여한 자가 5%정도라는 것입니다. 5.10선거는 남한 단독 민주정부 수립을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조선인민공화국 대의원 선거에는 85%가 투표했다면, 남로당이 말하는 민족통일 정부의 실체와 5.10선거가 민족 분단을 공고히 하는 선거였다고 그 의미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지하 선거에 의해 추천된 김달삼을 비롯한 6명이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제주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달삼은 전국 대의원과 주석단 3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고, 후에 강동정치학원을 나와 태백산 지역 빨치산의 지휘자로 활동합니다. 이제 제주도민은 4.3사건 발발의 원인으로 보고서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5.10 선거 거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제헌국회의원 선거 거부를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보고서, 534)이라는 남로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5.10선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당시

1) 존 R 메릴/신성환,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p.178

좌익에 가담했던 여러 사람들(이운방, 김생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고서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4.3반란이 계기가 되어 남로당이 원하는 대로 38이남에서 정세가 변화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159-200). “제주도 봉기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인 봉기를 유발시켜 진압병력 추가 증파가 어려울 것이고, 경비대는 중립을 지키고, 미국도 국제문제가 되어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세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로당 세력이 강하고 이북에는 팔로군이 들어와 있어서---유리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38이남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주의 젊은이들을 회유하여 어설픈 혁명전사로 만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하여 이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정세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하늘이 도운 것이고, 세계정세를 바르게 인식한 민족지도자들의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족 분단을 가져온 정부”였다고, 또는 친일파들이 세운 정부라고 비하하는 경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남북 협상파들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민족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10 제헌의원 선거 당시에 이미 38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모든 체제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주축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설(46.2.8-9)하여 임원을 발표했고, 농민대표자 회의를 통해 토지개혁 결의안 채택(46.2.28) 토지개혁법령 발표(46.3) 김일성 20개 조 정강발표(46.3.23) 토지개혁 완료(46.3.31) 몰수 면적 100정보, 분배 농가 호수 72만) 도시 인민위원 선거(46.11)를 실시하여 인민위원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북조선인민위대회결정서 채택, 제1차 인민위원회 개최, 조직 완료(4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48.2)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유엔 감시 하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단일 정부 수립은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의미합니다. 남북 협상파에 의한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이상이고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그 명분을 제주남로당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제주 4.3 사태는 남로당에 의해서 준비된 반란입니다.

4. 4.3 사건을 민주화의 이념으로 포장되어 정치적인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중앙의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처리되면서 진실이 왜곡됩니다.

그 동안 제주 4.3사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학술적 의도보다는 권위주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접근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 상황에 대한 반발과 그 억압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해방기에 일어났던 정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평가를 부정하는 방향에서 조사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도, 그 당시까지 편향되었던 인식에 균형을 맞추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활동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민주화 분위기에 휩싸여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4.3에 대한 인식도 역사적 사실의 복원, 즉 그 진실 찾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맞서는 입장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자료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압군의 반 인권적인 행태에 중심을 두고 조사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조사 활동도 결국 정치적 사안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 진실의 복원보다는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중시하게 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표의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즉 4.3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차원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순수 학술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진상 규명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한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4.3의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임 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등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폄하하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면서 ‘과거사 청산’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²⁾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제주 사람들이 제기했던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 (법률 제 6117호)이 공포되었고, 그 해 8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어 그 해 10월 6일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위원 5명이 임용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월 24일에 보고서 초안이 확정되었고, 4월 30일에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추가 사항을 보완하여 같은 해 10월 15일에 4.3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위원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를 표명한 후에 사퇴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50년 이상 끌어온 이 제주4.3사태의 진상을 정부 기관이 주도하여 단 3년 만에 진상을 구명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 사건에 대하여 “공산폭동”이라고 규정했던 과거 권위주의시대까지의 인식이, 이 보고서의 결론처럼(보고서 pp,534-540), “남로당의 조직 수호와 당면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 일어난 사태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불법적인 진압 작전으로 많은 주

2)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 경영2 :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오름,2011.11), p.80

민이 희생되었다"는 결론 사이에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결정되자, 2003년 10월 31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4.3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사과는 남로당 무장대의 반란의 정당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반대하여 일으킨 이 사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갑자기 정의로운 싸움에 동참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해와 상생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4.3평화공원을 둘러보면, 그 전시장에 전시된 4.3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전시물들을 보면 평화와 상생은커녕 분노와 증오를 배우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4.3은 그 발생 당시나 그 해결을 도모하는 오늘에도 역시 중앙 정치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애를 갖게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남로당 세력에 의해 당시 혼란된 제주 사회의 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일으킨 사태입니다. 그 주동자들은 무책임하게 제주를 탈출하였고, 그들의 회유에 넘어간 도민들만이 희생을 당

했습니다.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는 그 원인이 남로당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미화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도 민주화라는 형식적 이념을 쫓아서 개혁적 정치이념에 의해서 저항으로 미화해서 정치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서도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수의 분제를 제주사람 스스로 극복하려는 자생력을 잃게 되었다는데 4.3의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질서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개혁을 도모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과제로 이 사건을 위원회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주동이 되어서 정치 행정 일변도로 처리됨으로 더욱 그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4.3의 해결도 이념의 사슬에 묶여 미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집착하여 수용하는 처사는 제주사람들의 혼을 파는 일이며 4.3의 비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4.3 해법도 정치적이고 권력화되면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제주 사회의 분위기가 억압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권위주의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교육자료화함으로 역사적인 안목을 정직하게 신장시켜 줘야 할 제주의 제2세들에게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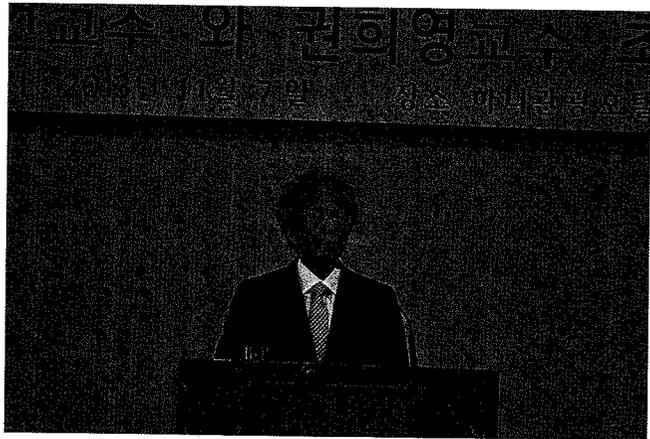
‘제주4·3’과 ‘제주4·3사건’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근현대사)

목차

1. 머리말
2. 1947년의 3.1사건
3. 1948년의 2.7사건
4. 제주4.3의 진행과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4.3’은 ‘제주4.3사건’과 같지 않다. 왜 그러한가? ‘제주4.3’은 역사적 사실과 진실로서의 역사적 사건과 해석이며 ‘제주4.3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산하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과 성격이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이후 『보고서』로 약칭. 이하 쪽수 표기는 『보고서』의 것임).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2003년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보고서』 서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4·3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p.3)

위에 언급한 인용문에서 보듯, 『보고서』는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된 정치적, 법률적 사명을 가진 것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진상규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지고 있던 보다 큰 목표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이라는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이같은 목적에 따라 규정된 ‘제주4.3사건’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제주4.3’과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목적에 따라 규정된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이며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이라는 보다 큰 국가적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평가의 몫을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남겨 두었다면 『보고서』가 간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제주 4.3사건’은 다시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같은 작업의 기초로써 ‘제주4.3’과 ‘제주4.3사건’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1947년의 3.1사건

주목할만한 것은 『보고서』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인 고건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도와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보

고서』는 어떤 입장에 서있었는가? 『보고서』는 제주4.3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통적 평가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보고서』가 보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평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정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이고 (p.35) 『보고서』는 이를 “잘못 알려진 역사”(p.36)라고 보았다.

이제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제주4.3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고서』는 제주도에서의 좌익의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한다. 해방이 되자 1945년 10월 초에 2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하여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p.93) 이들은 1946년 말까지 100명을 넘지 않았다. 공산당 조직은 1946년 12월에는 남로당의 결성에 따라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로 재편된다. (p.94) 이때부터 남로당 세력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1947년 3월 무렵까지 도에서 약 3천여명의 당원이 확보되었다. (p.94) 아울러 같은 시기에 민전, 민청, 부녀동맹이 전 도에 조직되었다.

『보고서』는 1947년 좌익이 조직한 3.1절 기념행사를 ‘제주4.3사건’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1947년 3월 1일은 제주현대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흐름의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빚어진 이 날의 사건은 주요한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발포 사건에 항의,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군정당국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청 등 우파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제주도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국면으로 돌입했다. 결국 3·1절 발포사건은 ‘4·3으로 가는 도화선’, 곧 기점(起點)이 되고 말았다.(p.102)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이미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남로당은 1947년의 3.1절 행사를 조직정비, 대중적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

다. “남로당 중앙당은 3·1 기념행사를 무기휴회에 들어간 미·소 공위의 재개 투쟁과 결부시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열 것을 각 지방 당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p.103) 이같은 지시를 받아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 3·1 기념행사를 앞두고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배후에서 조직적이고도 세밀하게 행사 준비에 대한 지침을 산하단체와 각 읍·면, 직장 세포들에게 시달하였다”. (p.104)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표어를 준비하였다.

민주주의적 애국투사를 즉시 석방하라!
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일제적 통치기구를 분쇄하라!
단일 누진제 즉시 실천!
입법위원을 타도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 파쇼분자의 근멸!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인민 경제를 파괴하는 모리배의 철저한 소탕!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신앙의 절대 자유!
식량문제 해결은 인민의 손으로! (p.105)

『보고서』는 남로당이 주도한 3.1절 기념행사가 처음부터 미군정과 경찰에 도전하는 것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주 경찰은 좌익의 3.1절 기념행사가 가두행렬, 가두시위를 하지 못하고 또한 참석자는 소속 행정단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전 주도의 3·1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지역만은 제주북국민학교에 모여 연합으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는다는 계획을 세웠다”(p.106) 이러한 압력에 경찰은 집회는 인정하되 행렬은 불허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p.108) 이러한 양보에도 불

구하고 좌익은 미군정과 경찰에 계속 도전하였다. 기념식 후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것은 좌익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건은 한 기마경관이 관덕정 옆에 자리잡았던 제1구경찰서로 가기 위해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6세 가량의 어린이가 말굽에 채이면서 시작됐다.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몰랐던지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관람군중들이 야유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부 군중들은 “저 놈 잡아라!”고 소리치며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당황한 기마경관은 군중들에 쫓기며 동료들이 있던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당시 관덕정 앞에는 육지에서 내려온 응원경찰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기마경관을 쫓아 군중들이 몰려오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제히 발포한 것이다. 이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p.109)

『보고서』에서도 명백하게 언급하였듯, 경찰의 발포는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악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제주도민을 선동하려 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런 좌파세력의 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해 갔다”.(p.112) 그리고 3월 7일에는 각 읍면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령서를 보냈다. 그 지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시되어 있었다.

- 투쟁방침으로는 ① 3·1 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위한 합법 전취 ② 미제 및 반동 진영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 ③ 제2혁명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

- 요구조건은 ① 발포책임자 강동호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형하라 ②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③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

시 지불하라 ④ 3·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⑤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⑥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
하라.(p.112)

남로당은 이 사건을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를 위한 구실로 삼으
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인하여 발포한 경찰을 살인자로 몰아서 처형을 주장
하고, 경찰 수뇌부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을 무력화시키려고 무장 해제와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할 것을 내 건 것이다. 즉 사건을 정
치화시킨 것이다. 남로당은 계속하여 3.1 사건을 투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3
월 10일부터는 민.관 총파업을 시작하였고(p.114), 이에 호응한 제주도청의 파
업 직원들은 경찰의 발포를 “불법발포”로 규정하면서 “평화군중에 대한 발포는
과거의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일제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포악”이라고 왜곡하였
다. 그러면서 남로당 지령서에 나타난 요구조건을 반복 요구하였다.(p.114)
3.1사건이 남로당에 의하여 증폭되고 이를 대중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오히려 미군정을 비난하는 서술을 하였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3·10 총파업에 대해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미군정은 그러면서도 사후 대응책으로 전자의 치유책, 즉 민심 수습
보다는 후자의 문제인 좌익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갔다.(p.121)

하지만 제주도에 급파되어 체류하면서 치안을 책임진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20일에 3.1사건 시 관덕정 옆 제1구경찰서에서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인정하
였다.(p.123) 그 이후 좌익의 도전은 계속되었지만 3.1사건은 진정되는 고비를
맞은 것이다. 『보고서』는 1947년 9월부터 다시 좌익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
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1947년 9월부터 우파청년단체의 조직 강화가 두드러졌다.

4·3사건의 발발배경과 진행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회 제주조직이 바로 이 시기에 발족됐다. 또한 광복군 출신 이범석(李範奭)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 제주도단부도 창립됐다.(p.142)

3. 1948년의 2.7사건



하지만 제주도를 다시금 격랑으로 몰고간 것은 남로당이였다. 1948년 1월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거가 분명해지자 남로당은 다시 전국 총파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그것은 남한에서의 선거를 거부하고 북한을 모델로 하여 인민공화국을 세

우자는 것이었다. 이때 남로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2.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3. 양군 동시 철폐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 맡겨라
4.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라
5.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6.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7.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8.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p.147)

제주도에서도 역시 이 방침에 따라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도 나중에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 즉 “2월 9, 10, 11일 밤, 제주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폭동을 유형별로 보면 6개의 경찰지서 습격, 뼈라 살포,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폭도들의 시위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많은 폭도들이 소련국가를 불렀다는 사실이다. 보고된 사망자는 없으나, 경찰 2명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경찰은 3일 동안 약 290명을 체포했다고 기술했다.(p.148)

『보고서』의 이같은 서술은 제주4.3이 1947년의 3.1사건과 관계가 있기 보다는 1948년에 들어와서의 총선 반대 투쟁과 관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이점을 상세하게 밝혀보기로 하자.

『보고서』는 남로당 조직부의 연락책 김생민이 1948년 1월 22일 검거되고 자백하면서, 남로당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이것이 무장봉기의 원인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남로당 조직원 사이에는 조직의 와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긴장감이 팽배했다. 결국 이런 위기의식을 부추긴 강경파의 주도에 의한 지도부의 개편 작업은 바로 무장투쟁을 촉발하는 한 동인(動因)이 됐다...

강경파에게 5·10선거는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로 대중선전의 좋은 명분이 됐다. 경찰과 서청 등의 탄압으로 이반된 민심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만약 단독정부가 수립된다면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므로 조직 수호 차원에서도 단독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p.157)

그 이유가 여하하건,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는 결정은 단지 제주

노에서만의 실성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보고서』에서도 잘 서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도상위는 3월 15일경 도(道)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하였다.(p.160)

즉 남로당 전남도당의 오르그(조직책)의 지도하에 무장 투쟁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전남도당의 오르그는 이같은 결정을 남로당 지도부와의 의논 없이 했을까? 전남도당이 중앙당 허락없이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하튼 이날 이후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는 폭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3월 28일까지 13개중 8개 읍면에서 유격대, 자위대, 특경대 320명이 편성되었다. 거사일은 4월 3일로 잡았다. (p.161) 남로당이 이같이 무장봉기를 결정하는 것에는 제주의 경비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이 사정을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월 3일을 거사일로 잡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위원회는 제주읍내 경찰감찰청과 제1구경찰서는 경비대 병력을 동원해 점령하고 도내 14개 지서는 유격대 및 자위대원들이 습격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제주도당에서는 모슬포 소재 경비대 제9연대에 4명의 조직원을 침투시켰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에 이탈했으나, 2명은 ‘프락치’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전에 프락치를 접촉, 제주경찰감찰청 등의 습격작전에 경비대원 동원 가능성을 타진하자 그 프락치는 9연대 전체 병력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으며, 200명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고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과 합하여 18명이니 이것만 숙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9연대에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5대만 보내주면 좋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도보라도 습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4월 3일 낭일 경비대 농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노남 파견원이 사똥차 5대까지 준비해 갔으나 9연대 프락치를 접촉할 수 없었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프락치 2명은 영창에 감금되어 있었다.(p.162)

경비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은, 프락치가 사전에 검거 되어 연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9연대 병력의 절반을 남로당이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남로당이 무장반란을 기획하는 동기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보고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추정을 근거로 하여 남로당 중앙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강변하려 한다. 『보고서』가 인용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파견원이 최후적 지시를 가지고 국경(國警) 프락치를 만나러 갔던 바 프락치 2명은 영창에 수감되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횡적으로 문상길 소위를 만났던 바 이 동무의 입을 통해서 국경에는 이중 세포가 있었다는 것, 그 히니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직속의 정통적 조직이며 또 하나는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출신 프락치로의 조직이었음.

그래서 4·3 투쟁 직전에 고 하사관이 문 소위에게 무장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꺾기해야 된다고 투쟁 참가를 권유했던 바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었다고 함.

이 말을 듣고 도 파견 국경 공작원은 깜짝 놀랐으나 이렇게 된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제주도 30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또한 우리의 위대한 구국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어코 참가해야 한다고 재삼 재삼 요청하였으나 중앙 지시가 없으므로 어찌할 수 없다고 결국 거절당했음. 이리하여 4·3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 동원에 의한 거점 분쇄는 실패로 돌아갔음.(p.164)

그리고 이 서술을 근거로 하여 “이 기록은 남로당 중앙당이 제주도 무장투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되고 있다”고 무리하게 단정하고 있다.(p.165) 하지만 이같이 단정하려면 전남도당 오르그의 결정이 어떻게 가능

했으며, 문 소위가 지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남로당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보고서』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지도부 불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남로당 지도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4. 제주4.3의 진행과 성격

『보고서』는 제주4.3을 다음과 같이 ‘문학적으로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었다.(p.167)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보고서』가 어떤 시선으로 제주4.3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에 이미 사실상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있었고, 남한마저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거나 흡수하려는 상황이었다. 좌익 특히 남로당의 투쟁으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좌우합작도 실패하여서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상할 조직 자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헌신적인 외교활동을 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어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한 남북총선거를 거부하고,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며,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 방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일 통일 정부 수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5.10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고 실시

될 즈음의 상황이었다.

제주4.3은 이 시점에서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북한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명명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벌인 역사적인 싸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무장대를 조직하여 경찰지서 같은 공공기관을 12곳에서 총검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공격하고, 경찰과 대한민국 건국 추진세력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보고서』는 제주4.3을 '폭동'이나 '반란'으로 부르는 대신 "무장봉기"로 부르고 있다. 과연 『보고서』가 시도하는 이 명명이 정당한 것일까? 『보고서』는 왜 폭동이란 용어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제 『보고서』의 용례를 분석하여 보자.

(1)제주4·3사건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다.(p.35)

(2)파업의 근본 원인은 3월 1일 폭동 당시(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2, March 14, 1947.)(p.120)

(3)2월 9, 10, 11일 밤, 제주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81, March 12, 1948.)(p.148)

(4)폭동주모자들이 제주경찰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함으로 써...(內務部 治安局, 『大韓警察戰史: 民族의 先鋒』 제1집, 興國研文協會, 1952; 陸軍本部, 『共匪討伐史』, 陸軍本部 戰史監室, 1954; 大檢察廳 搜查局, 『左翼事件實錄』 제1권, 同 搜查局, 1965.0)(p.169)

(5)김익렬 연대장은 폭동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p.203)

(6)제주도의 폭동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해서 법원의 관심을 끌었다.(RG 407: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Entry 368, Box 2006, NARA.)(p.446)

여기에서 보듯, 1947년 3.1 사건, 1948년 2.7사건을 미군정은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1948년 제주4.3을 미군정, 대한민국의 경찰, 육군, 검찰은 모두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보고서』가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김익렬 연대장도 제주4.3을 폭동으로 명명했다. 오직 『보고서』만이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폭동 대신 무장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폭도들을 명예회복 시켜주려는 것이다. 『보고서』의 목적이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폭도들의 명예회복이었다는 말인가?

제주4.3을 일으킨 폭도들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에 공조하는 전투까지 개시하였다. 이미 이 부분을 『보고서』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 99동을 불태웠는데, 이것이 전쟁발발 후 무장대의 첫 공격이었다...무장대들은 하원마을 습격을 시발로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했다. 또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 세력을 확장해 갔다.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사살자와 포로 및 귀순자가 발생하면 무장대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납치로 무장대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라산의 무장대들은 남하하는 북한인민군들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하였고, 제주도 좌익계 민간인들은 7월에 들어서자 소규모이기는 하나 제주읍을 비롯하여 각 면 단위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무장대를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51년 3월 16일자 육군정보국 기록에는 “3월 13일 24시에 제주읍 이호리에 공비 40명(무장20, 비무장 20)이 내습, 경찰대와 약 20분간 교전 후 입산·도주하였다. 민간인 12명이 살상되고, 12명이 납치당했으며, 소 7두, 말 3두, 의류, 식량 다수 약탈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1952년 9월 16일 오전 2시경, 숫자 미상의 무장대가 국군과 경찰로 가장하고 제주방송국을 습격, 숙직중이던 방송과장 김두규와 18세의 기술견습원 및 소년급사 등 3명을 납치하고 전화기와 방송용 시계 등을 약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들 납치된 3명은 며칠 후 무장대의 이지트 부근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달 후인 10월 31일 오전 3시에는 경찰 8명이 경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장대 27명이 침입, 서귀포발전소를 전소시켰다. 이리하여 전기공급을 상당기간 차단함으로써 제주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11명으로 줄어든 무장대를 완멸시키기 위하여 작전을 계속한 결과 1953년 12월과 1954년 1월의 토벌작전에서도 전과를 올렸다. 경찰은 1954년 1월 15일의 무장대는 6명뿐이라고 하면서 ...1954년 8월 28일에 이경진 국장 후임으로 신상묵 경무관이 제주도경찰국장에 취임하였다. 신상묵 국장은 상당기간동안 잔존 무장대 5명의 행적이 포착되지 않자 1954년 9월 21일을 기하여 금족령을 해제, 한라산을 전면개방하고 주민들의 성곽 경비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pp.342-356)

5. 맺음말

『보고서』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문세를 발견할 수 있다. 『보고서』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명예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검토한 바와 같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진상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보고서』가 부정하고자 하는 제주4.3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통적 정의는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선체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
이다. 이 정의는 역사적 사
실과 부합한다.

30명(20여명)으로 시작
된 제주도 조선공산당의 조
직자들은 300여명의 무장
폭도를 조직하여 제주도에
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였다. 남로당이 조직된 후 3000명으로 확대된 세력은 3만여 명
의 주민들을 그 영향력 하에 두었다. 30만의 도민들은 그로 인해 혹독한 희생과
고통을 치르게 되었다. 또한 남로당이 김일성과 결탁하여 3천만의 한민족을 공
산주의의 노예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에 한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였다.

제주4.3은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6.25의 전초전이었다. 실제로
6.25가 일어나자 제주 남로당 무장 폭도들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 전쟁은 1954년이 되어서야 5명의 폭도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종
료되었다.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폭
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의 인질 역할을 하게 된 양민들의 희생 또한
 컸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는 남로당의 선전선동, 협박, 폭력으로부터 제주
도민을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렇게 희생당한 군경, 우익인사,
양민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명예회복의 대상에 남로당 폭동의 주역과 조역들이 끼어들어
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제주4.3의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욕
되게 하는 일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내가 겪은 제주 4·3

- '바람코지 모래밭 돌빌레라도'에서 -

- 송 봉 규 (한림공원 회장)

미군 進駐, 어지러운 해방정국

이렇게 해서 패전한 일본군은 철수해 갔다. 일본군의 철수는 비교적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런 다음 제주도에도 미군들이 진주해왔다. 미군들이 커다란 LST수송선을 타고 각종 장비와 함께 상륙해오는 것을 보고 우리 농교생들은 “과연 일본군이 지게 되어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실감하게 되었다. LST의 앞문이 열리면서 굽직한 차량들이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보니 차들의 구조는 튼튼하고 특히 타이어는 폭이 넓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비쳤다. 간편한 짚차 위에 걸터앉아 장난감같은 새잡이총(카빈)을 걸머진 미군의 모습을 보노라니 그 기동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일본군들은 총신이 발밑에까지 닿는 99식, 38식 장총을 갖고 대항했으니 물자와 장비면에서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던 것이었다.

농업학교에는 일본군 도리데(堀田)부대가 물러간 다음 대신 미군부대 본부가 들어서게 됐다. 국기계양대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나부꼈다. 제농교장으로는 제주도출신 원로교사인 최계순(崔季淳)선생이 취임하였다. 교사진들도 차츰 진용이 짜여지고 학원분위기도 정상화되어 우리들은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안한 상태도 잠시, 어느새 학교안은 좌경분위기로 휩싸이게 되었다. 교내에 좌경학생이 늘어나면서 자치회란 조직체가 결성되어 수업중이라도 “자치회한다”하면 수업을 중단하고 집회에 나가야했다. 교내 벽면에는 곳곳에 좌익구호가 담긴 선전벽보가 붙여지기 일췌였다. 학생들은 그때까지 머리를 뽀뽀 깎

고 다녔는데 어느새 상발로 머리를 기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노래, 예를 들면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하는 적기가(赤旗歌)를 큰소리로 부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때 제농고는 일본군의 본부였다가 일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진주하자, 자연스럽게 미군의 본부가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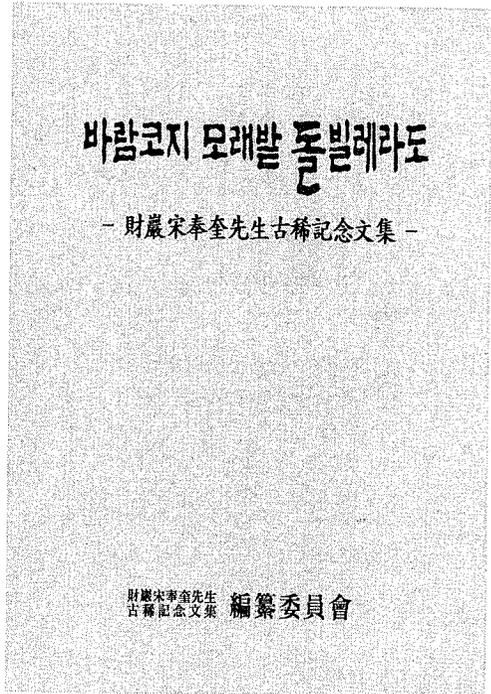
그런데 어디 숨어있었는지 농업학교 학생들이 미군이 게양해 놓은 성조기를 끌어내린 뒤 그 위에다 태극기를 새로 달아 게양하고 말았다. 그 태극기는 학생들이 광목에다 잉크와 먹으로 손수 그려 만든 것이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미군들이 총을 들고 달려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말하자면 미군들은 “자기들은 승전국의 군인으로서 패전국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진주해 왔는데 누가 승전국의 국기를 내리고 국적불명의 깃발을 대신 내 걸었느냐”고 분격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태극기 게양 소동은 그 당시 우리 지식층, 젊은 학생들 사이에 어느 틈엔가 태극기를 알아서 그것을 그리고 보급하면서 애국 독립하는 의식이 이미 팽배해 있었음을, 해방전에는 도저히 몰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 무렵 제농 안에는 제농애교동맹이니 민애청(民愛靑·민주애국청년동맹)이니 하는 좌익조직이 침투되어 있었다. 교사들도 좌·우익으로 양분돼 있었다. 이 때문에 수업내용도 때로는 좌경화로 흘러, 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좌익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교과목이 변칙 운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1947년 3월 1일 제주읍내 북국민학교 교정에선 3·1운동기념식이 거도적으로 거행되었다. 해방후 두번째 맞는 독립운동기념식이었다.

이 행사는 요즘처럼 도지사가 주관하여 시민회관 등 옥내에서 평화스럽게 열리



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이미 노 전역에 세력을 확장하여 완벽한 조직을 갖고 있던 남로당(南勞黨)이 주도한 대규모 군중집회였다.

제주읍내 각리에서 모여든 수천명과 기관, 학생등이 합세하였고 또 조천, 구좌, 애월, 한림 등 지방에서 모여든 수천명은 그 세력을 과시하며 프래카드를 들고 배라를 뿌리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5~6명씩 스크램을 짜고 경찰에 구속된 동지를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서 정문이 있는 관덕정광장으로 운집하였다. 이때 기마경찰관의 말 발에 사람이 치었다는 이유로 기마경찰관을 말에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는 광경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하던 경찰관이 목격. 발포를 하여 수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것을 구실로 잡고 남로당은 전도에 파업을 선동하기에 이르렀고 법원, 검찰, 경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이 총파업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은 입산하여 군비를 갖추며 그 세력을 확장시켜 5·10총선을 반대 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 무렵 제논의 우리 동급생 전원과 1년 선배들 사이에는 집단투쟁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자기네들은 선배들을 잘 대하지도 않으면서 후배들에게만 철권제재(鐵拳制裁)등 가혹한 행위를 강요한다”면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자 선배들은 우리들을 모두 정구장 앞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선배들이 두 줄로 선 가운데를 뚫어 지나가라는 것이었다. 마치 정미소에서 보리방울이 굴러가면 껍질이 벗겨져 튀어 나오듯 그렇게 줄줄이 집단으로 매를 맞게 되었었다. 이렇게 단체기합을 받게 된 우리들은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들은 선배를 따라갈 수 없다”고 전체가 등교거부를 선언하고 말았다. 우리들의 이러한 집단 하극상(下剋上)사건은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잘 수습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상하급생 사이에 규율이 엄격한 제논의 교내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삽화이기도 하다.

이 무렵만 하더라도 나는 과학실의 학생책임자 일을 맡아 실험실습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에 전념하던 모범학생이었다. 사실 그때 제논의 과학실은 실험기구가 완비되어 있어서 활용만 잘 안되었지 훌륭한 연구실 구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사카에 있을 때 요쓰바시(四橋)전기과학관엘 자주 다니며 천체관측 장치를 탐구했던 일이 있는데 제논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경험을 살려 정식수업을 받는 시간 외에

는 매일 과학실에서 살다 싶이 하면서 공작과 실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수신기와 발전기를 요리 조리 분해 조립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제작해 보는 등 과학자애의 꿈을 키워갔던 것이다.

나의 한림집에는 그때 제주사회에선 보기 드물게도 대형 안테나가 가설된 라디오가 설치돼 있어 방송을 무난히 청취할 수 있었다.

그때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과학전람회가 열렸는데 나는 학생부에 소형라디오를 제작, 출품하여 가작으로 입선한 바도 있었다. 나는 일본에서 자동차 공장에 실습을 나갔던 적도 있어서 이미 그때부터 자동차 운전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몹시 어수선했었다. 이미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는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처음에는 좌우익이 모두 반탁(反託)을 천명했으나 뒤늦게 좌익은 찬탁(贊託)으로 돌아섬으로써 우리나라 정계는 온통 반탁(우익)과 찬탁(좌익)의 정치싸움으로 얼룩졌던 것이다. 학원내에서도 찬탁과 반탁 논쟁이 소용돌이 쳤다.

나는 하숙집 분위기가 반공과 반탁성향이어서 초지일관 반탁 편에 섰었다. 그 무렵 학생들이 자칫 좌경화되기 쉬웠던 것은 주로 야간에 모임이 자주 열려 거기에 나가면 적기기를 부르고 사상학습을 하는 등 정치문제에 오염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그때 우리들에게 ‘도롭프스’란 과자를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꼬투리 삼아 좌익학생들은 “굶주린 동포에게 양과자 필요할까?”하는 내용의 비라를 만들어 뿌리기도 하였다. 또 해방후 혼란기여서 국민들의 보건위생문제도 말이 아니었는데 몸에 득실한 이를 죽이기 위해 미군들이 분사기로 학생들 몸에 DDT를 뿌려주는 것을 보고 일부에선 “그 약을 맞으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엉뚱한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만큼 정부수립 전의 우리 사회는 불안과 혼란, 무질서가 판을 치는 어지러운 사회였던 것이다.

4 · 3사건의 비극

그러나 이렇게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우선 수립해

야 하겠다는 소위 단선단정(單選單政)안이 결정되어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制憲議員)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좌익에서는 이를 반대하였다. 제주도의 4·3사건은 이런 정치정세하에서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남로당이 주로 1년전 3·1사건의 주동자였던 자들이 입산하여 일본군들이 남기고 간 무기들로 무장하여 4월 2일의 심야로부터 3일 새벽까지의 야음을 타 도내 주요 경찰지서와 우익인사 그리고 선거관리자의 집 등을 집중적으로 습격 살해하고 방화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마을을 습격하고 우익인사를 죽이고 약탈하고 방화했으며 양민을 납치하여 산으로 끌고 가는 등 온갖 방법으로 총선을 방해하여 결국 도내에서는 남제주군에서만 당선자를 내고 북제주군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장장 9년간에 걸친 이 사건에 의한 희생자 수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주도 의회의 조사로는 1만4천여명에 이른다. 물론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도민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와 재산피해 그리고 파괴된 평화의 피해가 그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다

6·29선언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민중봉기나 민중항쟁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4·3을 체험하지 못하고 바른대로 들어 보지 못한 데서 오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고 무고하게 죽어 간 도민이 대다수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3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고 이것을 진압하는 데 과잉반응했던 것이 진실의 전부다.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유지해진 것 같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못나서였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좌·우익간에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은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0~50년이 흘러 간 오늘 이 사건의 성격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모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마무리한 사건인데 또 다시 무슨 일을 일으키려는지...

이젠 도민이 서로 진정 사랑하고 또 인재(人材)를 키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98년 11월 23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과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친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무렵 어느날 나의 하숙집으로 어머님께서 달려오셔서 그냥 목을 놓아 우시는 것이었다. 어머님께서 한림지서에서 나를 데리러 왔었다면서 여름철인데도 두꺼운 속 내의를 입혀주며 어서 지서에 나가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누구나 경찰에 잡혀가면 으레 심하게 매를 맞고 때로는 생사도 가릴 수 없게 되는 판이라 나에게 두꺼운 겨울 내의를 입혀주시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내가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을 보고 산폭도와 무선연락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해서 나를 출두하라고 한 것이었다.

나는 즉시 농고 과학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억울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놓고 지서로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너는 폭도들과 무선연락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 하면서 호되게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단순한 과학도지 산폭도와 연락 같은 건 모른다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농고의 과학선생님이 군당국에 잘 이야기해서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그 때 과학선생님은 9연대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4·3사건은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입혔다. 예를 들면, 산폭도들이 지나가는 버스에 폭탄을 던져 차내에 탔던 민간인 학생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군인들도 어느 마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보아 모조리 말살시켜 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때문에 결국 중간에서 좌우익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흔히들 낮에는 경찰관 쪽에 붙고 밤에는 산사람 쪽에 붙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양민들은 분명히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오면 경찰편, 산사람이 오면 산사람편을 들면서 연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밤이 되면 좌익사람에게 저 사람이 경찰쪽이라고 손가락질 해 버리고, 낮이 되면 또 경찰에게 저 사람이 산쪽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버림으로써. 결국 우리 도민들이 전체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었던 게 아니냐, 자기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을 전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가졌기 때문에 희생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제주농고를 다니던 학생때부터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 그 당시 제주사람 가운데 똑똑한 육군소위가 몇 사람만 있었다라도 이러한 큰 희생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이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요직에도 올라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3사건의 문제해결은 도민이 서로 사랑하자는 것과 서로 분발하고 훌륭한 사람을 주변에서 키워주면서, 남을 모략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키워주고 진정 제주도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신조처럼 믿고 있다.

이 무렵에 나는 학생선무공작대원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다. 예를 들면 산사람들에게 귀순을 권고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내용의 연극과 노래를 만들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에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했던 것이다.

그때 보병 제2연대장이 학교당국에 지시, 학생대표들을 차출하여 군사훈련을 시키기로 하여 제주농고를 비롯 오현중, 제주중에서 우수학생을 뽑아 1개중대를 편성하고 제주학도호국대란 명칭으로 1개월간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는 농고의 고학년이라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훈련 학생들은 학생모에 흰 띠를 두르고 군복을 입은 채 M1소총으로 무장하여 고된 합숙훈련을 받았다. 농고에는 수의축산과가 있어서 그들이 의무반을 맡았고 제주여중생들은 취사반을 맡았었다. 수료식에서 나는 최우수표창을 받았다. 나는 군사훈련 중대장을 마친 후 전국학련(全國學聯) 제주도지부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그 당시 나는 우연히 일부지역을 지나가다 우리학교 후배학생이 한 움막집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알아보니 그는 이번 4·3사건으로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어 돌담을 쌓고서 움막을 지어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통학하고 있다

는 얘기였다. 이재(罹災)학생의 실상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은 나는 다음날 각 학교 학련분회에다 공문을 보내어 어려운 이재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 보고 토록했다. 그 결과 이재학생수는 1백50여명이 된다는 집계였다. 나는 학련간부들과 함께 이들 학생의 명단을 들고 함병선(咸炳善·당시 계엄사령관)2연대장을 찾아가 고학생들을 구제해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러자 연대장은 즉석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1트럭분의 쌀을 지원해 주었다. 우리는 연대장의 주선으로 건입동 소재 공회당건물에 제주도 이재고학생구제회(罹災苦學生救濟會)란 간판을 걸고 식모와 술을 장만해서 바로 집단 급식을 시작했다. 고학생들의 숙소를 한라료(漢拏寮)라 했고 여기에 수용된 학생은 50~60명이나 되었다. 이들 학생 가운데서는 뒤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교수,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게 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당시 고학생들은 좌우익 어느쪽에 피해입었는지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용되어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고학생 구제활동은 나의 고교시절에 큰 용기와 의지를 심어준 쾌거가 아니었나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나는 뒤에 중앙학도호국단장인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박사로부터 해방후 학생운동에 공로가 많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다. 그 표창장을 나는 지금도 유서 깊은 기념품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지질이 나쁘고 글씨도 조잡한 점 등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꼭 무슨 골동품을 대하는 것 같아 절로 실소를 자아낼 때가 있다. 이 무렵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학생단체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체 해산되었고, 이제 학교 내에는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어 나는 최초의 제주농업중학교학도호국단 학도대장이 되었다.

경찰 재직 14년의 회고

- '사암록'에서 -

- 정 남 두 (전 제주도상이군경회장)

내가 겪은 4·3사건

(1) 용어

4·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당시 국가기관에서나 언론 또는 주민들까지 모든 분야에서 '폭도 또는 재산(在山)폭도, 공비 또는 재산(在山)공비'로 불려왔다. 그러나 2003년 12월 15일자 발행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부터 이 용어를 '무장대'로 기술하였다.

(2) 4·3사건의 정의(定義)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남로당제주도당이¹⁾ 해방 후 혼란기에²⁾ 순진무구한 도민들을 유혹 선동하여³⁾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무장 폭동을 일으켰고⁴⁾

1) 남로당제주도당은 해방직후 1945년 10월초 일제시대 사 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20여 명이 조선공산당제주도위원회를 지하조직으로 결성하고 남로당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본도 주민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을 부식시키 는데 모체가 되었다.

2) 해방 후 혼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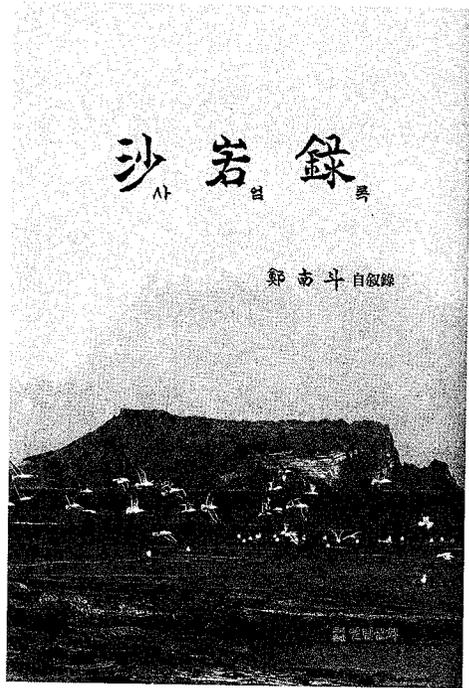
신탁통치안에 대한 좌우익 찬반총돌 3·1사건, 총파업 사건과 검거, 우도경찰관파견 소 피습사건, 중문지서 발 포사건, 종달리 66사건, 2·7사건, 고산지서 발포사건, 저지지서 습격사건, 고문치사 사건, 연일 반미규탄과 공 산주의 국가건설을 외치며 데모와 뼈라살포사건, 좌·우 익진영의 극심한 갈등과 총돌사건 등으로 극도로 혼란한 치안 상황이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7년 4월 2일까지 제주도민에게⁵⁾ 막심한 인적, 물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⁶⁾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3) 4·3의 실체

① 4·3사건의 주체

1948년 3월 중순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상급당인 전라남도 당에서 파견한 조직지도자 ‘올구’이동무(명 불상)로부터 무장 반격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에서는 수뇌부 회의를 갖고 제주도에 서 무장폭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여 군사 책임자로 김달삼(본명 이승진)으로 정하고 동년 4월 3일을 기하여 무장반격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 순진 무고한 도민을 선동

남로당제주도당에서는 사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을 선동하여 남로당 가입을 강요 확대 해가면서 우익 진영 배타와 고립, 반미구호와 인민공화국 만세, 지주의 토지몰수 노동자와 무산대중에 무상분배, 소련은 우리 를 해방시켜 준 은인이라는 등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양 선전 선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4)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무장 폭동

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5) 4·3발생과 종결 실제기간

4·3은 1948. 4. 3일부터 마지막 무장대원 오원권을 생포 한 1957. 4. 2일까지이다.

6) 4·3피해

민간인 피해 14,028명 사망, 경찰관 122명 전사, 군인 180명 전사, 민가소실 39,285동, 학교 교실 79개교, 면사무소 소실 5개소, 경찰회복지서 소실, 이재민 19,933호등 막대하였다.

4·3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남로당제주도 당부이다. 군사 책임 김달삼 주도하에 애월, 한림, 대정, 중문, 남원, 표선, 조천 제주 8개면에서 남로당 맹렬당원으로 유격 대원 100명, 자위대원 200명, 특경대 20명 모두 320명으로 무장대를 편성하여 4·3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제주도민과는 무관하며 남로당제주도당의 공산화를 위한 단독 행위이다.

② 4·3사건의 목적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목적은 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의 수단이었다. 남로당이 극렬한 적화 정치투쟁으로 사회적 혼란과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이들을 단속 또는 검거하여 군정법령 위반으로 송치 처벌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였다. 남로당이 와해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방어 해야 할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무장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단선 단정을 반대 하는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제주도민을 끌기시켜 무장 반격을 전개하는 것이다.

(근거 : 1995년 8월 15일 발행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혁진 4·3의 진상,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152~165쪽)

③ 4·3사건의 배경

해방 후의 정국은 무정부하에서 공산주의국가 건설과 자유민주국가 건설로 양분되어 정치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불신, 상극, 배타, 폭력, 살상 등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4·3사건을 일으킬 불가피한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민중항쟁이라 함은 다수의 국민이 항의하여 다툰다고 사전에 풀이하고 있다. 4·3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부이다. 남로당은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사상적 이념단체이다. 제주도민과는 무관하다. 다만 제주도민을 현혹시켜 일부 소수의 당원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킨 무리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제주도민

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코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

민중항쟁의 본뜻은 예로부터 관리의 부패와 이들의 수탈 행위와 억압,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 등의 악폐가 오래 지속되어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분격하여 일으킨 자연발생적인 항거라고 풀이할 수 있다.

4·3사건은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야기되는 그 적폐가 대중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4·3사건은 앞에서 서술한 주체나 목적으로 볼 때 민중항쟁이 아니다.

(4) 당시 국내의 정치정세

① 해방 후 정치적 상황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익진영과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신봉하는 좌익진영과의 좌·우 양극의 투쟁정국으로서 갈등과 투쟁은 극에 달하였다. 양 진영 간의 싸움에서 치안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하여 대응하게 되니 결국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이들과의 관계는 불신과 증오의 감정으로 민심을 크게 자극하게 된다. 특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남로당에서는 우익인사나 자기네를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반동이라 규정하고 매일 모여서 이들을 성토하거나 위협을 가했다. 밤마다 마을에 모여서 적색머리 띠를 두르고 붉은 깃발을 앞세워서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외치는 등 치안 상황은 무법천지와 같았다. 경찰은 이를 막게 되고 군정법령 위반으로 검거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익인사들은 무저항 또는 피신을 하게 되는 일방적 적화 분위기였다. 이 기세를 몰아 남로당에서는 평소의 공산당의 전술전략대로 가능지역에 공산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4·3무력폭동을 일으켰다.

② 당시 국내외 정세

유엔의 결의로 남북한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합법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결의에 의하여 유엔에서는 합법적 총선거 시행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감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유엔이 결의

한 총 선거를 거부하고 북한 입북을 막았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가능 지역인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남한에서는 공산당이 설 수가 없으므로 5·10선거는 단선 단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극력 반대하고 제주도에서는 무력 투쟁까지 감행하였다.

(5) 4·3사건 발생과 나

나는 1946년 11월 20일 경찰관으로 임명받아 서귀포경찰서 남원지서에 처음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48년 초봄에 중문지서로 전근되어 부임 직후 4·3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4·3당일 미명(未明)을 기하여 남로당제주도당이 주동한 320명의 무장대원들은 제주도내 24개 경찰지파출소 중 화북, 삼양, 외도, 신업, 애월, 한림, 조천, 함덕, 세화, 대정, 남원, 성산 12개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6명을 죽이고 6명이 부상당하게 했으며 또한 민간인 우익인사와 가족 8명을 죽이고 19명이 부상을 입혔고 우익인사 가옥 4채와 지서 1채를 방화 소각시켰으며 그 외 총기, 탄약 등을 탈취하고 한라산으로 입산하였다.

이것이 4·3사건이 시발이었다. 경찰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했으나 사태는 날로 악화되어 본도 경찰만으로는 수습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니 육지부 응원경찰이 파견되어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역불급이었다.

한라산 무장대들은 5·10선거를 막기 위해서 밤마다 산간마을을 석권하여 기지화하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선동하였다. 남로당 가입을 강요하면서 5·10선거는 단독 선거이므로 이를 거부해야 하며 투표구에 호송하는 투표함을 탈취 소각하였다. 선거 당일엔 투표소를 습격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하는 등 그 위협으로 북제주군 갑, 을 선거구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이 기세를 몰아 해안마을까지 습격을 감행하여 우익인사 살해와 가옥을 방화하였다. 또한 군경 토벌대를 기습하여 탈취한 기관총, 수류탄, M1소총, 칼빈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대규모 병력으로 증강하여 한라산 밀림지대에 거점

을 두고 아방토벌대와 대전(對戰)하는 등 그 기세가 파죽지세(破竹之勢)였다. 사태가 극에 달하게 되자 그 해 가을부터 모슬포에 있는 9연대가 토벌작전에 참여하였으나 이 또한 성과를 얻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육지부에 주둔하고 있는 11연대를 증파하여 토벌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장대들의 활동 근거지가 된 산간마을을 해안마을로 소개령(疏開令)을 내려 함께 가옥을 소각시키는 등 극단적이고 초강경 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군·경·관·민 합동으로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6) 내가 살던 집이 불타다

나는 중문지서에 근무 중 1948년 7월경 서귀포경찰서로 근무 발령을 받고 경무계에 근무하게 되어 서귀동 송두평 씨 댁에 방 한 칸을 세내어 살고 있을 때였다.

1948년 11월 7일 아침 조반을 지을 무렵 한라산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삽시간에 서귀포 시내 동북부 일대가 그들이 방화로 불비디기 되고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아내는 젓먹이 큰딸 이옥이를 업고 집을 피하여 인근에 숨었다가 무장대들이 모두 퇴각한 후 돌아와 보니 살던 초가집은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만 것이다. 신혼 초기 하찮은 살림이지만 의류, 가구, 식량, 서류 등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사라졌다. 집이 불탄 후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주인 송두평(당시 서귀리장) 씨와 함께 서귀리 솔동산 아래 경찰서 동쪽 근처에 집을 빌려 함께 입주하게 되었다. 쌀, 수저, 밥그릇까지 모두 송두평 씨 내외분이 주선하여 마련해 주어 겨우 어려움을 면하였다. 당시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있다.

(7) 전투중대에 편입 무장대와 교전 중 전상(戰傷)

1949년 여름에 중문지서에 근무 중 서귀포경찰서 경무계로 근무 발령을 받았다. 본서 근무발령을 받고 부임하고 보니 육지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과 본서 근무자 중 많은 인원이 토벌대로 차출되어 잔류 직원은 얼마 없었다. 부임하자마자 경무계에 근무하면서 낮에는 경찰행정을 담당하는데 분주하였다. 밤이 되면 소수의 숙직 근무자만 남기고 전원 서귀포 시내 요소와 도로 입구에 배치되어 경비 근무를 담당하여 보초를 서다가 날이 밝으면 경찰서로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

사태는 날로 악화되어 그 해 12월에 경찰서 잔류 병력 중 다시 보충적 토벌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당시 중대장은 강문식(康文植) 경위이며 대원은 40여 명으로 3개 소대로 편성하여 나는 1소대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마침내 1948년 12월 15일 출동 명령을 받고 저녁 어둠이 깊어 갈 때 서귀포 경찰서를 출발하여 밤 12시경 서귀포시 서호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부인 회장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할 무렵 밤 1시경 한라산 무장대(약 100여 명 추정)가 서호마을을 습격하여 주민을 살해하면서 공격해 옴으로 우리 중대는 즉각 출동하였다. 이에 응전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던 중 나는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대원들은 결사적으로 이들을 추격하였다.

나는 한참 후에 정신이 나서 생사를 가늠해 보니 목숨은 살아있고 다만 왼팔에서 다량의 피가 출혈되고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의식이 돌아와서 오른쪽 손으로 몸을 더듬어 확인한 바 왼팔이 관통총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고통을 참으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대원들은 무장대를 퇴각시키고 돌아와서 나를 구출하여 서귀포 현제탁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참으로 하늘이 도왔고 조상님이 살피셨고 아내의 정성이 있었던지 간발의 차이로 심장을 피하여 왼팔에 부상을 당하였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대한 감사의 심정 금할 길 없었다. 병원에서는 왼팔을 끊어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절단만은 말아 달라고 하는 아내의 지극한 호소를 받아들여 겨우 껌매고 붙여서 치료를 받은 바 3개월이 넘어가니 접골이 되기 시작함으로 가정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그리하여 고향인 성산읍 신양리 큰형님 댁에 머물면서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호는 물론 아버님이 물려주신 송아지를 잡아서 심한 출혈로 인한 허약한 몸을 회복시켜 나갔다. 접골효과가 있다하여 동전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고 매일 마찰과 운동을 지속하게 되니 크게 좋아졌다. 다만 관절경직과 좌완신경마비로 불구가 된 채 1950년 초에 서귀포 경찰서로 복귀 근무하였다.

얼마 없어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였고 동년 10월에 제주도 경찰국 사찰과 근무 발령을 받아 제주시로 살림을 옮기고 부임하여 신설된 적정계(敵情係)에 근무하게 되었다.

(8) 적정계 근무시절

1948년 4월 3일 발생한 군·경·관·민 합동 대토벌작전으로 그 이듬해인 1949년 봄에 가서 무장대는 완전 소탕이 되고 사태는 마감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25일에 중문면 하원리 마을이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 의하여 피습되었다. 99동의 가옥이 전소되고 다량의 식량과 소들이 탈취되어 또다시 본도에 충격을 주었다. 한때 인민군이 상륙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이었지만 결국 한라산 깊숙이 숨어살던 재산 무장대가 6·25를 기화로 재봉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정(敵情)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경찰에서는 시급히 특수 업무를 담당할 적정계(敵情係)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반(班) 책임자로 발탁되어 1952년 10월까지 만 2년간 근무하면서 4·3사건 마무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9) 생포된 재산(在山) 무장대원을 통한 적정 파악

때마침 1951년 12월 6일 모슬포경찰서 특수공작의 주효로 재산 무장대원 안덕면 화순리 출신 김봉길(金奉吉)이 생포되어 신병을 인수받고 그로 하여금 재산 무장대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는 김봉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경찰에 속임 없이 진술하고 협조해 주기를 설득하였다. 이리하여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10) 재산(在山) 무장대 재규합

1949년 봄 군·경·민 합동대토벌내보 그들의 조직은 완전 전멸되었으나 일부 극렬대원들은 귀순 하산을 거부하고 소지하였던 무장(武裝)을 숨기고 각기 분산하여 연고지 중심으로 깊은 산속 또는 은신처를 찾아 숨어들어가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무장대들은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한 사실을 그들의 연락망과 출야한 농민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들은 고무되고 감격하면서 재빨리 서

로 연락하면서 7월 한라산 남쪽 중턱 소위 마채악 부근 밀림지대에 집결한 바 그 인원이 60여 명이고 무장(武裝)은 소총 40여 정이었다.

(11) 내부 숙청

이들 60여 명은 앞으로 투쟁 방향을 토의하게 되었는데 지도급인 허영삼(안덕)과 김성규(중문)는 당장 공격을 개시하여 인민군을 맞이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맞서 남로당 도당수 송원병과 조직책 백창원 전투사령관 고승옥은 인민군 상륙전 공격은 우리들만 희생이 있을 것임으로 작전상 대피하였다가 인민군이 상륙과 동시에 이에 호응 공격하자는 온건적 주장이었다. 이 두 가지 논쟁으로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고 임시회의를 휴회하였다.

그날 밤 김성규와 허영삼은 선(先) 공격을 주장하고 동조하는 강경파를 비밀리에 규합하여 송원병과 백창원 고승옥의 거처를 습격하여 체포하였다. 날이 밝자 60여 명의 대원들 앞에 세우고 반동분자로 성토하고 소위 인민재편이라는 형식을 밟아 숙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미 파놓은 구덩이 앞에 꿇어앉혀 눈을 가린 채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물은 후에 3인은 인민공화국 만세 삼창을 마치는 순간 일본도로 목을 쳐 살해한 후 그 구덩이에 매장하였다.

(12) 중문면 하원리 마을 습격

이 기세를 몰아 1950년 7월 25일 야밤에 중문면 하원리 마을을 습격하여 99동의 가옥을 방화 전소시킴은 물론 마을을 돌아다니며 축우와 식량을 탈취하여 입산하였다.

4·3사건이 완전 소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군경 당국이나 도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당황하였고 혹시 인민군이 상륙한 것으로 동요되자 경찰은 습격한 폭도들이 육지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정황을 들어 일단 동요를 막고 사태 추이를 살폈다. 후일 확인한 바 인민군 상륙은 없었다.

이후부터 무장대원들이 마을 습격과 청소년 납치가 극심하였고 또한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식량, 축우 탈취 등 4·3사건이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경찰은 또 다시 토벌대를 편성하고 이에 대응하였으나 그들의 병력, 기도(企圖), 인적

사항 능 전혀 알 수가 없는 처지여서 별로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피해만 계속될 뿐이었다.

(13) 청소년 납치와 후계병력 양성

특히 이들은 젊은 청소년들을 납치하는데 혈안이 되었고 그 이유는 후계병력을 확보하는데 있고 그러므로 일단 납치한 청소년들을 하산 탈주하지 않도록 선동과 이념 교육은 물론 특단의 분위기 조성과 방법을 강구했다.

그 예로서 마을을 습격하려면 사전에 전투조, 탈취조, 청소년 납치조를 편성하고 마을 습격을 감행하면 납치조는 재빨리 가호를 수색하고 17세 전후의 소년들만을 붙잡아 포박하고 입산한다. 입산하면 심문을 통하여 성분을 파악하고 한두 사람을 선별해서 반동분자로 성토하고 그 납치 소년들로 하여금 철장을 주어 공동으로 살해케 했다. 이렇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산 탈주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탈주 하산하더라도 살인한 죄의식을 심어 주어 탈주할 의사를 포기케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욱 충성을 맹세하고 앞 다투어 열성분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14) 11개 비밀연락 선(線)

이들은 정보 수집과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내 산간부락 11개소에 연고자를 통한 고정선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해 왔다.

산간마을의 경우 불타버린 집 아궁이 속이나 또는 농장언덕과 돌담 구멍 등을 이용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무장대원들의 마을을 습격하여 탈취한 물건 중 귀중품 백색고급옷감 말총 등을 넣어두었다. 고정 연락자는 출동 시 자연스럽게 이를 수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그들이 요구하는 물품 휘발유 의약품 신문 생활필수품 심지어는 휴가병에게 얻은 실탄까지 넣어두면 무장대원 담당자는 이를 수거해 갔다.

대토벌당시 무장대 소탕이 끝나서 평화가 온 것으로 인식했지만 무장대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라산에 계속 은신 후일을 대비한 것이다.

김봉길이 진술하는 60여 명의 잔당들은 1950년 6·25후 재봉기하여 본도에

또다시 비극과 암흑의 사태가 지속되어 불안과 큰 피해를 주었다. 악전고투 끝에 1957년 봄에 이르러 완전 소탕을 하게 되었다.

(15) 사찰 특수공작 진행

- ① 경찰국 사찰과에 설치한 적정계(敵情係)를 우수 능력자로 보강하였다.
- ② 적정계의 운영은 일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 ③ 김봉길을 대동하고 입산하여 11개소의 비밀 연락선(線)을 탐사 확인하였다.
- ④ 우선 김봉길이 생포되었지만 아무런 처벌 없이 용서받고 생존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단(傳單)을 다량 한라산에 살포 하고 귀순 또는 탈주를 권고하였다.
- ⑤ 따라서 한라산 심산에 입산하여 화성기를 이용한 귀순 또는 탈주 권고 방송을 실시했다.
- ⑥ 계속하여 제주도의회에서는 재산무장대들이 하산하면 죄를 불문에 붙이며 신병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장 담화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경찰국장 이름으로 귀순 권고 담화문도 발표하였다.
- ⑦ 피랍자의 가족과 접선자를 우리의 협조자로 전환케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였다.
- ⑧ 김봉길이 밝힌 그들의 연락망 11곳은 잘 보호하면서 연락자를 찾아내고 그 연락자로 하여금 극비리에 다시 내통케 하고 종국적으로 귀순·탈주·와해를 유도하였다.
- ⑨ 귀순자, 탈주자, 포로자에 대한 무조건 불문 처분과 친절, 신병보장, 생업 지원, 행동의 자유 등 어떠한 방법이던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책 배려 등 최선을 다하였다.
- ⑩ 한라산의 무장대 소탕은 무력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벌과 함께 사찰특수공작에 의한 귀순, 탈주, 내부 와해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꾸준히 적정계에서 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57년 봄에 장장 9년 만에 4·3의 참극을 종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하였다.

(16) 무장대의 인명을 구하는데 역할을 다한 적정계

합동 대토벌 작전으로 1949년 봄에 이르러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소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대토벌 당시 하산을 거부하고 한라산 속 깊이 숨어 살던 소수 무장대원들이 재무장하고 7월 25일 밤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하게 되니 사태는 4·3당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다시 대토벌을 전개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들은 더욱 강제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한라산 심산오지에 중형무진으로 이동하며 토벌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피하였고, 두 번째는 마을을 습격하여 젊은 청소년들을 납치하여 병력을 보강하며, 세 번째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둘러져 있는 야산지대와 산간마을 농장에서 식량 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 받을 수 있었고, 네 번째는 특히 이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산 또는 귀순을 하면 살 수 있다는 보장이 희박하여 항쟁벽에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토벌로 소탕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국 사찰과에 소위 특수공작을 담당할 전담부서인 적정계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 ① 피랍 청소년들을 병력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반조치를 강구하며 특히 이들이 기회를 포착하여 탈주 하산과 내부 조직 와해와 조직적 반란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
- ② 임산물 등 야산을 이용하는 관련자와 농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와 농민을 통하여 무장대를 설득 하산을 유도하는 상응한 시책을 강구함
- ③ 경찰의 자세 변화의 시책으로 이들에 신뢰감과 하산하면 살 수 있다는 보장책과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의 일들이다.

나는 이와 같은 특수 업무를 맡은 적정계에 근무하면서 경찰 재직 14년 중 가장 보람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어떻게 하든 재산 무장대원들을 무모한 항쟁으로부터 전향하여 하산 또는 탈출케 하여 목숨을 부지하여 포근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우치고 유도하는 일을 맡았다.

우리 적정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위하여 정력을 다 바쳤다.

그 결과가 무장대원들이 가급적 포로가 되거나 내부 반란으로 원대를 이탈하여 방황하다가 귀순하였다. 특히 피랍 청소년들이 기회를 포착하여 무장대원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 하산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단신 탈주 하산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병력이 감소되고 전투력의 상실과 조직 와해까지 이르렀다. 1957년 봄에 가서는 잔당이 4~5명에 불과한 이들은 귀순, 탈주, 포로가 되거나 유격대에 의하여 피살되어 4·3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17) 적정계 근무시절 잊지 못할 사람들

○ 포로자 김봉길(金奉吉)

김봉길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4·3사건 직전에 한라산 무장대에 가담하여 활동 중 1949년 군·경·관·민 대토벌 당시 귀순을 거부하고 한라산 깊은 곳으로 피신하였다. 무기를 은닉하고 은신생활을 하던 차에 6·25사변이 발발하자 이에 고무되어 숨어 있던 60여 명이 다시 모여들어 조직과 지휘체제를 갖추고 재무장하여 그 해 7월 25일 밤에 중문면 하원리 마을을 습격함으로써 다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봉길은 명사수로서 이들 무장대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1951년 12월 6일 모슬포경찰서 사찰특수공작반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제주도 경찰국 사찰과 적정계로 이송되어 내가 담당하게 되어 그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적정계 사무실에 들어선 김봉길의 모습을 보니 호리호리한 키에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가는 눈과 마른 얼굴에 평범한 날일자(日)형 인상이었고 복장은 때와 기름기가 묻은 작업복에 농구화를 신었으며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내 코를 자극했고 소지품인 배낭에는 마른 말고기가 들어 있어서 참으로 산(山)꼭도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하게 평소대로 이분을 맞이하였고 마음에 안정과 믿음을 주는데 신경을 기울였다. 고생했다는 말로 인사를 하고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며 음식을 드리고 식사가 끝나자 긴

급한 적정에 대하여 심문하였는데 김봉길은 이때 중요한 적정을 토로해 주었다. 바로 그 사실을 100사령부에 알리고 100사령부에서는 김봉길의 안내로 작전을 개시하였다.

적정계로 돌아온 김봉길은 이후부터는 적정계에서 나와 침식을 같이하는 동안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적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반 작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특수공작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는 김봉길과 함께 민간인으로 가장 입산하여 무장대원과 민간인과의 비밀 접선을 하는 곳 11곳을 확인하여 이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속하여 입산하여 하산 권고문을 살포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하산 권고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김봉길을 대동 도내 여러 마을을 순방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김봉길은 토벌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가 귀가하고 아무런 지장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 탈출 하산자 안임선(安任善)

이분은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1952년 3월 13일 한라산 무장대원들이 함덕 마을 습격 시 피랍 입산되었다가 1952년 4월 10일 목숨을 걸고 탈출하였다. 나는 당시 경찰국 적정계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무를 통하여 적정을 파악코자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재산무장대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조사과정을 통하여 추호도 부담을 주거나 불신을 받는 언행을 삼갔다. 마음속으로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장래 행복하기를 빌었다.

이분은 가정적으로도 유족하고 용모가 깔끔하며 마음씨가 그 행동이 정숙하였다. 19세 내외의 꽃다운 젊은 여성으로서 장래 현모양처의 자질을 타고 난 분이다.

그 후 나는 함덕지서에 잠시 근무하게 되어 부임하고 인사차 방문한 바 부모님과 온 식구들까지 나를 반겨 맞아주었고 그 당시 하찮은 인연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대접해 주는 그 고마운 정에 감탄하였으며 내 인생에 잊지 못할 한 분이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 탈출 하산자 김호(金鎬)

이분은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1951년 2월 7일 한라산 무장대들이 조천리 마을을 습격 시 피랍 입산되었다가 1951년 2월 14일 목숨을 걸어 탈출 하산하였다.

이분도 적정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알게 되었다. 이분은 당시 23세 내외의 젊은 청년으로 껍이나 지성적이고 문학적이며 예능적 자질을 갖춘 분으로서 나는 더욱 이분의 장래에 대하여 믿음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분은 나의 비망록에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감상문'을 남겨 주었다.

감상문(感想文)

갈매기 무심히 날아 노는 해상에
고요한 바다 위를 청소하듯 지나네
나의 심정 위로하듯 힘차게 스쳐가네
오- 이것이 신령의 배이더냐
지금 나의 심중에도 종횡으로 스쳐가네
아- 날아 노는 갈매기
나의 심사 풀어 주렴
날개로나 쓸어 주렴

1951년 4월 26일 KH

이분은 이 글을 통하여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 당시 죄 없는 사람들이 분별없이 희생되어 간 억울한 심정이 남아 있으며 짧은 몇 자 속에 무한한 한이 서려 있음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이분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 남로당 도당 부위원장 조몽구(趙夢九)

1951년 10월 초순경 남로당(南勞黨) 제주도 당부(黨部) 수뇌부의 한 사람인 조몽구가 부산에서 제주도경찰국 사찰과 형사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이분은 일제(日帝)때부터 공산주의 신봉자로서 해방 후 본도 주민에 대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부식(扶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제주도

4·3사건을 일으킬 당시 남로당제주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4·3사건 발생 후 1948년에 당 수뇌부와 함께 월북하였다. 북로당(北勞黨) 김일성(金日成)에 의하여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이 숙청되어 그렇게 동경(懂憬)하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겨우 개성의 시골 양돈장(養豚場)에 배치되었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자 남침군(南侵軍)의 뒤를 따라 목포까지 당도하고 제주 상륙을 대기 중 아군의 반격으로 인민군은 북으로 철수하고 본인은 그대로 잔류하였다. 평범한 농민으로 행세하면서 땀감을 채취하여 팔면서 그 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으로 와서 중류(中流) 가정에 세(貰)들어 살면서 가명 한성룡(韓成龍)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결방에 함께 세 들어 살고 있는 헌병 중령과 교분을 두텁게 하면서 전국의 추이를 살펴 왔다. 그는 때때로 나들이 하다가 면식(面識)을 아는 고향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신고로 출동한 제주도경찰국 형사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필자는 당시 제주도경찰국 사찰과 특수공작반 적정계(敵情係)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분을 통하여 재산대원들을 귀순 또는 하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조몽구를 접촉하면서 상당한 시일 동안 의견을 교환하였다. 종국적(終局的)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제주 4·3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공감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조몽구를 입산케 하고 그로 하여금 재산대원들을 설득하여 어떠한 조건 형식이든 모두 수용하여 이 비극의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당시 제주도경찰국 수뇌부에서는 4·3사건을 조기에 수습코자하는 열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코자 노력 하였다.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성사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하여 필자는 일생동안 아쉬워하고 있다. 조몽구는 경찰에서 당시 특무대에 이첩되었고 그 후 석방되어 성읍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8) 4·3의 참상과 그 피해

조그마한 이 섬에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인적, 물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전쟁을 방불케 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하였다.

통한(痛恨)의 세월이어! 눈물이 말라서 피를 토하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 속에 나날을 보내는 통한의 시대였고 살육의 아수라장의 암흑의 시대였다. 밤에는 저쪽에도 낮에는 이쪽에도 갈 곳 없이 숨어 떨고 쫓기는 시대였고 수백 년 지키고 가꾸어 온 보금자리와 모든 재산이 불타 버리는 천지가 무너지는 시대였으며 먹을 것 없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가여운 생명을 그나마 이어간 굶주림의 시대였다. 같은 동족끼리 아니 수백 년 동안 같이 살아온 이웃끼리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말세(末世) 지옥과 같은 시대가 장장 9년 동안 이어졌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와서 50여 성상을 지나는 동안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지난날을 잊으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기는 하나 원상복구를 못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천추의 한이로다. 반세기를 넘어선 이제 와서 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어 그 참혹상과 인적, 물질적 피해 상황은 숫자적으로 일부나마 나타났지만 정신적 피해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2003년 12월 15일자로 발간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난 4·3 피해 상황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명피해(진상조사보고서 371쪽)

○ 민간인

도벌대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재산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가해자 정체불명 1,266명 기타(자살) 43명

계 14028명

* 2001. 5. 30. 현재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수

○ 군경 및 우익단체(진상보고서 373 ~ 376쪽)

군인전사 180명
경찰관 전사 122명
경찰관 부상 92명
우익 민간인 희생자 639명
계 1033명

② 물적 피해(진상보고서 510쪽)

○ 민간인 피해

이재 19,933호

소실 39,285동

* 토벌대가 작전상 이유로 중산간 마을을 방화 소각한 것과 재산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여 방화 소각한 피해

○ 학교피해

국민학교 전소 73개교 파괴 3개교

중학교 전소 3개교

계 79개교

해안지대 학교는 재산 무장대가 습격하여 전소되었고 중산간지대 학교는 토벌대에 의해 작전상 전소되었다.

○ 행정기관 면사무소 (진상조사 보고서 526쪽)

재산무장대의 습격으로 안덕면사무소, 중문면사무소, 대정면사무소, 조천면사무소, 구좌면사무소가 방화 전소되었고 특히 호적부가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 농·수·축·임·공업 피해

생산활동의 통제와 제한으로 경제적 붕괴는 물론 아비규환으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19) 4·3진압의 공과(功過)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민들을 무차별 살해, 납치, 가옥방화, 가축 등을 약탈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무장대들을 토벌하

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지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국가의 당연한 기능일 것이다. 그러나 작전을 구실로 도내 여러 곳에서 비무장 무고한 민간을 개별 또는 집단으로 총살을 하는 것은 크나 큰 과오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4·3특별법에 의거 국가가 책임지고 응분의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3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한없는 위로와 안면(安眠)하기를 빌 뿐이다.

그러나 4·3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은 4·3을 일으킨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4·3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절하게 느꼈던 필자의 심정을 적어본다.

四·三 痛恨

하늘이 울고 땅이 꺼지는 질곡의 세월
 밤이 오면 죽는가 날이 새면 실있는가
 이도 무섭고 저도 무서워
 갈 곳 없이 헤매던 아비규환의 세월
 피도 눈물도 입도 얼어붙고
 죽이고 불타고 울부짖는
 설움의 세월 4·3이여……
 길고 긴 9년의 세월 제주 4·3이여……

鄭南斗

(20) 4·3의 역사적 교훈과 자각

약소민족의 통한을 금할 길 없다. 구한말 5대 열강의 다툼에서 일본에 병탄(併呑)되는 망국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36년 만에 해방은 되었으나, 미·소 양국의 야욕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민족의 분열과 사상적 갈등으로 38선 이북에는 공산주의 정권, 그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건설되는 기형적이며 반신불수와 같은 중환

자로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광복되어 6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의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의 패전에 즈음하여 우리에게는 외교력이 부족함이고 민족의 단결과 지혜와 힘이 없었기 때문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4·3사건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해방 당시를 회고할 때 북한은 소련을 중주국으로 하여 위대한 조국해방군으로 추앙하며 공산주의국가 건설에 광분했고 남한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데 공산당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산당이 남한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전략 전술적 수단으로 이곳 제주도에서 4·3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제주4·3사건 발생은 제주도적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근원적 원인은 마·소에 의한 남북의 분단에 있다. 이로 인하여 민족이 분열되고 한민족끼리 대립적 상극관계로 만들고 상호 투쟁관계로 몰아넣었다.

오히려 패진국 대우보다도 더 심하지 않은가. 이제 통일이 안되면 영구분단인데 이는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일에 해방 후 우리나라가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면 4·3사건과 같은 참극도 없었을 것이고 6·25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민족의 저력으로 보아 세계 열강의 대열에 진입했을 것이다. 참으로 통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모든 원인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음을 자각하고 자주적 민족의 역량을 키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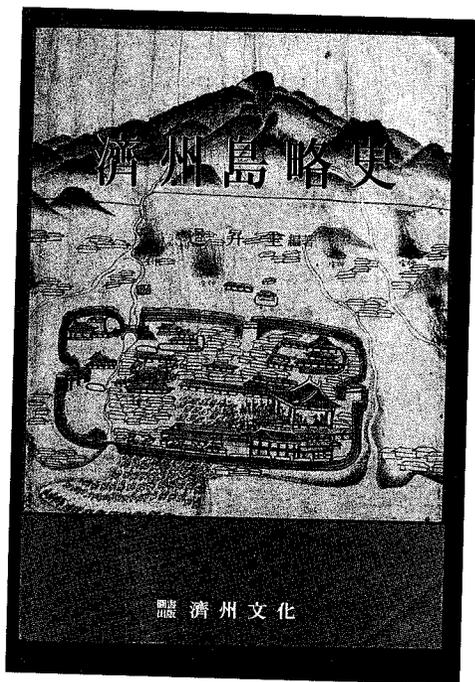
四·三事件

- '제주도약사'에서 -

- 변 승 규 (전 제주도농정과장)

1947년 3월 1일, 3·1절 행사 때 남로당(南勞黨)이 시위를 획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국은 옥외 3·1절 행사를 금지하고 관덕정(觀德亭)주변에 경찰을 배치 통행을 금지시켰으나, 신탁통치지지의 구호를 외치면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만여 군중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기마경찰(騎馬警察)에 치어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관이 어린이를 지어 죽였다고 선전하면서 투석하고 경찰관을 마상(馬上)에서 끌어내리자 경찰망루대(警察望樓台)에서 응원경찰이 기마경찰이 죽는 줄 알고 발포하여 군중 6명이 사망하였으므로 사태 수습을 위해 경찰서장을 파면시켰다. 그러나 남로당은 살인경찰의 무장을 해제 하라고 외치면서 각 기관에 푸락치를 잠입시켜 총파업을 선동하여 사태가 심각 해지자 총검거령을 내려 회합중인 좌익거물급 28명을 검거했는데 미경찰(美警察)고문관이 확실한 증거없이 구속하는 것은 불가하니 석방하라는 지시로 할 수 없이 석방하였다. 3월 12일에는 각 관공서와 학교가 거의 파업에 돌입되어 행정과 치안이 완전마비 상태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3·1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4·3사건(四·三事件)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과 동시에 전초전(前哨戰)이었다. 4월초에 미군정청(美軍政廳)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이 내도하여 경찰병력의 지원과 구호양곡 방출을 약속하고 경찰의 불신해소와 좌익활동에 쉼 기를 박도록 일제 검거령을 내려 파업선동자 및 동조자 100여명을 구속함과 동시에 우익진영 및 광복청년회의 계도로 4월말에는 각 관공서 및 학교가 제기능을 찾게 되었다.

좌익계열의 주요인사와 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주요인사는 김택수(金澤洙, 濟州 邑), 안세훈(安世勳, 朝天), 오대진(吳大 鎮, 大靜), 이도백(李道伯, 西歸), 조봉구(趙夢九, 表善), 김용해(金容海, 下貴), 오군표(吳君杓, 細花) 등이며 실지행동책은 직접 폭동을 주도한 대정(大靜)의 김달삼(金達三)과 신촌(新村)의 이덕구(李德九), 표선(表善)의 조봉구(趙夢九), 봉개(奉蓋) 김용만(金容寬), 조천(朝天) 이좌구(李佐九) 등 이었다. 제주지구 군사부총책인 김달삼(金達三) 직계(直系)로 1946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덕구(李德九)를 사령관으로 한 인민해방군 조직을 완료하였다. 그 병력은 5백여명인데 멋도 모르고 야합(野合)한 군중(群衆)이 천여명 끼어 있었다. 김달삼 지휘하(指揮下)에 일본군(日本軍)이 산중(山中)에 묻어둔 무기를 파내어 무장하고 중국팔로군출신(中國八路軍出身)들이 훈련을 담당하여 유격전법을 가르쳤다.



우익청년단체 및 서북청년(西北靑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어 표면에 나타나는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하로 잠적하여 한라산(漢拏山)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모슬포국방경비대(慕瑟浦國防警備隊)에 잠입 침투한 프락치를 통하여 무기를 입수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金達三과 李德九 지휘하(指揮下)에 일시에 도내 전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함과 동시에 군경에 침투된 프락치들이 감찰청(監察廳)과 경찰서(警察署)를 점령하여 경찰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하여 1948년 4월 3일 도민(島民)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습격기로 계획하고 전일에 습격대상지역 부근의 산림과 동굴에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고 산악고지의 봉화를 신호로 일제히 같은 시각에 화북(禾北), 삼양(三陽), 조천(朝天), 함덕(咸德), 세화(細花), 성산(城山), 남

원(南元), 외도(外都), 신엄(新嚴), 애월(涯月), 한림(翰林), 저지(楮旨), 고산(高山) 등 13개의 경찰지서를 습격 방화 살인 무기탈취를 감행하여 사상 유례 없는 참화를 빚어낸 四·三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사태 진압을 위하여 부산에서 오일균(吳一均) 소령이 인솔한 대대병력을 제주로 파견하였다. 4월 28일에 맨스필드 군정관의 지시로 김익렬(金益烈) 9연대장이 구억(九億)국민학교에 공비 두목인 金達三과 회담하여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하여 우선 비무장폭도를 하산 귀순토록 했는데 5월 3일 오라리에서 귀순하는 폭도를 경찰이 습격 사살하였으므로 회담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5월 6일에 미군정장관인 딘 장군 주최로 안재홍(安在鴻)민정장관 송호성(宋虎聲)경비대 사령관 趙柄玉 경무부장을 대동 제주에 들어와서 유해진(柳海辰)도지사, 맨스필드 군정관, 최천(崔天)경찰감찰청장, 金益烈 9연대장을 불러 사태의 진상 파악과 대책협의를 위한 미군정 수뇌부 회의를 가졌는데 딘장군(將軍)이 경찰과 경비대에서 사태의 진상과 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라고 하니 먼저 崔天경찰감찰청장이 간단히 직상(直相)보고와 건의를 하고 다음 金益烈연대장이 진상보고와 대책을 건의 하면서 사진과 물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실책을 언급하고 경찰의 작전 지휘권을 9연대장의 지휘하에 두어 작전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딘장군에게 물증과 사진을 드리니 딘장군은 사진과 물증을 검토한후 趙柄玉 경무부장에게 사진과 물증을 던지면서 “닥터趙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당신의 보고와는 전혀 다르지 않소” 하니 趙경무부장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가서 “저놈이 제시한 사진과 물증은 허위조작이며 경찰에 대한 중상모략이오. 저놈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활약하는 공산당 간부이며 저놈은 가면을 쓴 공산당이오”라 했다. 김연대장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가 趙柄玉의 멱살을 잡고 “경찰의 실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나를 공산당으로 모느냐. 이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崔天감찰청장이 말리려고 단상으로 올라오다가 연대장의 발길에 맞아 비명을 지르면서 마루바닥에 뒹굴었다. 이래서 회의장은 趙경무부장과 金연대장의 싸움판인 수리장으로 변해 아무런 결론도 없이 폐회되고 말았다.

연대장과 金達三의 회담 및 미군정 수뇌부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말미에 수록된 金益烈연대장 유고실록(遺稿實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수뇌회담 사건으로 金益烈 연대장은 사령부로 소환됨에 따라 吳一均 소령(少領)과 경비대는 중립(中立)이라는 등 의식적으로 토벌을 회피했을뿐 아니라 군경반목(軍警反目)을 부채질하고 일주도로에서 4km이하만 경찰이 담당하고 그 이상의 고지는 군이 맡을 것이니 경찰은 개입치 말라는 등 군의 기강이 해이되었다. 金益烈연대장의 후임으로 朴진경(朴珍景)중령(中領)이 연대장으로 들어왔다. 金益烈 연대장은 폭도 중 비무장과 무장폭도를 분리시켜 비무장 폭도는 귀순시켜 사살치 말자는 전법(戰法)을 주창하는데 반하여 朴珍景연대장은 무장 비무장폭도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살하고 초토화작전을 주장하여 도민은 물론 부하장병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었다 朴珍景연대장은 9월 12일 대령으로 진급하여 자축연을 베푼 날 밤 직속부하인 文상길(文相吉)중위(中尉)의 지시에 의한 두 병사의 흉탄을 맞고 피살되었다.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개편되어 송요찬(宋堯讚)중령(中領)이 9연대장으로 제주에 들어와 토벌전을 계속하였으나 폭도의 만행은 계속되었으며 소련혁명기념일인 10월 1일에는 전도(全道)에 걸쳐 각 마을을 습격하여 닥치는대로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여 이날 하루에 양민 550여명이 피살되었다. 10월8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10월11일에 민보단(民保團)을 창설하여 부락자체의 방위책을 마련하였다. 공비들의 잔혹한 만행의 진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 일부만을 소개해보면 신엄지서(新嚴支署) 습격시 文익도(文翊道) 경위의 머리를 톱으로 잘라버리고 文기찬(文基燦) 청년단장(靑年團長) 눈에는 곡괭이가 꽂혀 있었으며, 신촌(新村)습격시 환갑(還甲)이 넘은 경찰관부모(警察官父母)의 목과 수족(手足)을 톱으로 잘라버렸고, 도두리(道頭里)를 습격한 폭도 30명은 청년단체 간부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그의 부인과 어린이 11명을 눈오름으로 끌고가 윤간(輪姦)을 자행한 후 죽창으로 난자하여 산채로 생매장하였다. 공비들은 부락을 습격 식량 의류 가축 등을 닥치는대로

약탈한 후 약탈한 불건을 운반하기 위한 역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락민을 총칼로 위협하여 산(山)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허다하여 재산공비중(在山共匪中)에는 공비 아닌 양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사(戰死)한 경찰관복으로 위장한 폭도들이 종달리(終達里)에 들어가 오늘밤 폭도가 습격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시할 사항이 있으니 남자 전원 모이라고 지시하여 모이니 무차별 살해해 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주도로상에서도 군경과 무기를 신고 작전지구로 가던 트럭이 습격을 받아 군경이 전사하고 무기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대로변에서 200m이내의 송림(松林)을 모조리 벌채해 버렸으며 종달사건(終達事件)을 계기로 부락자위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전부락에 높이 10척(尺)내외의 축성을 하고 성문입구에 초소막(哨所幕)을 지어 24시간 보초를 세워 감시케 하고 수시순찰(隨時巡察)을 돌도록 하였었다. 단 제주시내 5개동만은 보초막을 세워 보초는 세웠지만 축성은 쌓지 않았다. 그렇지만 식량과 가축 및 의류의 약탈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므로 공비의 식량보급지인 중산간부락을 해안지대로 소개(疏開)하라는 소개령(疏開令)이 공포되어 중산간부락은 거의 해안부락으로 소개되고 소개된 부락은 공비가 잠복할 우려가 있어 가옥을 전부 소각해 버렸다. 당시 상황은 필설난기(筆舌難記)의 긴박한 상태에서 이웃 마을에 부모형제가 있어도 서로 찾아볼 수 없고 안전지대인 제주시내로 갈 수도 없었다. 통행이 금지되었을뿐 아니라 통행이 허용되도 길에서 공비에게 죽거나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 십중팔구이므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갈옷을 입고 농장에 갔다 오는 양민을 제주실정을 모르는 토벌대가 공비인줄 오인하여 총살한 사례도 많았던 것이다. 도민은 누구나 나의 목숨이 내일까지 붙어있을 것인가 하며 전전공공한 상태였었다.

이와같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四·三事件이 발생한 4개월후에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이승만(李承晩)대통령(大統領)이 취임하여 정부의 조직도 매듭짓기전 정부수립 5일후인 8월 20일에 여순(麗順) 반란사건(叛亂事件)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적 또는 군사적으로 四·三

事件을 진압(鎮壓)할 만한 능력이 없는 시기였던 것이다. 공비들은 여순반란군(麗順叛亂軍)이 곧 제주에 들어오면 민중봉기(民衆蜂起)가 일어나 자기들의 세상이 된다고 선전하면서 부락습격의 만행을 계속하였다. 11월 21일에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5~60세의 남자로 민보단(民保團)을 창설하여 부락 자체 방위토록 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우리 정부에서는 제주전투사령부(濟州戰鬥司令部)를 설치하여 유재흥(劉載興)대령(大領)이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12월에 함병선(咸炳善)중령(中領)이 인솔한 2연대가 주둔하였으며 경찰에서도 100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2연대를 주축으로 한 군경합동작전으로 공비소탕작전을 활발히 전개하니 공비들은 산속깊이 밀림지대로 아지트를 옮기고 위축되어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귀순자가 속출하였다.

1949년 4월에 총책(總責) 金達三은 월북하고 사령관 李德九는 사살되었으며 좌익의 거물인 吳大鎭과 金澤洙는 일본으로 밀항도주하고 安世勳은 서울로 잠복하였으므로 공비들은 지리멸렬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9월 조직책 趙夢九가 체포됨에 따라 잔당(殘黨)은 金성규(金成圭) 등에 끌려 다니며 최후발악하다가 1952년 12월 두목(頭目) 金性圭외 80여명이 사살되었으므로 1954년 9월에 한라산(漢拏山) 금족령(禁足令)이 해제되고 8년에 걸친 四·三事件이 완전 종식된 것이다. 최후까지 남았던 공비 오원권(吳元權)은 57년 4월 종달리(終達里)에서 체포되었다.

四·三事件의 피해상황은 재산상의 물적 피해 등은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으나 인명피해와 가옥소실, 가축피해, 이재민 수 등은 제주도지(濟州道誌)에 다음표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사망자가 35,821명이며 가옥소실이 39,285동인데 당시 마을수 중 도서지방(島嶼地方)과 시내 5개리를 제외한 마을이 152개리(里)인바 1개리 평균 사망이 236명이며 가옥소실이 258동이므로 피해가 극심한 마을은 4~5백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청장년층인 남자가 많이 사망했던 것이다.



제 4 장

지역별 마을 원로들의 4·3 증 언 록

지역별 마을 원로들의 증언은 제주4·3의 산 역사이다. 4·3의 진실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4·3을 직접 몸으로 겪은 이들은 얼마 후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것이다. 때문에 원로들의 생생한 아픔과 교훈을 후대를 위해 남기는 일은 시급하고, 머뭇거리지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원로들의 증언의 집합은 4·3의 올바른 역사이다.

지역별 마을 원로들의 증언

- 안덕면 : 김창석, 조용환, 김창기
- 애월읍 : 김수창, 이방식
- 내도동 : 김병식
- 노형동 : 강원배
- 도두동 : 문병구, 강경하, 고승만
- 도평동 : 박성두
- 오라동 : 김승추, 오완규, 송창규, 이경생, 문용준, 김상진, 양진현, 김기행
- 아라동 : 문도현, 오영길
- 연동 : 오경호
- 외도동 : 이두생
- 용담2동 : 고성종
- 월산동 : 문달진, 김여준
- 이호동 : 이보연, 김원서
- 해안동 : 강석진
- 중문면 : 고시수
- 한경면 : 고희경, 김태수, 고경하, 김명옥, 김대옥, 김용원, 고진원, 문원숙, 문창림

4·3이전 마을 청년 8명이 일북했다

- 김창석 (金昌石, 21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 2012. 11. 13. 증언

김창석은 4년제 안덕초교를 13살 때 졸업(4회)했다. 그의 아버지 김수생은 그가 갓 낳을 때 일본으로 갔다가 6살 때 잠시 귀국 후 일본으로 다시 갔고 북해도에서 3년여 징용하다 해방 후 귀국했다. 그에게는 행운일까 일제 때 경방단원이 됐고 1면당 1명을 뽑는 농업요원으로 선발됐다. 당시 남자는 징용이나 징병을 갔으나 그는 남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농업요원이 된 것. 소를 가지고 가 받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 주는 농업지도원 역할도 했다. 대가는 하루 밭갈이를 해주면 여자가 3일간 김을 매주거나 수확을 도와주는 식이다.

그래서 그는 징용도 징병도 면제받았다.

안덕면의 47년 3·1절 행사는 창천의 장진봉, 화순의 고00, 박00, 감산의 김인하(26) 등이 주도했다. 후일 폭도로 입산한 동동네 강상호(26), 강완호(21) 등 감산 청년 10여 명이 참가했었고 그도 참석했었다.

300여 가구의 감산리는 청년이 30여명이 넘었다. 일제 때는 감산리 독서회가 조직되어 항일 의지를 심었었다. 김창석도 독서회 회원이었었다. 김인하 등이 그에게 남로당 가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김인하의 작은 아버지 김보순(전 대정지서 주임 등)은 경찰 간부이고 김보순의 동생 김보근도 경찰관이었다. 조카와 삼촌사이 사상이 너무 달랐다. 김인하는 경찰 간부인 작은 아버지까지 설득하려든 골수 남로당원이었다. 그러나 김창석은 김인하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가 거부하게 된 것은 해방 후 얼마 없어 이북으로 간 독서회의 지도자였던 임00가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나쁜 것이다. 우리나라는 덴마크 같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일깨워 준 탓이다. 임00는 안덕면

사무소 입시 서기도 했다. 김창석은 “1살 땅이지의 같기기 어느 쪽(죄 위)으로 늙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남로당의 이상이란 말들은 모두가 거짓말 같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남로당에 가입 안 한 이유를 강조했다.

감산리에서는 4·3이전 임00를 비롯 월북한 청년이 많다. 강00(23), 강00(20), 고00, 강00의 아들 형제, 양00(일명 00, 35), 양00(일명 00, 23) 형제 등 8명에 이른다. 일시에 간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4·3 희생자 명단에 오른 임00, 강00, 강00와, 양00, 양00 형제는 4·3과 무관한 인물이다. 고00(16)의 경우도 4·3전에 일본에 가 고향에 온 적이 없다. 고00도 4·3과 관계가 없다.

양00은 한학에 조예가 깊어 서당의 사장도 하다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가 됐다. 이후 제주에 온 적은 없고 동생 양00는 제주에 살다 형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갔다가 함께 월북했다.

김창석은 안덕지서에 7차레나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보를 캐러 몽둥이세례를 퍼부었다. 경찰로부터 조사가 잦자 산 쪽에서도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우려해 접근하지 않았다. 49년 가을에는 모슬포의 2연대 본부로 끌려갔다. 귀순자수용소에는 대정, 한림, 안덕 일대 주민 100여명으로 감산리는 폭도인 강00(25), 한00(19), 한00 모친 등이 수용돼 있었다. 군인들은 즐기치게 3주간이나 ‘남로당 가입여부’, ‘남로당에게 무엇을 협조했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얼굴 턱이 무너지고 다리를 못 쓸 정도의 고문을 받았으나 젊었었기에 회복됐다. 김창석은 결국 결백이 증명돼 석방됐다. 이때 매 맞을 각오로 석방증을 달라고 요구, 받아들였다. 이것이 후일 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가 돼 예비검속을 무사히 넘기게 됐다.

김창석의 결백 주장에는 7살 밑 그의 동생 김창길도 한 몫을 했다. 48년 12월 폭도들이 감산리를 습격했을 때 동생은 마을에서 유지였던 양별감의 아들인 양00(29)과 함께 납치돼 산으로 끌려갔다. 그들 폭도 아지트에는 9연대 이등상사로 있다 탈영하여 입산한 양승옥이 우두머리였다. 함께 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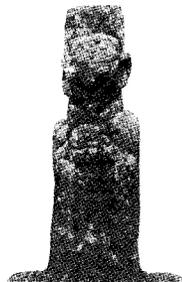
간 바로 양00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무사했다. 어느 날 폭도들은 동생 김창길에게 동광에서 메밀쌀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김창길은 산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집으로 탈출할 지를 고민하다 탈출을 결심했다. 안덕지서에 바로 가 신고했고 토벌대는 이튿날 새벽 김창길의 안내로 폭도의 아지트를 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남아 있던 형 양00은 동생을 따라 '슬픈 폭도'가 되었고 애월에서 죽었다. 김창석의 표현 '슬픈 폭도'란 말은 기발하고 기막힌 단어이다.

6·25가 나자 김창석도 동생 김창길과 같이 50년 8월 모슬포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제주읍 주정공장에 집결, 내일이면 출정케 됐다. '사정이 있는 사람'은 사정을 말하도록 했다. 김창석은 할아버지, 부친을 모셔야 하는데 형제가 함께 가면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호소가 받아들여져 동생만 참전했고 동생은 11사단 20연대 소속으로 51년 양양의 설악산 전투 때 전사했다.

김창석은 61~62년 마을 이장을, 이후 노인회장도 지냈다. 나이는 92세이나 귀도 전혀 이상 없이 온전하고 소주 한잔이 낙이라고 밝힐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창석은 "감산리는 5·10선거를 치렀다. 4·3의 주동자는 모두 도망가고 중간 사람만 죽었다."며 "경찰도 마을의 지도자급이기에 이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골치가 아프니 이들의 탈출을 협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좌익활동을 한 청년들을 유지들이 일본으로 도피시킨 슬기로운 마을

- 조 응 환 (趙應環, 31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 2012. 11. 13. 증언

조응환은 가파리가 고향이다. 대평리(옛 창천 2구, 서 난드르)는 해녀였던 어머니 정호양의 고향이다. 가파초교에서 4학년을 다니다 안덕초교에 편입하여 졸업(15회)했다. 그의 아버지 조봉규는 5형제 중 막내로 일본 대마도에서 그의 형들과 함께 가파도와 안덕면 일대 출신 해녀들을 관리했다. 대마도에 있는 큰 아버지집을 일컬어 조씨집 산천으로 불릴 만큼 대마도에서 터를 잡았었다. 방송인 조용방과는 6촌 관계이다.

47년 6년 담임은 감산리 출신 김영순 교사였고 3·1절 행사는 안덕초교생 450여명이 주류를 이뤘다. 화순 길거리를 시위했었다. 48년 대정중에 입학했다. 대평 출신 입학자는 양원협, 이두천 등 그를 포함 4명이었다. 사계 해수욕장을 거쳐 걸어서는 4~5참 거리여서 모슬포 상모에서 자취했었다. 4·3으로 휴학되면서 그도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200가구의 대평리는 슬기로운 마을이다. 대평리에서 똑똑한 청년 7~8명이 남로당 좌익 활동을 했다. 시국이 불안해지자 마을 유지들은 걱정하다 정두석이 앞장 서 배를 임대해 청년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 청년들이 마을에 남았다면 산에서 배반하였다며 죽이든가 경찰이 좌익 활동을 하였다고 총살시켰을 것이다.

그 여파는 확대되어 마을이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정두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냉장고, 재봉틀 등 가전제품의 겉을 페인트로 도장(塗裝)하는 회사를 경영

했다. 오사카 5대 제주도민회장을 맡을 정도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오사카~제주 간 항로를 연 도민회장이다. 정두석의 밀항 때는 안덕지서 고덕진 지서주임과 협의, 경찰이 암암리에 묵인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용환도 72년 새마을지도자, 73년 이장을 할 때 감산~대평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수천만 원 대의 개인 빚을 저 일본으로 갔을 때 정두석 회사에서 일했다. 88년 자수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해 빚을 갚고 받을 사 재산을 일궈다. 마을 어촌계장과 노인회장도 지냈다.

대평리는 마을 북쪽에 우뚝 솟은 군산이 창천1구의 영향을 가로막은 지리적인 이유외도 유지들의 지혜로움이 마을 구했다. 잠수기선을 운영하던 강문협 부친은 자경대원들에게 떡국을 자주 먹여 떡국을 먹기 위해서라도 보초를 서겠다고 자원할 정도였다. 당시 이장인 양원부 부친(양원수 화순 도의원 형)도 지서 경찰과 토벌대원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여 관계가 친밀했다. 폭도들도 습격했다가는 탈출로가 없어 습격하지 못했다. 때문에 마을 안에서 희생자는 없다. 다만 군산 남쪽에 풀어 놓은 말을 보러갔다가 중문지서로 끌려가 48년 12월 7일 총살된 장문중(44)이 유일하다. 그도 안덕지서로 갔다면 자경대원이었기에 무사했을 것이었다.

조용환은 호적으로 두 살 밑이 돼 53년 4월부터 신병훈련을 3개월 받고 휴전이 됐을 때 일등병이 됐고 29사단 창설요원이 됐다. 29사단 2연대 중화기 중대에서 수색중대로 옮겨 오성산 전방 분계선에서 근무했다. 휴가 때도 칼빈총을 휴대하고 제주에 왔었다. 조천 와흘 출신 임완성은 같이 입대하고 같은 소대에서 근무했다. 58년 4월 일등중사(하사)로 만 5년 만에 제대했다.

대평리에서 5·10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교직에 47년여 있어, 최장수를 기록

- 김 창 기 (金昌琪, 30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 2012. 11. 13. 증언

김창기는 4년제 덕수간이학교를 나와 5학년 때 보성초교에 편입, 해방되는 해인 45년, 16살에 보성초교를 졸업했다. 마을에서 12명이 함께 보성초교를 다녔으나 대정중에 진학은 5명뿐이다. 대정중 2년 때 3·1시위에 참가했다. 덕수리 청년들은 참가가 없었다. 후일 이승진 교사가 공산당의 우두머리인 김달삼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

김창기는 대정중에 다니는 안덕면 출신들의 왕초였다. 당시 대정중에는 대정은 물론 중문, 한경에서 진학했다. 한경의 왕초는 문도철(전 제주도청 국장), 중문은 김문호(전 제주지검 수사과장), 대정은 황승삼(후일 면의원)이었다. 출신 지역별 기와 세 싸움이 심했다. 어느 날 대정의 황승삼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김창기는 단단히 버르고 힘으로 대결할 결심이었다. 웬 일일까 황승삼은 '다음에 하자'고 항복하고 말았다. 학련이 조직돼 1대 위원장은 덕수리 출신 1년 선배 김원홍이고 2대는 송창도였다. 2학년 2학기 때 학련 위원장 선출을 앞뒀 김창기는 안덕의 대표선수로 위원장에 나섰다. 표 점점 결과 당선은 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 중반전 때 선배 김원홍이 위원장을 하기 보다 학생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한과 일을 하는 감찰부장을 맡도록 하라고 권유하고는 김창기가 기권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문도철이가 됐다. 학련 사무실은 전 경찰서 서쪽 전 우체국 옆에 있었다. 좌익 학생들도 많았으나 김창기의 안중에는 좌익이 보이지 않았다. 좌우의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그가 주도한 것은 20살 위의 학생도 있었으나 나이 많은 학생들은 학생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이 18세가 주류를 이루면서 그가 리더가 된 것이다.

4·3으로 학교가 휴학되자 김창기는 학련 안덕면 파견대장, 학련 안덕면분회장이 됐다. 안덕면 학련 소속은 30여명. 현재 화순초교 앞 개인집에 본부를 두고 화순에서 잘난 체하는 청년 2명을 사상의심자로 본부에 불러 들여 취조하고 불기짜도 때렸다. 그러나 이튿날 풀어줬다. 학련은 군경 토벌대와 함께 세 차례나 토벌에 나서기도 했다. 창천 위쪽 한라산 계곡일대에서 수색하던 중 150m 앞에서 누군가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그 폭도는 계곡 굴 속 아지트로 숨어버렸다. 그 굴속을 향해 총을 쏘기도 하고 연기를 피워댔지만 날이 컴컴한 8시가 지나도 움직임이 없어 철수하기도 했다.

대정중을 졸업하고 3년제 5기 초등교원양성소 입소 시험을 치렀다. 대정중 졸업생 37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했는데 김창기가 김문호, 이기호와 같이 합격했다. 합격자 65명 중에는 여자가 20여명이나 됐다.

6·25가 나면서 남자는 이철희 등 2~3명을 빼고는 거의 해병대 등을 지원했다. 김창기도 해병대를 지원, 신체검사를 받기도 했지만 50년 9월 1일 육군으로 입대 11사단 20연대 소속이 됐다. 제주북초교에서 20일간 하사관 학교 교육도 받고 LST를 타 삼랑진으로 가 군 편성 때 그는 3대대 12중대 화기부대(박격포)원이 됐다. 광주 서석초등학교에서 주둔한 1주일 후 영광, 고성 등지로 토벌에 나섰다. 고창에선 부녀자들이 인민군들에게 주먹밥을 해 먹이려고 가마솥에 밥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영광에서는 시계포, 포목, 양복점 등 모슬포 정도의 상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남자는 모두 도망쳐 버려 가게에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먹으면 시계도, 양복 등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지휘관이 '돈에 욕심을 부리다간 죽는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때 여자들이 칼빈 총을 반으로 줄여 허리춤에 감추어 찻다가 접근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고창 주둔 이틀 췌 주둔지 앞 논밭에서 사계출신 임세0가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 발견됐다. 300여 가구 마을을 수색했지만 남자란 1명도 보이지 않았고 20여 가구의 집을 불태우는 것으로 분을 삭였다.

광주 무등산 전투 때였다. 1개 소대가 포북으로 2km쯤 올라갔을 때 폭발음이 들렸고 오른쪽 팔에 박격포탄이 박혔다. 7명이 부상했다. 광주시립병원

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한 뒤 3일 후 중학졸업자는 나오도록 했다. 7명이 나서자 헌병대원으로 특채됐다. 대구 김천을 거쳐 포항과 최전방인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낙오선(후퇴선)을 이탈하는 장병을 단속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6개월여 밤낮으로 했다. 1·4후퇴 때는 민간인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일도 했다. 부상이 도져 51년 12월 의병제대했다. 지금도 날이 곱을 때는 팔이 쭉신다.

52년 2월 안덕면 부녀회 임원 등 8명으로 선무공작단이 구성됐다. 김창기가 단장이 되어 연설을 도맡고 서귀포 효돈에서 한경면 신창까지 순회하며 연극공연을 했다. 4월 8일 고문옥 안덕면 부면장(후일 면장)이 김창기에게 수고했다며 이력서를 내면 면서기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고 면장은 이력서를 보더니 이력서를 찢어버리며 교사가 되라고 했다.

관덕정에 있던 학무과를 찾았다. 그곳에는 6학년 담임 교사였던 문무경 선생이 있었는데 찾아 간 날 강원도로 출장을 가고 자리에 없어 메모만 남기고 돌아왔다. 출장에서 돌아온 문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성산면 면 소재지 학교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김창기는 외지로 가는 것보다 고향 근처를 희망했고 5월 1일자로 덕수초교로 발령이 났다. 덕수초교는 교장과 교사 3명이 근무, 복식 수업을 하고 있었다. 김창기는 3학년과 6학년을 맡아 가르쳤다. 당시 교사의 퇴근시간은 오후 5시였다. 김창기는 퇴근시간을 넘기고 오후 6시쯤까지 6학년 학생과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김황수 남제주군 학무과장이다. 김 과장은 김창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착하다’고 말하고 희망지를 말하도록 했다. 큰 학교인 사계초교를 희망하자 그곳으로 발령이 났다. 2년째 되던 해 5학년 담임을 맡고 오후 늦게 애들 3~4명과 함께 수업자료인 차트를 만들고 있을 때 교실을 돌아보던 오만택 장학사가 이 모습을 발견했다. 오 장학사는 추자출신 박홍남 교장에게 표창을 상실토록 지시하고 돌아갔고 김창기는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듬해는 6학년 담임을 맡았다. 1년 후 안덕중의 장학생 선발 때 1~5등까지 사계초교가 차지하

고 면소제지 안덕초교(교장 최봉두)는 6등으로 떨어졌다. 좌 교장이 화를 내고 김창기를 자기 학교로 끌어오려 했으나 박 교장이 반대로 무산됐다. 다음 해는 다른 교사가 6학년을 맡았는데 결과는 5등에 그쳤다. 박 교장은 그에게 다시 6학년을 맡도록 부탁했다. 그가 6학년을 맡은 뒷 해, 결과는 다시 1~3등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보성초교 교감이었을 때 윤00 장학사와 식사하던 중 윤 장학사가 100만원의 갖고 오면 교장을 시켜준다는 말을 하자 음식상을 엮고 맡았다. 때문에 교장 승진이 늦어져 91년 9월 뒤늦게 무릉초교 교장이 됐다. 98년 8월 보성초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을 떠났다. 동백장 훈장을 받았다.

덕수리에서 폭도로 입산한 사람은 없다. 다만 남로당 활동의 두목은 일본에서 중학을 나와 똑똑했던 김00(27), 김00(24) 형제와 한학으로 뛰어났던 송00(30대) 등 3명이다. 이웃집에 살던 송00(19)는 6·25후 군대를 가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4·3과 무관한 인물이다.

폭도들의 습격은 4차례나 된다. 48년 12월 6일 폭도들이 대대적으로 덕수리를 습격, 이에 철창으로 맞서 싸우던 자경대원 송기원(57), 송경윤(31) 등 9명이 살해되고 식량을 빼앗아 갔다.



하귀초교 화재는 컸다

- 김 수 창 (金秀昌, 41년생,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 2013. 7. 3. 증언

김수창은 부친 김용심과 모친 김명생 사이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큰 형은 10살 위 김한중, 둘째형은 6살 위 호중이다. 8살 때 하귀초교에 입학, 55년 해방 후 8회 연 12회로 졸업했다. 귀일중에 진학하고 졸업 후 서울로 가 철공소서 종업원 생활을 했다. 현재 하귀에서 은성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5·10선거 때는 어려서 내용을 모른다.

1949년 1월 8일 폭도들이 습격, 하귀초등학교를 불태웠다. 6개 교실과 교무실 등 본관 건물이 모두 탔고 화장실도 일부 탔다. 이때 성담에서 보초를 섰던 김칠중 초등학교사의 부친이 말 방앗간에서 철수하던 폭도들에게 붙잡혀 죽창과 대창에 찔려 숨졌다.

이후 학원동에서도 고씨 부모 등 한가족이 폭도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귀리에서는 김만옥이 폭도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귀리에 4·3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먼 친척 전 제주시 시의원 김00의 누님인 김00이 폭도에게 식량 등을 조달하는 폭도 첩자로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처녀인 그녀는 매우 요망졌다(똑똑했다).

그의 큰형은 몸이 쇠약하여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은 탓이었는지 그의 가족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모르쿠다’(모르겠습니다) 밖에 모른다.

- 김 병 식 (金炳湜, 26년생, 제주시 내도동)

- 2013. 4. 16. 증언

김병식은 아직도 15년 전 산 트럭터를 몰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 세 번째의 약속으로 만날 수 있었다. 내도에서 고령(高齡)으론 두 번째임에도 건강하다. 슬하 3남 1녀 중 막내인 윤권 씨(48)와 함께 2만여 평에 양배추, 양파, 대파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1등 농부이다.

김병식은 외도 공회당에 있었던 4년제 사립 영흥서당을 마치고 6년제인 하귀초등학교에 5학년이 편입하여 2회로 졸업했다. 내도동에선 그가 혼자이고 이호 현사동의 차귀병이 동창생이다.

할아버지가 3대 독자이어서 그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장손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17살 때 할아버지 성화로 그보다 한 살 위인 애월 고성의 고명정과 결혼했다. 부친 김두규는 일본인과 함께 속칭 ‘신지방’에 덩장(가두리) 그물을 운영, 관리했다. 결혼 두 달 만에 이 일본인을 통해 진학하러 일본 오사카로 갔다. 진학은 여의치 못하고 이호 사람이 경영하는 주물과 선반의 공작소에서 일하던 중 스무 살이 됐을 때 외도리장 윤창모의 명의로 징집영장이 나왔다.

고민 끝에 쓰루하시에 사는 8촌 삼촌인 김창석을 찾아가 의논했다. 김창석은 권투 시합 8회전을 뛰던 프로 권투 선수였고 권투 도장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김창석은 그에게 “일본은 금년, 아니면 내년에 망한다”며 전쟁터에 가지않고 숨어 있도록 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 양다리가 잘린 제자의 포도밭 농장을 알선했다. 종전까지 2년여 숨을 곳으로 예정한 그곳은 오사카 도시에서 먼 산골(이나카)에 있는 4천여 평의 포도밭.

당시 일본에서는 남자로 18살만 되면 ‘국가를 위해’ 지원병으로 출전하여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 포도밭은 도시 사람이 와서 포도를 따 싹껏 먹는 대신 탄 포도를 주인에게 주어 일손을 더는 운영을 했다. 주말 관광농장인 셈이다. 농장에는 당시 라디오가 없어 일본이 항복해 해방이 됐지만 두어 달이 지나서야 알았다.

김병식이 46년 5월쯤 귀국하려 오사카항에 갔을 때 부산, 제주읍, 한림 등 행선지를 알리는 깃발을 내건 배들이 많았다. 한림으로 가는 8t 급 목선을 탔다. 운임은 당시 일본은행권으로 500엔이었다. 배안에는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배에 물을 싣기 위해 시모노세끼(하관)에 잠시 들렀을 때였다. 머리에 머릿띠를 하고 가슴에 휘장을 두른 청년 무리들이 죽을 나뉘주며 “김일성 장군을 찬양해야 하고 장군을 따라 나서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북에서 나온 청년들로 알고 있다.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일본해를 벗어나 한국해로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지났을 때 배 1척이 니티나에 인했다. 도착한 항구는 마산항. 배가 막 항구에 들어서 선착장에 배를 대기 무섭게 낚선 청년 5~6명에 배에 뛰어 올라오더니 승객들을 위협, 수중에 있는 모든 물건과 옷 가방 등을 털고 달아났다.

제주에 오려면 부산으로 어떻게 가야한다.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마산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 인심 좋은 곳에서 구걸해 국수를 몇 번 먹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굶어 부산항에 도착했다. 제주에 오는 운임은 500원이었다. 선원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운임은 제주에서 갚겠다고 사정을 하여 간신히 배를 타 제주읍 산지항에 도착, 걸어 집에 도착했다.

48년 4·3때 50여 명의 폭도들은 외도지서를 습격, 즐고 있던 이북출신 선우중태 순경을 사살하고 철수 했다. 김병식의 왕조부 제삿날인 4월 18일(음 3월 10일) 폭도들이 습격, 이집 저집으로 피신하고 있던 마을 이장 신현집을 숨고 있던 동쪽 집에서 찾아내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누군가 숨어 있던 곳을

알린 것이다. 그즈음 외도에 전라도 경찰응원대가 주둔했다. 경찰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물으면 주민 대답은 늘 ‘모르쿠다’였다. 그래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모르쿠다 밖에 모른다”며 주민들을 다그치기 일쑤였다.

5·10 이틀 전 갈중이(감물들이인 갈옷) 옷을 입고 총을 맨 낫선 청년 20여명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투표를 하면 죽이고 집을 불 지르겠다고 위협,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몰아냈다. 해안지경이었다.

김병식은 그곳에서 영흥서당 후배인 김00(20)이 기마용 긴 장화(일본군 장교용)를 신고 권총을 차 나타냈고 김00(20), 이00((21)도 칼빈 총을 거꾸로 메고 폭도들과 함께 행동했다. 이00 부친 이00(40)은 월대 이장을 지낸 마을 원로이나 좌익활동을 했다. 이00 처와 자식 등이 모두 희생돼 대가 끊겼다. 신00(32)도 폭도였다. 내도에서는 문00, 김00이 좌익을 주동했고 폭도로 활동했으나 탈출, 월북했다.

김병식이 일본에 있을 때 3살 밑 그의 누이동생 김기환이 바닷가 운동장에 있는 청년훈련소에서 남자들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고서는 큰 일이 나겠다며 결혼을 서둘렀다. 누이동생 나이 16살 때였다. 매제는 애월 수산리의 이영우로 김병식과 동갑으로 후일 김병식의 생명의 은인이다.

5·10 선거를 반대키 위해 해안 산으로 내몰려 올라갔다가 막 내려왔을 때 한 밤중에 경찰국 통신과에 있던 매제 이영우가 차(바퀴가 6개이면 6바리로, 6바리 차로 불림)를 몰고 왔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 함께 가자”고 하여 매제를 따라 나섰다. 매제가 살고 있는 제주읍 용담으로 갔다. 매제는 제주우체국 기술과에 취직까지 시켜 주었다. 당시 전화(탁자용, 벽걸이용 2종)는 일본이 남기고 간 것들로 고장이 잦았다. 매제 이영우는 후일 경찰서장을 지낸 박일문이 우체국 기술과(과장 김순구)에 있는 것을 경찰에 특채되도록 주선했다. 이영우는 경위로 승진하여 성산포지서장 등을 했고, 중문지서장 때 뇌졸중으로 퇴직했다. 4·3 때 시골에서 경찰 가족 상당수가 폭도들로부터 피해를 보았으나 이영우는 성품이 좋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지 않아 이영우가

족들은 피해가 없었다. 한편 그때 우체국은 업무, 통신, 기술과 등 3과로, 전화업무는 우체국이 맡았고 교환수가 4명이었다. 전보는 송수신을 무선국이 맡고 배달은 우체국이 했다.

김병식은 우체국 소속이나 당시 폭도들이 전봇대와 전화선을 절단하기 일췌이어서 경찰 인력이 달려 경찰국에 파견됐다. 파견된 인력은 3명으로 경찰복장을 하고 칼빈 총을 들고 작업에 나섰다. 경찰차를 타고 작업에 나섰다 3번이나 폭도들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첫 번째는 아침 9시쯤 도두리 속칭 '높은 송이' 일주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길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치우러 일행 12명이 차에서 내려 돌을 치우는데, 명령하는 고함소리와 동시에 길 양편에서 폭도들의 총알이 빗발쳤다. 경찰도 응사하자 잠시 후 폭도들은 철수했다. 두 번째도 오전 9시쯤 애월 고내 지운당 인근에서 돌무더기를 치우다 습격을 받았다. 세 번째는 오후 3시쯤 안덕 덕수리 마을 입구에서 지서와 중간 지점에서 역시 돌을 치우다 습격을 받았다. 다행히 3번 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전봇대는 삼나무로 폭도들이 톱으로 잘라내고 전화선을 절단했다. 전화가 불통되면 출동해 전봇대를 겹쳐 쇠줄로 묶고 있는 작업이었다.

6·25가 났을 때도 우체국 기술자는 징집 보류자였다. 52년 3월 용담과출소에서 소집명령을 갖고 왔다. 우체국에서 8명, 무선국이 4명 등 12명. 모슬포훈련소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LST타고 부산으로 간 뒤 울산에 도착했다. 기술 인력 12명은 각 사단에 1명씩 배치돼 김병식은 강원도 원통에 있던 12사단본부에 배치됐다. 사단 본부에 근무, 전쟁 중에 '인민군을 구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휴전직후 강원도 양양 남강변에서 인민군 담배와 아군의 건빵을 맞교환해 인민군 담배를 피웠었다.

이등상사로 진급되면서 원주 581기지창으로 배속됐다. 그곳 중대장은 무선국에서 근무하다 방위 소위로 참전한 화북출신 한군찬 대위이다. 우체국과 무선국을 함께 근무해 동료다시피한 가까운 관계였다. 중대장의 배려로 춘천 이동정비반 소대장을 3년간 했을 때 일등상사로 진급돼 부산통신기지창 정

비과 선임하사가 됐다. 기지창장은 김교수 대령으로 581기지창에 있을 때는 중령이었는데 김병식의 성실함을 보고 김 대령이 불러낸 것이었다. 부산 당감동에 있는 기지창에는 장교가 16명, 문관만 120명, 1개 중대원이 있었고 이곳에서 상사로 12년간 있었다. 김교수 대령이 계급정년으로 제대하면서 그도 19년여의 군생활을 제대하게 됐다. 김 대령이 서울에서 운수회사를 차렸고 군대 동기가 부산세관장으로 있으니 김병식도 부산에 운수회사를 차리도록 한 것. 65만원을 들여 8t 트럭 1대를 구입하고 함께 군무했던 장병 등이 투자, 트럭 8대로 회사를 차렸다. 그 후 그는 트럭 1대를 더 투자하고 3년여 지났을 때 당시 부산~서울 간 운임은 상경 때 2만2천원, 하경은 2만원. 어느 날 부산세관에서 운임이 10만 원짜리 수송을 의뢰받았다. 물건은 전화기에 쓰이는 자석으로, 밀수품이고 중량도 12t이었기에 운임이 5배 가까이 많았던 것. 1만원을 세관 직원에게 뜯기고 운전사와 조수가 과적 차량 단속을 우려함에도 운임 때문에 특별히 당부하여 출발시켰다. 운전사와 조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북 구미에서 열차와 충돌, 차는 두 동강이 나 논밭 바닥에 전복되고 운전사와 조수는 즉사했다. 더욱이 전복 때 있던 물건이 밤사이에 도둑을 맞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는 3개월여 감옥에 가 곤욕을 치렀었고 김 대령이 서울에서 내려와 수습해줘 풀려났고 운수업도 접었다.

김병식은 트럭터를 구입하면서 외도에서 가장 큰 농사꾼이 되었고 노인회장도 지냈다. 그는 “중북의 통합민주당 임수경 의원과 통합민주당원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며 “함병선 연대장은 희생자를 줄이려 귀순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4·3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 강원배 (康源培, 37년생, 제주시 노형동)

- 2013. 5. 28. 증언

강원배는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4·3의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4·3의 가해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와 군경인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것처럼 정부가 사과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는 가해자가, 붉은 물이 든 남로당이란 분명한 답을 일깨우고 있다. 물론 피해자는 제주도민 전체이다.

강원배의 부친은 제주농업학교를 나왔고 일제시대 제주에서는 4명만이 합격했던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다. 경찰관은 6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해방 후 미군정의 과도정부 인사처 소속으로 제주도청의 인사 담당을 했다.

강원배는 8살 때부터 노형에서 제주북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제북교를 다니려면 일제 때 관리의 자제나, 큰 부자이거나, 특히 머리가 뛰어나야만 됐다며 자칭 ‘친일파’였기에 제북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동창은 고문승 교수, 김윤봉 의사, 김한주 박사(인수당한약방) 등이다. 동창 중에는 5~6살 많은 것이 보통이었다. 초등교장 출신 이00 형제가 제북교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형인 이00은 불합격되고 동생은 합격하자 그 부친이 학교 측에 사정을 말하여 형을 합격시켰다. 강원배는 그의 동생과 친구여서 동창 중 유일하게 이00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1학년 4개 학급 중 여자는 1학급이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60명. 은사로 이기형과 두 학년 연속 담임이었던 김종철 선생을 존경한다.

48년 5월 9일은 강원배의 증조부 대상(초상 후 2년째 기일)이었다. 폭도들은 반동 가족인 강원배 가족을 노렸다. 이 사실을 노형청년회장이 그의 모친에게 은밀하게 알리고 강원배와 모친에게 이날 몸을 숨기도록 시켰다. 모친은 마을에서 믿을만한 집으로 생각한 어느 할머니 집을 찾아가 숨겨주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폭도본부에다 강원배와 그 모친이 자기 집에 와 숨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대장은 강원배와 모친을 숨도록 가르쳐준 그 청년회장이었다.

5·10 선거를 앞뒤 해변에 있던 마을 도두, 이호 등지의 주민들이 적기가 부르며 떼지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선거를 반대, 방해하기 위해 마을을 비우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48년 11월 29일 광령 일대에서 토벌하러 갔던 군인들이 노형국교 쪽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불을 질렀다. 당초 노형은 소개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불을 질러 소개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노형을 지나는 길은 토벌대의 차량이 지나지 못하도록 땅을 파고 돌을 굴러 차량통행을 막아 폭도의 소굴임을 내보였기에 군인들은 소개토록 불을 지른 것이다. 이때 굴목이(느티나무)로 집이 지어져 마루는 얼굴이 거울처럼 내비칠 정도의 6칸 집이 불탔다. 불탄 집에서는 사흘간이나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극은 강원배의 할아버지가 불을 끄려다 군인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강원배는 4·3 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희생자에 폭도들이 있는 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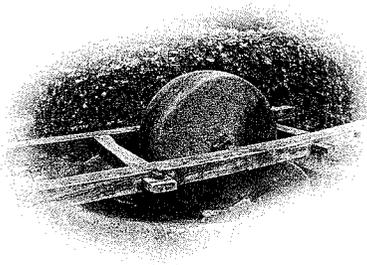
노형 율량은 양00과 현00가 좌파의 핵심 인물이다. 양00은 수배령을 피해 육지로 나갔고 한 짓이 두려워 고향에도 오지 못하고 이호에서 살다 죽었다. 현00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감형이 된 듯, 6·25 때 인민군과 함께 하다 해주경찰서장까지 했다는 것이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입에서 전해졌다. 현00를 포함 노형 출신 12명이 북한에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원배는 마지막 잔비(殘匪) 5명 중 1명으로 57년 3월 식량을 구하러 내려 왔다가 체포돼 잔비를 모두 소탕할 수 있도록 귀순하여 목숨을 구한 여자 폭

도 한순애(韓順愛)와 인척인 폭도 한00(32)의 아들 한00과 잦은 논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감귤 관계 방북 때 부친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설렘던 한00은 부친을 못 만나 갖고 갔던 선물을 기차 선로위에 놓고 왔다는 말까지 하고도 부친의 행적은 부인한다는 것이다.

농협 서부단협조합장을 지내 통합 제주시농협을 탄생하는데 한 몫을 했던 강원배는 “6·25 때 인민군에게 밥과 식량을 제공한 사람과 4·3 때 폭도들에게 밥과 식량을 제공한 것이 같은가 또는 다른가?”라고 묻는다. 이어 “통일되면 탈북자들이 김정은을 그대로 둘 것 같은가,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또 묻는다.

또한 “군경에게 불에 탄 집을 보상하라는 재판을 한다면 기꺼이 참여해 뉘겠다”고 말한 뒤 이 재판은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사죄를 한 것이 잘 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며 스스로의 해답을 내놓았다.



도두2동 몰래물은 폭도 습격이 없었다

- 문 병 구 (文炳球, 31년생, 제주시 도두2동 신성부락)

- 2013. 4. 16. 증언

제주읍 도두2동 몰래물은 비행장으로 둘러싸여 폭도 습격이 없어 피해가 없었다. 당시 가구는 60여 가구이나 제주공항 확장으로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았다.

문병구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4살에 조실부모한 부친이 일본으로 가 제주읍 용담 출신 어머니 고을봉과 결혼, 2남6녀 중 차남이나 형이 낳은 지 얼마 없어 죽는 바람에 그가 장남이나 다름없다. 오사카 이마사또(금리·수리)에 있는 주물공장에 취직, 선남중기(공업계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 해방이 되면서 46년 3월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 고모 아들이 있는 용담 정뜨르(구 제주대학 부근)에서 잠시 살다 몰래물로 왔다. 일제 때 건설한 비행장의 저축부지로 빨간 줄이 그어졌지만 저축부지에 선대가 경작하던 밭이 3개나 있어 조, 보리, 콩 등을 경작했다. 비행장 부지는 제주읍내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였다.

문병구는 정뜨르 인척이 다니던 기름회사(정유사) 덕순사의 급사로 취직됐다. 덕순사의 사장은 박종실. 제주읍내에는 덕순사와 홍종언이 운영하는 홍종언상사, 이응후의 조개표 등 3개 기름회사가 있었다. 취직과 함께 48년 3월 오현중 야간부에 입학했다. 임창완, 임응규, 문상호, 다호의 박기생, 송여찬 등 8명이 오현중을 다녔다. 아침밥을 일찍 먹고 회사에 출근, 거의 점심은 건너뛰어 오후 5시 퇴근하면 막 바로 학교에 갔다가 공부를 마쳐 집에 오면 12시30분쯤 되고 호롱불에서 공부하다 잠이 드는 생활이었다. 당시 제주읍에는 12시까지 전기가 공급돼 비행장에 다다를 쯤에는 제주읍 시가지가 캄캄했다.

5· 10선거 때 마을 주민 3분의 2는 좌익들의 위협으로 산쪽으로 올라갔다. 문병구 가족 등 3분의 1은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다. 남아있던 청년들이 산에 올라간 집의 돼지를 잡아먹는 바람에 며칠 후 돌아온 돼지 주인이 청년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소동도 있었다.

도두2동에서 좌익 활동하고 입산한 폭도는 이00(22)과 임00(20), 선배인 김00(26)을 들었다. 도두1동의 경우 좌익이 드센 동부락과 우익 성향의 서부락으로 나뉘어져 마을 싸움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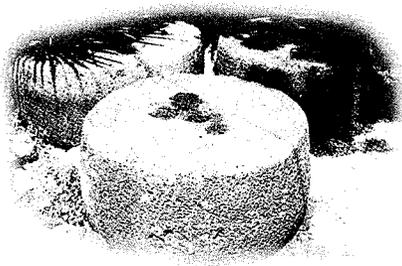
6· 25가 나자 문병구는 일본에서 중학교 때 단체로 해군 소년병 훈련을 15일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 해병대 지원을 결심했다. 도두2동에서 오현중에 다니던 8명과 제주농업학교 김두감, 임만국, 제주중 고00 등 11명이 해병대 4기로 입대했다.

해병 5대대 23중대에 배치된 문병구는 통영, 인천, 원산 상륙작전에 참가, 혈전을 벌였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51년 4월, 20여 일간 전투를 벌인 도솔산 전투. 13명의 분대(육군은 9명)에 3정이 배정된 BAR(자동소총)의 사수였다. 매일 수백 발을 쏘는 격전 중 부상을 당한 그날은 방아쇠를 당겼으나 실탄이 발사되지 않았다. 뇌관을 때리는 공이치기가 다 닳아져 발사되지 않은 것. 50m 후방을 낮은 포복으로 가 대대장에게 총을 던지고 썩은(납은) 총으로 전투하란다고 울분을 터뜨리자 대신 M1을 췌다. 이날 분대장은 복부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 문병구도 방망이 수류탄 파편에 양쪽 다리와 왼쪽 팔을 다쳤으나 아픈 줄도 모르고 전투가 끝났을 때 동기생이 다리에서 피가 흐른다고 말하자 아파왔다. 전투는 오전 8시쯤 시작돼 점심도 거른 채 오후 5시쯤 끝났다.

동기생 임창완의 안내로 트럭을 타 야전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이튿날 군의관이 중상자와 경상자를 분류했다. 경상자는 야전병원에 남도록 하고 중상자만 진해병원으로 후송토록 했다. 그는 중상자로 진해병원에서 한 달여 치료를 받고 부산 용두산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로 배치됐고 이어 남포동에 있는

장교물품 보급부대겸 생활지원부인 흘병(恤兵)부대에 있다가 53년 2월 독자 의가사로 제대했다. 계급은 일등수병(상병). 도솔산 전투에서 주간 전투는 병력 손실이 많아 고전했으나 야간 전투로 승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제대 후 문병구는 1살 위인 고산의 김정생과 결혼했다. 슬하에 3남4녀를 뒀다. 59년부터 해운국(후일 해운항만청)에 취직됐다. 수당이 많은 등대지기를 자원했다. 마라도에서 5년 등 산지, 우도 등에서 몸이 아파 퇴직할 때까지 모두 15년간 근무했다. 부상이 후유일까 다리가 성치 않아 걷는 대신 자전거를 타 일을 본다. 동기생들은 지금 모두 세상을 떠나 그 혼자만 남았다.



젊음을 바다에서 생활했다.

- 강 경 하 (康景廈, 27년생, 제주시 도두동)

- 2013. 4. 10. 증언

제주읍에서 4km쯤 떨어진 해변 마을 도두동은 1, 2구로 나뉘어져 당시 2백 50가구 남짓했다. 몰랫물, 사수동으로 이뤄진 도두2동 상당수가 후일 제주 공항 확장으로 공항에 편입됐다. 도두동은 좌익세가 드세어 5·10선거도 치르지 못한 마을이다.

강경하는 도두동에서 11대째 내려오는 강씨 가문으로 토박이. 부친 강인수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4년제 도두사립보통학교를 나와 현 제주 서중 서쪽 2년제 공립 제주간이학교(*빌렛학교로 5년제 서당, '제주4·3구술 자료총서 06' 197쪽)를 졸업한 것은 16살 때. 졸업 후 목포 죽동 공설시장 앞에서 포목점을 하는 작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군 군속으로 뽑혀 전쟁터에 갈 것 같다며 모친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독촉하여 해방 직전에 도두리로 돌아왔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7살 위 오창도와 또래 친구 등 4명에서 동업으로 노를 젓는 어선을 탔다. 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서로 허물없이 친구처럼 생활했다. 서쪽으론 한림 비양도에서 동쪽으론 제주읍 산지 바다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잡았다. 당시 어획 방법은 외줄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 묶은 자기가 잡은 것만치 각기 챙겼다. 4·3이 발발하면서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출항하려면 까다로운 증명서가 있어야 했고 자칫 도망치려한다는 오해도 있어 그만뒀다.

21살 때 한 동네에 사는 17살 장두삼과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는 6남매(4남2녀)를 뒀다.

강경하는 우익으로 대동청년단 도두분회 교도계장을 맡았다. 당시 청년단원은 10여명, 도두분회장 김승옥은 어머니와 동생, 누이동생 등 3명이 폭도에게 살해됐다. 좌익들의 위협으로 그는 제주읍내로 피신을 갔다. 때마침 친구인 오창집이 경비대 9연대 중사로 있었고 관덕정 부근에 집이 있어 그 집에 방을 빌려 생활했다. 이따금 김인선이 단장이었던 대동청년단 본부 사무실을 찾아가 소일했다. 개인집에 있던 도두지서가 제대로 사무실을 가지면서 도두리로 돌아왔다. 경찰 2~3명, 단원 10여 명과 함께 한두 차례 토벌에도 참가했다. 남주봉 뒤에 있는 검은오름(생이오름)까지 갔으나 성과는 없었다. 도두에 성을 쌓고 동서남북 길목에 있는 초소를 순찰하는 일도 맡았다.

4·3 기간 동안 측후소에 다니는 3살 위 큰 형 강경택이 무사했고 9촌숙인 강응지(28)만이 정월 명절 부근 폭도 습격 이튿날, 도두국교 박원일 교장 등 10여 명이 토벌대에 의해 총살될 때 희생됐다. 다만 작은 처남 장00(21)이 함덕지서 경찰관으로 있다가 선흥리 지경에서 죽었다. 이 장00이 4·3 당일 폭도들이 함덕지서 습격 때 입산한 장 순경이다.

강경하는 학교를 나와 해방 전까지 목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다. 좌익 운동의 거물로 알동네의 문00(23)만을 기억한다.

6·25가 나자 8월 15일에 도두리 청년 20여명이 육군에 지원, 제주읍 향교에서 훈련을 받고 10여일 후 LST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후 바로 대구로 갔다. 마을 청년 7~8명이 5사단 공병부대로 배속됐다. 1주일 후 공병부대는 경기도 가평으로 배치됐다. 50년 12월 31일 낮 12시쯤 지뢰 매설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시덤불 사이로 난 길에 들어섰을 때 강경하는 인민군이 놓은 지뢰를 밟고 말았다. 정신을 잃어 저녁 7시쯤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다. 같은 분대원으로 있던 고향의 7살 위 김동규가 그를 들쳐 엮고 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강경하는 다행히 오른쪽 발목 큰 뼈만 다쳤고 절단하지는 않았다. 대구 1육군 병원에서 3개월 간, 이어 부산 3육군병원에서 다시 3개월여인 51년 6

월 20일 목발을 잡고 하사(병장)로 제대했다. 도두에 온 제대 후 1년간도 목발 생활을 했다.

잠시 동력 어선을 운영하다 제주~부산간 여객선 제주호 선원으로 갑판장이 됐다. 6년간 근무했고 외항선(화물선) 갑판장으로도 있다가 제주~부산간 여객선 아리랑호를 탔고 국내에서는 처음 카페리호인 3000t급 킹카페리호를 일본에서 인수할 때 인수자로 일본에 가 그 배를 몰고 왔다. 이어 제·부간 여객선 도라지호 갑판장으로 있다가 58세로 정년퇴임했다. 강경호는 젊음을 바다에서 보낸 셈이다.

도두동은 독일에 있는 학자로 경계인으로 알려진 송두율 교수의 고향이다. 그의 숙부 송계남(31)이 4·3때 죽었다.



도평리 집단희생은 함정토벌일까?

- 박 성 두 (朴性斗, 31년생, 제주시 도평동)

- 2013. 3. 12. 증언

도평리는 본동과 신산동, 알동네(하동), 사라동, 창호동 등 5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뤄졌고 당시 400여 가구로 큰 마을이다.

박성두는 5남2녀 중 넷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8·15해방 직후 마을 개인집에서 연 서당에서 김00 훈장을 스승으로 한문을 4·3 직전까지 배웠다. 일부 청년들이 왜 중국글을 배우느냐는 야유도 있었으나 15명이 함께 공부했다.

도평리에는 48년 4월 18일 새벽 폭도들이 습격, 선거기록을 빼앗았고 5월 1일 선거관리위원장인 박형종(24, *박경후 전 도교육위원 부친)이 폭도들의 칼에 찔려 숨졌다. 이때 신산동 이원백도 납치됐다가 죽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6~207쪽)

49년 1월 3일은 박성두 둘째형 박성범(27)이 도평초교에 모였다가 마을 청년 60여 명과 외도로 끌려가 숨졌다. 이날 박성두는 부친과 어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겪는 큰 형 박성윤(30), 둘째 형과 함께 도평초교에 모였다가 둘째 형이 변을 당한 것. 이날 박성두의 또래 문두석(19), 최홍빈(17) 등은 키가 크거나 어른스럽게 보여 함께 잡혀가 죽었고 박성두는 어리게 보여 화를 면했다.

박성두는 이날 비극이 창호동에 있는 말 방앗간에서 식량을 줬어진 양 00(24)가 외도에서 올라온 토벌대에게 붙잡히면서 일어났다고 밝힌다. 토

별대는 군경과 청년단 등으로 구성됐다. 양00가 식량을 “산에 올려 간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토별대는 이로써 도평리를 빨갱이 마을로 규정하고 마을 주민들을 도평초교에 모이도록 한 것이다. 토별대는 창호동에서 본동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길에 10여 가구의 집에 불도 질렀다. 양00는 학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나중 토별대에 잡혀 죽었다. 토별대는 이날로 소개령을 내렸고 학교와 마을을 불태웠다.

박성두 가족은 해질 무렵 내도(內都)로 내려가 남의 집 바깥채 방 한 칸에서 1년여 이상 피난 생활을 했다. 이때 셋째 형 박00(26)은 몇몇 청년들과 함께 산으로 도피했다. 박성두와 함께 해병대 14기로 군대를 갔던 이윤희도 도피했었다. 박00은 귀순하여 제주주정공장 터에 수용됐다가 49년 7월 1일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받아 행방불명됐다.

형이 수용됐을 때 내도에 있던 도평리 출신 이창일이 박성두에게 ‘형을 내기 잡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창일의 동생 이창배(17)는 눈오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토별대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창일은 동생이 토별대에 의해 죽었기 때문일까 주정공장에 수용 중인 도평리 출신들을 폭도로 지목하는데 앞장섰다.

폭도들은 이창일이 눈에 가시였다. 폭도들이 이호 현사동 습격 때 이창일 대신 그의 아버지 이만중(49)을 끌고 가 죽였다.

도평리의 집단 희생은 폭도인 양00가 토별대에 붙잡히면서 비롯됐는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함정토벌의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300쪽과 403~404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읍 도평리 주민들의 집단희생은 함정토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9년 1월 3일 이른 아침 허름한 갈중의(*감물을 들인 전통적인 제주 노동복)를 입고 총을 든 무리가 제주읍 도평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에게 “동무, 동무”하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인공기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집안에 들이닥쳐 “왜 너희들은 산에 협조하지 않

느냐”고 다그치면서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그런데 인공기를 들고 갈증의 입을 이 무리는 무장대가 아니라 인근 외도지서 경찰과 특공대원들로서 주민들에게 합정을 판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 중 일부는 그 무리 중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합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양경하(梁京河, 22)는 “빨갱이면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다. 마을 유지인 김병해(金秉海, 58)는 외도지서 주임 김영철(金永哲)에게 욕을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주민 70명 가량이 총살당했다. 한 증언자는 “환갑이 넘은 김성규라는 분은 학교 운동장에서 지목 당하는 바람에 부인, 아들, 며느리, 어린 손자 등과 함께 6명이 몰살당했다”고 증언했다.”

도평리에서 좌익 활동의 지도자는 명진서당을 나온 김00(22), 공부를 많이 한 윤00(27), 최00(24) 등으로, 높은 사람이고 윤00의 영향으로 중학 출신 독자인 윤00(20), 윤00(25) 등이 폭도와 관련이 있다.

김00(20)은 김00 훈장의 아들로 일본으로 밀항하여 도피했다. 최00(22)은 길에서 다니다 경찰에 잡혀 갔다가 온 후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광령 지경 속칭 ‘들렁기소’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사실상 4·3 희생자와는 무관하다.

박성두는 52년 1월 마을 벽보관에서 ‘해병대 모집’ 공보를 보아 입대를 결심했다. 이윤희와 진해 해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새로 창설되는 도서(島嶼)부대(중포중대) 소속으로 백령도로 갔다. 4·2인치 박격포 사수로 백령도를 사수하다 56년 12월 일등수병(상병)으로 제대했다. 제대 후 마을청년 회장을 3~4년 했고 새마을지도자로도 일했다.

봉개리 청년들은 모두가 폭도나 다름 없었다

- 김 승 추 (金承樞, 22년생, 제주시 오라3동 월구마을)

- 2013. 7. 25. 증언

제주읍 봉개리 청년들은 한때 모두가 폭도였다. 봉개에 폭도들의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폭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3·1사건 남로당투쟁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이후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영관(김용관)이란 거물이 봉개 출신이다. 김달삼의 비서실장격을 맡았던 박태전도 봉개 출신이다.

김승추는 부친 김문진, 모친 고은옥 사이에 3남2녀중 2남으로 명도암에서 태어났다. 머리가 어두워 글을 배우지 못했다지만 명도암은 한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마을이어서 천자문은 익힌 듯하다. 부친과 11살 위의 큰형 승윤이 번갈아 가며 명도암 마을 반장을 맡았다. 명도암에서 일본으로 징용간 사람은 김두식과 김승제 2명 뿐. 대신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모두 정뜨르 비행장 건설에 차출됐다. 김승추는 아버지 대신 정뜨르 비행장 함바집에 1년여 살며 일했다. 부친은 명도암에 있는 잔디를 캐 마차로 실어 날랐다. 곡식 공출에 이은 잔디 공출이었다. 당시 부읍장이었던 신두방은 호랑이 역할이었다. 그는 보리 공출 때 공출량이 부족하면 “머리(목)을 잘라서라도 무게를 보충하라”고 성화였다.

43년째 명도암에 일본군 연대본부(후일 본부는 삼양봉으로 이전)가 주둔했다. 정뜨르 비행장에서 일하는 대신 명도암의 연대본부의 명령을 받아 일하게 됐다. 명도암에는 7개봉(峰)이 있다. 뒷새미오름, 안새미 오름 형제봉과 여란지오름, 청조모를(푸른새오름), 칠오름 1, 2, 3봉 등이다. 이 오름에

땅굴을 파 요새를 만드는 작업이다. 2년여 땅굴 파는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일본군 고조(하사관)와 함께 단 둘이 봉개에서 명도암으로 오는 길에 또래의 그 일본군은 의미심장한 말을 그에게 말했다. “대동아전쟁은 끝났다. 졌다. 그러나 20~30년후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했다.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말이었다. 허나 기뻐다, 해방된 것이다.

3·1 시위 때 김승추는 제복초교에 가지 않았다. 4·3이 가까울 무렵 명도암에는 오름에 햇불이 잦았다. 5·10 선거 때는 3형제가 물장오리 아래 ‘돌머룻이’까지 도피했다.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48년 11월 오라리 연미마을이 불 탈 때 명도암도 불탔다. 부모와 조카들은 삼양 ‘맨촌’(도련2동)으로 소개하고 3형제는 ‘큰 노루숭이’와 ‘작은 노루숭이’ 오름 일대 굴을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다.

49년 봄(5~6월) 귀순하자 봉개지서로 넘겨지고 또 토벌대 군 1개 소대가 주둔하던 명도암에서 조사했다. 당시 군인들이 김승추에게 명도암에 있으면서 심부름하라는 것을 형과 동생과 함께 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 대대본부가 있던 교래를 거쳐 읍내 동척회사로 수용됐다. 큰 혐의가 없어 3형제는 풀려났다.

그러나 폭도의 마을로 낙인찍힌 봉개마을이었기에 그가 동척회사에 있을 때 폭도로 누명을 뒤집어서 위기가 있었다. 화북으로 피난갔던 김두수(*김순휴 교육자 부친)를 살해한 혐의였다. 한 달여 고문을 받으며 시달렸다. 천만다행으로 나중 폭도로 잡힌 강곤추가 자백하여 시신은 도련지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누명이 벗겨졌다.

봉개는 남로당의 거물 김영관과 그의 누이, 오누이가 좌익 활동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봉개리는 큰동네는 김해 김씨, 천안가름은 고씨, 서동네는 성강씨, 동동네는 수산 강씨, 중간동네 장성발은 임씨 등의 집성촌이었다.

봉개 청년 모두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폭도 역할을 안 한 사람은 없다. 봉개 인민위원장은 김00(28), 00 동생 김00(26)도 폭도 간부를 맡았고 8촌 형제 김00(29)도 폭도로 활약했다. 임00의 아들 임00(24)은 청년대장

을 맡았다. 김00(22), 김00(21) 형제도 폭도였다. 폭도 역할을 한 청년은 많으나 총을 들었던 폭도를 중심으로 이름을 든다. 도련 출신인데 작은 아버지 밑으로 양자를 온 소학교를 나와 똑똑했던 고00(28) 등 고씨도 많다. 고00(25), 고00(28), 고00(25), 고00(22) 등이 폭도였다.

봉개리 구장 고일출(42)은 성질이 곧고 리더십도 있어 일제 때부터 4·3 때까지도 구장이었으나 모략을 당해 6·25후 재검속 때 붙잡혀 총살됐다. 가까운 인재였다. 삼양파출소에서 폭도 연락책으로 혐의를 받고 있던 김00의 처(봉개리 임00 작은 고모)는 봉개초교에서 총살됐다. 반면 인천 하르방(할아버지)으로 알려진 김구석은 폭도들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며 폭도들에 의해 살해됐다.

50년 5월 하순 누님이 살고 있는 오라3동 월구마을로 간지 한 달 만에 6·25가 났다. 김승추는 왼쪽 귀가 멀어 말이 안 들리는 신체장애가 있다. 신체검사 때마다 피병을 부린다고 닭달을 당해 곤욕을 치렀다. 동생은 육군에 입대, 참전했다가 1년 만에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제대했다. 부산 육군병원에서 보호자를 오도록 하여 김승추 어머니가 부산으로 가 아들을 데려왔다. 그의 동생은 병이 자꾸만 도져 결국 죽었다.

김승추는 70년대 중반부터 감골밭을 조성했다. 감골밭을 조성하면 주변에서 팔도록 하여 재산을 모아 4남1녀의 자녀들에게 집들을 모두 마련해줬다. 현재 연동과 월구마을 경계에 감골밭 1,200평, 민오름 주변에도 2,400평의 밭이 있다. 마을노인회관을 지팡이 없이도 다닐 정도로 노익장을 자랑한다.

서북청년단에 끌려간 사실을 민애청은 알고 있었다

- 이 방 식 (李芳植, 31년생,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 2013. 5. 15. 증언

애월읍 장전리 한 농장에 도착하고 증언자의 이름 이방식을 떠올렸을 때 김태혁 전 교육감이 동창생이라고 하는 순간 집 앞에서 풀을 베고 있던 이방식이 활짝 웃으며 동창생을 맞았다. 초등 교감을 지낸 사위와 초등 교사출신의 딸이 마련한 농장은 1,800여 평. 브루벨리를 심었고 닭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방식은 아버지 이정빈이 일제 때 초등교 훈도(교사)로, 근무지를 따라 함께 생활했다. 아버지가 김녕초교에 근무할 때 김녕초교에 입학, 국어는 일본어였고 조선어독본은 2학년까지만 배웠다. 5학년 가을, 조천초교로 부친이 전근되자 그도 조천초교로 전학, 21회로 졸업했다. 김태혁 전 교육감도 일본에서 귀국해 6학년에 편입돼 해방되는 해에 함께 졸업한 조천초교 동창생이다.

이방식은 5남 5녀 중 장남, 부친이 영향으로 교사를 지망해 광주사범 심상과에 입학했다. 그의 동기생에 강정은 전 교육감, 이동울(이기휴 서귀농림학교장의 아들)이 있다. 광주 송정리에 아버지 4촌(당숙)이 광주 서초등교 교감으로 있어 광주로 쉽게 진학한 까닭이 됐다. 학교는 기차를 타고 통학했다. 한 살 밑 6촌 이병석은 광주서중 2학년으로 친구처럼 지냈다. 광주사범 1학년 때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전쟁의 막바지일 때여서 기름을 뽑는 다며 무등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캐러 나섰고 광주 비행장의 활주로 땅 고르기 등 근로봉사에 전교생이 동원됐었다. 작업 도구를 갖고 오지 않은 일본인 학생들을 혼내는 일은 그가 도맡을 정도였다. 8월 초 비행장에서 작업 중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집에서 요양하던 때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

는 발표를 들었다. 8·15 해방의 순간이었다.

46년 8월 17일 여름방학으로 목포에서 한려(황영호?)호를 타고 산지항에 입항했는데 제주도 전역에서 호열자(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며 미군정 관리와 의사가 승선, 제주상륙을 금지한다고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게 했다.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주먹밥이 식사 전부였다. 그때 40대 여인이 죽자 내항에서 외항으로 쫓겨났다. 뱃간에서 누군가 “계수나무 은하수 하얀 쪽배에...”, 처음 듣는 조선 민요를 부르자 뒤따라 부르다가 어느새 모두가 배위 합창하게 되었다. “뚝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합창할 때 기관을 끄고 닻만 내려진 상태의 여객선은 바다 물살에 따라 내항으로 들어섰다. 의사가 승선하여 외항으로 다시 나가도록 하자 승객들이 폭동 직전까지 이르렀다. 의사에게 격렬한 항의가 잇따르며 죽이겠다는 거친 말도 난무했다. 7일 만에 상륙허가가 났다. 선창가에는 해방 후 함덕초 교장으로 있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골에 큰 아버지 이규빈이 살고 있었지만 달빛이 밝히는 밤길을 걸어 2시간 반쯤 후에 함덕에 도착했다. 선상에서 지루한 1주일을 지내다 땅을 밟고 걷는 것이어서 발걸음은 가벼웠었다.

46년 10월쯤 당시 광주사범은 5년제이고 광주서중은 4년제인데 광주서중에서 열린 야구시합에서 광주사범과 광주서중 응원단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두 학교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난투극을 벌이기가 예사였고 기숙사 습격 사건도 있을 정도였다.

46년 겨울방학에는 서귀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이동울과 함께 탔다. 읍내 산지항에 당초 기항기로 예정됐으나 파도가 거칠어 배를 대지 못하고 모슬포항으로 갔다. 모슬포항에서 도선(전마선)을 이용, 모슬포로 가려다 도선이 뒤집히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허우적댔었다. 할 수 없이 서귀포항으로 가 이동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함덕으로 갔다. 겨울방학이 끝나 광주사범 학교에서도 ‘왜 오지 않느냐’는 연락이 왔지만 광주서중과의 싸움판이 자꾸 떠올라 광주로 가는 것이 싫었다.

함덕 집에 있던 어느 날 제주농업학교 5년생이던 외삼촌 고태훈(원?, 서울

에서 의대를 다니다 6·25 때 남북)이 찾아와 읍내로 가자며 끌고 간 곳은 제주농업학교. 외삼촌이 이미 2학년으로 편입 수속을 마쳤던 것. 수의 축산과 교실로 막 바로 데려가 인사를 시키고 ‘공부해’란 말을 남기고 외삼촌은 자리를 떴다. 그가 광주사범을 포기하는 바람에 친구 이동율도 광주사범을 그만두고 후일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다. 당시 교사는 임승원과 광주사범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양치중 전 교육감도 농업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동급생으론 홍문표(하도, 해병대 장교), 김홍수(한림, 전 중등 행정실장), 김대수(귀덕, 전 초등학교장) 등이었다.

47년 3·1 행사 때는 고학년은 없고 2, 3, 4학년생 100여명이 오현중을 거쳐 관덕정에 갔다. 관덕정 일대는 도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공서 밀집 지역이었다. 행사는 만세사건을 이야기하고 ‘유관순’ 이름이 들렸으나 감동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관덕정 앞 제주차부 앞쪽에서 어떤 청년이 현수막을 들었던 막대기로 기마경찰이 탄 말 궁둥이를 찔러 아픈 말이 놀라 날뛰는데 그 청년은 자랑스레 막대기를 흔들었다. 이방식은 불과 10여m 거리에서 이 순간을 목격했다. 말이 날뛰자 “경찰이 사람을 밟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고함소리와 함께 순식간의 군중심리로 “저 놈 죽이라”는 고성들이 터져 나왔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다. 모두 뿔뿔이 도망치기 바빴다. 이방식은 남문통을 거쳐 학교에 왔을 때 참석자 절반만 모였고 자율적으로 해산한 후 각자 집으로 갔다. 학교에서 교사의 인솔로 3·1 행사에 참석했었다.

47년 초여름 때, 아버지는 제주동초 교장으로 부임하여 관시는 북신로의 감찰청장 관사에서 서쪽으로 한 집 건너에 있었다. 인이어 고남준(고남화형) 교감 관사도 있었다. 점심도 학교에서 집에 와 먹고 갔다. 등학교 코스는 북신로-칠성동-관덕정-학교. 서북청년단의 근거지는 칠성동 돼지빵집이었다. 빵집을 막 지나쳐 몇 걸음 갔을 때 “어이 학생”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 보니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당시 농업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은 컸고 우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서북청년단원들은 대뜸 그에게 “너

학련에 가입했느냐”고 묻자 반발심도 작용해 “그런 데를 일체 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따귀를 때리기 시작 5~6차례를 맞았다. 거듭 “왜 안 드느냐(가입)냐” 추궁하자, “왜 드느냐”고 대들었다. 그때 한쪽 귀가 반쪽만 남아있는 한림 출신 5학년 선배가 나서며 “몇 학년이나”고 물었다. “2학년입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왔는지를 물었고 “학련에 안 든다고 말해 매 맞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사범 다닐 때 작업도구를 챙기지 않은 일본놈들을 혼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선배는 한림 출신들인 “2학년의 김홍수, 홍문표를 아느냐”고 묻자 “잘 안다”고 답해 학생임이 확인되자 “학련에 가입하라”며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북신로에 들어서자 집까지 가며 억울한 눈물이 쏟아졌다. 이때 경찰 간부들이 무리져 떼거리로 그의 앞을 지나쳤고 맨 뒤에 있던 한 간부(경위)가 그를 보고 왜 우느냐고 물었다. “학련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서북청년단에 매를 맞았다”고 하자 그 간부는 “참아라, 잊어버려라”고 다독거리며 달래고 갔다. 집에 가 책상에 앉았을 때 그분을 쯤처럼 식이지 못했다.

어느날 오OO(전 OO일보 기자), 이OO(이OO 전 도청국장 아들)과 한OO(김?) 등 3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한OO은 목포상업학교에서 편입한 친구로 후일 수류탄을 집에 은닉했다가 발각되어 총살됐다. 그들은 서북청년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복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길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애청에 가입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민애청에 대해 묻자 “알 필요는 없다”했고 서북청년단에 대한 반감이 한창일 때이어서 이방식은 “그러나, 들어볼까?”란 한 마디가 족쇄가 됐다. 분을 식이지 못해 무심코 던져졌던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가입한 것으로 인식(취급)한 셈이다.

한 달쯤 지난 뒤에 1년 후배가 그를 찾아와 가볼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며 앞장서 간 곳은 제주북초등교 뒷길에 있는 학련 사무실이었다. 낮 모르는 학생들이 그 앞에서 “민애청에 들었지”라는 심문에 그는 “도장도 안 찍었다.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바른말을 대라”며 따귀를 갈기기 시작, 실컷 맞았

다. 당시 친 누님 이순철이 여경 5~6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누나의 도움 없이, 끝내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애청 가입 시비는 후일 보도연맹에 가입사실도 없는데 가입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학교에서 관심이 없었던 탓이었는지 학련과 민애청간의 알력과 암투를 몰랐다. 세 대결도 모른다.

4·3 뒤 3학년이 되면서 학련에 가입하고 측후소(기상대) 밑에 있던 학련 사무실에 거의 매일 나갔다. 학련 사무실에서 훈련장이었던 제동초교까지 100여명을 인솔해 가는 인솔대장이 됐고 동초교에서 군가제창과 제식훈련 등을 시켰다.

6·25가 나자 2연대 때 군사훈련을 받았던 학생을 중심으로 학도병이 조직됐다. 농업학교 대대장은 김호산, 중대장은 송봉규로 1~4소대(소대 당 30~36명)로 편성됐다. 동초교 앞 제주여중에서 숙식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밥을 해줬다. 모자에 흰 띠를 둘러 학도병 표시를 하고 대전에 있던 5사단에 합류할 것이라며 사라봉에서 훈련을 거듭했다.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해병대 대원들은 걷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3보 이상이면 구보이고 포복하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 해병 3기생들은 남제주출신의 경우 북초교에서, 제주읍과 북제주 출신은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다. 사라봉에서 3기생들이 실탄훈련을 하고, 뒤따라 학도병들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짚차 2대가 나타나 훈련 모습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다.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과 김성은 대대장이다. 며칠 후 학도병들은 오현중으로 이동했고 신현준 사령관이 나타나 “제군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학도병들은 8월 18일쯤 도립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신체검사 합격증을 받고 오현중에 모여 해병대 입대를 자축하는 막걸리 파티를 한 후 각자 집으로 갔다. 28일 가입대되어 주정공장 창고에서 말고기 고사리 국을 먹었다. 해병대 3기생 모집 때는 학생들이 없었다. 최남식 교장 등 속칭 ‘제주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왕이면 해병대로 가자는 뜻이 모여진 것으로 본다. 8월 30일 입대하고 9월 1일 LST 2척에 나눠 타고 산지항을 떠났다.

LST 갑판 위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병대 5대대(대대장 김성은 소령)는 1~3 중대, 화기중대로 편성됐다. 여객선을 타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해병 1, 2기생이 어선을 타고 상륙작전을 펴 인민군 2개 대대를 섬멸한 후였다. 이들 인민군들은 거제도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소련제 쥘차 2대가 있었는데 그 하나에 김성은이 타고 다녔다. 이 방식은 대대본부에 배치됐다. 배치된 10여일 후 김성은 대대장이 그에게 근황을 묻자 “재미가 하나도 없다, 심심하다”고 답하며 일선 중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화기중대로 보내져 중대본부에 배치됐다. 9월 15일 인천상륙이 개시되고 서울로 진군할 때 해병 1대대는 경인도로를 따라 연희고지로, 2대대는 행주나루로, 3대대는 잠실 쪽이고 5대대는 1대대 뒤를 따랐다. 중대본부에서 박격포소대로 또 자원, 한성중학교에서 소대가 주둔할 때 반장을 따라 대청대원 사무실에서 얼굴이 미인인 이화여대 2년생이 민애청 활동을 하다 끌려온 것을 보았다. 반장이 여대생에게 전향하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종용했으나 끝내 거부하여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아 첫 시신을 보게 됐다.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 각종 전투에 참가, 1·4 후퇴로 흥남에서 철수하여 진해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 강도는 전투 때보다 더 션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땀을 더 많이 흘려야 한다”고 훈련을 거듭했다. 52년 2월 헌병이 됐고 제주헌병대에서도 근무하여 61년 8월 일등병조(중사)로 제대했다.

28살 때 두 살미의 남문통 출신 고순희와 결혼했다. 초등학교사를 지낸 고순희와 슬하에 2남1녀를 두었다.

그의 제대를 기다리던 해병대 장교 출신 김동규가 재건국민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총괄하고 있었다. 재건운동본부가 해체될 무렵 관계, 정보계통의 진출을 권유 받았지만 농사를 택했다. 선흘리에서 7,000평에 오가피를 심었고 오가피발전연구회장도 역임했다.

이방식은 “4·3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 폭도들의 죽창으로 양민들을 죽인 만행들을 언론매체들이 왜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탈영 군인들이 5·10 선거 반대를 칭찬했다

- 문도현 (文道現, 30년생, 제주시 아라2동 금천동·걸머리)

- 2013. 8. 28. 증언

제주시 아라2동 금천마을의 옛 이름은 '거마리'(걸머리)이다. 1600년경 진주 강씨, 제주 부씨가 물을 찾아 지금의 금천물 일대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그 후 제주 양씨와 연주 현씨가 화북의 거로와 이호동의 오도룡에서 오면서 촌락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된 후 남평 문씨가 입촌했다고 전해진다.

문도현은 일제 때 공출로 식량이 부족하여 늘 굶주렸고 11살이 되어서야 화북초교에 입학했다. 화북초교에는 일가 문구반이 1년 선배이고 사촌형 문도태와 아라1동 인다라의 김보식 전 아라동장(마산형무소 복역 후 석방)이 동창이며 문영신은 1년 후배이다. 걸머리의 가구 수는 50~60가구, 걸머리에서 화북초교에 다닌 학생은 5명이다. 뽕 반, 걸음 반 학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고 책가방 대신 보따리를 허리춤에 매고 게다는 손에 들고 맨발로 학교까지 간 뒤 정문에서 게다를 신고 교내로 들어갔다.

해방이 된 것은 문도현이 초교 5학년 때, 46년 2월 오현중(졸업 2회, 이군보전 도지사는 1회)에 6학년생과 함께 입학시험을 보아 합격했다. 그러나 1달여 학교를 다녔으나 월사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했다.

47년 3·1 시위 때 문도현은 몰랐고 걸머리에서 집단 참가는 없었다. 하지만 걸머리에서 현00(현씨 종가, 아들은 현00)과 현00(27)의 집에 남로당 골수분자들이 저녁마다 찾아와 마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산당 세뇌교육이 시작됐다. 현00은 한라산으로 피신했다 4·3 끝 무렵 귀순하여 후일 고향에서 병사했다. 현00은 이 마을 좌익활동의 주동자이다. 문도현이 한라산에서 피신하여 다니다 한라산 상жат과 중жат 사이 '좁은 허리'에서 마을 사람

50~60여 명이 피신하고 있을 때 권총을 차고 2~3차례 방문했다. 한때 그는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풍문도 있었다. 그의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연좌제로 임용이 되지 않자 자살했다. 이들 때문에 현00(34)와 양00(30) 등이 좌익활동을 했고 현씨 일가 10여 명이 희생됐다. 문도현의 장인 현00(56)와 처형 현00(37)도 목포형무소로 가게 됐고 6·25로 희생됐다.

문도현은 부친 문무양과 모친 김계생 사이에 2남1녀 중 장남이다. 부친 문무양은 결혼 후 일본에 가 일하며 3년에 한번쯤 고향을 다녀가 할아버지 문서규가 그를 키운 셈이다.

48년 5·10선거 때 동틀 무렵 새벽에 마을 사람들은 걸머리 출신 아라2동 구장 양성수 인솔로 한라산을 목표로 피신키로 했다. 오래 걸질 못하는 문도현의 할아버지와 모친, 동생들은 집에 남겨 두고 문도현은 혼자서 나섰다. 걸머리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마을에 남겨두고 17세 이상 청장년 1백여 명만 피신키로 한 것이다. 마을에서 3km쯤 떨어진 '큰모루'에서 총을 든 군인 20~30명과 만났다. 군인들은 이때 "선거를 반대하여 잘 도망쳤다"고 칭찬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한라산 쪽으로 오르지 않고 그쪽에서 머물다 저녁에 돌아왔다. 후에 들은 이야기는 이들이 탈영 군인들이었다.

가을걷이 추수가 끝날 무렵 11월 초순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잘 곳이 없어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조부와 모친은 서광양 친족 집에, 동생과 여동생은 남문동의 외가집으로 소개했고 그는 마을 몇 사람과 함께 떠돌이 피신생활이 시작됐다. 뿔뿔이 나뉜 것은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문도현은 삼의악(삼양오름) 아래 하천에 있는 작은 동굴 등에서 피신했다가 토벌대의 추격에 따라 한라산 중턱 좁은 허리 남쪽까지 올라갔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 50~60명이 피신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와 땅속에 파묻어 숨겨 놓았던 고구마, 무, 조 등 식량을 갖고 올라갔다. 고래(맷돌)까지 주민들은 갖고 간 터여서 탈곡하지 않은 조를 고래로

갈아 죽을 쑤어 먹었다. 겨울이 들면서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고 굶주림이 계속됐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행기가 귀순 뼈라를 날렸다. 문도현은 결심했다. '이렇게 굶주려 죽으나 귀순하여 죽으나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자 49년 2월쯤 마을 사람들 몰래 혼자서 봉개에 있던 당시 함명지서로 가 처음 귀순했다. 지서에서는 동척회사로 넘겼다. 경찰의 조사가 있기도 전 이튿날 헌병이 불러 헌병대 사무실로 갔다. 헌병대에는 때마침 외할아버지 집 바깥채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 문관(군속)으로 있었다. 그의 도움일까 3개월여 사무실 청소와 심부름을 하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도현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다. 문도현은 17살 때 장티푸스를 6개월여 앓았다. 동네에서는 높은 열로 심하게 앓자 죽었다고 알려졌을 정도였다. 병이 낫자 머리털이 모두 빠져 나갔다. 이즈음 집 앞 울레에 있던 큰 감나무 밑에서 힘없이 지팡이를 짚고 앉았는데 오라 사람 경찰 정보원 김규찬이 그를 보고는 화물차 짐칸에 태우고 데려 간 곳은 제주경찰서였다. 하루 밤을 자고 나서 '폭도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며 전기고문을 받다 기절했다. 결국 포고령 위반죄로 3000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3000원은 집에 있던 밭갈이 검은 소 1마리 값이다. 어머니가 소를 팔아 벌금을 내고 15일만에 경찰서를 나왔기에 소개를 갔다가 경찰에 다시 잡힐까봐 산으로 피신한 것이다.

문도현은 50년 8월 30일 해병대 4기로 입대, 5대대 2중대 2소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입대 전 마을 친구 현경하((20)는 그와 함께 4기로 합격, 예비소집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그는 광양길로 올라왔으나 현경하는 삼성혈쪽 길로 올라오다 삼성혈 앞쪽에서 경찰의 2차 검속에 걸려 결국 희생되고 말았다.

문도현은 동영, 인천상륙, 서울 수복, 원산상륙 작전 등을 거쳤다. 50년 12월 함흥 추동리에서 옷을 뒤집어 입고 척후소대로 눈 덮인 산골짜기 5~6가구의 마을을 수색하다 중공군 1명을 생포했다. 선임하사가 약간의 중국어를 할 수 있어 포로를 통해 중공군의 부대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척후소대는 1개 대대의 중공군 부대를 포위하여 밤새워 공격 끝에 섬멸했다. 1개

소대가 1개 대대를 완벽하게 무찌른 것이다. 이 공로로 문도현은 충무무공 훈장을 받았다. 이때 중공군은 3명 중 1명만이 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비는 형편이 없었다. 1·4후퇴 후 진해에서 재편성돼 경기도 김포 옆 조강포에서 나룻배를 타고 개풍군 점령을 목표로 도하작전을 펴다 적에 발각돼 작전은 실패했고 그는 오른쪽 엉덩이에 총탄을 맞았다. 진해 해군병원에서 1개월여 치료를 받고 당시 농업학교에 있던 제주해군병원에서 3개월여 있다 53년 3월에 제대했다. 군 제대 후 1살 밑 같은 마을 현순영과 결혼하여 2남을 두고 있다.

53년 6월 한라산 토벌대 경찰관 시험이 있었다. 600명이 응시해 200명이 합격했는데 문도현의 성적이 합격자 중 1등이었다. 문도현은 경찰국 보안과로 배치됐고 그때 보안과장이 강달용이었다. 문도현은 머리가 명석한데다 얼굴도 미남인 탓에 강달용 과장의 총애를 받았다. 강 과장이 경찰서장으로 옮기면서 수상파출소에서 3년, 목포여객선 이동경찰 3년 등 일컬어 요직인 곳에서 6년간을 보냈다. 호남 출신 차장검사가 목포여객선을 통해 보해소주 장사를 하는 것에 심부름도 해 뒷줄이 든든했다. 이어 수사과로 배치됐을 때 죄인을 취조하는 일에는 적성이 맞지 않아 7년 만에 경찰을 그만뒀다.

잠시 농사를 짓다 38살 때 제주시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 봉개동사무소 직원으로 시작하여 건설과 관리계장 등을 거쳐 화북동장을 끝으로 18년간의 공직을 마감했다. 이어 마을에서 금천마을 노인회장 3년, 아라동 노인회장 4년, 무공수훈자회 아라동 분회장을 8년간 역임하고 있다.

문도현은 “제주의 4·3에서 폭도들이 잘못을 숨기고 경찰의 잘못만을 부각했듯이 오늘날도 정치권에서 중복세력을 옹호하여, 그들의 술책에 놀아나고 있어 나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무장대와 내통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무기형을 받아 처형된 아라리 출신 경찰 현보하(24), 채홍훈(23)에 대해 “아라리에 토벌 계획이 있으면 사람을 미리 보내 도망가도록 말해주어 주민 희생을 없도록 했다”며 이것이 내통한 혐의가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우리 마을엔 폭도가 없었고 폭도의 피해도 없다

- 오 영 길 (吳英吉, 33년생, 제주시 아라1동 대원동)

- 2013. 7. 31. 증언

아라1동은 인다(仁多)와 아란(阿蘭)과 매전(梅田), 대원(大垣)과 장구(藏龜), 구산(龜山)과 계동(溪洞), 산천단(山川壇) 등 8개 자연 마을로 이뤄졌다. 아라1동의 가구수는 200여 가구, 인다가 가장 큰 50여 가구, 대원과 장구도 40여 가구를 넘었다. 인다·아란 마을의 설촌은 600여 년 전이고 군위 오씨, 담양 전씨, 경주 김씨등이 살아 삼성촌(三姓村)으로 일컬어졌었다. 대원동은 아란에서 살던 군위 오씨가 옮겨 와 사면서 마을이 이뤄졌다.

군위 오씨의 오영길은 부친 오형찬, 모친 양계생 사이에 2남1녀 중 차남으로 대원동에서 태어났다. 일제 때 창씨개명으로 부친이 자식들을 호적에 올릴 때 나이를 모두 5살 아래로 올렸다.

오영길은 9살 때 개량서당인 삼공서당을 바탕으로 41년 설립된 간이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학교(*그는 아라초등학교로 생각)는 아라1동 마을회관(현 초교 남쪽)에 있었다. 학생들은 아라1동은 물론 오등·죽성, 영평, 월평, 아라2동 등으로 한 학급 학생이 40여 명이나 됐다. 두 살 위 형 오기남은 2년제 간이학교를 졸업하여 학업을 끝냈다. 같은 학년으로 대원동에서는 현재 오등에 살고 있는 전정식과 오영길 등 남학생은 2명 뿐이고 양기순, 오순자, 김영옥 등 여학생으로 6명이었다. 해방이 됐을 때는 4학년 때, 학교는 아라2동 공회당(현재 어린이집)으로 이전하고 45년 10월 아라공립국교로 승격됐다. 오영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5학년으로 진학치 못하고 4학년으로 끝냈다.

47년 3·1 시위 때 오영길과 그의 형은 제북초교에 가지 않았다. 나중 아

라동 사람 오문수(34)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48년 5·10 선거 때 나이 많은 할머니만을 집에 남겨두고 부모가 가자고 하여 여란지 오름에 있던 초가집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족이 모두 갔다. 선거 이틀 전 밤 그날은 비가 억수로 내렸다. 초가 처마에 잇대 소나무 등으로 엮어 비를 피하도록 한 곳에 머물렀다.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아 이틀 밤을 그곳에서 잠잠지만 밥을 먹은 기억이 없게 굶주리다 집으로 돌아왔다.

48년 5월 8일 오전 9시쯤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죽창을 든 폭도 10여 명이 죽성 마을을 습격, 이 마을 구장 김경종(金曠琮, 당시 42세) 집에 가 그가 없자 구장의 어머니 박사일(朴士一, 72)과 딸 희진(熙珍, 당시 12)을 죽창으로 마구 찔렀다. 김 구장의 어머니는 다음날 숨을 거뒀고 딸은 중상을 입었다. 폭도들은 김구장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웃집에 있다가 자기집이 불타는 모습을 본 김 구장의 처 김죽현(金竹賢, 42)은 2살 짜리 찻떡이(김희식)를 입고 집으로 달리오다 올레에서 폭도들에게 맞닥뜨려 찻떡이와 함께 살해됐다.

이날 폭도들은 아라1구 구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영창(金永昌,* 김남식 전 제주시의원 부친)을 습격, 그의 아내 현정춘(玄丁春)도 학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라리는 소위 ‘폭도마을’로 규정돼 토벌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고 ‘아라동지(我羅洞誌)’가 밝히고 있다.

-‘아라동지 2008’ 202~203쪽, 207쪽 -

오영길은 일제시대부터 마을 사람들로 부터 아라1동의 김영창과 죽성·오동의 김창종을 ‘만년구장’, ‘명구장’이라 일컬어진다고 밝힌다. 대원동에서 폭도가 없는 것도 김영창의 지도력 때문으로 본다. 대원동은 폭도들의 피해도 없다.

48년 11월 중순 마을이 소개됐을 때 오영길 가족은 현재 공설운동장 부근의 오라동 ‘남새’ 셋 고모집으로 갔다. 4형제의 오영길 부친 형제 중 셋아 버지만 용담쪽으로 소개를 갔고 3형제가 고모집으로 피난을 갔으니 북새통

이 됐다. 오영길 가족은 부엌 옆 마루(젓방마루)를 차지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부엌과 소외양간에서 생활했다. 오영길은 구학문이 높았던 외할아버지 양두추가 오라1동 공회당에서 자리를 잡자 그곳에서 있었다.

오영길 가족에도 불행이 찾아왔다. 49년 2월 24일(음력 정월 27일) 혼자 식량을 가지러 대원동으로 갔던 그의 형님 오기남의 소식이 끊긴 것이다. 사촌 누님 오갑추가 제주경찰서 감방에서 석방된 후 오영길 가족에게 그의 형이 감방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과 언제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형의 제사는 형의 생일날 치른다. 형의 죽은 호적 나이는 만 16살. 나이를 5살 낮췄기 때문이다. 형은 신체가 건장했다, 이 때문에 실제 나이가 드러났을지 모르겠다.

오영길은 21살 때 구산 마을의 한 살 밑 김갑생과 결혼했다. 족도리와 사모관대를 하고 말을 타 신부 집에 갔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집으로 왔다.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아라1동은 제주읍에서 처음으로 49년 3월초 아라초교를 중심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다. 성의 넓이는 동서로 약 150m, 남북으로 약 200m, 높이는 약 5m, 넓이 하단은 2m, 상단은 1m로 쌓았다. 해변으로 소개했던 아라1·2동 주민과 오동동 주민들이 성 쌓는데 동원, 20여 일만에 완성됐다. 이곳에 움막을 지어 4년여를 살았다. 대원마을에 성을 쌓아 이주한 것은 54년이였다.

군대는 뒤늦은 60년 11월에 입대, 논산훈련소를 거쳐 이기자부대에서 근무하다 62년 4월 독자로 의가사 제대를 했다. 계급은 일등병.

아랫마을 구산동의 오태옥(52)과 오계영(17) 부자는 토벌대가 토벌하러 온다는 소식에 도망쳐 속칭 '해바라기' 반에서 대동청년단들에게 발각돼 죽창으로 죽었다.

오영길은 대원동 초대 청년회장과 마을회장에 이어 대원과 구산을 통합한 통의 통장을 10년 6개월 했고 2년간 노인회장도 역임했다.

대원동은 단독주택은 15가구뿐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며 현재 200여 가구가 넘는다.

매형이 경찰이어서 반동으로 낙인 찍혔다

- 오 경 호 (吳景昊, 29년생, 제주시 연동)

- 2013. 7. 10. 증언

오경호는 아버지 오평수, 93세로 돌아간 어머니 박의영 사이에 5남3녀 중, 아들로는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짚신과 나무 계단을 신고 걸어 50여분 걸리는 도두초교를 다녔다. 건설업계의 원로인 서상흠이 그의 5~6년 선배이고 2살 위 서일문과 동갑인 서태영, 박성택, 나이 밑인 서영진, 김용하 등이 동급생이고 갑장인 문규언은 1년 후배이다. 해방은 도두초교 4학년 때이다. 당시 학교 정문 안에 들어서면 일본어를 써야 하고 한국말을 쓰면 퇴학을 당했다.

47년 3월 1일 오전 9시쯤 또래 서태영, 박성택, 김용하와 문규언 등 4명이 오라 3동, 현 서문시장, 병문교(서문교)를 거쳐 제주북초교로 갔다. 누가 주동이 되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 연동에서는 30~40명이 갔다. 서문교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 한 시간 여 있다 재미가 없어 서태영, 문규언과 셋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관덕정에서의 발포 사건은 모른다. 이때 그는 도두초교를 졸업한 후였다.

둘째형 석호는 일본에서 돌아갔고 해방직후 일본에서 돌아온 셋째형 성호도 병으로 돌아갔다. 큰형 오두호는 스무살 넘게 나이가 위었다. 큰형 딸 오연옥(20)이 오경호와 동갑이다. 오연옥은 48년 4·3 때 아낙네 몇이서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다가 들녘에서 흰 고무신을 신은 여자 시신을 혼자 보고서 놀라 냇이 나가버렸다. 냇을 잃은 오연옥은 앓기 시작했다. 심방(무당)을 빌어 한번 굿을 했지만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의 부모는 “돈이 있어 큰 심방을 불러 냇을 풀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가난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슬퍼했다. 딸을 잃은 오두호는 화병으로 죽었다고 밝힌다.

오경호의 부친 오평수(59)도 밭으로 일을 나갔다가 4·3 초기 연동 경계 속칭 '하실목'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에 맞아 죽었다. 연동이 불에 타 소개할 때 그의 가족은 오라3동 월구동 서남쪽 중대이굴 부근에서 천막생활을 했다. 당시 연동의 가구수는 170여 가구. 이 중 50여 가구가 천막생활을 했다. 오경호는 부친 혼백을 길 건너 용담리 쪽 부친의 4촌집에 모시고 15일 마다의 식일 제사를 지냈다. 소개할 때 그의 집에는 명석이 15개 이상이 있었으나 1개도 갖고 가지 못했다. 이 명석들은 해변가 마을 이호, 도두, 용담에서 마차를 갖고 와 모두 갖고 간 것으로 본다. 천막생활 중 연동에 성 쌓기 작업에 나섰다. 천막생활자는 물론 도두2동 몰랫물, 용담 3동 등 친척 집으로 소개하여 갔던 연동 출신들이 참여해 2~3개월 만에 성을 쌓았다. 오경호는 남조봉에서 재목용 나무를 잘라와 이 연동 성안에 함바집을 지었다. 1백여 가구가 돌아왔다.

오경호에게 죽을 고비가 있었다. 49년 봄 아침 9~10시 쯤 마을에서 몇 사람이 토벌대에 의해 총살 될 때 그도 토벌대에 잡혀 총을 들이대자 그는 외쳤다. “매형이 경찰이다. 매형이 경찰이기에 산에서 반동으로 지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위 누나 오정순의 남편 강군하가 경찰서 수사계 형사로 주정공장에서 귀순자 조사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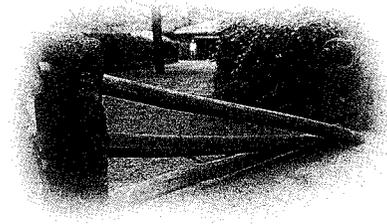
오경호는 20살 때 두 살 아래 하귀리 김문중과 결혼, 슬하에 2남 5녀를 뒀다. 가훈을 ‘정직 근면 성실하라, 조상에 감사하라, 동기간에 화목하라, 목표 설정 필히 실천히리’로 정히고 집 거실에 걸어두고 일깨우고 있다.

6·25가 나자 연동에서는 12~13명이 50. 9. 1. 육군에 지원했다. 진해에서 공병단으로 차출될 때 다른 줄에 서있던 박창홍을 끌어 당겨 연동 마을에서 7~8명이 1203 공병단 소속이 됐다. 진해까지 함께 간 동생 오봉호는 11사단으로 배속돼 1년여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상이용사가 돼 귀향, 40대에 고향에서 죽었다. 오경호는 지뢰 매설, 도로 개설, 거제도 포로수용소 경비 등을

말다가 중장비반에 편입돼 불도저 특기 운전병이 됐다. 중장비 특기자는 쉽사리 제대를 허락해주지 않아 55년 10월에야 이등상사(중사)로 제대했다.

오경호는 연동새마을금고 이사, 제주시노인학교 21기회장, 제주시노인대학 부회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매주 화요일 한라수목원에서 제주시 시니어클럽 관광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연동에서 좌익 활동은 마을에서 학식이 뛰어나다는 백상송, 양00(40)가 주도했고 이들 영향으로 북초교 등을 나와 똑똑했던 김00(27), 박00(32), 박00(28), 백00(33), 서00(32), 양00(26) 등이 폭도로 합류했다.



얼굴이 하얗다고 형님이 죽었다

- 오 완 규 (吳完奎, 30년생, 제주시 오라1동 대원동)

- 2013. 7. 25. 증언

오완규는 고다시에서 부친 오상국, 모친 황경원사이에 3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큰형 김구규(19년생)와 둘째형 김한규(21년생)와는 나이 차가 많다. 부친은 그가 13살 때까지 호적 신고를 았다가 제주북초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나이를 두 살 낮춰 입학시키고 호적도 두 살 낮춰 신고했다. 20여 가구의 고다시에서 북초교에는 그만 혼자 다녔다. 두 살 위 박평문과 이웃 동갑인 김병철은 제주향교쪽에 있는 간이학교를 다녔다. 1시간 30여분 걸리는 학교까지 거의 맨발로 다니고 학교 근처에서 게다(나무 신발)를 신고 학교를 갔다. 장마철 병문천 하천물이 불면 서문교를 지나 병문천 하천 옆을 따라 걸어 집으로 왔다.

어머니는 황언택 전 제주대학교수 아버지와 사촌지간. 큰형 김구규는 8살 때 일본에 사는 황 교수의 작은 아버지 집으로 가 컸고 16살 때 결혼키 위해 제주로 왔다가 결혼하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 해방 후 귀국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얼굴과 손발이 하얗다. 이 때문에 48년 11월 1일 변을 당했다. 토벌대 군인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을 때 청년들은 모두 도피했고 큰 형은 부친과 함께 집에 있었다. 군인들은 손발과 얼굴이 하얀 것은 굴속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폭도가 틀림없다며 집에서 끌고 나가 집에서 300m쯤 떨어진 병문천 상류에서 총살했다.

이어 11월 7~10일 마을이 불태워지고 소개령이 내려졌다. 죽성의 군 주둔소와 고다시 마을 간은 500m 거리이다.

오완규는 3·1절 시위에 참석치 않고 나중 오라리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8년 5월 8일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난가야 한다며 3일치 떡을 식량과 이불 등을 들고 방선문 상류 등에 피난 갔다.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오완규의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일본에 있어 4·3을 모른다. 오완규는 마을이 소개되자 부친은 도남으로, 모친은 광양운동장으로 피신했지만 그는 둘째 형 김한규와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탐라계곡의 용진각 밑 속칭 '개못밭' 일대 하천에 있는 굴을 옮겨 다녔다. 5명의 도피생활 중 어느 날 아침 좁쌀로 밥을 짓고 있는데 토벌대 군인에게 발각됐다. 형과 오완규 등 3명은 산 위쪽으로 도망을 가 무사했고 밑으로 도망가던 이호 사람 2명은 토벌대의 총에 사살됐다. 도피생활 중 폭도들과는 만나지 못했었다. 석 달여 굴속에서 생활하다 양식을 가지러 왔다가 오완규는 도남에 있던 부친과 합류했고 둘째형은 산으로 다시 갔다.

오완규는 지금도 키가 160cm를 밑돌지만 당시도 작았다. 도남에 있을 때 토벌대에게 19살이나 14살이라 하여 무사했고 동광양의 기와공장에 수용됐다. 오현중에 1주일 정도 있을 때 오등동 대한청년단원들이 찾아와 도피자 가족 이름을 부르고 마당에 모이도록 했다. 이때 부친은 나가지 않아 무사했다. 그러나 부친은 나중 도피자 가족이라며 닥그네 공회당, 오완규 등 양민가족들은 정뜨르 공회당으로 분류돼 수용했다. 둘째형도 49년 봄 귀순하여 동척회사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풀려났다. 도남 움막 집에서 가족 모두가 1년여 함께 살았다. 51년 4월부터 도남에 성을 쌓는데 오등동 주민들이 모두 동원됐었다.

6·25가 났을 때 둘째 형은 나이가 많아 제외됐다. 오완규는 키가 작고 신체가 왜소해 을종으로 두 번이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허지만 오기가 발동, 53년 10월 안덕초교에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지만 육군에 지원했다. 16주의 훈련을 모슬포 제1훈련소에서 마치고 29사단 창설멤버가 돼 강원도 양양으로 갔다. 1연대 2대대 1중대 3분대원으로 강원도 원통리, 금화,

포천 등지에서 근무하다 58년 9월 동두천에서 병장으로 제대했다. 거의 강제로 하사 직업군인이 되도록 하는 조치에 10개월을 더 근무하다 눈물로 항의해 제대했다.

오완규는 24살 때 4살 아래 도남의 박선일과 결혼했다. 슬하에 2남4녀를 뒀다. 제대 후 오등동에서 반장만 5년여 일하기도 했다. 두 아들이 건설회사를 한다며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집과 1,000여평의 밭을 날렸다. 그래서 지금 남의 감귤 과수원 관리사에서 감귤원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죽성의 강00(29)은 청년의 리더. 온갖 일 모두에 똑똑한 체 할 정도였고 죽성의 청년들을 일으켜 '와사' 시위에 참여케 했다. 또 죽성의 김00(24)도 대표적인 주동자였다. 이때 오씨의 부인 박선일은 "죽성의 김씨들은 김00 너 하나로 방상(*친척) 모두를 죽이게 만들었다. 때문에 김씨들은 폭도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말하며 거들었다. 이만생(28)과 함께 이00(22)도 폭도로 꿈는다.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였다

- 송창규 (宋昌奎, 30년생, 제주시 오라1동)

- 2013. 6. 25. 증언

당시 오라1구는 서동네인 사평이 커 120여 가구, 동동네인 오라는 100가구, 도노미인 정실은 50여 가구였다.

송창규는 9살에 제주북초교에 입학, 짚신을 신고 부지런히 걸어 30분이 소요되는 학교를 다녔다. 겨울에는 손발이 터 동상으로 혼났다. 당시 제주 읍내 초등학교는 일본인 학교인 제남교, 한국인은 도두, 화북초교와 제북초교를 다녔다. 몇 년 위 선배는 학급수가 적어 제북초교를 힘들게 갔으나 학급수가 4개학급(남자 3학급, 여자 1학급)으로 늘면서 쉽사리 입학했다. 그러나 2부제 수업으로, 나이로 제대로 간(적령기) 학생은 오전 수업의 1부 2학급, 나이를 초과한 학생은 낮 수업의 2부 2학급으로 편성됐다. 6학년 담임은 박창문이었다. 오라에서는 7~8명이 동급생으로 송창규는 1부, 송창립, 허두헌은 2부생이었다. 대동아 전쟁이 시작된 4학년부터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조회 때 마을단위 상급생의 지휘로 사열을 받아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상급생은 고병로(고병효 동생)였다. 초교를 졸업하자 학교 안에 설치된 청년훈련소에서 오후 2시쯤부터 2~3시간씩 제식훈련, 총검술 등 군사훈련을 받았다. 학교에는 2년제 고등과가 있었지만 고등과를 다닐 가정 형편은 안됐다. 고등과를 다니지 않는 50~60명이 함께 군사훈련을 받았다.

46년 3·1 행사 때 오라 청년은 물론 한림, 애월 청년들이 오라1동을 거쳐 제북초교로 갔다. 송창규도 구경을 가고 싶었으나 할머니가 “사람 발에 밟혀 죽을 것 같으니 가지 말라”며 못 가게 했다. 그는 집에 심어졌던 감나무에 올라가 북쪽을 한참동안 바라봤었다.

할머니는 오라리에 처가를 둔 무선전화국의 발전기 기관장(김군철 부친)의 장모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를 통해 무선전화국의 트럭(운전사 고달규) 조수로 취직할 수 있었다. 송창규는 관덕정에 있는 우체국 서쪽의 무선전신국 분실에 있었던 48년 4월 3일, 이웃해 있는 경찰서에 긴장한 경관들이 분주히 오가며 출동하는 것 등을 보았고, 큰 사태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송창규는 3형제 중 둘째로 세 살 위 형은 송창언, 세 살 밑 동생은 송창서이다. 조부모는 따로 살고 그는 부친 송제용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결혼한 형님은 이때 성안에 있는 제일공업사에서 목수 일을 배우고 있었다. 형도 바로 오라로 올라왔고 송창규도 성내 출입에 위험을 느끼고 동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여 집이 주목을 받을까 보아 무선국 일을 그만두었다.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폭도가 무서웠던 시절이었다. 송창규는 현재 마을 회관 동쪽 편 길가에 큰 대나무를 세우고 눕히는 보초(빗개)도 썼었다. 북쪽 길모는 경찰차가, 동쪽 길로는 군인 차(죽성에 2연대가 주둔)가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차가 보이면 대를 눕히고 한라산 쪽으로 뛰었다. 밤마다 형과 함께 냇가 부근을 옮겨 다니며 숨기에 바빴다.

48년 12월 4일 아침 동네에서 청년 1명이 잡혔다. 혹시나 이 청년이 지목할까 보아 밑에 집 10살 위의 문수진과 문두영, 이승익, 송창규의 형 송창언, 또래 김영찬 등 6명이 여란지 오름 북쪽 골프장 부근의 굴(작은 굴)로 도피기로 했다. 입구는 비좁으나 굴 안쪽은 3평 남짓 공간으로 안전한 듯싶었다. 밤중 출발해 12시 넘어 도착하여 갖고 간 식량 등 짐들은 굴 입구에 놓아두고 다음날 아침 옮기기로 했다. 누군가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고 날이 밝았다고 짐을 옮기자고 했다. 굴 안쪽까지 길은 비좁아 짐을 릴레이식으로 옮기기로 하고 나이가 어린 송창규와 김영찬은 입구에서 안으로 짐을 날랐다. 그때 통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들리는 그 소리는 총소리였다. 굴 안에 대고 총소리가 난다고 외쳐졌으나 짐 옮기는 소리만 들릴 뿐 대답이 없었다. 전달이 안됐다. 총소리가 가까워지자 돌이는 냇가 골짜기 밑으로 뛰기 시작했다, 남쪽 위로부터 포위된 것 같아 밑으로 뚫 것. 얼마 없어

군인에게 발각되어 주변 냇가 돌 주위에 총알이 빗발쳤다. 속칭 들렁기 영구 춘화 밑 ‘걸라쿰’까지 내려왔을 때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현재 교도소 남쪽 동산 위로 올라와 검은 오름쪽을 내다보았다니 큰 대가 서있었다.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는데 대가 눕혀졌다. 할 수 없이 냇가 바위틈에서 하루 온종일 숨었다가 하룻밤을 중간에서 자고 이튿날 밤에 집으로 갔다.

가족을 살리려면 형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다. 그때 그의 부친과 동생은 도피자 가족으로 농업학교에 잡혀가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와 할머니, 이승익 할아버지 2명 등이 여란지 골짜기 일대를 찾아 나섰다. 체포된 뒤 도망치려다 총살된 듯 이승익과 그의 형 송창언의 시신은 따로따로였다. 문수진과 문두영의 시신은 그날 찾지 못하고 훗날에야 찾았다. 형의 시신을 신고해 부친과 동생은 풀려났다. 할아버지가 송창규를 보더니 그의 뒷덜미를 잡고 서는 부엌쪽 고방(庫房)안으로 끌고 가 마루 널을 뜯어 안으로 집어넣고 못질을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나을 생각을 말라. 죽어도 집에서 죽어라”고 말했다. 비참하게 죽은 그의 형의 죽음을 생각한 것이다. 마루 밑에서 20여 일을 숨어 있을 때 마루에서 섯동네 아무개 집도 불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었다가 집이 불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마루 밑 생활도 지긋지긋했다. 때때로 산쪽(폭도) 청년들이 보고해야 한다며 그의 생사 안부를 묻고 갔다. 집에 있기도 불안했다. 마루 밑을 나와 거의 혼자서 골프장 동쪽 한내를 중심으로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틈틈이 집에 들려 좁쌀 등 식량을 구했다.

49년 3월, 귀순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귀순공작 뼈라를 보았다. 순간 죽어도 좋다, 가족들을 살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 내려와 헌병대 정보원을 통해 귀순했다. 오라리에서는 첫 귀순이었다. 송창규는 유치장에도 가지 않고 헌병대 귀순 공작반원이 됐다. 이 공작반을 통해 오라리에서 고은하, 김인봉 등 5~6명, 정실, 오등에서 20여명이 헌병대에 귀순하는 것이 낫다는 소문으로 귀순했다. 귀순자들은 거의 산지 주정공장으로 보내졌다.

송창규는 대한청년단에 가입, 오라리청년단(당장 양희정) 훈련계장을 맡기도 했다. 이어 방위대원이 되었다가 오라에 경찰 파견소가 생기자 특공대원이 되고 제남교에서 방위군으로 훈련을 받았다.

6·25가 났을 때 같은 마을 동갑인 김용의와 이미 약혼을 했다. 군인 가면 모두 죽는다고 했을 때여서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 한 여름 8월에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 마을회관에서 치렀다. 현재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신체검사는 갑종으로 합격했는데 도피자 생활을 했다는 기록으로 군 입대가 보류됐다.

52년 4월에야 입대 영장이 나와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양구에 있던 7사단 5연대 1대대 소속으로 최전방 최전초에서 참전했다. 인민군들은 주로 밤에만 기습 공격해 왔다. 소대장이 포로로 잡혀 가족에게는 전사로 통보됐다가 휴전 후 포로 교환 때 원대 복귀되기도 했다. 54년 9월 이등중사(병장)로 제대했다. 제대 후 마을에는 청년이 부족했다. 청년회장, 새마을 지도자, 오라1동 단위농협 조합장, 마을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조부, 부친에 이어 그는 둘째 아들에게 집을 넘겨 4대째 이어지고 있다. 그의 한탄은 막내딸이 어렸을 때 대낮에 보리를 베고 있는데 막내딸을 놓힌 애기구덕을 한참 잊고 보리 베기만 열중했다.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애가 일사병으로 뇌막염을 앓게 만들고 말았다. 불행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내가 임신하자 낙태약을 먹었다. 이 약이 잘못됐다. 낙태되지 못해 태어난 막내아들은 정신지체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는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지키고 있다. 그 옛날 소 외양간과 곡식 낱가리 또는 소 겨울사료(출) 낱가리로 쓰였던 마당을 텃밭과 정원으로 가꾸며 살고 있다.

남보당과 폭도들의 마을 책임자는 허두경과 6촌인 허00(18)이다. 그의 제북교 동창에 폭도가 많다. 두 살 위 동창(2부) 김00(20)와 김00(20), 4·3 이후 행방을 모르는 송00(18), 폭도였다가 자수하여 군사재판을 받아 행불인 송00(21) 등이다. 송00의 큰 형이 송창염(26)이다. 송창염은 경찰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경찰 특별수사대원이었다. 폭도를 잡아내는 수사대원이 프

락치였다. 프락치사건이 발각되자 99식 장총을 갖고 입산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생포돼 총살됐다. 형과 동생 닳일까 화북초교 교사였던 송00의 형 송00(22)도 총살됐다. 제북교 후배인 송00(20)는 오라에서 살다 연미로 이사가더니 으뜸 좌익 청년마을의 영향으로 폭도가 됐다. 그 아들 때문에 부친 송00(51)도 총살됐다. 제북교 1년 선배인 이00(19)도 폭도가 됐다.



산에 가보질 않았다

- 이 경 생 (李庚生, 30년생, 제주시 오라2동 사평부락)

- 2013. 6. 18. 증언

이경생은 경오년에 태어났다고 하여 경생으로 이름 지어졌다. 연미 위 민 오름 밑 마을 이기석과 연동 김씨 사이에 1남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기석은 오라2동 이사장(*이장)이었다.

48년 들어서며 오라동은 뒤숭숭했다. 음력 정월 13일(2월 22일)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당굿제'를 해마다 올린다. 오라 1, 2동의 마을제이어서 음식 장만은 이사장 책임이다. 오라2동도 떡을 만들 쌀을 말 방앗간에서 찧고 있었다. 헌병대에서 산에 음식들을 올리려 장만하고 있다며 그녀의 아버지 이기석과 오라1동의 이사장과 부녀회장 등이 잡혀갔다. 이기석은 그녀의 오빠 이자 큰 아들 이00(21)이 국방경비대 9연대에 입대한 탓인지 감금하고 계속 조사를 받았지만 오라1동의 이사장과 부녀회장 등은 총살됐다. 당굿을 주관 하던 심방(무당)도 총살됐다. 심방의 아들 이00(22)은 산으로 올라갔다. 폭도가 된지는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기석이 1년여 헌병대에 수감됐을 때 이경생은 화장실 쪽에서 아버지에게 몰래 밥을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밥을 들고 화장실에서 밥을 들이려다 총을 들이대며 막는 헌병에게 쫓겨 난 뒤로는 가보질 못했다. 어머니는 두어 차례 면회를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경생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김을 매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학교는 고사하고 서당도 다니지 못했다. 세 살 위 그의 오빠는 제주북초교를 졸업했고 3살 밑 그녀 동생 이00(남편 문00)과 00, 00 등은 모두 제북초교를 다녔다. 엄한 아버지 탓에 또래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했다. 도피 등의 이유로 또래 상당수가 산으로 올라갔었으나 그녀는 산에 가지 않고 집을 지켰다.

아버지 이기석은 독자인 큰 아들 이00을 학교도 시키고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데 이00은 9연대에 입대하고 말았다. 이00은 군대를 간 이래 한 번도 그의 집을 찾지 않았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집을 찾았더라면, 다녀갔다면 그녀의 집은 쑥대밭이 됐을지도 모른다.

3살 난 이00(전 4·3유족회장)과 2살의 이00을 남겨두고 입대 한 이00은 탈영하여 입산 것으로 보인다. 군사패판을 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 때 변을 당했다. 그의 아버지가 두 차례 면회도 갔었다. 이00의 처는 남편을 잃자 어린 형제를 남겨두고 일본으로 갔고 개가했다. 남겨진 형제는 82살에 돌아간 그녀의 아버지와 100살을 넘겨 돌아간 친정 어머니 손에 키워졌다. 이경생이 사실상 조카 형제를 기른 셈이다.

이경생은 19살 때 일본에서 중학 과정을 나온 동갑 마을정년 고순경과 결혼했다. 남편은 6·25가 나자 그녀도 모르게 육군에 입대했고 5년여 만에 제대했다. 남편의 군 제대 후에야 사식을 낳아 슬하에 4남2녀를 두었다. 남편은 해방되기 두 해전에야 귀국하여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일본말 반, 한국말 반을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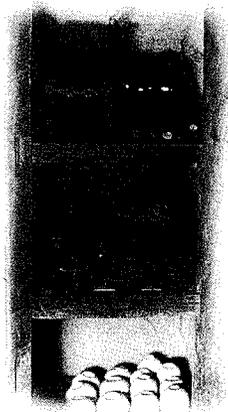
1948년 5월 1일 세칭 ‘오라리 사건’때 사평부락에서는 3곳이 불탔다. 친정 이웃집인 강00, 김00(00), 김00(39) 집 등. 강00은 산으로 올라가다 물장울에서 토벌대에 의해 죽었고 김00은 4·3 이후 병들어 죽었고 4형제 중 셋째인 김00(39)은 좌익활동을 하여 그날 그의 집이 불탔고 폭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라리 사건 때 아들과 읍내에서 살다 자기 집 연미에 닭을 가지러 왔던 경찰관 김규찬의 모친이 길거리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됐다. 누이동생마저 폭도들에게 살해당한 김규찬 순경은 이경생의 외삼촌 아들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8남매 중 외동딸이었다.

오라리를 망친 것, 희생을 크게 한 것은 허두경의 탓이라고 강조한다. 수효도 많고 똑똑했던 연미청년들에게 좌익 활동을 시켰고 결국에는 결혼하지

얇은 사평마을 청년 10여명의 목숨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경생은 아직도 초가집이 남아있는 친정집과 이웃해 있는 자기 집을 오가며 텃밭을 가꾼다. 사평마을 노인회관에서 한 달에 세 번씩 점심을 주는 경로모임에 참석키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현명했다

- 문 용 준 (文龍俊, 35년생, 제주시 오라3동)

- 2013. 7. 3. 증언

제주시 오라3동인 월구동(月龜洞)은 연미 마을에서 분리됐다. 연미동 출신 고영종은 현재 오라3동 노인회관 일대에 밭이 많았다. 이 노인회관 옆에 소방용과 농사용을 겸한 구룡(못)을 팔 때 연미사람들이 대거 동원돼 못을 봤다. 이때 점심 등 경비를 낸 것이 고영종이었다. 월구동의 식수는 현 관음정사의 옆에 월구동 사람들이 자체로 못을 파 마련했다. 당시 마을 규모는 50여 가구였다.

문용준은 부친 문태근과 현재 96세로 생존한 모친 강계생 슬하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8살 때 마을에서 유일하게 제주향교 옆에 설치된 6년제 간이학교에 입학했다. 2학년 때 해방이 되자 잠시 학교는 제주 남초등학교로 이전했고 남초교가 개교되자 학교는 제주동초교로 통합됐다. 그는 3학년을 건너 뛰고 4학년으로 월반, 동초교를 다녔다. 동초등학교 2회 졸업생이다. 동초교 6학년 담임은 문육생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으로 기억한다. 문 선생의 동생(문정인 부친)은 중선전기 회사를 운영했다. 오라1, 2동에는 제주북초교 졸업생이 상당수 있으나 월구동에는 북초교 졸업생이 없다. 또한 그의 또래는 물론 2~3세 위와 아래에도 초등학교를 다닌 학생은 없다.



부친 문태근은 한학에는 밝으나 신식 교육을 배우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해 아들 문용준에게 제주농업학교를 진학토록 했다. 당시 농업학교를 다니

려면 5, 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년간 시험 준비를 시켰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금악리 출신으로 농업학교 공민 교사인 양문오 집에 하숙하며 공부하도록 했다. 양문오 집은 용담1동 현재 서문시장 안에 있었다. 그 집에는 양문오의 처남이 농업학교 6년생으로 있어 그에게도 배울 수 있었다. 현명한 부친 때문에 문용준은 집을 떠나 1년간 하숙하며 공부하여 농업학교에 합격했다. 물론 초등학교 6년 때 4·3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까닭도 있었다.

4·3이 있자 가족들은 해방되는 해에 일본에서 귀국한 큰 아버지 문태종이 살고 있는 정뜨르로 대피했다. 문용준의 조부는 애월 금덕 출신이다. 조부가 금덕에서 옮겨 심은 1백20년생 당유자 나무가 지금 문용준의 집 뒷 마당에 심어져 있다. 조부는 5남2녀를 뒀고 그의 부친은 남자 중 막내이다.

5·10선거 때 월구동도 다른 마을처럼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란지 오름 일대로 대피, 마을이 텅 비어 있었다. 5·10선거 이후 문용준의 가족들은 정뜨르에서 다시 월구동으로 왔으나 그의 부친은 낮에 농사를 지으러 잠깐 들을 뿐 정뜨르에서 거의 오지 못했다. 허지만 부친은 얼마 없어 오라3동 구장을 맡았다.

문용준은 6·25 때 4~5살 위 농업학교 동창들은 해병대로 지원했으나 나이가 어려 지원할 생각도 못했다.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어 군인 교관이 군사 훈련을 시켰다. 2학년 때 51년 3월 교육법의 개정으로 제주공립농업중학교가 제주농업고와 제주제일중으로 분리되면서 제주제일중 2회 졸업생이 됐다. 이때 운동을 본격으로 시작, 제일중 수비수 축구선수가 됐다.

문용준은 18살, 일중 3학년 때 한 살 위인 오라2동 사평부락 이경순과 결혼했다. 부친과 장인 이기숙은 모두 구장 출신으로 술도 즐기면서 의기가 투합했다. 모두 한학에 조예도 깊었다. 술자리에서 빨리 결혼시키자고 합의 하면서 혼인을 시킨 것. 이경순의 큰 오빠가 이00이고 이00의 셋째 고모가 된다. 슬하에 2남3녀를 두었다.

군대는 55년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를 거치자 6군단 소속 측

구부로 차출됐다. 축구부의 8개월이 가장 고된 생활이었다. 자칫하면 옆드려뺨쳐이고 독한 기합도 잦았다. 선수를 끝내 8사단 16연대 4과(보급 담당)로 배치돼 59년 12월 병장으로 제대했다. 제대 후 고향에서 청년회장 맡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회장, 15년간의 마을 영농회장과 통장, 제주시 단위 협동조합 이사, 노인회 총무 5년 등 마을 일을 도맡다시피 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 6년 전과 올해 양쪽 다리 수술을 받으면서 보행이 쉽지 않다.

월구동의 좌익 활동은 제주도적 사상범인 박기만이 주도하다 4·3이 나자 일본으로 도피했고 일본에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 대신 똑똑했던 그의 사촌인 박00(33)이 이어받았다. 박00은 누이동생 남편인 신00(25)를 끌어들이었다. 신00은 거인으로 힘도 장사였다. 신00 형 신00(33)도 합류하여 좌익 활동을 하다 폭도가 됐다. 박00은 산에서 토벌대에게 사살됐다. 박00이 폭도가 되는 바람에 그의 부친과 동생 박00이 49년 2월쯤 노인당 앞 속칭 '석회구름'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될 찰나 박00은 달아났고 부친만 총살됐다. 부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왔던 부친의 형도 동생 때문에 그곳에서 총살됐다. 박00은 후일 귀순하여 재판을 받고 석방되어 고향에 왔다가, 밀항하여 일본으로 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온 뒤 잘 살다 죽었다.

호열자(콜레라)로 죽다 살아났다

- 김 상 진 (金常進, 34년생,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

- 2013. 5. 28. 증언

오라동은 오라 1, 2, 3동과 정실, 연미부락으로 이뤄진다. 오라2동의 사평부락을 말할 때는 사평에 연미와 정실부락을 포함하여 말한다.

김상진은 12살 때 오라1동의 도가집(간이학교)에 입학했다. 정실 출신 송원형(송원하 경찰간부의 형) 선생과 함께 또래 부종택과 여학생 2명 등 7명과 학교를 다녔다. 선생님을 뒤따라가려니 뽀박질하다시피 했다. 전교생은 15~16명, 8·15 해방이 되면서 학교는 폐교됐다.

김상진은 일제 때 마을 반장을 한 아버지 김무생 밑에 12살 위 큰 형 김상호, 10살 위 상순(일명 상현), 8살 위 상택과 6살 밑 국진 등 5남1녀의 넷째로 태어났다.

46년 6월, 목포에서 쌀을 들여와 팔던 쌀장수가 호열자(콜레라)에 걸려 들어와 마을에서 죽었다. 이 쌀장수의 장례를 도맡았던 셋(둘째) 아버지 김순생이 매장하고 난 뒤 3일째에 소로 밭을 갈다가 호열자로 밭에서 죽었다. 셋 아버지 장례를 치른 조부 김만평과 작은 아버지들은 장례가 끝난 뒤 읍내로 가 서사로 부근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왔으나 할아버지, 건강했던 작은 아버지까지 호열자에 감염돼 죽었다. 집 대문 앞은 마을과 격리키 위해 가시나무가 둘러쳐 지고 '정수암' 봉천수를 길어먹던 시절이어서 물은 마을 사람들이 길어다 대문 앞에 놓았다. 큰형이 먼저 호열자를 앓기 시작했다. 20여일을 견뎌내고 있을 무렵 당시 보건 당국은 '종디동산'에 간이 막사를 짓고 형을 포함 4명을 마을과 격리, 집단 수용했다. 수용 첫 날 의사는 주사를 놓고 읍내로 돌아갔다. 큰형은 형이 걱정돼 따라 나선 그 부친에게 밤부

터 팔이 저리다고 아픔을 호소하더니 다음 날 아침에 고열로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다음은 김상진과 3살 위 누나 김인순이 감염됐다. 마을 월정사 절간 보살할머니는 각종 질병에 초약(草藥) 처방을 내렸던 마을 의사(醫師)였다. 보살할머니의 긴급 처방은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 마시도록 했다. 부친은 소주에 고춧가루를 듬뿍 타 김상진과 누나에게 마시도록 하자 김상진은 꿀꺽꿀꺽 마셨으나 누나는 억지로도 먹지를 못했다. 김상진은 한참 뒤 소변을 보고 싶어 뒷뜰에 있는 감나무에 기대 소변을 보다 술에 취했는지, 열에 취했는지 한창 자란 고구마 묘종 위로 쓰러졌다. 고구마 묘를 밭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호열자로 움짝달짝 못해 옮겨 심는 시기를 놓쳐 묘는 자랄 데로 자란 상태였다. 김상진이 한기를 느껴 깨어나 하늘을 보니 한 밤중에 별이 보였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누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부모들은 그도 죽은 줄 알았다 살아 들어서는 것을 보고 기뻐 울며불며 야단이 났다. 그날 이후 아프지 않고 김상진은 호열자가 낳았다.

1948년 4월 11일 경찰 가족을 겨냥한 첫 테러가 오라리에서 일어났다. 폭도들의 습격에 의해 송원화 순경의 아버지 송인규(宋仁奎, 58)가 살해되고 집은 불태워졌다. 송 순경은 4월 3일 날 애월면 신엄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보리가 익어 수확할 때 쯤 마을에서 폭도들이 주관한 마을회의가 있었다. 송 씨 보리밭 3곳을 마을 사람들이 수확하여 이 보리를 산으로 올려 보내도록 하는 회의였다. 부친 김무생은 수확 하루전날 밤 오라1동에 사는 송원하의 누님을 몰래 찾아가 폭도들의 계획을 알리고 수확이 끝날 때쯤 차를 갖고 와 싣고 가게 동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날 마을 사람들이 보리수확을 하고 있는 오전 11시쯤 총소리가 들리자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도망가려는 것을 부친이 붙잡았다. 이어 수확이 끝날 무렵 송원하가 보낸 차가 도착, 수확한 보리를 싣고 갈 수 있었다. 이 생각을 그 부친이 혼자서 했고 일을 끝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친이 일을 꾸민 것으로 이야기가 돌고 결국 폭도들에게도 알려졌다. 폭도들에게 비협조자, 반동으로 낙인이 찍혀 부친

은 상진과 국진 두 아들을 데리고 밤마다 피신하기 바빴다.

김상진의 두 형은 마을 청년들과 이미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 오라리 마을은 일제 때부터 좌익운동을 했던 고사규, 박기만, 송삼백 등이 있어 좌익 사상이 강했고 47년 3·1사건 때 6명 사망자 중 2명이 이 마을 사람이다. 연미에 허두경(허00, 허00 부친)이 폭도들의 책임자 역할을 했고 민오름과 남주봉에 보초(빗개)를 세워 토벌대의 동태를 사전 알았다. 두 형들은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위험한 곳인 ‘소머리 동산’에 배치되는 등 따돌림 받고 있다”며 부친을 원망하는 말도 했다. 폭도들은 부친을 붙잡지 못하자 소외양간을 불 지르기도 했다. 이 무렵 부친은 상진과 국진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읍내 서문통에서 쌀집을 하는 큰 어머니 집을 찾아가도록 당부하곤 했다. 어쩌면 그의 두 형의 생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나머지 두 아들에게 집안을 잇게 하겠다는 속내가 있었다.

48년 11월 중순 “사흘 후 소개하고 소개할 준비를 하라”라는 통보를 받고 김상진 부모는 아침에 집을 나서서 도두리에 집을 빌려 도두리에 도착했을 때 도두 사람이 “마을이 불붙고 있다”는 말에 뒤를 돌아서 보니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모는 집을 빌리고 해 떨어진 저녁께 돌아왔다. 상진과 국진 두 형제는 집에 있었으나 이날 오전 10시쯤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웠지만 손을 놓고 불타는 것을 보기만 했다.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이 불에 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날 밤 도두로 가족이 내려왔다.

도두에서 있는 지 한 달쯤 후 도두리 민보단장 김정기 집에 부친이 불러갔다. 산에 자식을 남겨두고 온 소개민들을 대상으로 “내일은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각서와 함께 명단이 작성됐다. 부친은 산에 있는 것은 두 아들이지만 셋째 아들 김상택 이름만을 올리고 각서를 쓰고 돌아왔다. 부친은 상진과 국진 두 아들을 불러 각서를 쓴 사실을 알리고 “오지 않으면 죽은 줄 알라”며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천행으로 그날 밤 폭도들이 백계(이호동)와

도두리를 습격했고 김정기를 살해했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도 산에 올라가 걱정하던 부친의 친구가 김정기 이웃에 살았고 혼란을 틈타 김정기가 갖고 있던 명단을 찾아내 불을 태워버린 것이다.

며칠 후 도두초교에 모이도록 하여 김상진 부자도 갔다. 운동장에 한 팔 간격으로 앉도록 하여 앞 사람 어깨에 팔을 걸치고 고개를 들어 눈을 감도록 했다.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며 누군가를 지목했다. 이때 아들 양00가 폭도인 정실의 양00(46)이 끌려가 총살됐다. 그들은 무사했다.

마을에서 폭도였던 고00(20)은 둘째 형 김00(24)이 굶주리다 못해 총을 메게 됐고 토벌대와 교전 끝에 확인해보니 없어 '전투 중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 셋째 형 김00은 재주꾼인데 불행했다. 김상택은 집 주위를 돌며 피신하다 군인에게 체포돼 농업학교로 끌려갔다. 큰 죄를 지지 않아 그때 끌려간 대부분이 석방됐다. 그런데 그는 농담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불러 군인들이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고 부대에서 필요하니 부대에서 함께 있다 부대 이동 때 석방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부대 철수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군법회의에서 8년형을 받아 대전형무소로 갔고 6·25로 총살됐다.

부친은 정실마을 귀농정착 30가구 재건사업을 총책임 맡는 등 일하다 73세까지 살다 세상을 떴다.

김상진은 23살 때 3살 밑 정실 마을 서옥희와 결혼했다. 처남은 문화칼라 사장 서동근으로, 김상진 부부가 일본에서 일할 때 2남4녀를 자식같이 키웠다.

김상진은 58년 1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 훈련병 시절 때는 철모에 자갈을 가득 담아 진입로를 보수했었다. 육군 9연대 203 병기대대 소속으로 일제 조병창이 있던 부평에서 기관단총 등 각종 도입 병기에 가득 채워진 기름을 제거, 새로 조립하여 사단에 전달했다. 36개월에서 단축돼, 32개월 만에 병장으로 제대했다.

제주교도소가 정실에 신축되던 71년, 일본에 사는 열 살 위 4촌 형 김공도가 불러 일본으로 밀항했다. 4촌 형이 주선으로 취직한 곳은 오사카에 있는

다이세 비닐공장. 경상도 출신 사장은 재일거류민단 부단장을 역임할 정도로 거물이고 총영사가 부임 때 먼저 인사를 오곤 했다. 이곳에서 맡은 일은 비닐 색 인쇄. 적어도 5~6가지 색을 조합하여 주문받은 색상과 똑같이, 물속에서 현미경으로 견본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인쇄를 하는 일이다. 주문시간에 대기 위해 새벽 2시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이 출근하는 8시 이전 색 조합을 마쳤다. 초과 작업시간이 월 280~300시간이 보통이었다. 사장도 그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 “김상진(일본이름 가네다)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건강을 걱정, 질 좋은 음식을 내놓도록 회사 주변 음식점에 당부하고 “음식값을 회사에다 청구하라”고 했다. 직원들은 그와 함께 음식점에 가는 것을 앞 다퉈 정도였다.

그가 귀국하게 된 것은 신제주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큰 딸 김정숙이 결혼 때문이다. 부인 서옥희도 그가 일본에 간지 10달 만에 일본으로 따라가 그의 자녀들은 10여 년 간 외삼촌 손에 컸던 것이다. 귀국했을 때 그는 30여 만 평의 노형목장을 인수할 정도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

정실마을은 4·3당시 53가구에서 사라호 태풍이 오던 해에 문낙현이 도시형 난민주택 50가구 건설사업을 벌여 80가구로 늘었다. 김상진은 오라동통장협의회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거쳐 9년 째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김상진은 “송원하가 부친이 폭도들에게 살해된 뒤 좌익 활동자에 대한 정밀 수사를 뚫지만 정실마을에는 혐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송원하가 부친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고 “굶어 죽을 것을 살려 주었다”며 당시 보리를 되찾아 준 것을 고마워했다고 밝혔다.

셀 수 없이 생사(生死)의 기로(岐路)가 많았다

- 양진현 (梁震鉉, 29년생, 제주시 오라2동 사평부락)

- 2013. 6. 11 증언

양진현은 독자인 아버지 양규형이 60세가 지나 두 번째로 맞은 처(어머니 김중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자 그가 태어나기 전 양자 양덕현을 데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세상을 떴다. 나중 파악됐지만 그의 형 양덕현은 살고 있던 집을 뜯어 팔고 일본으로 갔다. 양덕현의 아들 양00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제주여고 교장을 지냈다.

일본 오사카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6촌형 양제현이 고향에 왔다가 양진현을 6살 때 일본으로 데려갔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살고 있는 그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 양제현에게도 양진현보다 1살 위인 아들 양영두가 있었다. 그를 자기 아들과 똑같이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8살에 쓰루하시 시장인근의 공립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5학년이 된 43년, 일본에 공습이 잦았다. 6촌형은 독자인 양진현이 혹시나 공습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해 4월께 그를 직접 데리고 제주에 올 정도로 사랑이 극진했다. 일본에 있을 때 6촌형이 양덕현을 형이라고 알려주며 형제간이라고 서로 일깨웠지만 모두 정이 없어 형제간의 정을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양덕현은 파악됐다.

일본에서 돌아온 양진현이 연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이모의 인척으로, 46년 2월 제주여자중(초대 교장 홍순녕) 설립자 김홍빈(金弘斌)에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호 백계 출신 김홍빈은 갑부였고 유지였다. 한 달 만인 5월 일본인만 다니던 제주남초등교 5학년으로 편입시켜 주었다. 6학년이 됐을 때 일본인 선생 이노우에 선생에게 조선

인임이 발각됐다. 선생은 그에게 제주북초등교로 전학과 졸업 후 일본 해군 소년병 지원, 두 가지 길을 놓고 양자택일토록 했다. 두 가지 선택 말고는 퇴학뿐이었다. 그의 선택은 해군소년병 지원이었다. 그 외에도 일본인 11명이 일본군을 지원했다. 남초등교에는 전체에서 양진현 말고 또 1명이 조선인이 있었다는데 그가 누구지는 모른다. 주미 공사를 지낸 고팡림 박사도 남초등교 출신으로 알려진다.

45년 3월말 졸업하자 4월에 진해로 가 20여일 훈련을 받았다. 낮에는 공습이 심해 훈련이 없고 밤에만 제식훈련 등이 고작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낮에는 멈추고 밤에만 운항하는 배를 타 7일 만에 어떤 곳에 도착했다. 그가 만일 남양 군도로 갔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의문이다. 나중 알았지만 일본 북해도에 도착한 것. 45년 8월 15일 일본군은 항복했지만 북해도 영내에서는 방송이 없어 아무도 몰랐다. 45명이 잠을 자는 막사 내에 그날부터 저녁 불침 점호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대원 중 10여명이 없어져도 누구도 야단치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밤중에 누가 그의 일본이름 ‘요시모도’를 부른다. 무슨 일이나고 묻자 그는 “우리도 도망치자”고 말한다. 부산출신 ‘아라이(金씨)’, 그는 양진현보다 몇 살 위로 양진현이가 한국인임을 알고 말하는 것이다. 그가 “일본군은 항복한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다. 이튿날 영내에는 감시병도 없고 오직 취사병만 있을 뿐 뒤송송하기 그지없었다. 양진현이 아라이에게 “여기는 어디냐”고 묻자 자기도 모른다며 “영외 밖으로 나가면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간단한 소지품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참 길을 따라가다 점잖은 일본인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묻자, 그 일본인은 “북해도다”라고 답했다. 그들 둘은 일본인에게 일본 소년병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영내에서는 점호도, 아무런 간섭도 없다”고 말하자 일본인은 “일본은 항복했다”고 대답했다. 순간 어머니가 떠오르고 고향 생각이 사무쳤다. 그들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었다. 일본 본토로 갈 수 있도록 일본인에게 도움을 간청하자 친절하 일본인은 역전으로 안내, 열차를 타고 몇 정거

장이 지나 내리자 항구였다. 그 일본인은 통통거리는 작은 화물선을 탈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배에서 잠을 자고 일본 본토 아오모리에 도착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역전에 가서 역장에게 오사카까지만 갈 수 있도록 사정했다. 역장은 화물열차를 탈 수 있게 했다. 오사카에 도착해 옛일을 기다리며 6촌형이 살던 곳을 간신히 찾아갔으나 피난을 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동냥질을 하며 간신히 굶주림을 참고 있을 때 길가에서 어떤 나이 지긋한 신사를 만났다. 한국인이었다. 더욱이 6촌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안내로 6촌형 집까지 갈 수 있었다. 6촌형은 예전과 달리 형편이 쪼들리는 것 같았으나 둘에게 차비를 마련해줬다. 부산항에는 ‘동진(東震) 공화국 독립만세’, ‘인민공화국’, ‘대한국’ 등 갖가지 현수막이 나부꼈다.

45년 9월 부산에서 화물선을 타고 제주읍 산지항에 도착하여 걸어 집으로 와 오랜만에 모친과 상봉했다. 집에서 1년여를 쉬고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47년 3월 남초등교가 중등과정의 2년제 고등과 학생을 모집했다. 고등과 1년 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합격생은 13명이었다.

47년 3·1 때는 전날 밤 연미 공회당에 애월, 한림 등지에서 온 청년들이 마당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았다. 아침밥을 먹고 두 살 위 오경노와 함께 구경 가지며 집을 나섰다. 제북교 정문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 관덕정 댕돌 위에 앉아 구경했다. 제북교에서 행사를 마치고 어깨동무를 하여 칠성통과 동문통으로 시위를 나서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다. 칼빈총을 어깨에 멘 기마경찰 5~6명이 경찰서와 우체국 앞을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 11시경(*실제 오후 2시45분경이나 본인은 이때쯤으로 기억) 우체국 동쪽 편 앞에서 어린애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마경찰이 탄 말 앞을 가로질러 가려다 말발굽에 채였다.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놈 죽여라’라는 소리와 함께 돌팔매질이 시작됐다. 기마경찰은 경찰서쪽으로 말을 몰았다. 순간 총소리가 울렸다. 식산은행 앞에 서있던 아기를 업은 박연옥(오리출신)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총소리가 나자 들은 관덕정 뒤편 가정집에 담을 넘어 뛰어들어 장독대 뒤에 한참을 숨었다가 서문다리와 향교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3·1 사건 후 사실상 학교를 거의 가지 못했다.

오라마음은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로 항일운동을 하던 지사들이 많았다. 허두경은 일본도 큰 칼을 차고 이따금 마을에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 좌익 인사 송삼백은 “정부에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온건파였다. 그는 일본에 있다 귀국하여 좌익활동을 하다 연미 책임자로 강병일에게 인계하고 수배령이 내려지기 전 일본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송00(49)은 좌익활동을 하다 죽었다. 그의 외조카 김00(金00, 28)은 골수 주동자이다. 양진현의 앞집에 사는 김00은 그에게 민애청 소년선전부장을 맡기는 바람에 양진현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다. 김00은 4월 23일 자기 집에서 경찰에 잡혀 연행 도중 마을 인근 ‘동산물’ 밭에 이르렀을 때 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치다 경찰에 사살됐다. 양진현은 도망치라고 한 후 도망치자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양진현이 4·3을 처음 안 것은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다가 정실에서 경찰들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면서부터이다. 4월 11일 새벽녘에 정실에서 경찰관 송원화의 부친 송인규(57)가 폭도들의 죽창에 찔려 숨지고 폭도들은 집도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세칭 오라리 사건이 발단이 된 4월 29일은 대동청년단 단장 박두인(朴斗仁, 31)과 부단장 고석중(高碩鍾)이 폭도 마을청년들에게 민오름으로 납치된 것이다. 이들은 훗날 폭도들에게 살해됐다. 4월 30일은 대동청년단원 부인 2명이 납치됐다가 1명은 맞아 살해되고 1명은 묶였다가 도망친 사건으로 이어졌다. 5월 1일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익청년들이 좌익인사들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확대됐다. 이날 오라리 출신 김규찬(金圭燦) 순경의 어머니가 읍내로 가려다가 길가에서 폭도와 맞닥뜨려 폭도들에 의해 살해됐다. 김순경의 누이동생도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폭도들에게 살해됐다.

양진현은 어느 날 밤중에 송중평, 송석두, 강00 등과 함께 제주경찰서로 끌려갔다. 전기취조만 받지 않고 온갖 고문을 받은 끝에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송중평은 이후 경찰이 됐으나 강00(19)는 입산, 김달삼 비서가 됐다. 김달삼을 따라 해주로 간다고 제주를 떠나 행방을 모르더니 서울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북한에 갔을 것으로 본다.

양진현은 송석두와 강신평, 이기출 등과 살길을 찾으려 이범석 장군이 총재인 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 서문동에 있는 제주지부장 김인옥의 기와집이 본부였고 삼성혈에서 천막 4개를 쳐 150여명이 2주간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48년 가을께 '여란지' 남쪽 한라산으로도 망쳐 한 겨울을 산에서 지냈다. 49년 2월말 식량을 가지러 양진현은 고기득, 고임송과 함께 연미 마을로 왔다. 양진현이 먼저 고기득에게 "산에서도 피생활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루라도 밝은 세상에서 살자"며 '산에 가지말자'고 말하자 고기득이 동의했다. 이어 둘이서 고임송을 찾아가 귀순 제의를 하자 그도 흔쾌히 동의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고임송이 누이가 날 썰게 향사에 있던 대동청년단 사무실에 신고했다. 대청 단원들이 왔을 때 양진현이 잘 차려 입은 옷을 보고 도망가려 했지 않느냐는 오해도 받았다. 이즈음 2연대가 선무공작대를 편성하여 귀순을 권유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들은 오라리에서는 1차로 귀순한 셈이었다.

그들은 제주주정공장에 수용됐다. 조사와 취조를 군인에게 받느냐, 경찰에게 받느냐도 생사의 갈림길이다. 다행히 양진현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연동 출신이나 연미에 자주 놀러왔던 강군하 순경이 조사반원이었다. 처음 상 순경 옆의 고 순경에게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노투리 습석에 가담 여부, 식량 지원 여부, 뼈라 살포 여부 등이 주요 취조 내용이었다. 민애청 활동으로 뼈라를 뿌린 적은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여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때 강 순경이 자기가 조사를 하겠다며 나서며 양진현의 따귀를 세 차례나 갈겨댔다. 일종의 연극이었다. 강 순경은 양진현이 유리하

게, 뼈라만을 뿌렸으나 잘못을 깨달아 개과천선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자기대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했다. 결국 3인에게 모두 무죄가 되도록 했다. 다만 96일간을 영창에서 지냈다. 아주 훗날 강 순경에게 “당신은 나의 은인”이라고 하자 강 순경은 처음엔 비꼬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오히려 고마워했다.

양진현의 대표적 생사의 갈림길은 민오름에서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오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급한 김에 오름 서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앞쪽 50m 지점에서 군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순간 불래(보리수)나무 밑으로 숨었다. 소대장인지 분대장급인지휘자가 고개만을 땅에 박아 우스꽝스런 모습을 한 양진현을 발견했지만 발로 그의 궁둥이 걷어차며 “앞으로 전진”하는 구령만 남기고 떠나갔다. 얼미든지 숨은 그를 사살할 수 있었지만 모른 채하고 지나쳤다.

또 한 번의 위기는 경찰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되는 시점으로, 일가의 동갑 양영훈(20) 등 2명이 총살됐던 날이었다. 이웃집 뒤 양하 밭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기마경찰관이 마루에서 샷샷을 만들고 있는 영감에게 “청년이 집에 들어왔지 않느냐”며 마루에 올라섰다. 그 순간 대문간에 있던 말의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루 위를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섰더라면 집 뒤 밭에 있던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경관은 말 울음소리에 뒤 돌아섰다. 말울음이 그를 살려냈다.

여란지 오름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 아침에 밥을 짓는 연기가 죽성에 주둔했던 군인의 망원경에 잡혔다. 군인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포위하자 일행들은 계곡으로 도망쳤고 군인들은 집중사격을 했다. 다급히 뿔 때는 앞사람이 뒤를 그대로 따르게 됐다. 오라리 사람 6명이 죽을 때 그는 무사히 도망쳤다.

정실 남쪽 현재 오라골프장 입구 쪽 ‘학담’ 부근 소나무 밭에서 강신평, 박 00(26) 등 3명의 앞 20m 지점에서 군인들이 나타났다. 3명은 군인들을 피

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양진현과 강신평은 20여m를 뛰다 지쳐 무덤의 돌담 뒤로 몸을 숨겼다. 박00은 날썰게 산쪽으로 달렸으나 남쪽 편에 있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사살됐다. 군인들은 이날 어승생 일대에서 토벌을 마치고 두 갈래로 나눠 죽성에 있는 주둔지로 가는 길이었다. 북쪽 편의 군인들에게 쫓기어 달린다는 것이 남쪽 편 쪽 군인 앞으로 달려 나갔던 것. 박00은 일제 때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마을에서 좌익의 리더로 활동했다. 박00은 “날아오는 총알을 뒷손으로 잡을 수 있다”며 날썰을 늘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그가 너무 잘 뛰어 죽음으로 뛰어들었다. 도망가다 너무 뛰지 못해 붙잡혀 죽는 경우도 많지만 잘 뛰어도 죽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오라에서 제주북초등학교를 나온 강00(18)과 똑똑하고 힘이 셨던 고00(25)은 무장 폭도였다. 일제 때 중등학교를 나와 사신서당 선생이었던 고(26)은 좌익 청년들의 지도자급이고 허00(18)도 핵심 폭도였다.

50년 4월 양진현은 오현중에 4학년으로, 외사촌인 고석중은 3학년, 외사촌 김우정은 2학년으로 편입했다. 오라출신 고봉식이 음악, 허두구가 영어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고봉식 선생은 양진현에게 2학년 편입을 권유했지만 나이도 있어 4학년 편입을 우겨댔고 시험에 합격했다. 6·25가 나자 사촌 3형제는 해병대 4기로 지원했다. 막내 김우정은 키가 작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합격한 형들 뒤로 서 있다가 함께 입대했다.

양진현은 해병대 1연대 1대대본부 병기관실에 배치돼 철원북방 화천지구에서 전투할 때, 대대본부의 전령으로 3, 4중대에 암호와 작전명령을 전달키 위해 도두 출신 해병 4기 김용기와 함께 트럭을 타고 나섰다. 그날따라 안개가 잔뜩 끼고 총소리가 들리자 운전병이 겁을 내고 걸어가도록 하고는 차를 돌려 가버렸다. 들이서 얼마쯤 갔을까 인민군들이 “손 들어”하고 나타났다. 인민군은 총을 빼앗고 인민군의 중대본부로 가 조사를 마쳐 하룻밤을 지내고는 인민군 2명이 밤중에만 북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 인민군에게는 요기꺼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었다. 그들은 양진현 등 2명이 갖고 있던 건빵을 빼앗아 먹었다.

이틀간 잠자리를 함께 하고보니 어느 정도는 친해져 있었다. 양진현이 용기를 내 인민군 1명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가 “모른다”고 답하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원수 사이가 아니다”로 시작하여 “남으로 가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남으로 가자”고 달랬다. 설득당한 듯한 그 인민군은 다른 인민군의 눈치를 살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사흘째 밤 다른 1명의 인민군에게도 같은 말로 설득하자 “목숨을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우리가 신분 보장을 한다”고 말하자 인민군이 그때까지 메고 있었던 칼빈총과 실탄까지 내주었다. 다음날 철원 북방 11사단 9연대 진지에 다다르자 런닝을 찢어 총에 매달고 귀순 표시를 하여 인민군을 포로로 인계했다. 본대로 귀대해 포로가 됐다가 인민군을 포로로 데려왔다고 말하자 일등수병에서 삼등병조로 1계급 특진했다. 훈장은 대대 부관이 차지했다. 54년 5월 입대 3년 8개월 만에 이등병조(하사)로 제대했다.

결혼은 25살 때 정실마을 5살 밑 진금동과 했다. 슬하에 2남4녀를 두었다. 세대 후 3개월간 초등학교사 생활을 했다. 월급이 보리쌀 1가마로 전망이 없어 그만뒀다.

큰 처남 진창효(27)가 목포형무소로 갔다가 6·25 때 행방불명이다. 양진현이 해병대에 입대하고 LST를 타고 제주를 떠날 때 뱃간에서 분대장 이병철은 “목포 경비대원 시절 목포교도소 죄수들을 배로 싣고 가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을 했었다. 훗날 이병철에게 목포경비대 시절을 묻자 전혀 기억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양진현의 종손 집 양00(46)도 죽었다. 그의 아들 양00(*한00 전 제주농촌진흥원장 장인) 부부는 6·25 때 서울에서 대구까지 피난 왔으나 양00는 잠시 외출했다가 행방불명됐다.

1,500 평의 감귤원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는 양진현은 22년간 사평마을과 오라동 노인회장 등을 지내고 작년에야 그만뒀다.

남로당의 숙청 대상이었다

- 이 두 생 (李斗生, 26년생, 제주시 외도동)

- 2013. 3. 12. 증언

이두생의 어릴 적은 너무나 기구(崎嶇)했다.

그의 아버지 이화진은 동귀 출신이나 강원도 울진에서 그가 돌을 막 지난 3살 때 부인을 잃자 고향의 동생인 이화서에게 아들을 맡기고 돌아간 뒤 얼마없어 죽었다. 이두생은 그래서 친부모의 얼굴을 모른다. 7살 때 양부(둘째 아버지)도 죽고 말았다. 양모 고 씨 밑에서 변변한 토지도 없이 박한 남의 밭을 빌려 농사(조, 보리, 고구마)를 졌나.

1947년 3월 1일. 동귀와 이웃한 연대 마을에서 살던 이두생은 남로당 서부지역의 거두인 양군옥의 지령을 받은 동귀 반장 격인 이용순의 지휘로 마을 청년 40~50명과 함께 제주읍 제주북초등교로 향했다. 서문다리에는 기관총을 건 차를 앞세워 경찰이 행사 참석자들을 막아섰다. 30여분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외도출신을 남편으로 둔 30대 이호 여자가 저고리를 벗어 던지며 “나를 따르라”며 우격다짐으로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고 활로를 텃다. 100여명이 순간 뒤따랐다. 북초등교에 도착했을 때 이두생은 ‘대운동회’한다고 왔는데 운동장의 모습은 단판이었다. ‘왓샤 왓샤’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두생은 대열에서 몰래 혼자 빠져 도망을 나와 관덕정 5거리 옛 교통대 째 왔을 때였다. 기마경찰관이 관덕정에서 동쪽으로 오며 말 위에서 쏘는 총소리를 들었다. 남문통으로 도망치며 잡화상 가게로 뛰어들었다. 총소리가 끝난 지 1시간여 지나 가게주인이 “숨으려면 왜 왔느냐”는 꾸중을 들으며 가

계를 나왔다. 도립병원 앞길로 서문통을 거쳐 외도로 돌아왔다. 도립병원 길은 사람으로 북적였으나 서문통 길에는 인적이 끊겼다. 돌아왔을 때 해는 저물어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리라고 이때 결심했다. 어느 날 두 살 밑의 이용순(* 후일 월북했다)이 “형님, 숙청 대상에 올랐으니 피하라”고 말했다. 숙청 대상이 된 것은 북초등학교에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외도 본동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매형을 찾아가 정미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자무식으로 병신같이 일만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해안 출신 매형 송 씨는 광령에서 소개해 외도로 온 3살 아래인 강이녀를 중매해 혼인을 시켰다. 슬하에 4남1녀를 두었다.

6·25가 나자 이두생은 해병대 3기로 지원, 8월 5일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고 8월 30일 제주읍으로 나와 부산으로 갔다. 그는 해병 3대대 12중대 3소대 81mm 박격포 사수가 됐다. 부산 4부두에서 미군이 시급한 군인복상으로 갈아입자 전쟁의 무서운 생각이 모두 달아났다. 인천상륙작전, 김포공항 사수 등 각종 전투에 참가했다. 식량 보급이 3일간 끊기자 마을로 내려가 집 뒤 장독대 일대를 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뒤지다 ‘쿵쿵’ 소리 나는 곳을 파니 팔을 감추고 있었다. 팔을 삶아 수통의 컵 하나씩 대원들과 먹으며 굶주림도 견뎠다.

전종철 중대장이 인민군 작전장교를 포로로 잡고 심문 중 인도적인 조치로 포승을 풀어 준 것을 기회로 중대장의 총을 뺏은 적 장교의 총탄에 전 중대장이 사망한 것도 보았다.

도솔산 전투 등 각종 전투에 참가, 무공훈장 2개를 받았으나 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 수증에는 없다. 1955년 일등병조(중사)로 제대했다. 오동화가 운영하는 전분공장에서 기관보조로 5년간 일하다 목수 일을 배워 초가집을 맡아 짓기도 했다.

이두생은 양군옥의 직계로 구학문에 뛰어난 이완영(40), 신00(32), 이00(21) 등이 외도에서 확실하게 좌익 활동을 한자로 기억한다.

큰 위기 없이 4·3을 넘겼다

- 김 기 행 (金琪行, 32년생, 제주시 오라3동)

- 2013. 7. 10. 증언

김기행은 부친 김유만과 모친 김매옥 사이에서 4남2녀 중 장남으로 노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3남1녀 중 장남인 부친 김유만이 10살 때 세상을 떠나 부친은 12살 때부터 남의 집 맡같이 나설 정도로 조숙했다. 김기행이 3살 때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갔다. 부친은 낄품팔이를 하면서도 김기행이 7살이 되자 학령기를 지난 5살 위인 큰누나 김덕자를 그와 함께 모모다니(桃谷)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김기행이 9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며 가족들은 일본에서 귀국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일본에 간 사이 노형에서 용담1동 속칭 '새고양'(서문다리에서 바다 쪽)으로 터를 잡고 있었다.

김기행은 새고양에서 큰 누나 김덕자와 함께 제북초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당시 학급은 남자 2학급, 여자 1학급에 나이가 많은 학생은 오후반인 2부반 등 4학급으로 편성됐다. 동네에서 또래로 북초교에 다니는 학생은 없었고 같은 반 학생도 모두 나이가 3~5세 위였다. 제북초교를 졸업하고 칠성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1년간 급사로 일한 뒤에 해방이 됐다.

김기행은 해방이 되면서 제주읍의 거부인 박종실이 사장이었던 기선회사인 상운회사 급사로 취직했다. 이 회사는 제주~부산 간엔 황영호, 제주~목포 간엔 신광호를 운항하는 여객선 대리점으로 사무실은 서부두 입구쪽에 있었다. 제주읍 부읍장을 지낸 문종0이 전무, 지배인은 박0길로 그를 포함 직원이 5명이었다. 47년 이 회사를 다니며 오현중 야간에 입학했다. 야간부는 당시 학생이 40~50명이었다. 책은 없어 선생이 흑종이(똥종이)에 프린트한 것이 전부였다. 때때로 이 프린트물을 뒷 호주머니에 구겨 넣고 수업이다

끝나기 전 수업을 빼먹고 도두동에 사는 친구 2~3명과 제주극장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 극장은 의자가 없어 가마니를 깔고 앉아 구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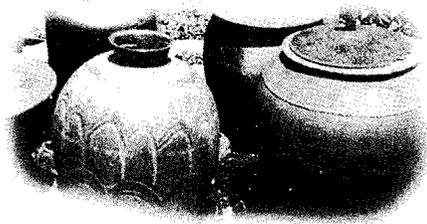
48년 2학년이 되고 혼란스런 시국은 마침내 4·3으로 터지자 회사도 학교도 그만두게 됐다. 공부에 회의를 느꼈고 흥미도 잃었다. 용담동 동네 선배들이 대동청년단에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했다. 10월쯤 죽창을 들고 토벌대를 따라 관음사 일대에 토벌에 나섰다. 비를 옷에 흠뻑 맞아 저녁이 되면서 추위가 심했다. 숲을 만들었던 '백탄굴' 속에 들어가 추위를 녹였다. 굴속이 워낙 비좁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사람들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며 하룻밤을 보내고 굴속을 나왔다. 관음사 절 법당 안에 산속에 대피했다 귀순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한 순간 보기도 했다. 당시 낮엔 경찰이 무섭고 밤엔 폭도가 무서워 무조건 도피하던 때여서 갖가지 생각이 머리를 맴돌기도 했다.

김기행은 19살 때 1살 위 도두2동 사수동의 강신생과 결혼했다. 슬하에 5남3녀를 뒀다. 장인 동생이 도두에서 고기잡이 나갔다가 도두항에 귀항했는데 토벌대에 잡혀가 폭도 습격과 도두봉에서 나팔 분 사건으로 도두 주민들이 도두초교에서 총살당했을 때 함께 희생됐다. 그의 가족 중 유일한 희생자이다.

6·25가 나자 50년 9월 1일 육군에 입대, 9연대로 지리산 공비 토벌에 투입됐다. 공비들은 숨었다가 일시에 공격하기 일쑤였고 총알이 땅에 박히며 인 흙먼지로 인민군의 위치를 알고 그 방향으로 총을 쏘아대는 일이 많았다. 중공군이 개입으로 국군이 일진일퇴하는 강원도 고성 남강 무명고지 전투 때였다. 그의 소대장은 고참 상사이고 이웃 소대인 1소대장은 김녕 출신 방위장교 고 소위였다. 고 소위가 왜 일인지 서서 인민군에게 사격하다 인민군의 총에 가슴을 맞고 숨지는 것도 보았다. 나무가 굽혀져 길가에 나무 터널처럼 보이거나 나무를 치우려다보면 지뢰가 터져 사상자가 생겼다. 낮에 국군이 점령하면 밤엔 중공군들이 시체를 밟고 시체에서 총을 집어 다시 공격하는 인해전술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평소 M1 사격 솜씨는 90%

이상 적중률이 되지만 중공군에겐 당해내지 못했다. 전투 중 철모를 뚫고 왼쪽 눈가 이마와 엉덩이에 인민군 포탄이 박혔다. 민간 인부 등에 업혀 후방으로 오는데 다른 부상자를 업은 인부가 논길에서 지뢰를 밟아 두 사람 모두 숨지는 것도 보았다. 부산 동래 31육군병원에서 8개월간 치료를 받고 낮자 부산 302항만대대로 배치됐다. 부산4부두에 있던 그의 2과(정보) 과장은 상사였다. 소위(장교) 30여명으로부터 그의 과장이 구타당했다. 그는 PX에서 술을 마시고 한 장교를 붙잡아 보복 구타를 했다. 이 사건으로 6항공대로 전출되고 54년 7월 이등중사(병장)로 제대했다.

김기행은 제대 후 이도동 직원과 국가 정보기관에서 13년 기능직 공무원을 했다. 제주향교의 훈장도 됐다.



고향 동갑 20여명이 모두 죽었다

- 고성 종 (高成鐘, 30년생, 제주시 용담2동)

- 2013. 5. 7. 증언

고성종은 애월 금덕 속칭 '거문대기' 출신이다. 아버지 고정선이 외가인 현 제주공항 일대인 묵은 정뜨리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첫 돌도 되기 전 세상을 떠나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어머니 김무생도 그를 4살 때 외가에 맡기고 개가하는 바람에 외할아버지 김석진 밑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3남1녀 중 맏 딸. 큰 외삼촌 김삼룡과 둘째 외삼촌 김문빈은 일제 때 일본으로 가 제봉기술을 배워 첫째 삼촌은 해방 후 제주에서 양복점을 하다 부산에서 양복점을 했고, 둘째 삼촌은 제주에 오지 않고 일본에서 양복점을 했다. 셋째 삼촌 김공빈은 그보다 한 살 밑이다. 함께 자고 놀아 친구처럼 자랐다. 당시 묵은 정뜨르는 기름진 평야지대, 그가 8살 때(1937년) 일제는 그곳에 비행장으로 건설했다. 80여 가구는 현재 용담2동 신(새) 정뜨르로 모두 이주했다.

고성종은 배우지 못해 한글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친구처럼 지내는 막내 삼촌은 같이 밭에서 김을 매다 12시 사이렌소리가 들리면 제주북초등학교를 갔다. 삼촌은 학교를 갔지만 그는 계속 김을 땀다. 이 막내 삼촌은 제주중 2학년 때 6·25가 나자 해병 4기로 출전, 부상을 당해 돌아와 50세 전후에 병을 얻어 죽었다.

고성종은 47년 2월 어느 날 정뜨르 공회당 2000여 평의 마당에서 또래들과 속칭 하루(간이 손 야구)를 하고 놀 때 3·1절에 관덕정에서 운동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운동회란 호기심으로 집을 나서 3·1 오전 10시쯤부터 관덕정 남쪽 편 담벽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관덕정이 가득하게 관중들

이 만세를 부르고 왓샤 시위를 하는 도중 기마경찰이 오가며 길 정리를 했다. 돌연 처음 총소리가 한 곳에서 나고 관중들은 혼비백산,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고 몇 곳인지 모르게 총소리가 이어졌다. 서문다리까지는 뛰어 도망치고 다리를 지나서는 한숨을 돌려 향교동산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다. 관덕정과 묵은 정뜨르까지는 한 참(2km), 새 정뜨르는 1.5km정도 거리이다. 기마경찰이 경고 사격을 했다는 간접 증언이다.

정뜨르에서는 4·3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5·10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3형제 중 막내로, 큰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어 둘째 아버지의 큰 아들 고용종이 큰 아버지 밑으로 양자 갔다. 고용종은 똑똑하여 당시 거문대기 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폭도한테 죽었다. 둘째 사촌 형 고완중(25)은 일제 때 연성소 출신으로 4·3이후 행방불명이다.

고성종의 고향 거문대기 동갑내기는 20여 명이나 4·3 때 모두 죽었다. 하귀중학을 다녔던 강00(20)과 고00(20)은 똑똑하여 폭도로 휩쓸렸다. 거문대기는 유수암보다 위쪽으로, 산 쪽에 가까운 지리적인 탓으로 폭도들의 세력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희생이 큰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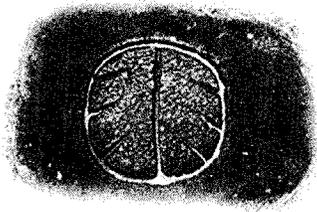
정뜨르 청년들은 서문파출소 용담특공단(단장 장만옥)이 됐다. 고성중도 2년여 여름에는 오후 8시, 겨울엔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매일 보초를 썼다. 보초막은 해태동산과 서문다리 위쪽 편 등 3곳. 파출소에서 지급한 일제 99식총을 들고 5~6명이 보초를 썼는데 위험한 때는 없었다. 4·3 때 정뜨르에서는 폭도는 없었고 희생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2살 때 동갑인 노형의 현영옥과 결혼했다. 슬하에 4남2녀를 두어 대를 잇게 됐다.

24살 때 휴전이 된 후인 53년 8월 육군에 입대, 모슬포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모슬포에서 29사단 창설요원이 됐으며 83연대에 배치돼 강원도 양양, 건봉산 일대에서 4년여 근무하다 하사(병장)로 제대했다.

고성종은 트럭타를 직접 몰며 3년 전까지 1만여 평에서 맥주보리를 재배

해 40kg 들이 600가마를 생산, 농협공판장에 팔았다. 남의 밭도 갈아준다.
최근 힘이 부쳐 경작 규모를 줄였다. 집 근처 300여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상
추 등 각종 야채를 길러 그의 부인이 매 5일장마다 내다 팔고 있다.



열심히 살았다

- 문 달 진 (文達珍, 29년생, 제주시 월산동)

- 2013. 5. 21. 증언

월산동은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뤄졌다. 옷동네 50여 가구, 알동네 새별이 30가구, 뱃밭 10여 가구, 방아동산 위의 '개진이', '드르구렁' 등 모두 120여 가구. 노형동 전체가 700여 가구로 보면 적은 마을은 아니었다.

문달진은 부친 문두은 슬하에 3남2녀 중 차남이나 3살 위 큰 형이 20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나 장남 역할을 했다. 10살 때 노형 개량서당인 천진의숙에 입학, 3년을 다녔다.

47년 3·1 행사 때는 당시 홍순만 마을이사장과 반장 김석주(당시 노형서당 교사)등이 같이 가자며 인솔하여 노형 서당(학교)에 모여 또래 3~4명과 함께 제주읍내 제주북초등교에 갔다. 북교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으로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3·1 행사 독려를 했고 월산에서 좌익활동을 주도하고 폭도가 된 대표적 인 3인방은 강00(20)와 소00(21), 이00(21)이다. 강00은 농업학교 출신이고 소00은 도두초교 출신, 이00은 노형초교를 나왔다. 이들은 5·10 선거 때도 "우리말을 잘 들으라.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선거를 반대하고 산으로 몰아냈다. 월산에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달진은 산에서 잠은 자지 않고 한나절 있다 내려왔다.

이 3인방의 영향으로 도두초교를 나와 똑똑했던 백00(22)과 백00(17) 형제는 4·3 직후 입산하여 폭도가 됐다. 이들 형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 백00(48)과 모친은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이00의 둘째 형 이00(26), 소00

의 동생 소00(18)도 폭도가 됐다. 강00 부인도 산에서 체포되어 총살됐다. 또한 문달진의 5촌 조카 문00(22), 문00(19) 형제도 이들 꺾임에 빠져 폭도로 있다 체포돼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됐다.

48년 11월 하순 마을이 불타고 소개할 때 문달진 가족은 부친의 친구 고삼진이 있는 백계(이호1동)로 갔다. 갖고 갔던 식량이 떨어지자 밀기울과 무로 죽을 섞 먹고 썩 범벅으로 끼니를 때웠다. 문달진은 집에 있었던 돈만 치 남에게 돈을 더 빌려 눈 한쪽이 잘못된 병신 말과 마차를 샀다. 이 마차로 농번기 때 퇴비 운반과 조, 보리 수확 때 운반, 이호 돼지 장사꾼이 의뢰한 돼지를 제주읍내 서문시장까지 신고 가는 일을 도맡았다. 읍내에서 돌아올 때도 빈 마차로 오지 않고 소금 등 생필품과 채소 등을 신고 왔다. 읍내에 갔다 오면 보리짚 두 말꼴로 벌이가 됐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 땅 100평에 방 3개가 있는 8평짜리 초가집도 샀다. 시국이 점차 안정되자 집을 팔아서 월산에다 밭 1,000평을 샀다. 현재 이 밭은 평당 80만원을 호가한다.

50년 8월 문달진이 22살 때 광령리 출신 20살 고경숙과 결혼했다. 슬하에 4남2녀를 두었다.

결혼 1주일만인 50년 9월 1일 육군에 입대, 7사단 8연대 소속이 됐다. 강원도 영일산 야간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탄 파편이 콧잔등 쪽 오른편 눈에 맞았다. 좁쌀보다 조금 큰 파편이 다행히도 눈동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수술이 위험해 파편을 빼내지 못하고 지금도 만져지는 파편으로 부산 3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고 53년 4월 일등병으로 명예제대 했다.

제대 후 밭농사와 함께 어미 소 3마리를 키워 송아지를 길러 팔았다. 월산 이사장(통장)을 2년여 했고 노인회장도 3년간 했다. 5년 전 부인을 사별하자 4 며느리가 한 달씩 저녁 당번을 맡는다. 큰 아들 문태선은 상수도본부의 공무원이고 사위는 월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작년 척추 디스크로 서울에 가 대수술을 받았다. 이때 전신마취로 건망증이 생겼지만 치매까진 아니어서 건강하다. 술도 가끔 마신다.

가족피해는 없었다

- 김 여 준 (金麗準, 28년생, 제주시 월산동)

- 2013. 5. 15. 증언

월산동은 알(아래) 동네 '모름이' 30가구, 웃(위) 동네 '새별이' 20가구 등 당시 50여 가구의 마을이었다. 김여준은 부친 김원일과 모친 김원실 사이 5남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6살 위 큰 형 김여문은 14살 때 일본으로 갔었고 징용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후 병으로 죽었다.

김여준은 8살 때 노형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노형초교는 천진의숙 시절이어서 개량서당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그는 서당을 10여 년간 다녔다고 말했다.

47년 3·1 행사 때는 또래 김태수, 현백호 등 4명과 월산에서는 모두 8명이 노형학교(서당)에 모여 노형 일대(노형, 정존, 월산) 청년 40여 명과 함께 제주북초등교로 갔다. 행사가 끝나 읍내 한 바퀴를 돌고 남문통에서 관덕정에서 내려가는데 총소리가 들리자 놀라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 김여준은 김태수, 현백호 등 3명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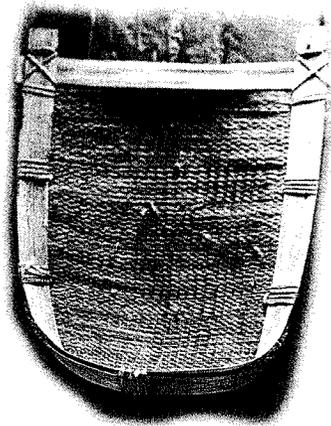
48년 5·10선거 때는 위험하니 모두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

토벌대가 소개하라며 마을을 불태우자 어머니 오빠(외삼촌) 김영화가 살고 있는 백계(이호1동)로 소개했다. 김영화는 도두지서의 특공대장이었다. 소개 때 김여준도 특공대원으로 백계를 에워싼 성안에서 보초를 섰다.

22살 때 4살 아래 하귀 출신 강보환과 결혼 1남 4녀를 뒀다. 가족 중 4·3 때 인명피해는 없었다.

6·25가 나자 50년 9월 1일 육군에 입대, 11사단 9연대 2대대 8중대(화기중대)에 배치돼 81mm 박격포 분대에서 전투했다. 중동부전선 강원도 사창

리 전투에서 배와 왼쪽 허벅지에 포탄 파편이 박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파편을 제거하고 뼈를 다치지 않아 움직일 수 있자 다시 전쟁터로 투입됐다. 분대장과 선임하사를 거쳐 53년 10월 일등중사(하사)로 제대했다. 귀가 어둡고 말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



우익 대표 사촌 형 살해범을 잡으려 사촌들이 희생됐다

- 이 보 연 (李輔連, 29년생, 제주시 이호1동)

- 2013. 4. 30. 증언

이보연은 아버지 이남수, 어머니 김계춘 사이에 태어난 4남3녀 중 4번째(남자로는 3번째)이다. 14살에 한문 서당에서 2년간을 배우고 일본말을 배우기 위해 도두 창림서당에 3학년으로 편입, 4학년 때 해방이 됐다. 창림서당에는 교사가 5~6명이 있었다. 도리초등학교를 졸업하여 부친이 갖고 있던 독배(노젓는 풍선)를 타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을 잡았다.

47년 3·1 시위 때는 벗들이 함께 가자고 하여 오전 8시쯤 집을 떠나 1시간 후는 서문다리를 건넜다. 그때는 경찰이 서문다리를 채 막고 있지 않았다. 제주북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관덕정에서 행사를 지켜보다 일행과 함께 옛 제주시청 쪽 왔을 때 총소리가 들리자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 제주향교 앞에서 미군들이 기관총을 건 차를 타고 읍내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큰 일 났구나' 생각하며 겁이 났었다.

10살 위 큰 형 이호연(28)은 18살 때 일본에 돈 벌러 나갔었고 3살 위 둘째 형 이정연도 해방 후 밀항으로 일본에 형 따라 갔다가 47년 7월쯤 모두 귀국했다.

48년 4월 6일 이호리에 폭도들이 습격하여 일제 때 철학박사로 대청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우익계 거물 이도연(36) 등 2명을 살해했다. 이도연은 이보연과 사촌지간이다. 이즈음 우익계 도평 이원평, 내도 심현집 등도 살해됐다.

이호 1동에는 일제 때 구장을 역임한 김정풍(46)과 그 아들 김00(22, 월북), 일본으로 도피한 박봉준, 박영수 등이 좌익계 거물들이었다.

5·10 때 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여 ‘광고 모루’ 위쪽 ‘해안밴디’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보연도 부모, 형, 동생 등 가족 전부 산으로 올라갔다. 노약자 몇 명을 빼고는 모두 올라갔다. 당시 이호1동의 가구는 80여 가구였다.

이보연은 결혼한 형님들이 자식이 없자 대를 이어야 한다며 19살 때 3살 위의 도평 출신 문인생과 결혼했다. 당시는 분가해야 함께 살던 시기(시집에서 2일이면 친정에서 8일 살던 때)였고 아내는 남편의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겨 이따금씩만 말총(말 꼬리 털)을 들고 시집을 찾았다.

48년 12월 어느 날 이보연의 4촌인 이도연을 살해한 폭도를 가려낸다며 이보연과 형 2명 등 3형제와 처남 등 4명이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에서 이보연은 이도연의 아들 이종문과는 동갑이어서 같이 자고 노는 사이임을 밝혔다. 49년 1월 제주~목포간 이리호를 타고 3형제가 같이 압송됐으나 목포에서 가는 곳이 달랐다. 이보연은 소년범이어서 인천형무소로 갔다. 형무소 정문에서 ‘내란죄 1년형’이란 말을 듣고 너무 기뻐다. 무기, 15년형에 비하면 1년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생각했다. 형무소에서는 사상범이라며 일도 시키지 않았다. 부모 얼굴이 보고 싶어 귀국했던 큰 형은 15년형, 둘째 형은 5년형을 받아 경북 김천 형무소로 갔던 것. 큰 형의 죄가 무거운 것은 한국말이 서툴렀고, 주변에서 ‘예예’하면 좋다고 하여 죄를 뒤집어 쓴 것으로 본다. 사촌을 살해한 범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범인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25 이후 생사불명이다.

49년 2월 7일 도평에 있던 처 문인생(21)과 처남 문00(26), 문00(20), 처제 문00(17) 등 4명이 외도지서로 끌려가 총살됐다.

49년 2월 19일, 폭도들이 이호1동을 습격, 집에 불 지르고 양희봉(73), 황남연(58), 김용직(38) 등을 살해했다. 이보연의 동생 이희연(17)은 폭도들의 철수한 것으로 알고 지붕위로 올라가 불을 끄다 폭도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49년 11월 이보연은 인천형무소에서 만기 출소돼 고향에서 부친을 따라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했다. 50년 6·25 후 얼마 없어 돛자리를 잡고 막 귀향했을 때 도두지서 주임이 그물 등 장비를 모두 올리고 정리토록 한 뒤 도두

지사로 연행했다. 이어 읍내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얼마 없었던 수감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 4명 감방에 50~70명이 됐다.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려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유치장 마당에 GMC가 3~4대 주차해 있고 호명하며 한 사람씩 포승을 지우고 차에 태웠다. 2~3차례 호명이 이어졌지만 다행히도 그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며칠 후 미 고문이 유치장을 찾아와 돈 가져온 것을 말하라며 경찰에게 돈을 지급토록 하고 음식을 사 먹도록 허용했다. 이보연은 이때 극도로 쇠약해 거동치 못했다. 남문통의 적십자병원에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석방됐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의원을 불러 치료받는 등 3개월여 만에 회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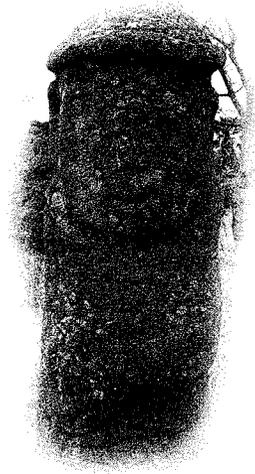
이보연은 21살 때 1살밑의 같은 동네 이덕자와 새장가를 갔다. 슬하에 8남매를 뒀다. 처 이덕자는 앞 못 보는 시어머니를 70세부터 101세까지 봉양, 효부상을 받았다. 처도 10여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보연은 52년 4월 3일 모슬포훈련소에 입소했다. 같이 훈련받은 1연대 11중대원 대부분이 전사했다. 이보연은 8주간의 하사관 교육을 받은 것이 행운이었다. 하사관 교육을 마친 50명 중에도 앞에 있던 전우들은 각 연대로 차출돼 전방으로 떠났다. 후열에 있던 8명은 수도사단 수색중대로 배치됐다. 수도고지 전투 때는 20~30m 후방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격전을 벌이기 일쑤였다. 8명 중 도평의 김세원(후일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이호의 김종희(재일본) 등 3명만 살았다. 고지 담당 병력이 7사단으로 교체돼 양구 야전병원에서 간장염 수술을 받고 다시 전방으로 교체될 때 후방으로 이송됐고 하사로 의병제대 했다.

군 제대 후 마을 일을 열심히 했다. 마을 정화위원장, 투표구관리위원장 등을 맡았고 제주시장 감사장 등 표창도 여러 차례 받았다. 해방 전에 일본으로 시집 간 누님 이지연이 일본에 오도록 초청돼 일본으로 3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거절됐다. 처음 연좌제를 알게 된 것이다. 이는 경찰서 형사가 그에게 귀뜸을 해줬다. 육군본부와 치안본부에 동네에서 일한 내용 등을 적어 탄원서를 내라는 것이다. 81년에 치안본부에서 여권을 신청토록 통보해왔다. 그 후로

일본 여행이 자유로웠다. 또 제주대학 전기통신과를 다니던 셋째 아들이 연좌제로 ROTC 지원을 포기하게 됐을 때 가슴이 아팠다. 이보연은 4년여 노인회장도 지냈다.

이보연은 “첫 부인 가족과 혼자 남아있던 장모까지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이들 장례를 잘 치른 것이 나의 목숨을 살렸다”고 밝혔다.



키가 작아 19세이나 14세로 말하여 살아났다

- 고 승 만 (高承萬, 30년생, 제주시 도두1동)

- 2013. 4. 23. 증언

이호2동 오도룡에서 태어나 해방되던 11살 때 의도초등학교를 1회로 졸업했다. 오도룡에서는 학교까지 30~40분 거리, 김성현, 김임호, 김경종, 김문일 등 5명이 다녔다. 이철희 전 초등학교 교장과 정치인 신두완과도 초등학교 동창이다. 초등학교 졸업 전에 오현중에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다. 제주중(3회 졸업)에 입학했다. 의도교 출신으로 동기 제주중 입학은 장창선, 박성언 등 4명, 오도룡에선 농업학교, 오현중 등 중학생이 9명이었다. 제주중학생은 3학년에 김상백, 2년에 고용화, 1학년은 김상훈 등 5명이었다. 고승만은 당시 키가 작아, 또래, 선배와 발걸음을 맞춰 학교에 가려면 그는 반은 걷고 반은 땀박질해야 했다. 오도룡에서 제주중까지는 걸어 1시간 10분 거리.

52년 군대 가기 전 그의 키는 1m58. 47년 3·1절 시위 때도 그의 참석을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다. 학교에서 좌우 대립에도 키가 작아선지 그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 됐다. 당시 9월 학기로 3학년이 돼 한 달 남짓 공부한 후 계엄령이 내렸다고 휴교한 후 학교를 다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아 오도룡을 떠나지 못했다.

오도룡은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농업학교 교사로 3·1시위를 주동했고 남로당 조직책이었던 고칠종의 고향. 고와 농업학교를 함께 다닌 김00(26, * 전 농업학교 교사, 재산관리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김민하(41)가 좌익 세력의 주축이었다. 고승만과 제주중을 같이 다닌 김상훈(20)은 김민하의 아들로 폭도의 지휘관급, 그들 일가족은 대(代)가 끊길 정도로 희생이 많았

다. 고승만의 제주중 선배 김00(24)도 폭도가 됐다.

고승만은 키가 작은 이유로 끼워주지 않았다. 오도룡은 양촌으로 나이 한 살 차이로도 선후배를 엄격히 가려 고승만에게 집에 가라면 거슬리지 못 해 집에 돌아올 정도여서, 반면 좌익과 휩쓸리지 못한 까닭도 됐다. 오도룡은 폭도 마을로 일컬어지나 고승만은 잘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

고승만 집안의 비극은 48년 12월 31일, 마을 사람들이 폭도들에 의해 집단으로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아버지 고운상(56)을 남기고 그의 어머니 문재아(56)와 3남매가 마을을 떠나면서 부터이다. 민보단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마을을 지키겠다고 집에 남았던 것. 이튿날 토벌대는 산으로 올라간 가족 7명을 가려내 총살했다. 집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다. 중학 2년 때 도두리로 시집 간 고승만의 6살 위 누나 고계영은 아버지 고운상이 집에 기르던 말 1필과 소 6마리를 버리고 차마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죽게 된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고승만은 동도 트기 전 새벽에 6살 아래 고영우를 등에 업고 마을사람들을 뒤쫓아 맨 나중 마을을 떠났다. 날씨는 춥고 눈까지 내렸다. 어승생 뒤 사제비동산 밑 골짜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이 눈에 빠져 걷기도 힘들었다. 이미 도착한 마을사람들이 움막 2채를 마련했다. 움막생활을 하던 중 49년 2월쯤 토벌대에 의해 발각돼 고승만은 몸을 피하고 어머니와 동생 남매는 붙잡혀 제주주정공장으로 끌려갔다. 고승만도 피해 다니다

49년 4월 17일 현 충혼묘지 위쪽 99골에서 일행 6명과 같이 토벌대에 잡혔다. 끌려간 곳은 제주읍내 조일약국 옆 헌병대 본부. 이곳에서 취조 받을 때 몇 살이냐고 묻자 고승만은 '14살'이라고 대답했다. 키가 작았기에 헌병들이 19살임에도 속아 넘어갔다. 더 이상의 조사도, 고문도 없이 15여 일 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그래서 살았다.

그가 헌병대에 있었던 5월 2일, 한청단원으로 도두지서에 있던 처남 흥한림에게 주정공장에 있던 장모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흥한림

이 주정공장에 위독한 장모를 업고 나오는 도중 장모는 세상을 떴다.

고아가 된 고승만은 동생 남매를 데리고 도두의 누나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도두지서에서 특공대원으로 30여명과 함께하다 해안축산단지에 설치된 경찰 주둔소로 파견됐다. 주둔소에는 총이 3~4정, 1개 분대 병력 6~7명이 근무했다. 50년 7월 의용경찰대에 지원했다. 중학을 다닌 학력이 있어 2소대장이 됐다. 중대장은 경사로 2개 소대를 지휘했고 소대원은 22명이었다. 금악과 금덕, 어승생 등에서 근무했다. 폭도의 세가 꺾인 때이어서 저지리 일대에서 폭도를 추격하기는 여러 번 했으나 전투는 없었다. 추석을 앞뒤 어승생에서 근무할 때 지서장이 지서로 오도록 연락이 왔다. 만났더니 군대 영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고승만은 6·25가 나자 8번이나 군대를 지원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던 차였다. 또한 '토벌하다 죽으나 전쟁터에서 죽으나 죽는 짓은 같다'는 모진 생각도 있었다.

진해 해병훈련소에 갔을 때 키가 작은 고승만을 보고서 하사관이 뺨을 한 대 때리고는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징집되어 왔다'고 답했다. 지원해 왔다고 했다면 돌려보냈을 것이었다. 해병대 22기로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도서부대 화기중대 박격포반에 배치됐다. 2번이나 포위돼 전멸됐다는 진남포의 턱밑 석도로 갔다. 미 해병과 한국 해병 1개 대대씩 점령해 경비하고 있던 곳. 반장은 해병대 3기 신입출신 고용길 이등병조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군기를 세웠다.

석도에서 진남포를 보면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부대 철조망 밑에는 빨간 앵두가 주렁주렁 달려 앵두를 따던 병사가 적의 포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고 적의 포 소리가 들렸다 하면 전우 1명은 죽어 있었다.

고승만은 이 군대 생활동안 키가 10cm 자랐다. 그에게 찾아온 행운은 미군 부대 음식 c-레이션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다. 미 해병의 군속인 충청도 전우와 친구가 되어 이 친구가 베푼 것. 미군들은 보급품 창고에서 꺼낸 음

식물은 포장이 뜯기지 않아도 창고에 다시 넣는 법이 없이 쓰레기로 버렸다.

이를 아는 친구는 멀쩡한 것을 매주 수, 일요일 어느 나무 밑에 두겠다고 속삭였다. 삐쩍 말랐던 얼굴에 살이 오르고 키가 놀랄 만큼 컸다. 전쟁이 끝나 휴가를 나왔을 때 작은 어머니가 그를 보더니 '내 조카가 맞느냐'고 놀랐다.

휴전되어 백령도로 철수하고 해병 2연대 중화기 중대에서 통신대로 배치되어 고된 훈련을 받던 중 야전병원에서 혈압을 재었는데 220이라는 수치가 나오자 미군 의사가 놀라 후송토록 했다. 서울 제5해군병원에서 4일간 혼수상태가 되는 생사의 기로에 있기도 했다. 어느 정도 회복돼 55년 12월, 15일간의 휴가를 받고 도두에 오자 그의 누나가 결혼을 서둘렀다. 고승만보다 6살 아래 도두리 김옥순과 맞선을 본지 열흘만인 12월 12일 혼인을 치렀다. 슬하에 4남2녀를 뒀다. 결혼 4일 만에 귀대, 선임 하사관에게 고향집에 사람이 없고 막 결혼했다고 사정하며 매달렸다. 하사관으로부터 군의관이 제대를 특명할 수 있도록 비법(?)도 배워 이듬해인 56년 1월 30일자로 제대할 수 있었다. 심한 고혈압은 어느 날 코피가 나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것이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었다.

제대 후 고승만은 5명과 동업으로 6t 어선을 운영했다. 주낙으로 옥돔을, 일본조로 갈치, 고등어 등을 잡았다. 어촌계 총무, 통장, 7년여의 노인회장 등 도두의 명예직을 모두 거쳤다. 무공수훈자회 이호, 도두동을 책임 맡는 운영위원이어서 6·25를 맞아 전적지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그의 집 전화벨이 그칠 새 없었다.

호주가 할머니여서 할머니 덕에 살았다

- 김 원 서 (金元瑞, 29년생, 제주시 이호2동)

- 2013. 4. 30. 증언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6km쯤 떨어진 이호2동 오도롱은 큰 가름과 골앗, 호병밭 등 3개 자연부락으로 이뤄졌었다. 당시 이호1동보다 큰 200여 가구였다. 오도롱은 제주농업학교 교사로 47년 3·1 시위를 주동하고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책이었던 고칠종의 고향이다.

김원서는 독자로 11살 때 큰 가름 못 옆에 있던 학교에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도두초등학교를 다니다 더 나은 하귀초등학교에 5학년에 편입하여 해방되던 45년에 졸업했다. 오도롱에서 하귀초교까지는 걸어 40분여 거리, 김경식, 김필립 등이 동기생으로 노형 월랑에서도 하귀초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졸업 후 친족이 운영하는 마을 서당에 10여 명과 함께 1년여 다녀 천자문을 익혔다.

47년 3·1시위 때 마을 청년 30~40명과 함께 오전 8시쯤 집을 나섰다. 비행장(현 제주공항)을 가로질러 갔기에 제주읍 서문다리까진 1시간 거리로 그들 일행은 경찰의 제지 없이 관덕정을 거쳐 제주북초등학교로 갔다. 종이가 부족한 때여서 가마니에다 붓으로 표어를 쓴 것을 들고 갔었다. 시위를 마치고 제주향교에 왔을 때 짙은 총소리를 들었고 일행들은 뿔뿔이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48년 5·10선거 때 전날 오전에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해안 지경 '약은이 왔'과 '오로콤밭' 두 곳으로 나눠 도피했다. 다른 마을과는 달리 선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낯선 청년들이 동원되지 않아 노약자와 어린애들은 마을에 남았다. 그의 부친 김희권(44)도 집에 남았었다.

48년 12월 31일 폭도들이 오도룡을 습격했다. 김원서는 마을 청년 김종규와 함께 7살 위 골앗 마을 출신 폭도 변창호의 호출로 말 방앗간에 불러갔다. 변이 그의 뺨을 때렸다. “젊은 놈이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호통을 들었다. 모친과 의논하여 뱀비와 담요 등을 챙기고 어승생악 뒤쪽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뒤에 올라온 사람들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다. 그가 올라온 이튿날 그의 아버지가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는 것이다.

폭도들이 물러난 뒤 온 경찰은 폭도들이 붙이고 간 뼈라들을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때마침 정신 박약아인 김승봉을 보고 경찰이 추궁하자 김승봉이 ‘마을 책임자가 붙였을 것’이라는 대답에 경찰은 그의 부친과 김희선(52), 김맹림(56) 등 3명을 체포하여 총살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상(喪)이 나면 주민을 동원해 운구와 매장 등을 책임지는 조장이었다.

몸이 약한 김원서에게 산 생활은 힘들었다. 다행히도 그의 곁에 고모가 있어 병간호를 해주고 산으로 올라올 때 고모가 챙긴 납엿을 먹여주며 보살폈다. 김원서의 또래 김00 모친인 고모에겐 큰 아들 김00(22)가 4·3 직후 입산해 폭도가 됐으나 아들과의 연락은 끊겨 생사도 몰랐다.

49년 3, 4월쯤에 마을에서 500m 거리인 ‘남다리’ 돌무더기 밑에 굴을 파서 살던 김승봉의 형 김두봉이 경찰에 잡혔다. 내도 사람이 소를 돌보러 다니다 돌무더기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철모에서 음식 장만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김두봉을 앞세워 ‘내려와도 죽이지 않는다’는 귀순작전을 폈다. 산에 있던 70여 명이 떼 지어 내려오는데 김원서는 일행 중에 맨 나중에 있었다. 속칭 ‘모살도’에 왔을 때 군인들이 일행을 멈추도록 하고 군인 2명이 그들의 주둔지인 붉은오름으로 인솔했다. 폭도들에게서 뺏은 쌀이라며 줍쌀을 나눠주고 밥을 해먹도록 했다. 식사 후 군 주둔지인 노루오름으로 이동했을 때는 날이 저물어 컴컴했다. 군인은 젊은 이들을 나오도록 해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토록 했다. 이튿날도 쌀을 내주며 밥을 해먹도록 했다. 오전 10시쯤 마늘, 갈치 등 음식을 소 3~4 마리 등에다 신고 한림 주민들이 온 것을 보았다. 점심을 먹고 2시쯤 출발하여 하

산하는 도중, 군인들은 이곳은 '이덕구의 처가 죽은 곳'이라고 일행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애월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되었다. 나눠준 주먹밥을 먹고 하룻밤을 잔 뒤 제주읍내 동척회사(주정공장)으로 옮겨졌다.

첫 조사 때 용변이 마려운 참에 호주 이름을 묻자 김원서는 할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멈칫거리며 아버지 이름을 대자 방망이가 날려 왔다. 순간 화장실이 급하다고 간청,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서 할머니가 호주임을 생각해냈다. 호주 이름을 할머니로 댔다. 만일 아버지가 호주였다면 충살당한 아버지 땀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호주가 할머니였었기 때문에 김원서는 아무런 고문도 없이 일주일 만에 석방됐다. 할머니 덕에 그는 살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석방 후 모친이 살고 있는 내도로 가 살다 마을 재건 때 10여 채의 함바집이 지어진 '가물개'에서 살다 6·25를 맞았다.

오도룡에서는 폭도들이 습격했을 때 그의 사촌인 김경주와 김병준, 김정열의 딸(15~16세) 등 3명에게 '왜 산에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하며 끌고 갔다. 그들은 폭도가 되지 않고 49년 4월 귀순 때 내려와 살았다.

오도룡에 성이 쌓아진 후 좌익계의 거물인 김민하의 딸이 2~3살 난 아들을 한밤중 성안에 놓고 갔다. 그녀의 남편 김00 가족의 대를 잇도록 한 것으로 이 아이는 살아나 지금 스님이다. 자기와 함께 있으면 죽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모정(母情)이다.

오도룡은 고칠중, 김민하와 그의 아들 김상훈의 영향으로 폭도가 많다. 고칠중의 먼 친척 고00(26), 김상훈의 인척 김00(26), 김00(25) 등이 폭도가 됐다.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부추김과 어쩔 수 없는 휩쓸림으로 폭도였다가 희생됐다.

6·25로 오도룡에서는 해병대 3·4기로 7명이 입대, 참전했다. 이중 김형중은 전사자로 통보돼 가족들은 보훈가족이었으나 뒤늦게 김형중은 인민군으로 이복에 살아있다고 보훈가족에서 취소됐다.

김원서는 해병대에 지원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25살인 53년 6

월 입대 영장이 나와 모슬포에서 3개월 훈련 중 휴전이 됐다. 26사단 공병대로 배치돼 도로작업과 케이블 매설작업을 하다 첫 휴가 때 전속 특명이 나 춘천, 김해 보충대를 거쳐 1105야전공병단 130대대 창설요원이 됐다. 4주간의 폭파교육생으로 지명돼 교육을 마친 다음 원대복귀 기간이 1주일이어서 부산항 주변 지켓꾼들이 300원이면 먹고 자는 곳에 있다가 고향으로 왔다가 1주일 '미귀'했다. 부대원들은 난리였다. 중대장에게 혼 베타이 나고, 관대한 처분만을 바라며 만났다. 중대장은 폭파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원서는 정확한 답을 해나가자 중대장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여 용서 받았다.

54년 10월 청평 야전병원 급수시설에서 근무할 때 대대 부관 강00 중위로 부터 휴가를 같이 가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강 중위는 일본에서 태어나 서귀포 법환리에서 6살 때 육지로 나와 결혼 적령기가 되자 그의 누님이 신부를 제주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한다며 제주 실정을 알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한 것. 목포항에서 복장 불량으로 헌병에게 적발돼 자칫하면 배를 못 탈 것을 부관이 부탁하여 배를 탈 수 있었다. 당시 시외버스 차부(터미널)은 관덕정 앞쪽이어서 산지항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산지항에서는 때마침 그날 목포행은 배가 두 척이 운항, 부관은 먼저 떠났고 기다리다 나중 배에 탔다. 목포를 떠나는 열차에서 만나 함께 귀대했고 부관은 “곧 제대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두 달여 만인 55년 1월 1일 하사(병장)로 제대 특명이 났다. 제대 약속은 그가 24살 때 4살 아래 오도룡의 김차숙과 막 결혼, 신혼 때 군대를 갔기 때문이다. 슬하에 5남4녀를 두었다. 큰 아들은 사촌, 둘째는 육촌에 각각 양자를 보냈다. 김원서는 공병부대 근무 인연으로 토목회사와 상수도회사 등을 다녔다. 김원서는 지금도 경운기를 직접 몰며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밭에 바빠 다녀 세 번째 약속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아들 셋이 사범고시에 합격했다

- 강 석 진 (姜錫珍, 31년생, 제주시 해안동)

- 2013. 5. 7.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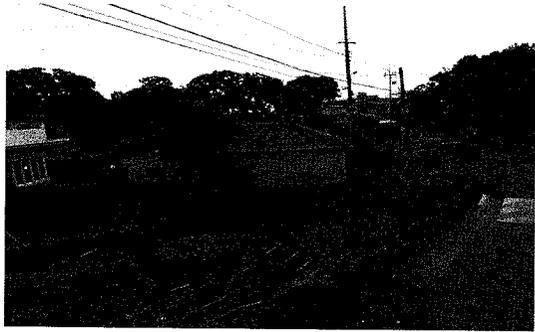
당시 해안동은 동동, 중앙동, 상동 등 3개 자연부락에, 가구 수는 300여 가구나 되는 큰 마을이었다.

강석진은 생후 8개월에 아버지 강언국이 21세 나이로 세상을 떴고 그의 어머니도 7살 때 개가해 할아버지 강원경(姜元景) 밑에서 자랐다. 8살 때 제주북초등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갔으나 지각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못했다. 해안에서 학교까지는 9km, 걸어 1시간 20~30분여 거리로 걸어 도착해보니 10여분을 늦고 말았다. 1개 학년에 100명을 선발하는데 응시생이 넘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9살 때 외도초교에 입학했다. 해안에서 학교까진 5~6km, 갈 때는 40~50분, 돌아올 때는 1시간 10여분이 걸렸다. 해안에서는 25명이 다녔고 동창생은 홍경주, 김병훈, 김평식, 신현현 등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할머니 김병송이 그를 키웠다. 중학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마을 서당을 48년까지 3년여 다녔다. 서당 학생 수는 20~30명. 집안일도 보면서 제사 때 축과 지방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서당을 다녔다.

강석진은 일제 말기에 할아버지가 병석에 눕는 바람에 15세 이전에 근로봉사를 나갔었고 공출도 그가 도맡았다. 가로 세로 30cm 규격의 때(진디) 10장씩을 등에 져 제주비행장까지 날랐다. 절간고구마는 고구마 주산지인 애월 상, 하가까지 가서 사와 공출하고 들풀로 설사를 멈추게 한다는 '젠노쇼고'까지 공출했다.

47년 3·1 시위 때는 관덕정과 서문다리 사이인 현 제주은행 서문지점 자리

에 있던 큰 고모 국수가게에서 맛았다. 국수를 뽑아 말려 포장하여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고모집에 용돈도 별 겸하여 5일전서부터 있을 때였다. 오전 7시쯤부터 왓샤 함성이 들려와 가게 문을 열고 행렬을 지켜보게 됐다. 1시간쯤 경찰이 제지하여 행렬이 끊겼는가 싶더니 경찰의 제지를 무너뜨리고 행렬이 이어지며 관덕정으로 몰려갔다. 점심을 먹고 오후 들어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잠시 멈췄다가 콩 볶는 듯 총소리가 요란했다. 참석자들이 놀라 숨고 도망치는 야단법석도 순식간이고 잠시 후는 인적이 끊겼다. 나중 경찰의 총에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안에서는 요망진(똑똑한) 청년들로 알려진 홍두표(25), 강기화(24), 강위경(38) 등이 3·1 시위에 참석했다.



5·10선거 3~4일전 해안에는 외도, 도평, 도두 사람들이 소에다 식량을 싣고 피란 온다며 떼 지어 해안 위 소나무 밭 ‘붉은 덩어리’, ‘골내미(현 축산단지 부근)’ 등지로 올라갔다.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올라 온 것. 정작 해안 사람들은 상당수가 움직이지 않았고 강석진 가족들은 집에 가만히 있었다.

해안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48년 5월 9일 밤, 폭도들은 선거관리위원인 신현표를 앞세워 후일 강석진의 장인인 현덕운 선거관리위원장 집을 습격했다. 현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인수 후 지붕을 이을 새 못(뭍음) 틈 사이에 투표용지를 감추고 잠이 들었다가 불길함을 느껴 집을 나와 피신했다. 이때 폭도들은 현 위원장이 없자 신현표에게 투표용지를 찾아내라며 신 위원의 팔을 칼로 내리쳤다. 피가 낭자한 가운데 신 위원은 ‘위원장이 관리하여 모른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폭도들은 투표용지를 찾을 수 없었다. 투표율은 모르나 ‘듬뜰거리’에 있던 향사에서 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 위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나아 큰 피해는 없었다.

해안의 소개는 48년 11월 21일에 이뤄졌다. 소개가 있기 이틀 전 외도지

서 경찰관이 집을 소개 후 모두 불태울 것이니 식량과 가재도구 등을 모두 집박으로 옮기도록 했다. 사전 예고가 있었던 것이다. 후일 땅에 파묻어 감췄던 식량은 폭도들이 훔쳐가고 도피했던 주민들이 파헤쳐 한 톨도 없었다.

강석진 가족들은 작은 고모가 있는 도평으로 갔다. 도평은 당초 소개할 계획이 없었다.

49년 1월 3일 소위 '함정 토벌'사건이 도평에서 있었다. 외도지서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인공기를 들고 갈증의를 입어 폭도흉내를 했고 진수(進修) 서당 운동장에 모인 주민 70여명을 끌고 가 총살했다. 도평 주민 중에 폭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강석진은 이때 고모에게 모두 모이도록 한다고 말하자 고모가 '소개민은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가지 않아 무사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셈이다. 외도초교 선배인 1살 위 최윤언은 이날 운동장 입구 쪽에서 아는 외도지서 순경을 만났다. 그 순경은 뒷하러 왔느냐고 말하고는 저쪽으로 가 있으라며 열외를 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줄줄이 한 손씩이 묶여져 끌려나가 외도지서 인근 '웅텡밭'에서 총살됐다. 최윤언은 총살당한 웅덩이 시체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음에 열외 돼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도평은 소개됐고 강석진은 작은 고모와 함께 제주읍내 고모집으로 갔다.

6·25가 나자 8월, 9월 두 차례나 육군에 입대를 지원했으나 몸이 허약해 불합격하고 세 번째로 합격, 50년 10월 1일 입대가 됐다. 모슬포에서 1주일간 훈련을 받고 LST를 타 부산 동래에 도착, 배치된 곳은 강원도 철원의 9사단 30연대. 그곳에서 선택된 병과는 정보병, 수색중대원이 됐다. 전투대대보다 늘 5km 정도 앞서 척후병이 되어 적정 정보를 수집,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면 작전이 개시되는 것이다. 51년 2월 25일 설악산 인근에서 한창 주위 정찰 중 인민군 척후병들과 맞닥쳤다. 잠시 후 인민군의 총탄이 왼쪽 발등을 때리며 빗겨 나갔다. 야전병원에서 한 달간, 대구 육군병원에서 석 달간을 치료받고 7월에야 퇴원해 부산 보충대에서 부산병참부대 세탁중대로 배속됐다. 대대장 전령을 맡

다 54년 6월 일등중사(하사)로 의가사(독자) 제대했다.

24살 때 현덕은 투표관리위원장의 딸인 1살 밑 현순자와 결혼했다. 슬하에 4남2녀를 두었고 큰아들 창재, 셋째 창조, 넷째 창균 등 3명이 사법고시에 합격, 첫째, 셋째는 검사를 거치는 등 3명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가훈은 '근면, 성실, 협동, 봉사'로 자식들이 모두 훌륭히 자랐다.

군 제대 후 화북초교를 졸업하고 일제 때 구장, 이장을 지내 해안동장이 된 김기언 밑에서 1년 반을 동서기로 있다 김 동장이 몸이 아파 27살(57년) 때 해안동장이 되고 5년 동안 일했다. 해안동이 노형동으로 편입되자 해안 마을 이사장, 의례간소화를 추진했던 재건축년회장, 해안초등교 추진위원장, 정화추진위원장 등을 거쳐 6년여의 노인회장 등을 지냈다. 노형동개발위원장, 노인회 노형동분회장, 제주도노인대학 총동창회장 등과 6·25참전유공자회 감사, 부지회장을 거쳐 2012년 12월 제주도지부장을 맡고 있다. 그의 부인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50년여 잡화가게,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해안동은 강위경, 강기화, 홍두표 등의 영향으로 앞장서기 좋아했던 김 00(33)과 똑똑했던 고00(24)가 좌익 활동에 이어 폭도가 됐다. 월산으로 시집간 김00(22, 여)이 남편 때문일까 좌익활동을 하고 폭도가 됐다. 이 누이동생 때문일지 해안동의 인재로 화북초등교장을 지내 도평초등교장이었던 오빠 김 00(31)가 총살됐다. 누이 때문에 오빠가 애꿎게 죽었다고 본다. 김00의 동생 김00(26)은 청력 장애자인 강상주와 함께 9연대 토벌대의 길 안내역으로 관음사로 가던 도중, 귀 먹은 강상주는 도중에서 돌아왔으나 노형 위에서 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총살됐다. 48년 10월쯤 송창룡은 집 마당에서 콩을 수확하다 토벌대가 왔다고 하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 도망가다 총살됐다. 집에 그대로 있기만 했어도 살았을 것을 도망가다 죽었다. 고00(18), 김 00(19)은 제주농업학교 학생으로, 4·3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부친이 폭도에게 납치됐다가 기지와 용기로 탈출했다

- 고 시 수 (高時洙, 33년생, 전 서귀포시 교육장, 제주시 삼도1동)

- 2013. 6. 25. 증언

고시수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태어났다. 일제 때부터 강정리 구장을 하던 부친 고기생과 모친 김여산 사이에 8남매(4남4녀) 중 셋째. 7살 위 큰 형 고시중은 태평초 교사를 하다 방위군 장교로 참전했던 예비역 대위로 예비군 중대장, 농협조합장을, 2살 위 형 고시광은 목포사범을 나와 6·25때 고향에 온 뒤 막 바로 입대해 참전했던 예비역 대령출신이다. 막내는 고영길로 서귀포경찰서형사계장(경위)을 지냈다.

일제 당시 중문면에는 초등학교가 중문과 도순 2곳뿐이다. 중문초교에는 서쪽의 회수, 열리(예래)와 중문지역, 도순초교에는 도순, 강정, 월평, 용흥, 하원지역 학생들이 다녔다.

고시수는 8살에 입학, 도순초교 1회 졸업생이다. 강정에 계유생 갑장이 17~18명으로 도순초교 1학년 60명 중 강정 학생이 30~40명을 차지했다. 논이 많아 제1 강정으로 꼽히던 시절로 강정리 가구 수는 470여 가구나 됐다. 일조량이 많아 서귀포시 중 감귤 맛이 토평, 신·하효보다 더 맛있다고 했다. 6학년 담임은 고승규 선생. 일본 히로시마 교원양성소 출신으로 도장학사, 교장을 거친 뒤 부친 고기생이 중문면 면의장을 할 때 면의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46년 여름 강정 마을 향사 간이학교 마당 앞 속칭 '대추남밭'에서 대운동회가 열렸다. 이때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던 지식인 등 강정을 떠났던 좌익 지

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운동회를 주도한 것은 3명이다. 일본에서 외국어학원을 나온 윤상철은 대회를 알리고 대회장을 장식하는 널빤지 광고문을 도맡아 쓰는 등 주관했다. 그는 강정에서 처음 택시를 이용해 결혼했었다. 일본으로 도피해 조총련의 외무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거물이다. 또한 명은 조완식(일명 조석호)이다. 부친이 한량 생활로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 서귀포로 가 서귀초교를 거쳐 광주사범, 경성제대를 나와 평화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다. 6·25 때는 북한 정치보위부 인민군 대좌로 있다가 한국 특무대를 통해 전향하여 북한을 지탄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현오봉 자유당 국회의원과 친교를 맺었다. 그러나 4·19 이후 자살했다.

서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조00은 그의 사촌 동생이다. 조완식은 마을단위 강정예술제가 있으면 연사로 나와 시국 강연을 하면서 좌익사상을 주민에게 심었다. 다음은 중앙대(또는 와세다대) 출신 고인권이다. 학도병(하사관) 출신이기도 하다. 여운형 밑에서 선전부장을 했다고 한다. 한때 김달삼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다.

고시수는 46년 9월 서귀중에 입학하였다. 김황수 교사의 주선으로 교직원 관사의 빈방(기숙사)에서 생활했다.

48년 5·10 선거는 이장이었던 그의 부친이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아 무사히 치렀다.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한 것은 폭도로서는 지독한 반동이다.

48년 8월말, 새벽 3시쯤 강정출신 2~3명 등 폭도 7~8명이 고시수 집을 습격했다. 마루로 폭도 3~4명이 올라서는 소리를 듣고 모친이 부친을 깨워 부친이 뒷문을 통해 대나무밭으로 도망쳤지만 폭도들은 집 주위를 포위, 대기하고 있다가 붙들고 산으로 납치해 갔다. 이날 고시수는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부친 고기생은 도순천 상류 '진소'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용변이 마렵다고 하여 폭도들이 한 눈을 파는 사이 15m여 절벽 아래 진소로 뛰

어 들었다. 폭도들은 절벽 위에서 한참동안 돌을 던지다가 죽었을 것이라며 철수했다. 부친은 동이 터 물속에서 나와 달린다는 것이 산으로 내달렸다. 정신을 차려 다시 내려와 진소에서 첫째 집을 발견하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루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 집은 도순교 동창 이00의 집으로 강정 고시수의 집에 연락했다. 고시수는 사촌형 강시경과 동네 사람 등 3명이 올라가 가마니로 들것을 만들어 부친을 들것에 옮기고 강정포구까지 내려왔다. 어선을 빌어 서귀포항에 도착했다. 서귀포항에는 경찰과 헌병 등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사고내용을 파악했다. 부친은 서귀포 천지여관에 투숙하며 군의관으로부터 당시 상당히 귀한 항생제인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아 20여일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친이 납치됐던 그날,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김기옥은 폭도들에게 납치됐다가 살해됐다. 또 폭도들은 고시수의 사촌 누님과 결혼한 이봉철을 집기둥에 묶어 죽창으로 마구 찔렀다. 죽은 것으로 보고 폭도들은 철수했다. 씨름 선수로 몸이 건장했던 이봉철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상이용사가 됐다. 강정에서 폭도의 습격으로 첫 인명피해가 있었던 날이었다. 그 이후 48년 11월에 좌익활동을 했던 강정주민 10여 명이 대추남밭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도순교 동창 정00(19)는 폭도였다.

서귀중 3년 때 고시수는 학련(단장 한흥기)의 총무를 맡고 7~8명의 임원을 뒀다. 민애청은 점조직으로, 조직이 드러나지 않은 탓인지 그들과 대립은 없었다. 민애청의 피신처였던 민족청년단 학생부(이범석 계열)가 잠시 있었으나 활동은 미미했다. 교사 중 좌편향 교사는 지리(과학) 담당 송00으로 알고 있다. 담임은 성읍 출신 방영옥이었다. 대한청년단 출신으로 경찰에 특채된 강성건 경감의 지휘로 표선면 토평리 마을 방어 작전에 학련 대표로 참가했었다.

고시수는 49년 3월 목포상업고로 진학했다. 6·25가 났을 때 목포사범을 다녔던 형 고시광은 귀향했지만 그는 호남정미소 아들로 목포북초교 5년생 김정준의 가정교사로 있을 때여서 7월 중순 목포항 앞 '앞해도' 섬으로 함께

피난 갔다. 정미소를 하고 있어 쌀 15가마를 어선에 싣고 섬으로 갔었다. 15여일 후 섬 안에도 빨치산에 의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위험해지자 목포로 다시 나왔다. 정미소는 이미 인민군이 접수하고 난 뒤였다. 그 가족들과 함께 북교동의 목포시장 옆집에 있는 지 20여일 지났을까(50년 10월) '제주 해병대' 272부대가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닷가에 나갔을 때 고향 강정리 형님 친구인 윤태효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목포 산정 초교에 주둔했던 그 부대의 G2(정보반, 소대장 이종세 소위) 문관으로 근무했다. 함평, 해남지구에 작전을 벌였다. 50년 12월 부대가 철수하자 학업을 계속, 52년 3월 목포상업고를 졸업했다. 55년 제주대 영문과 3학년에 편입해 57년에 졸업했다. 이군보 전 제주도지사와의 대학 동창이다. 대정고 영어강사로 있었다.

군대는 뒤늦게 58년 2월에 갔다. 대구 부관학교 인사행정반 교육을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했다. 5등까지는 부관학교에 남아있도록 했다. 오치성 중령이 학생대장일 때 학생대장실에 근무하게 돼 오 중령의 신임을 받았다. 오 중령의 장모가 죽었을 때 장지에는 5·16 주체세력들이 대거 모인 것을 보았다. 오치성이 내무장관일 때 고치수가 장관에게 매달렸다면 의정부 시장은 '따논 당상(자리)'이라는 말을 후일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각종 웅변대회에 입상하는 등 오 장관의 신임을 받았지만 고치수는 스스로 자신이 보필하기엔 뭔가 부족함을 느껴 매달리지 않았던 것. 60년 당시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마자에겐 군을 제대할 수 있었다. 도의원에 출마키 위해 60년 6월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러나 부친 친구인 강기천이 출마하면서 오랜 고민 끝에 출마를 포기했다.

61년 6월 대정고에 복직하면서 교직의 길로 나섰다. 80년 3월 저청중 교장, 87년 과학교육원장, 96년 제주교육원장, 97년 3월에는 서귀포시교육장을 맡고 98년 8월 퇴임 때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제주도 평화대사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4·3때 휴교가 없었다

- 고 희 경 (高喜京, 29년생,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 2013. 2. 5. 증언

고희경은 45년 2월 고산초등학교를 졸업(4회)했다. 두해를 쉬어 고산고등공민학교(*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교육사 연표 393쪽에는 고산고등공민학교 설립을 49년 12월 7일)를 입학했다.

고산고등공민학교는 한학이 뛰어나고 일본에서 중학교 과정을 거친 고문옥이 설립하고 좌임관 한의원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고문옥은 운동화를 신어 문교부장관을 면담하여 설립승인을 받아냈다고 전한다. 학생수가 설립 첫해는 80여명, 다음해는 50여명이나 됐다. 그가 1학년 때는 고산지서 입구에 있는 현원희 개인집에서 수업을 받았고 2학년 때부터는 고산초등교 숙직실 옆 창고에서 수업을 했다. 양창원이 교장이었다가 제주중에서 교감을 하던 오성화를 교감으로 영입한 후 교장으로 승진시켰다. 교사는 제주읍에서 초빙한 3명이 2~3과목을 맡았고 고산초교 교사도 국어, 국사과목을 맡았다. 4·3 때도 휴교 없이 수업을 했다.

당시 고산초등교 교장은 송문옥으로 민청위원장을 맡았던 좌익계의 거물이다. 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남로당 입당원서를 받아냈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후일 처형됐다. 송문옥은 4·3전후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자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로 도망쳤고 북송선을 타 북한으로 갔다. 송 교장의 영향으로 고산2리 출신 좌00(19) 교사는 좌익활동을 하다 총살됐다.

고희경은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학생위원장을 맡았다. 49년 보리이삭이 패일 때 학도호국단이 구성되면서 학생수가 40~50명이던 신창고등공민학

교보다 학교 규모가 커 교회경이 한경면 호국단장을 맡았다. 국방경비대 파견요원으로 동국대 2년생이던 이복출신이 있었으나 교회경이 교관 역할을 했다. 1주일에 1~2회 2시간여 학생들에게 죽창과 목총을 들도록 하고 제식 훈련을 했다. 초등학생까지도 그가 훈련을 시켰다. 제주읍에서 칼빈총과 실탄 50발도 지급받았다.

고산에는 2번의 폭도들의 습격이 있었다. 두 번째 습격 때는 피해가 없었으나 49년 2월 습격 때는 피해가 컸다. 그의 매형인 김치백 청년단 동원부장이 지서에 신고하러 가다 폭도들에게 죽창에 찔려 숨졌다. 또 부친 제사를 보러왔던 애월지서 김문식(23) 순경은 폭도의 습격을 알자 총을 들고 집을 나와 성벽을 둘다 보초막에 있던 폭도들이 '누구나'고 묻자 '김순경이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폭도들의 쏜 총에 맞아 죽었다. 이날 폭도들은 부자 집을 고르면서 식량을 약탈했다. 이 마을에서 폭도로 올라간 이00(41)이 폭도들과 함께 와 지목하는 십만 년 건으로 본다.

이날 고등공민학교 동창 고병원은 폭도가 죽창을 찌르자 창날을 잡아 폭도로부터 창을 뺏어 살아났다. 그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밀항, 등록키 위해 조총련에 가입했다가 부친이 사망했으나 귀국치 못하다 민단으로 전향했다. 나이가 들자 귀국, 고향에서 4~5년을 살다 최근 사망했다.

교회경은 1남3녀 중 장남으로 7살 때 부친을 여의었지만 50년 3월 제주 상업고(* 위의 책 제주교육사 연표에서 제주상고 설립은 53년 12월) 전신인 제주고 1회로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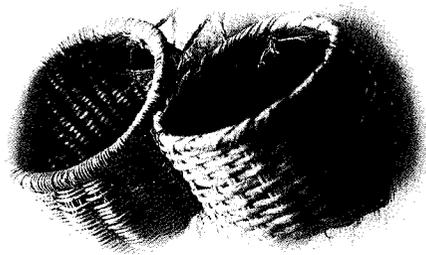
6·25가 난 50년 8월 30일 남초등학교에 집합한 후 제주주정공장에서 1박 후 LST를 탔다. 해병 4기로 참전한 것. 교회경은 부산에 있던 해병대사령부 병기과에 배속됐다. 해군 5~6명, 해병대 10여명, 공군 10여명 등 160명이 입소한 육군병기학교 7주간 교육에서 그는 1등을 차지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계속 근무하다 제대 말년에 해병 진해교육단 탄약고에서 54년 4월 삼등병조(병장)로 제대했다.

교회경은 고산 출신 동갑인 김명수와 결혼,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3선한

장남 고동일 등 2남3녀를 두고 있다. 37세 때 고산리장으로 2년간, 최근 3년간 노인회장과 오래 동안 고산학원 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고00(18)는 고00의 호적상 이름이다. 갑장으로 초등학교 동창이고 오현 중에 다녔고 해병 4기로 6·25때 함께 참전했다. 학교 다닐 때는 00로 불렀다. 이웃집에 살았고 농사를 짓다 15년 전쯤 병으로 사망했다.

신00(25)는 48년 2월 마을 청년들이 고산지서를 습격, 시위할 때 총을 맞아 총상으로 왼쪽 다리를 잘랐다. 때문에 4·3의 고비를 넘겼고 농사를 짓다 20여년 전 병사했다.



폭도들의 대습격 때 작은 아버지를 잃었다

- 김 태 수 (金太壽, 34년생, 제주시 연동, 한경면 고산리 출신)

- 2013. 1. 29. 증언

48년 2월 9일(음 1월 12일) 밤 12쯤 한경면 고산리에 폭도들의 대대적인 습격이 있었다. 골목골목마다 폭도들이 날뛰어 김태수는 폭도수를 100여명으로 어림잡는다. 김태수는 이날 부친 김치천과 함께 고산1구 1반 2444번지에 있었다. 옆집(2445번지)에는 마을 청년단장을 맡고 있던 작은 아버지 김치백(35)이 살고 있었다. 김치백은 폭도들이 습격이 있자 고산지서에 폭도들의 습격을 알리러 지름길로 가로질러 달려가나 폭노들과 마주쳤다. 김치백은 얼굴에 먹칠들을 한 폭도들에게 “청년단장을 모르느냐”며 야단치다 죽창으로 배부위에 창자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3군데나 찔려 숨졌다. 그의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고산리 2255번지 속칭 당커리에서 당했다.

폭도들은 이날 햇불을 밝히고 부자동네인 고산1구에서 식량을 마구 약탈하고 소수 마리를 끌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공포를 쏘아댔다. 이때 성벽을 순찰 돌던 고산지서 김문식(21) 순경은 제대로 피신하지 못하고 철수하던 폭도들에게 발각됐다. 폭도들은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던 김순경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모자와 옷, 신발까지 모조리 벗겨가지고는 철수했다.

이날 마을에서 잘 사는 집으로 알려진 곳은 대부분 폭도들에게 약탈당했다. 그러나 이중 몇 집은 털리지 않았다. 일제 때부터 소위 ‘힘이 센 쪽’에만 가담한다는 이(李)씨 일가집이 포함된다.

후일 해군 대위 출신으로 간첩혐의로 복역하다 DJ 시절 무혐의로 1억7천여만 원의 보상을 받고 살다 1달 후 숨진 이00의 일가이다. 이 일가 이

00(41)은 산으로 올라간 폭도였다. 형 이00는 큰 기와집 3채를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동생 이00은 남의 집 소 외양간에 매어둔 소를 훔쳐 팔아 먹었다고 할 정도로 평판이 나빴다. 이00의 자녀들은 작은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날이 밝자 김태수와 그의 아버지는 김치백이 숨진 곳으로 갔다. 김치백의 아내 고행유가 밖으로 나온 남편의 창자를 배 속으로 집어넣고 그의 아버지가 동생 시신을 업고 집 옆 말 방앗간으로 옮겼다. 김태수는 선명하게 영긴 핏자국을 흙으로 덮었었다. 김치백은 둘째 형 김치록을 따라 일본으로 가 쌀 등 잡화를 운반하는 노 젓는 목선을 운영하다 어머니 소상을 치르러 46년 귀국했다가 고향에 정착, 청년회장을 맡다가 변을 당했다. 김치백은 며칠 전 지난해 12월 소개돼 온 청수, 조수 등지에서 온 주민들을 인솔해 주민들이 숨겨 놓았던 식량 등을 갖고 왔었다. 결국 폭도들의 식량 보급선을 끊어 놓은 셈이기도 했다.

김태수는 9살에 고산초교를 입학, 49년 7월에 졸업하여 4회 졸업생이다. 그가 4학년 때 담임선생은 고00(26년생). 교장은 일제 때 교감이던 송문옥으로 민애청위원장을 맡은 좌익계의 거물이다. 교장의 영향일까 47년 3월 담임 고00 선생과 좌00(27년생) 선생 등의 인솔로 김태수와 학생들은 고산 마을을 돌며 3일 동안 두어 시간씩이나 '왓샤' 시위를 벌였다. 3·1절 관덕정 시위로 파업사태가 났을 때 고산지서 앞에서 제주농업학교 상급생이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덕정에서 있었던 일 등을 밝히는 연설회가 있었다. 고산지서에 경찰관이 있었으나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송문옥 교장은 4·3을 전후하여 김태수의 1년 후배인 아들 등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쳤고 북송선을 타 북한으로 갔다. 고00과 좌00 선생은 6·25직후 예비검속 때 고산교 교감 김양훈(23년생, 귀덕리 출신), 교사 김태식(32년생, 영락리 출신)과 함께 모슬포경찰서에 수감돼 50년 8월 20일 모슬포 석알오름에서 처형됐다.

고산에서 좌익계의 중심인물은 고00(35). 그는 뼈라와 벽보를 써 마을 청년과 초등학생들을 시켜 뿌리고 붙이도록 했다. 마라톤 선수로 이름을 날리

던 고00(23)도 와샤 시위 등을 주도했다. 한림면 서기를 지내고 한학이 뛰 어났던 고00도 좌익활동을 했다. 남로당 당원 명부에는 고00이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들자 호적 이름인 고00이라며 고00이 아니라고 잡아땀다. 흥 년 때 식량배급을 책임진 일이 있어 마을에서 신망도 있었기에 주민들도 옹 호했다. 그래서 그는 살아 남았다. 고00의 두 아들 중 한명은 서울에서 세 무서 과장을 하고 큰 딸은 미국에서 사는 등 다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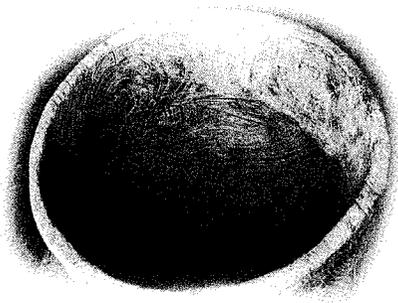
김태수는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고산포구에 나가 자리를 사러 갔을 때 순경 2명이 이름이 '김태수'라며 확인하고 체포하 여 모슬포경찰서로 갔다. 가는 도중 순경은 '산에 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고 질문했으나 대답을 못했다. 경찰서에서 김태수는 본적과 주소, 이름을 대고 가정사정을 말하며 경찰에 따졌다. 경찰이 찾고 있는 김태수는 그보다 10 살이나 위였다. 동명이인이 빛은 해프닝이나 김태수는 지금까지도 전화번호 부 등을 통해 그 김태수를 찾고 있다. 그가 파악한 동명이인 김태수는 20여 명이나 됐다.

김태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양실조인 아버지를 잃자 할아버지로부터 받 갈이를 배웠고, 초가지붕 집줄 놓기 등 어른 일을 모두 했다. 17살 때 밭벼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담뱃불로 집을 모두 태웠다. 할아버지는 결국 화상으로 얼마 없어 숨졌다. 그의 형은 6·25 때 참전하여 21사단이 전 멸할 때 전사했다.

김태수는 56년 10월 논산훈련소 1기생으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12사 단 에서 일등병으로 23개월간이니 있다 3년 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50살 전후하여 셋아버지가 사망한 뒤 셋어머니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가 막일을 하여 돈을 모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7번이나 제주를 오가는 여비밖에 되지 않았다. 아내와 제주를 오가지 않기로 약속하고 일본에서 일감을 찾 아 나셨다. 어머니와 아내가 죽었을 때도 제주에 오지 않았고 3남3녀의 자 녀 결혼식 때도 큰아들 결혼식을 빼고는 오지 못했다. 큰아들 결혼식 3일

만에 일본으로 갔다. 26년간을 일본에 있다 75년에야 제주에 왔다.

김태수는 모슬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겨 기뻐했던 그 어머니의 상을 치르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금등리에는 폭도 습격이 없었다

- 고 경 하 (高景河, 30년생,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 2013. 2. 5. 증언

고경하는 10살에 신창초교를 입학, 해방되던 해 졸업한 4회 졸업생이다. 졸업생 40명 중에서 70여 가구가 설던 금등리에서 신창초교 동급생은 그 뿐이다. 상명리 출신으로 금등리 외삼촌 집에 와 있던 장창일이 동급생이다.

3남3녀 형제 중 그는 차남이고 8살 위 그의 형 고경호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42년 징용으로 강제 동원돼 일본으로 갔다. 형은 징용간 곳에서 탈출, 도쿄에서 숨어 지내다 전쟁 막바지에 죽었다는 형 친구의 편지를 받은 것 외는 행방을 모른다. 징용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을 했으나 기록이 없어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고평삼은 그가 18살 때 마을에서 처분하지 못하던 미역을 모아 부산에 팔러 나갔다. 고평삼의 고모가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역은 팔리지 않았고 운임조차 내지 못했다. 속상한 고평삼은 술로 날을 지새웠고 결국 황달(간경화)로 숨져 그해 음력 5월 화장하여 제주에 묻혔다. 그가 발갈이에 나서며 가게를 책임졌다.

4·3 때 금등리에는 폭도들이 습격이 없었다. 두모지서와의 거리가 1km 내외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폭도 책임자가 있었다. 23~24세였던 김00이다. 김00은 경찰의 지명수배가 있자 일본으로 도피했다. 길 하나 사이로 경계인 옆마을 판포리에는 이00(37)이 폭도 책임자였다. 금등리에서 김00과 좌익활동을 하고 폭도와의 연락은 마을 청년회장을 하거나 지낸 송00(35)과 김00(33)이 있다. 이들은 이00과 함께 예비검속 때 검거돼 모슬포에서 처형됐다. 김00은 신창초교 1회 졸업생으로 똑똑했었다.

고경하는 6·25가 나자 한림초교에서 기초훈련을 받다 8월 15일에 소집되어 육군에 입대, 11사단 20연대 중포중대로 배치됐다. 중포가 보급되지 않아 수색중대로 편입되고 연대본부의 호위와 경비 임무를 맡게 됐다. 연대 본부가 광주 서석초교에 있을 때 공비가 침입, 보초병을 사살하고 숙소까지 공격하여 선임하사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국군은 곧 공격에 나서 공비 1명을 사살했으나 2명은 도피하고 말았다. 대대급의 공비토벌 작전 때 지원과 884고지 점령 작전 때 연대본부를 호위하며 참전했다. 만 3년을 근무 일등중사(하사)로 제대했다. 6·25 때 금등리에서는 5명이 참전, 884고지 점령 때 고대영 1명만 전사했다.

고경하는 40대에 금등리장 3년, 최근에 노인회장을 3년간 했다. 슬하에는 1남 7녀를 두었다.



좌익 세 청년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 김명옥 (金明玉, 32년생,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 2012. 12. 18. 증언

김명옥이 14살 때인 조수초등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후 학업은 중단됐다. 학업을 중단한 것이 어찌면 그를 후에 목숨을 살린 한 요인이 된다. 그의 또래 박한택(16), 문홍범(15) 등은 오현중에 진학하였다 희생됐다. 무엇보다 그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아 왜소했다. 키가 컸던 또래는 저지 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보다 한 살 아래였던 청년은 돼지우리에 숨는 바람에 잡혀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렸다는 점은 그가 살아남는데 한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다. 김명옥은 낙천리에서 가장 고령자다. 그보다 나이 위는 모두 희생됐기 때문이다.

낙천리의 비극은 한경면 중산간 마을에서 가장 큰 폭도 두목인 저지리 출신 현봉희 다음 두목으로 꼽히는 김00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두목은 산양리(수룡동) 이00을 꼽는다.

김00은 붓 대신 화투장을 짤 그 끝으로 화초 그림을 기막히게 그려내는 재주꾼이었다. 조수초등교를 다닐 때 동료를 주름잡아 또래를 혼내기도 하여 학생 때 그에게 맞았던 저지, 청수 일대 청년들이 그와 싸우러 찾아오기도 했다. 흔히 똑똑한 인물을 '면장 감'이라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를 면장 감보다 한수 위로 평가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영향일까, 미군정 때 소 예방주사를 하러 나온 키가 큰 미국인에게도 지지 않는 위세를 부리던 조00(25)가 일류 좌익인물이 됐다. 일본에서 고급학교를 나왔고 인물이 좋았으며 힘도 장사였다. 그의 동생 조00(15)마저 형의 영향으로 산에 올라가 폭도가 됐다.

낙천리의 세 번째 인물은 일제 때부터 마을 이서기를 맡았고 청년들의 리더였던 박00(28)이다. 그의 형 박00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신출귀몰 형으로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약간 절지만 극단을 꾸려 주민을 상대로 연극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그의 행방은 누구도 모른다. 48년 음력 동짓달 초(12월) 마을이 소개될 때 김00과 조00은 가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으나 박00 가족은 고산으로 소개했다. 김00 가족의 경우 토벌대에 은신처가 발각됐을 때 모친은 귀순을 거부, 산에 남겠다고 하여 굴에서 총살되고 부친은 귀순, 후일 영락리에서 재취하여 살아남았다.

낙천리는 당시 120여 가구로 마을은 적지만 한경면 중산간(저지, 청수, 조수 등) 청년들 사이에 말(語) 실력은 물론 힘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으뜸 청년들이었다. 조수악 바로 밑 너른 들판(현재 공동묘지 일대)에서 씨름 판이 벌어지면 낙천리가 늘 이겼다. 이같은 낙천리 청년들이 김00, 조00, 박00 등이 입산하여 폭도 간부가 되면서 폭도마을 청년으로 낙인이 찍혀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

김명옥의 3살 터울들의 두 형과 매부가 희생됐다. 첫 희생은 매부인 문덕여(29)이다. 고산으로 소개한지 3~4일째인 48년 12월 7일, 매부 문덕여는 큰 형 김명숙(23), 둘째 형 김명춘(17) 등 산간 청년들을 조사한다며 화물차에 태워 한림지서로 가는 도중 화물차에서 뛰어내려 사살됐다. 큰 형과 둘째 형은 조사를 마쳐 무사히 그 화물차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2월 18일 고산지서에서 다시 산간 청년들을 모이도록 했을 때 둘째형은 가지 않았으나 큰 형 김명숙은 문화여(17) 등 낙천리 청년 8명과 함께 갔다가 폭도로 몰려 고산 자구내 논밭에서 총살됐다. 둘째형 김명춘은 제주읍 도두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화물차에 태워져 갔다가 현재 제주공항인 정뜨르 연병장에서 총살됐다. 이때 오진호(21), 김계탕(19)도 함께 총살됐다. 나중 김계탕의 매형 아들인 경찰관으로부터 듣고, 김명옥의 7촌 아저씨인 당시 김창아 도두리 이장에게서 들은 총살된 혐의가 '도두리를 습격했던 폭도'였다는 것이다. 고산에서 잡혀왔는데 경찰은 '산에서 잡아왔다'며 습격한 누명을 써

희생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낙천리 청년 4명은 48년 11월 20일 폭도들이 조수리를 습격, 무릉지서 주임 김문경의 집을 불태우고 그의 동생 김순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저지서로 끌려가 총살됐다. 희생자는 이00(25), 오00(26), 김00(25), 김00(38) 등이다.

김명옥 가족등 낙천리 주민들이 고산으로 소개한 것은 길이 좋아 소 마차로 짐을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없어 주민들이 소개하여 빈 집에 경찰과 함께 온 고산 사람들이 낙천리 주민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들을 마구 털어갔다고 밝힌다. 다른 마을과 달리 낙천리는 소개한지 두달쯤 뒤에 고산 청년들에 의해 집들이 불태워졌다. 집이 있으면 폭도들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다.

김명옥 가족은 고산에서 1년반을 지내며 낙천리 주민과 조수리 주민들이 함께 조수리에 성담을 쌓고 성안에서 2년여를 함께 살다가 낙천리로 귀향했다.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아 2년여 병중에 있던 부친 김철영이 간장염으로 세상을 떴다. 김명옥은 20살 동갑인 마을 처녀 문정윤과 결혼했다.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군대는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인 53년 10월 모슬포에서 16주간의 훈련을 받고 중부전선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수도사단 1연대 2대대 1중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57년 8월 병장으로 제대했다. 김명옥은 37살에 3년간 마을 이장을 했고 70살 때 노인회장이 돼 5년간 맡았다.

김명옥은 폭도 두목 이00과 형제간으로 폭도가 된 저지리 이00(29)와 한때 사돈간이었다. 김명옥의 큰형 아들과 이00의 둘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문00(31)는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한림면의 축산을 책임졌고 부인이 신도리로 신도에서 주로 생활했다. 모슬포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일본인을 이기는 등 힘도 썩고 인물도 잘 생겼다. 목포형무소로 가는 도중 수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낙천리 청년들과는 교류가 없었다.

신창리에도 폭도들의 습격은 없었다

- 김 대 옥 (金大玉, 29년생, 신창출신,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 2013. 2. 5.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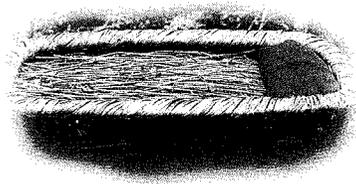
김대옥은 신창초교 옆에 살아 신창초교를 8살에 입학, 43년에 졸업(5회)했다. 당시 한경면 일대 학생들이 다녀 졸업생 수는 80여명이었다. 그는 2남 2녀 중 차남으로 4살 위 형 김여옥은 4·3이전 경찰관이었다. 제주경찰서에서 경위로 명예 퇴임했다. 그때 신창에는 두모지서(현재 한경 파출소)가 있어서 일가가 경찰관 가족이면서도 다른 마을과 달리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신창리에는 인제 때 구장을 지낸 김영봉이란 지도자가 있었고 우익 지도자 김영진 등이 있어 좌익들이 받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네거리 안에서 7~8명씩 24시간 교대 근무로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섰다. 밤 근무의 경우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 이다.

신창리에는 폭도들의 습격이 없었으나 바로 윗마을인 한원리에 폭도들의 대대적인 습격이 있어 마을 불타는 모습이 신창리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고 한원리 주민 10여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6·25가 나자 김대옥은 신창마을 청년 20명과 함께 해병대 3기로 8월 5일부터 25일간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고 LST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미군으로 2~3일간 훈련을 받고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다. 해병대 3대대로 서울수복까지 각종 전투에 참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나 훈장증을 분실했다. 보훈처에는 기록이 없다며 훈장을 받지 못했다. 도솔산 전투에는 소총부대(11중대 4소대)의 3등병조(병장)로 참전했다. 이때 소대원 3분의 1이상이 전사했다. 백마고지 전투 등 생사의 고비를 넘는 전투에 모두 참전했다. 총알이 그를 피한 셈이다. 휴전이

후 27세 때 휴가를 얻어 두 살 밑의 용당리 고순화를 맞아 결혼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56년 4월 진해 해병교육단 건설중대 소대장으로 있다가 일등병조(중사)로 제대했다.

김대옥은 40대 후반에 처가 마을인 용당리로 이사와 지금까지 용당리에 살고 있다. 4·3당시 용당리에는 150여 가구가 살았다. 마을에서 노인회장으로 추대했으나 나이가 많다며 사양했다.



신창리에는 폭도의 습격이 없었다

- 김 용 원 (金龍元, 21년생,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2012. 12. 18. 증언

김용원은 8살 때 신창리에 있는 서당에 3년간 다녀 천자문을 읽었고 편지를 자유자재로 쓸 정도이다. 20살 때 서른살 위의 사촌형 김행완을 따라 다니며 목수 일을 익혔다. 당시 김행완은 한림면은 물론 구좌면 세화리에서 학교 건물과 평대리에서 면사무소를 짓는 등 수목수로 김용원을 포함 5명의 목수 일꾼을 데리고 다녔다. 김용원은 목수여서 인지 일제 때 징용도 징병도 간 적이 없다. 김용원은 목수가 된 후인 21살 때 2살 위인 김기순과 결혼, 슬하에 1남4녀를 두었다. 부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신창리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일제 때 구장을 지낸 김영봉이고 그의 아들인 김한준은 부산에서 구청장과 제주시장을 지냈다. 손자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도 됐다. 좌익이 발을 붙일 수 없어 왓샤 시위가 없었고 5·10 선거도 신창리 향사에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무사히 치렀다는 것이다. 좌익이 없어서일까, 해안가여서인지 신창에는 폭도들의 습격이 없었고 피해도 없다고 밝힌다.

김용원은 6·25가 나자 모슬포에서 20여일간 훈련을 받고 50년 9월 1일 입대하여 부산을 거쳐 거제도에서 포로수용소 경비 분대장, 선임하사 등을 하다가 54년 일등중사(하사)로 제대했다. 김용원은 목수 일과 농사로 탈 없이 살아왔다.

그가 기억하는 4·3 희생자는 진00(36), 박00(18)로 6·25가 나자 예비검속돼 모슬포에서 총살됐다.

트럭을 타고 결혼했다

- 용수리에는 폭도들의 습격이 없었다

- 고진원 (高珍元, 30년생,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 2013. 2. 26. 증언

고진원은 신창초교 6년 때 해방을 맞았다. 1년을 더 공부한 6회 졸업생이다. 동급생은 한때 88명 이었으나 졸업 때는 82명. 학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 신창·판포·한원·조수지역은 신창에서, 용수와 고산지역 40명은 용수리 흥씨 개인집을 빌어 공부했다. 학교에서는 양 교감이 관리했다. 5년 담임은 문덕순, 2, 6년 담임은 좌봉두 선생이었다. 신창출신 좌봉두는 18세 때 교직에 입문, '아기 선생'으로 불리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월령으로 시집을 간 할아버지 누이동생으로 친족이 있어, 5촌이 된 월령 출신 이용후가 운영하는 제주읍내 산지에 있는 조개포 석유조합의 급사로 취직했다. 오현중 야간반에 입학했다. 용수 출신 김일호, 좌달현도 오현중을 함께 다녔다.

고진원은 4남1녀 중 둘째이나 15살 위 큰 형 고진호는 일제 때 마을 청년 회장으로 길 닦는 일(길 보수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장남이나 다름없다. 형은 검은 모래가 있던 고산 속칭 '한장 영물'에서 마차를 끌던 소에 받쳐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4살 밑 동생 고치웅은 제주동초 교장을 지낸 교육자이다. 조카 고승주도 한림초 교장을 지냈다. 해녀였던 형수가 제주읍내 탐동에서 물질을 하면서 7살 위 해녀 누나 고명호도 뒤따라 읍내로 나가 있어 고진원은 누나와 함께 생활했다. 형수의 동생은 해병대 대령으로 예편했다. 4·3 때는 읍내에 있었던 셈이다. 고향에 오려면 도민증을 경찰관에게 내보여 관덕정에 있던 조흥·제주차부에서 버스를 탔다. 이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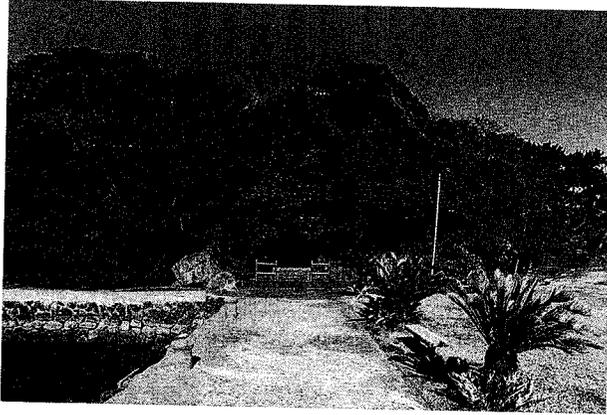
경찰 트럭도 이용했으나 차 타기가 힘들었다.

고진원은 48년(무자년) 12월 4일 용당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고모인 동갑의 좌만년과 결혼했다. 이 결혼식 때 석유회사 동료인 조일학이 회사 트럭을 용수로 몰고 와 용당에 갔고 운전대에 신랑·신부를 태우고 용수로 왔다. 당시 용수는 물론 서부지역에서 트럭이지만 차를 이용한 결혼식은 처음이나 다름없고 도내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고진원은 당시 결혼식 '부조대상'을 지금껏 보관하고 있다. 사돈 등 가까운 친족이 백미 1두(斗), 대부분이 백미 5승(升, 대두 2되)였고 석유조합에서 2천원, 트럭을 운전한 조일학이 5백원을 부조했다.

오현중 2년 때 6·25가 났다. 50년 9월 1일 읍내 주정공장에서 입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다는 것이 11사단 9연대(3대대 11중대 3소대) 소속이 됐다. 같이 입대한 구좌면 행원리의 고두현이 같은 소대원으로 전쟁터에서 함께 했다. 51년 6월 시리산 작전 때 10중대원들이 공격하다 거의 전멸되지 적진지에 공중 포격을 할 수 있도록 대공포 표지판을 설치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휴전을 6일 앞둔 53년 7월 21일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총탄에 왼쪽 팔이 관통됐고 왼쪽 다리에는 그때의 포탄 파편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 이 총상으로 상이 7급, 일등중사(하사)로 명예 제대했다.

한원리까지 폭도들이 습격했으나 해안마을인 용수리에는 습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좌익은 있었다. 고00(41), 김00(35)은 지도자 바로 밑의 역할을 했고 용수서당을 나와 뚝뚝했던 고00(27), 같이 군대를 갔던 김00의 형 김00(30), 양00(25)이 좌익 활동을 하다 희생됐다. 2년 선배 좌00(22)는 좌익 활동으로 멸족이 됐다.

용수리는 제주도 기념물 9호인 절부암이 있는 마을이다. 또 김대건 신부가 라파엘호를 타고 제주에 첫발을 디딘 곳으로, 전설과 역사가 살아 있는 마을이다. 절부암의 전설은 남편 강사철이 동네사람 2명과 대나무를 싣고 오다 풍랑으로 뗏목 배(테우)가 뒤집혀 3명이 실종됐다. 열녀 고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시신을 찾으려 주변 바닷가를 헤매었고 실종 이튿날과 또 다음



제주도기념물 9호 절부암

는 제를 지낸다. 또한 당산봉과 용천수로 좁지물이 있고 철새 도래지인 용수 저수지가 있다.

날 각각 동네 사람의 시신은 떠올랐다. 남편의 시신이 없자 고씨는 비통함을 못 이겨 목매어 죽었다. 부인의 3일장을 치르는 날 남편의 시신이 목매었던 절부암 언덕 아래에 떠올랐다는 전설이다.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열녀 고씨를 기리



한림중보다 먼저 생긴 저지 중앙영어학교를 다녔다

- 문 원 숙 (文元淑, 27년생,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 2012. 12. 4. 증언

문원숙은 조수초등교 4년을 졸업, 신창초등교에 5학년으로 편입하여 4회로 졸업했다. 제주농업학교에 진학하려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농업학교 입학 정원이 40명뿐이어서 경쟁이 치열, 당시 한림초교에서 1~2명, 신창초교에서는 1명 진학이 어려웠던 시절이다. 대신 17~18세 때 저지마을 향사에 마련된 학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된 학생 40여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2년 동안 했다. 한 달 월급이 200원이었다.

문원숙은 저지리에 있는 46년 4월 개교한 중앙영어학교에 입학했다. 일본에서 영어학원을 나온 금악리 출신 박영호가 교사이었다. 학생수는 40여명으로 초등교 1년 선배인 흥순표(제주지법원장 역임)도 동창이다. 저지리 학생이 절반을 넘고 조수리와 한림에서도 왔다. 한림의 김봉주 경위도 함께 다녔다. 47년 10월쯤 폐교됐다. 당시 현주선 한림면장은 '사태가 없었다면 이 영어학교를 기반으로 바로 중학교가 설립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지서를 유치할 때 조수리를 꺾고 저지리로 낙착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는 미군정 시대로 영어학교가 있어서 유리했다는 것이다. 조수리에 있는 당시 도지사인 김용하 친척이 도지사를 움직여 당초 조수리로 거의 갈 것으로 됐다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지서 유치전을 벌인 조수와 저지리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을 정도이다.

47년 12월 30일 오후 8시쯤 문원숙은 야학(夜學) 선생으로 향사에서 부

녀반 학생 20여 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같은 곳의 노인반에는 남
 자 10여명이 한글은 물론 한문과 수학도 배우고 있었다. 왓샤 부대 50여명
 이 향사 앞에서 왓샤 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벌였다. 문원숙은 겁이 나 몸을
 황급히 숨었다. 이들 왓샤 부대는 저지리 2구 명리동 출신 현봉희(玄奉熙,
 28)가 이끌고 온 청년들이다. 명리동에는 당대 무술(武術)인으로 유명한 고
 00이 가르치는 유도관이 있어 고00의 유도 제자들이 많았다. 고00은 당시
 유도 5단, 당수가 4단으로 한때 '일본 경도(京都)에서는 고00, 동경(東京)
 에서는 하도 임씨, 주먹은 현해남'으로 이름을 날렸다. 선생인 고00은 사상
 적으로 좌익이 아니나 제자들은 거의가 좌익으로 몰들어 졌다. 특히 제자
 중 서귀포실수학교를 나온 현봉희는 일제 때 제주읍 삼양에 있는 청년훈련
 소장을 지낸 좌익의 두목이었다. 특히 현봉희는 현씨 가문 일가를 통째로
 입산시킨 장본인이다.

현봉희의 영향으로 고00의 동생 고00(28), 고00(20)도 산사람이 됐다.
 폭도인 고00(28)은 문원숙이 경찰관이 돼 토벌대인 100사령부 G2에 근무
 할 때 사살된 것을 확인했다. 고00(17), 박0(29), 박00(23), 변00(32)은 현
 봉희의 영향을 받아 폭도가 됐다. 현00(25)은 현봉희의 동생이고 현00(28)
 도 현봉희와 더불어 주동이 됐던 현00의 막내 동생이다. 현00(25), 현
 00(31), 현00(25), 현00(34), 현00(21), 현00(27), 현00(36), 현00(30),
 현00(27) 등은 현봉희로 말미암아 모두 폭도가 됐다가 희생됐다.

문원숙의 부친 문용삼은 당시 저지리 구장, 작은 아버지 문용보는 경찰후
 원회장이었다. 폭도들은 48년 4월 7일 당시 저지리 중동에 있던 지서를 습
 격, 지서 건물을 불태웠다. 이때 대청단원이던 고창윤(16), 김귀원(21), 김태
 준(27)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현봉희 부친과 처를 지서에 감금하
 고 있던 5월 13일 폭도들이 대거 습격해왔다. 불 붙은 짚더미를 들고 다니며
 폭도들은 지목했던 집들을 방화했고 숨어있던 문원숙의 조부 문명조((64)
 도 폭도들의 죽창에 11군대를 찔려 숨졌다. 폭도들은 김희숙(29) 등 4명을
 납치했고 이들은 후일 문도지 오름에서 돌로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총알

이 아깝다며 돌로 쳐 죽인 것.

문원숙은 지서가 습격되면서 시시각각으로 폭도들이 그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아 불안하여 육지로 피신할 생각을 했다. 제주읍 관덕정에서 은인을 만났다. 4·3 직전까지 3개월간 저지지서 주임을 맡았던 박운봉 경사를 만난 것이다. 박 경사는 제주농업학교를 나온 인재였다. 박 경사의 조언과 도움으로 경찰관 특채시험에 응시, 48년 4월 23일 합격했다. 뽑힌 20명 중 이북 출신이 16명이고 제주출신은 4명뿐이었다. 그들 가운데서 문원숙은 소대장이 돼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5월 1일 경관이 됐다. 처음 제주경찰서 기동대에 있다 6월 초 세화지서로 가면서 본격 경관이 됐고 박운봉이 23살 때 경위로 승진돼 성산포 경찰서 사찰주임이 되자 그는 박 경위가 끌어줘 그곳 사찰계 형사가 됐다. 경사 6개월 만에 57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 5월 17일 경위로 임관됐다. 남원, 애월, 한림 지서장, 서귀포경찰서 경무계장 등을 거쳐 62년 7월 퇴직했다. 경찰생활을 하면서도 향학열은 식지 않아 제주상고 야간부에 입학, 김관옥 전 경찰서장, 이태진 전 경찰서 수사과장 등과 함께 2회로 졸업했고 배성대 법학부를 다녀 2년 중퇴했다.

저지리로 돌아와 저지리 이장, 농협조합장 대리, 노인회장 등을 지내는 동안 마을지(향토지)를 펴냈고 마을 향약을 만들었다.

저지리에서 폭도 활동을 한 고00은 성판악에서 교전 중 사살됐고 현00도 마지막 폭도대장 김성규 등과 끝까지 활동했다.

그와 동갑인 고00(21)은 4·3이전 병으로 죽었다. 김00(25) 또한 4·3 전에 병으로 죽었다. 4·3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문원숙은 “4·3의 원인은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김달삼이 일으킨 사건임을 명백히 밝혀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부를 죽인 자가 4·3 공원에 있는 한 4·3공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광주 사태는 민주화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제주 4·3은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좌익들이 일으킨 이념 전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찍 밭에서 일을 끝내고, 늦게 밭에 나가 의심사지 않아야

- 문 창 립 (文昌立, 33년생, 제주도 한경면 청수리)

- 2012. 12. 4. 증언

문창립은 9~10세 때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뒤늦게 조수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조수초등학교에는 저지리와 월림리, 산양리(청수2구), 한원리 웃동네, 청수리 등에서 다녀 한 학년 학생수가 80명에서 90명에 이르렀다. 문창립은 청수에서 10여명과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두 살 밑 임경재만 현재 살아남았다. 4학년 때 해방을 맞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문재행 씨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문을 다시 익히도록 서당에 보냈다. 그 서당 운영과 훈장(선생)은 천재로 이름난 그의 5촌인 문재형이었다. 문재형은 16살 때 해석 못하는 책이 없었고 선생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실력을 인정했다. 6년 전 돌아간 한 살 밑 동생 태수도 머리가 좋아 문재형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40여 년 가르친 제자 중 으뜸이라는 말을 선생에게서 들었다. 서당에 다닌 학생 수는 20여 명, 문창립과 학교를 그만두고 서당에 다닌 동급생이 3명이나 됐다.

문씨 일가를 괴롭힌 그의 6촌 형님 아들 문00(26)가 당시 마을을 휘저었다. 일제시대 해군으로 지원, 해군복을 입고 문00가 나타나면 흰칠한 키와 잘 생긴 얼굴로 '어디 놈이냐' 이냐고 칭찬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4·3을 전후하여 일본도 긴 칼을 차고 망원경을 든 폭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친척들을 불안케 하였다. 그러나 문00는 형제가 3형제이나 함께 산에 오르지 않도록 했고 일가친척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두 살 밑 문00의 동생 문00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으나 부지런해 마을 일꾼이었다. 심지어 동생은 제주읍

내로 나가 군부대에 밥을 짓는 노무자로 일하도록 하여 살아남았다. 문00는 폭도의 두목급이었다. 저지리 맹이동(명리동)의 현봉희(24)와 낙천리의 김00(28) 등 3명을 두목으로 친다. 다만 현봉희는 마을에 있던 일가친척들을 모두 폭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낙천리 두목 김00의 동생 김00는 문창립과 조수초등교 동창이다.

문00를 잡으면 제주읍내 관덕정에다 머리를 효수할 수괴급이라며 문씨 일가들이 괴롭힘을 당했다. 문00로 인해 문 씨 일가 중 7명이 희생됐다. 반대로 48년 5월 13일 문00 일당 폭도들이 저지리를 습격했을 때 문00의 4촌 문달윤(18)이 폭도들의 창에 맞아 숨졌다. 또 저지리 출신 경찰관 문원숙의 조부 문명조(64)도 피신하다 창에 맞아 역시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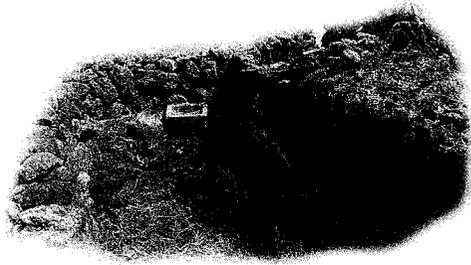
문00와 함께 산에 오른 폭도는 박00(26)과 이00(17)도 있다. 박00은 부지런하고 시킨 말을 잘 듣는 형(型)이었다. 박은 토벌대에 잡혀 고산지서에서 총살됐다. 이00은 조부가 동네에서 상두꾼(소사) 일을 했다. 귀순하여 한때 토벌대의 길잡이를 하여 전과를 올리도록 했으나 예비검속으로 총살됐다. 또한 청수리 골수 좌익 활동은 청수리에서 제일 똑똑했다는 이00(30)와 학문이 좋다는 이00(28)가 있었고 이들은 폭도들의 협력자였다.

문창립은 2남2녀 중 장남, 마을이 소개할 때는 신창 2구로 갔다. 고모 아들 김석우가 신창2구 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문재행도 위기는 있었다. 소개한 사람들이 식량을 갖고 오려고 청수로 왔을 때 잠시 밥을 보러 갔다 온 것이 의심을 산 것이다. 지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김석우 구장의 구명운동 등으로 하룻밤만 지내고 귀가했다.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밭일을 할 때 저물기 전 일을 일찍 끝내고 아침에는 늦게 나가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했다.

마을로 다시 돌아와 성을 쌓은 뒤 문창립은 마을 향사에 경찰관 2~3명이 파견돼 있는데서 주민 통행증 관리를 맡았다. 통행증은 나무 쪼가리에 쓰여진 들 입(入)과 날 출(出)로 가름한다. 정문 보초에게서 입(入)자 쪼가리를 들고 오면 행선지 등을 장부에 적고 출(出)자 쪼가리를 주어야 이것을 들고

주민들은 성문 밖을 나갈 수 있었다. 1년여 집에도 오지 못하고 향사에서 근무했다. 이어 문창립은 국민방위군으로 편성돼 한림에 나가 두 달 동안 훈련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방위군 장교는 중령으로 예편, 나중 한경면 면장을 지낸 고성지이었다.

문창립의 군 입대는 휴전이 된 후인 53년 12월. 모슬포에서 16주간의 훈련을 받고 6~8개월간 훈련 조교를 맡았고, 모슬포 훈련소가 논산훈련소로 통합되면서 그곳에 가 10개월여 역시 조교로 있다가 일선 27연대 근무 등으로 42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다. 마을 노인회장 직 제의에 귀 먹고 눈이 어둡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1주일 전에 백내장을 수술했다. 집 주변 2000여평에 심어진 감귤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 ◎ ◎ 편집 후 기 ◎ ◎ ◎

진실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제주4·3의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 시작됐다. 1집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책자 제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도 고민했다. 제목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것들은 ‘제주 4·3의 진상’, ‘제주4·3의 진실’, ‘제주4·3 보고’, ‘제주4·3의 그날은’, ‘제주4·3사건이란?’, ‘제주4·3이라 함은’, ‘1948. 4·3’, ‘제주의 4월3일’, ‘4·3 보고서’, ‘제주4·3의 정립’, ‘4·3사건 진실보고서’ 등이다. ‘제주4·3의 진상’이란 당연한 제목이 있었지만 이 미 다른 책자의 제목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외됐다.

진실을 찾기란 험난하다. 또한 용맹스런 용기도 필요하다. 또한 슬기도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디트리히 본회퍼(Vonhoeffler, 1906~1945).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39세 젊은 나이로 처형당한 신학자이다.

그는 광신자들을 투우장(鬪牛場)의 소에 비유했다. “바르셀로나의 투우장을 본 일이 있는가. 전투적이며 광신적 기독교도들은 투우사가 흔드는 빨간 깃발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다가 그가 감추어 두었던 날 선 칼에 찔려 쓰러지는 무모한 투우와 같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경제적 악의 간교한 실

체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흔들어대는 빨간 깃발을 실체로 알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교회지도자들은 '성공의 이상화'에 사로잡혀 간교한 권력자들과 결탁해 세속적 이익을 탐하며 신도들을 속인다고 봤다. 이상은 손규태 전 성공회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본회퍼를 소개하는 글이다.(2013. 4. 27. 조선일보)

오늘날의 중북 좌파는 북한을 떠받드는 광신자들이다. '전투적·광신적 기독교도'를 '중북 좌파들'로 말을 바꾸어도 딱 알맞은 말이다. 그들을 간교한 권력자, 3대 세습의 김정은과 결탁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1집에서 본회 창립선언문과 현길언, 권희영 교수의 강연록을 실을 수 있어 자랑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증언을 해준 마을 원로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고맙습니다"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1집

인쇄일 : 2013년 12월 23일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발행인 : 공동대표 이동해, 오균택, 홍석표

주 소 : 690-843

제주시 서광로 173(용담1동 3층)

064)711-0177

인쇄처 : 도서출판 열림문화

064)755-4856

<한정 배부>